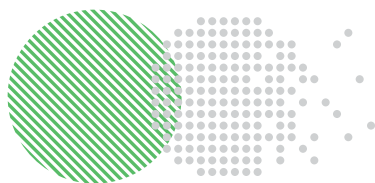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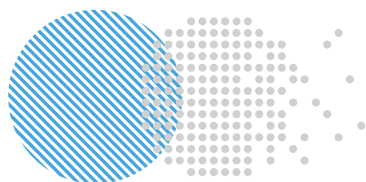


20대 초반, 후기청소년은 왜 금융이해력이 낮은가?: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 방안 연구

김지경 · 송현주 · 송원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nyp*i*



20대 초반, 후기청소년은 왜 금융이해력이 낮은가?

저 자 김지경, 송현주, 송원일

연 구 진 연구책임자_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송현주(에이치(H) 통계연구소 대표)
공동연구원_송원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보조원_문세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보고서를 펴내며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건 중 하나인 금융 웰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융 인식, 지식, 기술, 태도, 행동의 조합으로 설명되는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이 필요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에서는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각국에서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 교육을 국가 전략으로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 교육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1조의 ‘금융교육협의회’를 통해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OECD의 금융교육 전담 기구인 INFE(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에서는 국가 간 비교는 물론, 각국에서 금융이해력을 측정하여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측정 도구를 개발·보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를 활용하여 2년마다 18세~79세 성인을 대상으로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함께 발표한 2022년과 2024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의 연령대별 금융이해력 수준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20대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70대를 제외한 연령대 중 가장 낮다. 그뿐만 아니라, 19세~34세 청년의 금융 실태를 조사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조사 결과에서도 20대 초반, 즉 19세~24세 연령대가 청년층 내에서도 가장 낮은 금융이해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제까지, 어떠한 이유로 20대 초반 연령대의 금융이해력이 낮은지, 또한 낮은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되는 바가 없다.

특정 연령대이자 ‘생애 독립 전환기’의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는 20대 초반

연령대는 합리적 금융 의사결정이 일상에서 촘촘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로 금융이해력을 갖추어 실생활에 적용하는 금융 역량이 어느 정도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앞선 선행 연구의 결과에서는 20대 청년의 금융이해력, 그중에서도 금융행위의 점수가 핀테크 등 이른 시기부터 금융 생활을 경험한 10대 청소년에 비해 낮은 것이 포착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본 연구의 시작점이자 출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20대 초반,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이 왜 낮은지, 그 원인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19세~24세 후기청소년 1,814명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 특성을 양적 조사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어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과 각 요인의 영향력 크기를 체계적 실증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그리고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20대 초반 연령대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의 목표를 설정하고, 네 가지 방향과 전략, 8개의 추진 과제 및 16개의 세부 과제를 도출 및 발굴하였다.

예산 및 시간 제약하에서 단년도 과제로 작성된 결과이기에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 하나하나를 충분히 논의하고, 논의된 결과 모두를 담아낼 수 없었던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국가 수준에서 전국민의 금융이해력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70대를 제외한 성인 중 가장 낮은 금융이해력 수준을 보이는 20대 초반, 후기청소년의 낮은 금융이해력 수준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의 결과와 그것을 토대로 제안된 정책 방향 및 과제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20대 초반,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에 이어 생애 전반 연령대의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 분석을 통해 청년층 금융 교육정책의 추진 전략 및 내용을 보완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청년층 내 연령대별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이해력을 갖는 집단의 집중 지원과 금융교육 수요자 특성 및 상태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금융 교육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의미 있고 쓰임새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연구 추진의 각 단계에서 자신의 시간과 경험, 그리고 지식과 노동을 기꺼이 나누어 주신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연구 요약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최근 발표된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에서 20대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70대와 함께 전체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라는 결과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수행한 ‘청년금융 실태조사’에서 청년층(19세~34세) 중 19세~24세 연령대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가장 낮다는 사실의 포착에서부터 출발함.
-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이 낮다는 사실은 관련 조사에서 연이어 확인되고 있으나, 왜 이들 연령대의 금융이해력이 낮은지 그 이유나 원인을 설명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는 좀처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시작됨.
-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의 모색 및 제안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였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 실증분석을 단계적으로 추진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시간 흐름 선상의 앞선 단계에서 도출된 결과가 다음 단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즉 ‘순차적 통합방법 설계(sequential mixed method designs)’의 틀 안에서 다음과 같이 총 5단계로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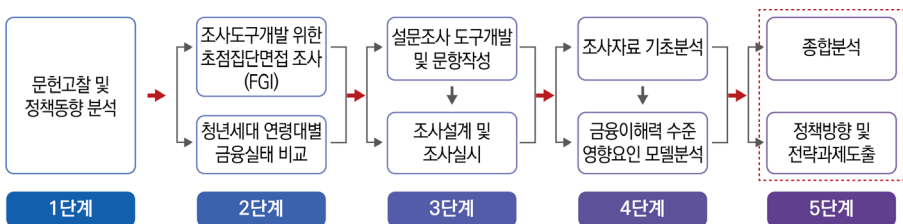


그림 1. 단계별 연구 추진 과정

■ 연구 결과

주요 연구결과

-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
 -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현재 상태를 '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준용, 세 개의 집단(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으로 비례 할당하여 총 1,814명의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 자료 확보
-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산출 및 특성별 차이 검증
 - 100점 환산 점수 기준,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68.71점
 - 세부 집단별로 비교 결과, 미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 및 금융생활 특성에 따른 금융이해력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 발견

기초 통계 및 차이 검증

- ①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8.71점(금융지식 68.35점, 행위 70.76점, 금융태도 66.04점)
- ② 금융지식 측정 항목 중 '이자 개념의 이해(78.67점)' 항목 점수가 가장 높고, '복리 개념의 이해(33.24점)'가 가장 낮으며, 금융행위 항목에서는 '평소 재무상황 점검(91.73점)'이 가장 높고, '적극적인 저축 활동(57.17점)'이 가장 낮음.
- ③ 성별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세부 집단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한데, 취업자(69.80점)-대학생(69.49점)-미취업자(66.16점) 순으로 점수가 높음.
- ④ 응답자 특성별 금융이해력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미취업자의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수가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아지는 등 세부 집단의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 다수 발견
- ⑤ 초중고 10대 시기의 경험 특성과 부모 특성에 따라 금융이해력 점수 차이가 있고, 현재 금융생활 경험이나 의식 및 태도에 따라서도 금융이해력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함.

-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구성 3요소 수준의 영향 요인 분석
 - 금융이해력 점수를 종속변수로, 응답자의 ①사회인구학적 특성, ②초중고 10대 시기 특성, ③부모 관련 특성, ④현재 금융생활 특성을 설명변수로 하는 'Robust OLS' 모델로 실증분석함.
 - 낮은 금융이해력의 원인이 되는 취약 집단 발견을 위해 다각적 접근, 총 세 가지 실증분석 모델(모델1 set~모델3 set) 구성, 각 모델의 영향 요인 및 영향력 분석
 - 모델1 set: 전체 금융이해력 및 구성 3요소(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 모델2 set: 성별 금융이해력
 - 모델3 set: 세부 집단별(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금융이해력

주요 연구결과

● 모델1 set의 분석 결과

-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 '할부 잔액의 부채 인지'

모델1 SET:
금융이해력
및 구성 3요소
영향 요인

- ① 금융이해력 총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금융이해력 구성 3요소의 영향 요인은 제각기 달라, 동일한 요인으로 금융이해력 수준과 구성 3요소를 설명할 수 없음.
- ②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은 초중고 10대 시기 경험, 부모 특성, 현재의 금융생활 특성 모두가 복합적으로 작용 하나,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은 '할부잔액 부채인식'으로 단순 정보성 금융지식이 아닌, 실생활에 금융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이 금융이해력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
- ③ 10대 시기 온라인도박이나 휴대폰 결제강과 같은 부정경험은 후기청소년기 금융이해력을 낮추는 요인임.
- ④ 부모의 금융사회화의 영향은 영향력이 크지는 않으나 20대 초반에도 여전히 통계적 유의미성이 있음.
- ⑤ 금융정체성(폐쇄형) 및 자기 신념이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임.
- ⑥ 현재 금융저축생활을 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해력을 가지며, 금융교육의 필요성 인식도 높음.

● 모델2 set의 분석 결과

- 여성 '할부 잔액의 부채 인지', 남성 '주식/채권/외화 보유'가 가장 큰 영향력

모델2 SET:
성별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

- ① 여성은 '할부 잔액의 부채 인지', 남성은 '주식/채권/외화' 보유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 결과적으로 여성은 금융지식과 인식 요인이, 남성은 금융행위 요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임.
- ② 성별 각기 다른 요인이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 동일 요인으로 남성과 여성의 금융이해력 설명 불가로,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설명이나 금융 교육 시 성별 집단의 주요 영향 요인 고려가 필요함.
- ③ 부모의 금융사회화와 역사사회화는 여성에게만 발견되나, 금융앱사용과 청년자산형성 지원 상품에 따른 영향은 남성에게서만 발견됨.

● 모델3 set의 분석 결과

- 2·3년제 대학재학 남성이 더 낮은 금융이해력을 갖는 취약 집단으로 발견됨.
- 대학생의 10대 청소년 시기 온라인도박 경험은 금융이해력을 낮추는 요인
- 대학생과 미취업자 '할부 잔액의 부채 인지', 취업자 '폐쇄형 금융정체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임.

모델3 SET:
세부 집단별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

- ① 2·3년제 대학재학 남성이 더 낮은 금융이해력을 갖는 취약 집단으로 발견됨.
- ② 대학생의 10대 시기 온라인 도박 경험, 취업자의 휴대폰 결제강 경험은 금융이해력을 낮추는 요인임.
- ③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가 금융이해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 ④ 부모사회화의 영향은 없으나 부모의 주식 등 투자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⑤ 대학생과 미취업자의 경우 '할부잔액 부채인지'의 정의 영향력이 가장 크나, 취업자의 경우 폐쇄형의 금융정체성의 부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⑥ 세 집단의 영향 요인은 동일하지 않아 성별과 더불어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접근은 현재 상태를 중심으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주요 연구결과

● 주요 영향 요인의 영향력 크기 (상위 5순위)

- ‘할부 잔액의 부채 인지’가 전체 및 여성, 대학생과 미취업자 집단에서 가장 큰 영향력, 남성은 ‘주식/채권/외화 보유’, 취업자는 ‘폐쇄형’ 금융정체성

표 1. 주요 영향 요인의 영향력 크기: 상위 5순위

순위	전체	성별		세부 집단		
		남성	여성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1	할부 잔액의 부채 인지 (0.177)	주식/채권/외화 보유 (0.170)	할부 잔액의 부채 인지 (0.204)	할부 잔액의 부채 인지 (0.145)	금융정체성_폐쇄형 (-0.204)	할부 잔액의 부채 인지 (0.244)
2	예적금 보유 (0.120)	예적금 보유 (0.151)	금융정체성_폐쇄형 (-0.138)	금융정체성_확산형 (-0.143)	주식/채권/외화 보유 (0.182)	금융정체성_폐쇄형 (-0.157)
	주식/채권/외화 보유(0.120)					
3	지각된 자기통제력 (0.118)	지각된 자기통제력 (0.134)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 (0.122)	예적금 보유 (0.140)	휴대폰 결제강/폰테크/소액결제 (-0.168)	지각된 자기통제력 (0.156)
4	금융정체성_폐쇄형 (-0.114)	할부 잔액의 부채 인지 (0.13)	주관적 금융 관리능력 (0.108)	주식/채권/외화 보유 (0.124)	연령 (0.147)	주관적 금융 관리능력(0.132)
5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 (0.112)	금융정체성_확산형 (-0.112)	거주지역_서울 (0.100)	온라인 도박 경험 (-0.106)	미끼 계좌 보유 (0.141)	-

* 주: 계수 값 0.1 이상 5순위까지 제시

● 그 외 실증분석을 통한 주요 발견

-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 두 가지 주요 이론(금융사회화, 금융정체성)이 실증적으로 검증됨 → 부모의 금융사회화는 영향력은 약하지만 후기청소년 시기까지 유효하고, 4가지 유형의 금융정체성은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에서 금융사회화 이론보다 더 강한 설명력을 가진.
- 20대 초반, 후기청소년의 주식 투자가 일명 ‘묻지마 투자’나 ‘주식 열풍’에 따라 하기가 아니라는 실증 근거 확보 → 주식/채권/외화 보유자 점수가 높음.
- 남성은 ‘경험’ 요인, 여성은 지식에 기초한 ‘인식’ 요인 중심으로 영향 미침.

■ 핵심 정책제언

핵심 정책제언

-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향상 및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네 가지 추진 방향 및 전략, 그리고 8가지 추진 과제 및 16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굴·제안함.



그림 2.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 정책 추진의 기본 체계(안)

20대초반, 후기청소년은 왜 금융이해력이 낮은가?

연구보고25-기본0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구성	8
1) 내용 및 방법의 기본 설계	8
2) 단계별 주요 내용 및 방법	10
3)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14
3. 추진 체계 및 절차	16
1) 연구 추진 체계	16
2) 연구 추진 절차	17

II.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관련 선행연구 고찰

1. 금융이해력 개념 및 측정	21
1) 개념 및 구성 3요소	21
2) 측정 내용 및 방식	23
2.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설명 이론 및 영향 요인	28
1) 설명 이론	28
2)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	32
3. 소결	37

Ⅲ. 후기청소년 금융지원 정책 동향 및 현황 분석

1. 최근 10여 년간 금융지원 정책 동향	41
1) 주요 지원 내용의 발전과 변화	41
2) 세 가지 주요 지원 사항	45
2. 후기청소년 금융교육 지원 추진 체계	56
1) 근거 법률 및 관련 법률 제정안	56
2) 추진 체계 및 내용	59
3. 소결	61

Ⅳ. 후기청소년 금융생활실태 조사도구 개발 기초 작업

1. 2차 자료에 나타난 금융생활 실태	65
1) 활용 자료 및 방식의 개요	65
2) 소득 및 지출	66
3) 자산 및 부채	68
4) 카드 사용 및 대출 관련 현황	70
2. 금융생활 실태 측정 문항 개발을 위한 FGI	79
1) FGI 조사 개요	79
2) 초점집단면접조사(FGI) 내용 및 방법	83
3)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주요 결과	86
3. 소결	102

Ⅴ.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 실태 설문조사

1. 조사개요	107
1) 설문조사 추진 및 표본 구성	107
2) 조사 내용 구성 및 측정 문항 개발	109
3)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117
4) 응답자 특성 분석	119
2.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실태 분석	129
1) 금융이해력 수준	129
2) 후기청소년 금융생활실태와 금융이해력 차이	144
3. 소결: 기초분석 결과의 종합과 실증모델 분석의 방향	169

VI.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요인

1. 분석 모델의 선정 및 변수 구성	175
1) 실증분석 모델의 구성 및 선정	175
2) 실증분석 모델의 변수	180
2.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 분석:	
Robust OLS 모델	185
1) 모델1 set: 금융이해력 및 3가지 구성 요소 수준의 영향 요인	185
2) 모델2 set: 성별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 ..	195
3) 분석 모델3: 세부 집단별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	201
3. 소결: 주요 결과 및 시사점	210

VII. 종합논의 및 정책 제언

1. 주요 결과의 요약 및 논의	217
1) 단계별 연구 추진의 과정	217
2) 실증분석 주요 결과	223
2. 주요 실증결과에 기초한 정책 개입의 방향	232
1) 취약 집단 우선 맞춤형 금융이해력 증진	232
2) '금융정체성' 탐색에서 시작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	233
3) 금융이해력 수준을 낮추는 10대 청소년기 부정 경험 영향의 완화	235
4) 세대 간 및 세대 내 격차 완화를 위한 금융교육 정책 기반의 강화	236
3. 주요 실증결과에 기초한 정책 제언	237
1) 정책 목표 및 정책 추진 방향의 설정	237
2) 정책 추진 방향에 따른 추진 전략 및 정책과제 ..	239
3) 전략별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	241

참고문헌	271
------------	-----

부 록

1. 초점집단면접조사(FGI) 개방형 질문지	282
2.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표	284
3. 실증모델 분석변수의 기초통계량	308

국문초록	325
------------	-----

Abstract	327
----------------	-----

표 목차

표 I -1. '24년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연령대별 비교	4
표 I -2. 20대 금융이해력과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수준 비교	5
표 I -3. 청년세대 연령대별 신용 점수(NICE)	6
표 I -4. 초점집단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 개요	12
표 I -5.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실태 설문조사 개요	13
표 I -6. 간담회 및 자문회의 추진 내용	14
표 I -7.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추진 내용	15
표 II -1. 금융이해력 측정 내용	24
표 II -2. '24년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금융지식 점수	25
표 II -3. '24년 청년금융실태조사 결과: 금융지식 측정 항목 정답률	26
표 II -4. '24년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금융행위 2개 항목 점수	27
표 II -5. '24년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금융태도 점수	27
표 II -6. 선행연구에 나타난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 요약	36
표 III -1. 채무조정 및 대출 지원	45
표 III -2. 채무조정 특례 지원	46
표 III -3. 중앙정부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 현황	50
표 III -4. 지자체(시도) 지역별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 현황	52
표 III -5. 맞춤형 금융교육 지원	55
표 III -6. 금융교육 정책 추진 근거 법률	57
표 III -7. 금융교육 관련 최근 발의 법안	58
표 III -8. 금융교육협의회 실무협의회	59
표 III -9. 청년기 금융교육 협업기관 주요 교육 내용 및 실적	60
표 IV -1. 연령대별 총생활비 및 항목별 월평균 가구 지출	68
표 IV -2. 연령대별 총부채 및 부채유형별 비교	70
표 IV -3. 후기청소년 월평균 카드 소비 금액	70
표 IV -4. 후기청소년 신용 및 체크카드 보유 개수	71
표 IV -5. 후기청소년 신용카드 할부 사용 금액	72
표 IV -6. 후기청소년 월평균 신용카드 리볼빙 사용 금액	73
표 IV -7. 후기청소년 월평균 현금서비스 사용 금액	74

표 IV-8. 후기청소년 대출잔액 및 업권별 비율	75
표 IV-9. 대출 건수 및 다중채무자 비율	76
표 IV-10. 연체 일수	78
표 IV-11. FGI 참여자 그룹 구성 및 섭외 기준	81
표 IV-12. FGI 그룹별 참여자 구성 및 특성	82
표 IV-13.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주요 내용 구성	83
표 IV-14.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추진 방법 개요	85
표 V-1. 할당 표본수 및 조사 완료 표본수	109
표 V-2. 조사 내용의 구성	110
표 V-3. 조사 문항 및 문항 작성의 근거	113
표 V-4. 주요 분석 내용 및 방법	118
표 V-5. 응답자의 공통 사회·인구학적 특성	120
표 V-6. 응답자 특성: 세부 집단별 특성 비교	121
표 V-7. 응답자 특성: 초·중·고 10대 시기 특성	125
표 V-8. 응답자 특성: 부모관련 특성	127
표 V-9. 금융이해력 측정 문항별 점수	131
표 V-10.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금융이해력 차이 검증	134
표 V-11. 세부 집단별 특성별 금융이해력 차이 검증	136
표 V-12. 초·중·고 10대 시기 특성별 금융이해력 차이 검증	140
표 V-13. 부모 관련 특성별 금융이해력 차이 검증	143
표 V-14. 금융사회화 및 역사사회화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147
표 V-15. 금융정체성 유형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150
표 V-16. 주관적 자기 신념 수준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151
표 V-17. 월평균 소비지출 수준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153
표 V-18. 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경험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	155
표 V-19. 저축 및 투자 여부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159
표 V-20. 미끼 계좌 개설 경험 및 금융정보 주요 습득 경로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161
표 V-21. 정부 지원 금융상품 또는 제도 가입 여부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164
표 V-22.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경험	165
표 V-23. 주관적 금융지식 수준별 금융이해력 점수	167
표 V-24.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 수준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168
표 VI-1. 종속변수 점수 산정 기준	177
표 VI-2. 실증모델의 변수 구성	182

표 VI-3.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영향 요인: 금융이해력 및 구성 3요소	187
표 VI-4. 성별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	197
표 VI-5. 세부 집단별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	205
표 VII-1.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점수: 기존 유관 조사 결과와 비교 ..	223
표 VII-2. 세부 집단별 금융이해력 점수 비교	224
표 VII-3. 각 실증모델에서 분석된 정(+)의 영향 요인 종합	226
표 VII-4. 주요 영향 요인의 영향력 크기: 상위 5순위	227
표 VII-5. 각 실증모델에서 분석된 부(-)의 영향 요인 종합	229
표 VII-6. 미취업 청년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 개요	242
표 VII-7.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 금융교육 지원 규정 명시 현황 ..	243
표 VII-8. 청년센터 분야별 사업 수행 개수 및 사업 중요도에 미치는 분야별 영향력	244
표 VII-9. 최근 실시 대학생 대상 금융교육	246
표 VII-10. 「파랏파랏 자산관리」 교재 내용 구성	247
표 VII-11. 청년 대상 금융교육 교재 내용 구성	249
표 VII-12.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Money Motivation' Tools: Money Circle Toolkit	250
표 VII-13. '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 교육 프로그램	254
표 VII-14. '도박문제예방치유원' 도박 중독 치유·재활 상담 프로그램 ..	254
표 VII-15.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도박문제 기숙형 치유크amp 프로그램 구성	255
표 VII-16. '1사1교' 금융교육 사업 개요	256
표 VII-17. '금융교육협의회' 규정 현행 법령	259
표 VII-1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260
표 VII-19.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평가 항목	263
표 VII-20. 금융감독원 지방 지원의 주요 기능 및 역할	265
표 VII-21. 정책 추진 방향 및 전략별 추진 과제 요약	266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 내용 및 방법 기본 설계	9
그림 Ⅰ-2. 주-부 패러다임 혼합 순차 설계(dominant-less dominant design)	10
그림 Ⅰ-3. 연구 추진 단계별 내용 및 방법 구성	11
그림 Ⅰ-4. 연구 추진 체계	16
그림 Ⅰ-5. 연구 추진 일정 및 절차	17
그림 Ⅱ-1. 금융이해력 구성 요소 및 확장 개념	23
그림 Ⅱ-2. 청년 금융역량의 개념적 모델	29
그림 Ⅱ-3. 청년 금융이해력 개발의 기본 틀	30
그림 Ⅲ-1. 최근 10년간 청년금융지원 주요 정책 동향	44
그림 Ⅲ-2. 중앙정부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 도입 흐름 및 현황	47
그림 Ⅲ-3. 지자체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 도입 시점 및 현황	49
그림 Ⅳ-1. 가구 및 개인 총소득 비교	66
그림 Ⅳ-2. 소득원천별 비교	67
그림 Ⅳ-3. 금융자산 및 기타 부동산 자산 비교	69
그림 Ⅳ-4. 대출 경험율 및 보유율	75
그림 Ⅳ-5. 연체 경험 및 현재 연체율	77
그림 Ⅳ-6. 연구 추진 단계에서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위치 및 활용	80
그림 Ⅳ-7. FGI 주요 내용 구성 및 진행 흐름	84
그림 V-1. 설문조사 추진 과정	108
그림 V-2. 측정 문항 개발 과정	112
그림 V-3. 자료 수집 방법 및 과정	117
그림 V-4. 금융이해력 수준	130
그림 V-5. 성별 및 세부집단별 금융이해력 수준	130
그림 V-6. 금융지식 측정 문항별 점수 비교	132
그림 V-7. 금융행위 측정 문항별 점수 비교	132
그림 V-8. 금융태도 측정 문항별 점수 비교	133
그림 V-9. 부모 금융사회화 및 역사회화	145
그림 V-10. 세부집단별 부모 금융사회화 및 역사회화	145

그림 V-11. 도래 금융사회화 및 역사회화	146
그림 V-12. 세부집단별 도래 금융사회화 및 역사회화	146
그림 V-13. 금융정체성 유형	149
그림 V-14. 주관적 자기신념: 자신감, 관리능력, 행동 통제력	150
그림 V-15. 월평균 소비지출	152
그림 V-16. 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경험	154
그림 V-17. 결제 연체 경험 및 할부 잔액 부채 인지	154
그림 V-18. 저축 및 투자 여부	157
그림 V-19. 미끼 계좌 개설 경험 및 금융정보 주요 습득 경로	160
그림 V-20. 부채 유무 및 사유와 빌려준 곳	162
그림 V-21. 지원 상품의 가입 여부 및 상품별 가입률	163
그림 V-22. 군복무 완료 여부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여부	165
그림 V-23.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금액의 사용	166
그림 V-24. 주관적 금융지식 수준 및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 수준	167
그림 VI-1. 금융이해력 수준 영향 요인의 영향력 크기 비교	191
그림 VI-2. 금융지식 수준 영향 요인의 영향력 크기 비교	193
그림 VI-3. 금융행위 수준 영향 요인의 영향력 크기 비교	194
그림 VI-4. 금융태도 수준 영향 요인의 영향력 크기 비교	195
그림 VI-5. 남성 금융이해력 수준 영향 요인의 영향력 크기 비교	200
그림 VI-6. 여성 금융이해력 수준 영향 요인의 영향력 크기 비교	200
그림 VI-7. 대학생 금융이해력 수준 영향 요인의 영향력 크기 비교	208
그림 VI-8. 취업자 금융이해력 수준 영향 요인의 영향력 크기 비교	209
그림 VI-9. 미취업자 금융이해력 수준 영향 요인의 영향력 크기 비교	209
그림 VII-1. 단계별 연구 추진 과정	218
그림 VII-2. 실증분석 주요 결과 요약	231
그림 VII-3. 정책 추진의 4가지 방향	238
그림 VII-4.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 정책 추진의 기본 체계(안)	240
그림 VII-5. '1사1교' 금융교육 사업 대상 범위 확대(안)	257
그림 VII-6.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확대 개선(안)	261
그림 VII-7. 금융감독원 지방 지원 및 관할 지역	264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 내용 및 방법 구성
- 3. 추진 체계 및 절차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어내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기제로서 금융이해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은 단기적 투자 수익에 초점을 맞추는 일명 ‘재테크’가 아니다. 개인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 그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금융 인식, 지식, 기술을 습득하는 것, 그리고 습득한 것들을 조합하여 의사결정에 적용하거나 활용하는 능력(capability)이 바로 금융이해력이다(김지경, 서정아, 송현주, 2023, p.18; 주소현, 2023, p.vi, p.1; Serido. J, 2022, p.31).

2012년 OECD는 이전까지 정립되지 않았던 금융이해력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금융이해력을 구성하는 요소를 세 가지, 즉 금융지식(Financial Knowledge), 금융행위(Financial Behavior), 금융태도(Financial Attitude)로 개념화하였다. 동시에 금융이해력이 고정적인 것이 아닌, 시간 가변적이며 하나의 구성 요소로만 설명될 수 없는 세 가지 구성 요소의 “조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강조해 왔다(김지경 외, 2023, p.18; Cude, 2022, p.2). 동시에 OECD는 금융이해력이 비단 위기 대응이나 개인의 생애 경제적 복지 수준의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 측면에서 하나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임을 설명하며 회원국들을 지원해 왔다(OECD 홈페이지, 2025.09.29. 검색; 김지경 외, 2023, p.1, 금융교육협의회, 2020.04, p.1).

구체적으로 2008년 5월에 설립된 INFE(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 이하 INFE)를 통해 각 국가에서 금융이해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화

1) 이 장은 김지경 선임연구원이 집필하였음.

된 금융이해력 측정 도구를 개발·배포 및 국가 간 비교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OECD 홈페이지, 2025.09.29. 검색; 김지경 외, 2023, pp.1-2).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OECD/INFE에서 개발된 표준 측정 도구를 준용하여 2년 주기의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OECD에 보고하고 있다. 최근 OECD에서 발표한 ‘국가별 성인 금융이해력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39개 참여국 중 8위, 20개의 OECD 회원국 중 5위에 위치한다(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25.04.29., pp.18-19;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2024.03.07., p.1).

국가 단위 수준에서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으나, 전국민 금융이해력 수준을 연령대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취약한 연령대가 한눈에 포착된다. 가령, 전년도에 실시된 ‘2024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성인(18세~79세)의 평균 금융이해력 점수는 65.7점이지만, 70대(59.3점) 노년층과 20대(62.6점)에서 전체 평균 점수보다 낮은 금융이해력 수준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2022년 조사 결과에서도 다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연령대가 가장 낮은 집단과 가장 높은 집단에서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다는 사실(주소현, 2023, p.44)에 비추어 볼 때, 70대 노년층을 제외하고 20대가 낮은 금융이해력을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2022년 대비, 전체적으로 금융이해력 점수가 소폭(0.8점)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20대의 경우 그 하락 폭, 특히 금융행위 점수의 하락 폭이 다른 어떤 연령대보다도 크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표 1-1. ‘24년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연령대별 비교

(단위: 점)

구분		전체	20대 ^{주)}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금융이해력	2022년 (A)	66.5	65.8	69.0	68.9	67.0	64.4	61.1
	2024년 (B)	65.7	62.6	67.7	68.4	67.9	64.7	59.3
	차이 (B-A)	-0.8	-3.2	-1.3	-0.5	0.9	0.3	-1.8
금융행위	2022년 (A)	65.8	66.2	70.0	67.8	65.6	62.5	59.2
	2024년 (B)	64.7	59.5	67.6	68.4	67.5	64.2	57.5
	차이 (B-A)	-1.1	-6.7	-2.4	0.6	1.9	1.7	-1.7

* 출처: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25.04.29.), ‘2024년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 결과 보도자료, p.2.
 * 주: 18세~29세

흔히 20대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30대나 40대 또는 50대에 비해 낮다는 점에 대해 본격적인 경제활동이나 사회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윤호, 2018, p.79)으로 간략하게 해석하거나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의 측정 도구와 같은 내용으로 측정한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보다 20대의 금융이해력 수준, 특히 금융이해력 점수가 크게 차이 난다는 최근의 실증연구 결과나 20대 초반, 즉 19세~24세 연령대에 해당하는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청년 연령층에서 가장 낮다는 조사 결과들을 보면, 단순히 경제활동 또는 사회진입이 본격화되지 않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금융이해력이 낮다는 원인 해석을 그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조사 시기와 방법에 차이가 있어 절대 수치를 비교하거나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2023년 확률표집으로 표집된 초·중·고생 총 8,758명을 대상으로 ‘2022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의 측정 도구를 적용하여 금융이해력을 조사·분석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점수(67.2점)가 ‘2022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로 산출된 20대의 금융이해력 점수(65.8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확인된다. 특히 금융행위 점수에서 고등학교 재학생의 점수가 20대의 점수를 크게 웃돈다(김지경 외, 2023, p.235). 바로 이것이 앞서 2022년 대비 2024년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 결과에서 하락 폭이 컸던 20대 연령층의 금융행위 점수와 겹쳐 보여 주목하게 되는 지점이다.

표 1 -2. 20대 금융이해력과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수준 비교

(단위: 점)

구분	금융이해력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고등학교 재학생 ^{주1)}	67.2	74.4	71.6	48.2
20대 청년 ^{주2)}	65.8	74.9	66.2	48.9

* 출처: 김지경 외(2023).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 p.235.

* 주: 1) 2023년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실태조사 결과
 2) 2022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20대의 금융행위 요소의 점수가 낮다는 것은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득과 지출을 관리하며, 적절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것(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25.04.29., p.8), 즉 금융소비자로서 적정 금융 생활을 위해 취하는 행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대 고등학생들은 인터넷 전용 은행과 핀테크의 발전으로

이른 시기부터 청소년 전용 카드 및 계좌, 각종 금융서비스를 사용한 세대이자, 정부의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로 금융교육의 기회가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특성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20대보다 일상생활에서 접한 누적된 금융 정보 및 선택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기에 그러한 경험의 영향으로 금융행위 점수가 높다는 결과는 일정 부분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20대의 낮은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이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특정 연령 집단, 즉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이 가장 낮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23년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금융실태조사’에서 확인된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39세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측정된 금융이해력 평균 점수는 64.64점이지만, 19세~24세 연령대의 평균 점수는 그에 못 미치는 62.52점으로 낮다(서민금융진흥원, 2023.12, p.15.; 아시아경제, 2024.10.17.). 또 다른 측면에서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용 점수이다. 같은 조사에서 분석된 개인신용 점수, 즉 개인의 다중채무, 부채 규모 및 상환 이력, 연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점~1,000점까지 점수를 산출한 신용평가 점수에 있어, 신용카드 발급이 되지 않는 600점 미만의 저신용 비율이 조사된 청년층 중 19세~24세(3.3%)가 가장 높다는 점이다(서민금융진흥원, 2023.12, p.529; ㈜NICE평가정보, 2025.09.30. 검색).

표 1-3. 청년세대 연령대별 신용 점수(NICE)

(단위: %, 점)					
구분	전체	19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35세~39세
신용점수 600점 미만	2.2	3.3	1.8	2.2	1.7
신용점수 평균	865.42	777.28	845.65	892.16	916.45
신용점수 중위값	900.00	777.00	866.50	920.00	945.00

* 출처: 서민금융진흥원(2023.12). 「청년금융실태조사 보고서」, p.529 <표 454>에서 일부 발췌 및 재구성.

* 주: NICE 신용점수 0~1,000점, 신용카드 발급 기준 680점

이와 같은 사실에 주목하는 이유는 20대를 구성하는 특정 세부 연령대, 즉 19세~24세가 20대 전반의 금융이해력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특정 연령대가 일명 ‘독립 전환기(from adolescent dependence to adult independence)’라는 생애 단계에 해당하는 연령대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부모의

지도나 사회적 통제의 영향은 약해지는 것과 동시에 자기 규제 행동(self-regulated behavior)으로 대체되는 시기이고, 자립생활과 같은 성인 이행기 재정 책임의 증가와 성인 역할에 따른 책임이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Serido, J, 2022, pp.31-32).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더 복잡한 재정적 측면의 많은 선택을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시기이기에 다른 연령대 못지않은 수준의 금융이해력이 요구되지만, 오히려 현실에서 나타나는 흔적들은 이 시기에 놓인 19세~24세 후기청소년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금융이해력을 갖는 취약 연령 집단이라는 사실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고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이에 대한 실증연구나 설명의 실마리를 찾을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년 주기로 반복 측정되는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나 최근 1~2년 사이의 실태조사 및 실증분석 연구를 통해 20대, 그중에서도 20대 초반인 19세~24세 연령대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가장 낮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분명 한 것은 19세~24세 후기청소년이 직면한 오늘의 상황은 자립생활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그 가운데 선택의 의사결정이 촘촘하게 일상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정작 이 시기에 요구되는 금융이해력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이 왜 낮은지,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 이들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금융이해력을 보이는가를 체계적 실증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들 세대의 금융이해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가 가장 취약한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증진하는 데 유용한 실증 자료가 되고, 후기청소년 세대가 사회안전망으로서 향상된 금융이해력을 갖추어 나가는 데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세~24세 후기청소년을 '상태' 중심으로 세분화하여 접근함으로써 금융이해력 향상이 우선 필요한 정책 타겟(target) 집단을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동시에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과 각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이들 연령대의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한 정책 접근이 어느 방향과 어떠한 지점부터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실증 근거를 확보하고자 한다. 나아가 확보된 실증 근거에 기초하여 현행 정책의 보완 및 새롭게 추진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실현 가능성을 살펴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구성

1) 내용 및 방법의 기본 설계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을 측정하는 측정 도구는 OECD 산하 INFE에서 개발하여 각국에 보급하고 있는 표준화된 측정 도구가 있다. 우리나라도 OECD의 표준 측정 도구를 사용한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를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기에 금융이해력을 측정하는 양적인 도구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문제는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에 필요한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특성과 개인 단위의 금융생활 실태자료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국가승인 통계 중 후기청소년 연령대를 포함하는 청년 대상 실태조사가 한두 가지 있기는 하나, 금융생활에 관한 사항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기 위하여 금융이해력과 관련한 선행 연구 중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들 연령대를 포함하는 실증연구를 중심으로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부터 고찰하였다. 이어 선행 실증연구들에서 논의되거나 설명된 이론, 그리고 분석 결과들을 통해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대략적인 범주를 파악하였다. 또한 정책 측면에서 후기청소년을 포함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해왔는지도 시간 흐름 선상에서 살펴봄으로써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환경도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내용만으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후기청소년의 특성과 이들의 구체적인 금융생활의 경험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얻기 어렵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 당사자의 경험을 질적 방법으로 직접 청취하여 금융생활 실태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확보하여 자료화하고, 이를 기초로 금융생활 실태를 측정하는 조사 문항을 개발·작성하고자 하였다. 개발·작성한 문항은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측정과 더불어 금융생활 실태조사 문항으로 구성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양적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후 구성된 연구 내용을 체계적인 틀에 담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다양한 연구 방법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통합연구방법(Mixed Methodology)’ 중 시간 흐름 선상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순차적 통합방법설계(sequential mixed method designs)’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왜냐하면, 앞선 단계에서 질적 방법으로 확보된 후기청소년의 특성 및 금융생활 실태 정보로 이어지는 다음 단계, 즉 문항 개발 및 작성 단계에서 자료로 활용하고, 작성된 문항은 다시 다음 단계인 설문조사에서 조사 도구로 활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첫 번째 방법에서 나온 결과를 두 번째 방법의 정보로 쓰는, 즉 제 방법의 순차적 활용은 ‘통합연구방법(Mixed Methodology)’이 갖는 다섯 가지 연구 목적 중 하나에 해당하며, 이를 다양한 유형의 통합연구방법 중 ‘순차적 통합방법설계(sequential mixed method designs)’로 분류한다(Tashakkori & Teddlie, 2001, p.71, 박스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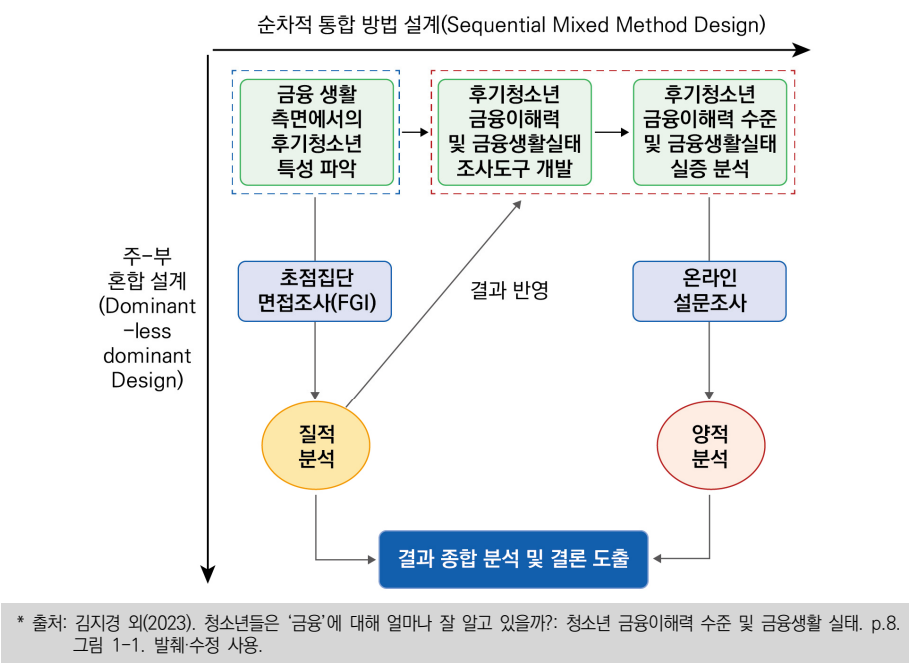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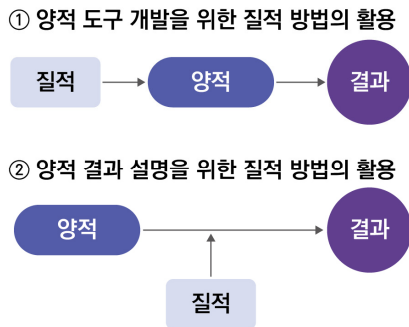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 내용 및 방법 기본 설계

한편, 구체적인 방법 측면에서도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병렬적으로 활용하는지, 접근 방식을 복수로 활용하는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설계가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순차적 설계와 동시적 설계가 가능한 ‘주-부 혼합설계(dominant-less dominant

designs)’를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연구 과정에서 질적 방법을 활용하기는 하나, 그것은 궁극적인 연구 결과의 도출이 아닌,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는 데 필요한 양적 자료를 얻기 위한 중간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의 ‘주-부 혼합설계(dominant-less dominant designs)’의 구체적인 연구 방법의 구성은 ‘qual-QUAN’ 형태에 해당하며, 주된 방법은 양적 방법이고 보조적인 방법으로 질적 방법이 연계된 형태이다(Tashakkori & Teddlie, 2001, p.78, 박스 3.2, p.81, 박스 3.4). 다만, 보조적인 질적 방법이 양적 설문조사 도구를 개발하는 데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증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논의하는 단계에서도 해석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 출처: Tashakkori, A. & Teddlie, C. (2001). 「통합연구방법론(Mixed Methodology)」, p.78, [박스 3.2 질적-양적 방법 통합을 위한 시나리오 예] 발췌·재구성.

그림 1-2. 주-부 패러다임 혼합 순차 설계(dominant-less dominant design)

2) 단계별 주요 내용 및 방법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순차적 통합방법설계(sequential mixed method designs)’와 ‘주-부 혼합설계(dominant-less dominant designs)’라는 기본 틀 안에서 총 네 단계로 구성되었다. 단계별로 구성된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연구의 방향과 주된 내용 및 방법을 구성하였다. 정책연구로서 본 연구가 왜 수행되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의 논거를 문헌 고찰을 통해 마련하고, 정책자료 검토를 더해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며, 설정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업무협약과 정책협약을 통해 구성된 내용 및 방법으로 도출될 연구 결과가 어떠한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가를 탐색하고, 설계된 연구 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외부 자원의 연계 또한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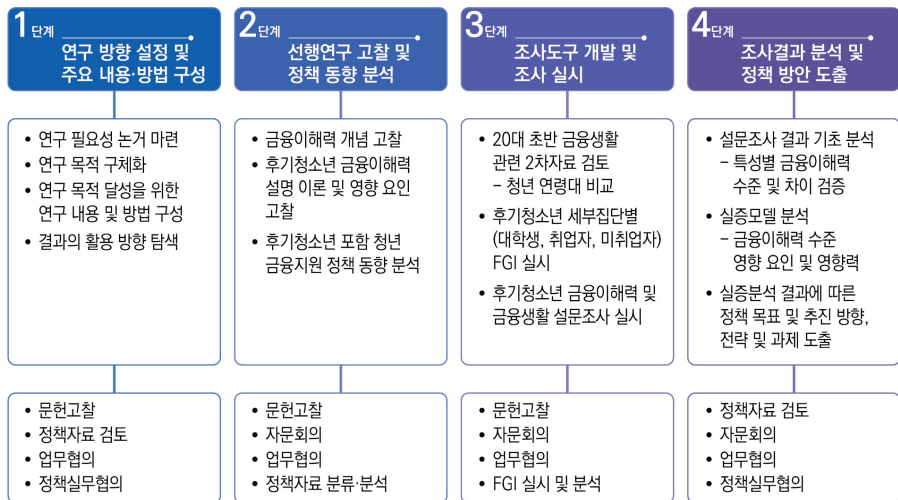


그림 1-3. 연구 추진 단계별 내용 및 방법 구성

2단계에서는 선행연구 고찰 및 정책 동향 분석이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금융이해력의 개념과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을 생애 단계 및 발달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설명하는 금융 사회화 및 금융정체성 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에 영향 요인을 선행 실증연구를 통해 검토하였다. 또한 19세~24세 후기청소년 연령대를 포함하는 기간의 청년세대 금융지원과 관련한 최근 정책 동향을 시간 흐름 상에서 분석하고, 주요 정책 사업을 정부가 발표한 정책자료를 중심으로 분류·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증진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로서의 현행 법률 및 규정을 검토하고,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유관 법률도 함께 검토하였다.

3단계에서는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도구의 개발 및 조사 실시가 추진되었다. 조사 도구의 개발을 위해서는 앞선 선행연구 및 정책자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후기청소년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가 실시되었고, 이와 함께 후기청소년 연령대를 포함하는 청년세대 금융생활에 관한 2차

자료가 연령대 비교를 중심으로 검토되었다.

초점집단면접조사(FGI)는 <표 I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실시에 앞서 계획 내용에 대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가 완료된 후 추진하였으며, 앞선 2단계에서 고찰된 선행연구 및 정책자료 검토의 결과를 토대로 후기청소년을 6개 그룹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6개 집단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 세 집단(대학재학, 취업, 미취업)과 학제(2·3년제, 4년제) 또는 학력 수준(고졸, 대졸)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구성되었고, 구성된 후 집단별 참여자가 모집·선정되었다. 면접조사는 반구조화된 질문을 중심으로 각 그룹의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취된 자료는 전사를 거쳐 분석되었다. 분석된 결과는 구조화를 거쳐 문항으로 개발·작성된 후 다음 단계의 설문조사에 반영되었다.

표 I -4. 초점집단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 개요

구분	내용
대상 및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세~24세 후기청소년 총 6개 그룹 1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재학생 2개 그룹(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 취업자 2개 그룹(고졸, 대졸) - 미취업자 2개 그룹(고졸, 대졸) • 집단 구성 및 집단별 참여자 섭외 기준 마련하여 적용
실시 기간	• 2025년 4월 15일 ~ 4월 25일
면담 장소	• 사전 안내된 지정 장소로 참여자 내방
면담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모집 및 섭외 과정에서 반구조화된 질문 사항 미리 제공 •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설명에 이어지는 도입 질문 후, 그룹별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
면담 횟수 및 시간	• 그룹별 면접조사 시간은 기본 90분, 최대 1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진행
기록 및 녹취	• 섭외 과정에서 기록 및 녹취에 대해 동의를 구한 후, 면접조사 당일 참여 직전에 다시 한번 면접조사 내용 녹취에 대한 구두 설명과 동의 확인 후 시작
면담자	• 연구진
IRB 심의	• 2025년 3월 31일 심의 완료

한편, 초점집단면접조사(FGI)와 함께 조사도구 개발을 위해 검토된 2차 자료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수록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의 소득 및 지출, 자산 및 부채 자료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금융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수행한 신용평가사 보유

DB분석 자료 중 금융서비스 이용 현황 발췌 자료이다. 이를 통해 19세~24세 후기청소년 금융생활 실태 및 현황을 청년층 내 연령대별 비교를 통해 대략적인 윤곽(outline)을 그려보고, 설문조사에 반영할 주요 사항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앞선 2단계의 선행연구 및 정책자료의 검토 결과에 초점집단면접조사(FGI)와 2차 자료 분석 결과를 더하여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도구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표 I-5>와 같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추진하였다. 모집단은 조사가 시작되는 2025년 7월 1일 기준, 19세~24세 후기청소년이고, 예산 제약하에서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1,800명을 목표 표본수로 설정하였다. 표본추출틀이 부재하기에 2024년 5월 기준 발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준용하여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우선 구분하고, 초점집단면접조사(FGI)에서와 같이 학제와 학력 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표집 집단을 구성한 후, 비율이 적은 취업자 집단의 경우 실증분석이 가능한 최소 표본 확보의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여 적용하였다.

표 I-5.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실태 설문조사 개요

모집단	• 19세~24세 후기청소년 (2025년 7월 1일 기준)			
목표 표본수	• 1,800명			
표본 할당 방법	• '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준용하여 대학 재학생과 최종학교 졸업자 비례 할당 - 대학 재학생 학제(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비례 할당 - 졸업자 학력(고졸, 대졸) 비례 할당			
할당 표본수	• 표본 수			
	(단위: 명)			
	구분		표본 수	
	대학 재학생 (1,000명)	2·3년제 대학		370
		4년제 대학		630
	최종학교 졸업자 (800명)	고졸 (240명)	취업자	최소 70
			미취업자	최대 170
		대졸 (560명)	취업자	최소 170
			미취업자	최대 390
조사 시기	2025년 7월 10일 ~ 8월 9일			
자료수집 방법	• 통신사 DB활용, 온라인 설문 링크 발송 후 조사 응답 진행			
IRB심의	• 2025년 7월 9일 심의 완료			

4단계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기초 분석과 실증모델 분석, 그리고 실증 분석 결과에 기초한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의 도출이 이루어졌다. 기초 분석으로는 후기청소년 특성별 금융이해력 수준과 특성별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이 이루어졌다. 실증모델 분석에서는 후기청소년 전체 및 세부 집단(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각 요인이 갖는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이어 실증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후기청소년의 낮은 금융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증진 방안의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 목표의 설정,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3)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이상의 연구 내용 및 방법 이외, 각 단계의 내용을 보다 완성도 높게 추진하고, 정책 실효성과 함께 현실 밀착도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간담회 및 자문회의, 그리고 관계부처와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하나의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간담회 및 자문회의는 총 6차례에 진행되었다. 한 차례 있었던 간담회는 연구 초기 단계에서 ‘금융이해력’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는 경제전문지 기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들의 시각을 공유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다섯 번의 자문회의에서는 중간 과정에서 진행된 내용의 점검이나 주요 사항에 대한 논의, 개발·작성된 설문 문항 또는 분석 결과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정책 제언의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표 1-6. 간담회 및 자문회의 추진 내용

차수	주요 내용	참석	개최 시기
1차	청소년 금융이해력 주제 관련 기자 간담회	언론사 2인	4.25
2차	초점집단면접조사 및 2차 자료 주요 사항 논의	정책연구자 2인	6.11
3차	설문 문항 개발·작성 내용 검토 및 자문	후기청소년 10인	6.26~27
		연구 및 조사전문가 5인	6.27
4차	최근 발의 법안 연구 결과에 연계 가능성 검토	입법전문가 1인	9.5
5차	실증분석 결과 검토 및 정책 방향 논의	학계 및 정책연구자 2인	9.10~9.11
6차	도출된 정책과제 검토	정책연구자 및 법률 전문가 3인	10.15

자문회의와는 별도로 정책연구실무협의회도 진행되었다. 본 연구가 정책연구인만큼 연구를 통해 도출된 최종 결과가 현실 밀착도 높은 정책과제로 제안되고, 정책 활용의 실현 가능성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관계 법률을 제·개정하는 국회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총 5회의 관계 부처 및 국회와 협의하였다.

먼저, 두 차례에 걸친 성평등가족부와와의 협의는 기본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과 제(1-2-1-3. 금융·경제 분야 청소년 교육 실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계획의 수립 단계 및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 단계에서 우선 추진하였다(여성가족부, 2023.06, p.44, p.102). 그사이 추진 과정에서 후기청소년의 낮은 금융이해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과 연구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연구 진행에 필요한 협조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실증분석의 결과에 비추어 20대 청년의 금융자산, 특히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후, 연구 기간이 만료되는 11월 말까지 연구 결과의 정책화 논의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때의 협의 부처는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금융이해력과 관련한 금융교육 정책 추진(국정과제 82, 100)을 명시한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대한민국 정부, 2025.09, p.130, p.158). 또한 4월 국회와의 정책실무협의회 시 결과 공유에 대해 협의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논의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표 1-7.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추진 내용

차수	주요 내용	관계부처	개최 시기
1차	실행계획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후속 논의	성평등가족부	2.26, 3.7
2차	연구 추진 내용 및 관련 자료 공유 향후 진행과정에서의 협조 사항 논의	국회	4.10
3차	연구 추진 내용 새정부 청소년정책 범주 내에서 정책화 가능성 타진 및 논의	성평등가족부	7.3
4차	실증분석 결과에 비추어 본 20대 청년 금융자산(주식 및 가상화폐 등) 투자 논의	금융위원회	9.8
5차	국정과제 금융교육 추진 관계 부처와 정책화 협의 및 국회 세미나 협의	금융위원회, 교육부 등 국회	추후 예정

3. 추진 체계 및 절차

1) 연구 추진 체계

앞선 연구 내용 및 방법은 주어진 연구 기간과 예산 제약하에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사항들로 구성된 것이다.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 내용과 방법에 적합한 추진 체계 또한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의 총괄하에 [그림 I-4]와 같이 총 세 개의 부분으로 추진 체계를 구성하였다. 하나는 기관의 과제 연구진 기본 구성 요건으로 구성되는 내부 연구진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 연구자이며, 나머지 하나는 연구 방법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수행되는 질적·양적 조사를 지원하는 조사전문업체이다. 이와 함께 고정된 연구 추진 체계로 포함되지는 않으나, 추진 과정의 각 단계에서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 등을 통해 협력하는 이들도 연구에 참여하는 행위자(agent)이므로 함께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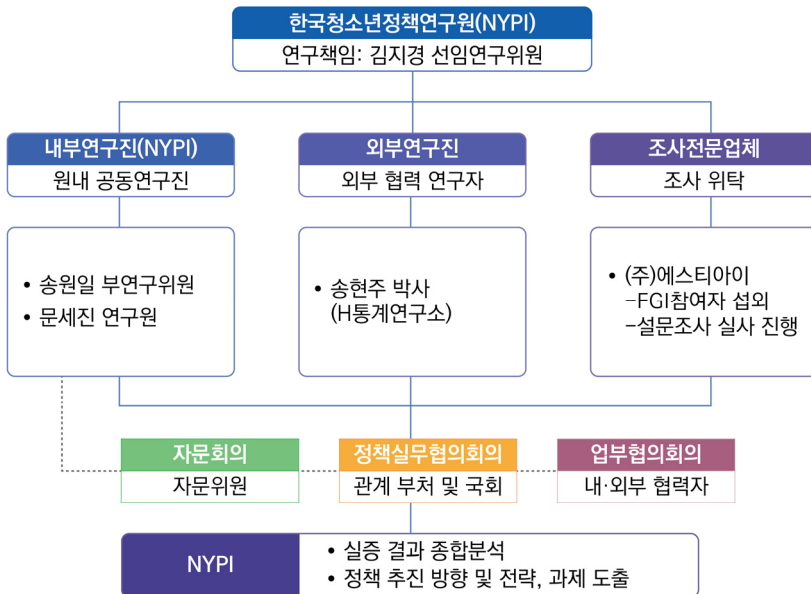


그림 I-4. 연구 추진 체계

2) 연구 추진 절차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시간 흐름에 따라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렇기에 연구 추진의 절차 또한 기관의 연구 관리 일정을 준수하고 주어진 연구 기간 내에 단계별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을 [그림 I-5]와 같이 계획한 후, 일정에 맞추어 이행하였다.



그림 I-5. 연구 추진 일정 및 절차

○ — 제2장 후기청소년 금융 이해력 관련 선행연구 고찰

- 1. 금융이해력 개념 및 측정
- 2.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설명 이론 및 영향 요인
- 3. 소결

1. 금융이해력 개념 및 측정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여기에서는 2012년 OECD가 정립한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의 개념 및 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금융 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함.
- 또한 이들 개념이 OECD가 개발·보급하여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 활용하고 있는 금융이해력 측정 도구에 어떠한 내용으로 반영되었고,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되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최근 측정된 결과 중 19세~24세 후기청소년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함께 살펴봄.

1) 개념 및 구성 3요소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이란 “건전한 금융 의사 결정을 내리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금융 웰빙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금융 인식, 지식, 기술, 태도, 행동의 조합”으로 정의된다(OECD, 2023, p.13). 이 정의는 2012년 OECD가 그간 연구자들이 저마다의 관점과 논리로 금융이해력을 설명하기는 하나, 명확한 개념의 틀이나 합의된 내용이 없다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조직 산하 INFE(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를 통해 개념화한 것이다. 이것이 현재까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 개념이다(김지경 외, 2023, p.18).

개념에 기술된 바와 같이, 금융이해력은 단일 사항으로 설명되지 않고, 금융지식, 행위, 태도라는 세 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바로 “조합”이다. 세 가지 요소의 조합이 강조되는 이유는 개인이 금융상품의 선택과 같은 어떠한 금융 행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금융태도라는 요소가 선택의 의사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OECD, 2023, p.25), 실제 금융지식의 수준과 행동 사이에

2) 이 장의 1.과 3.은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2.는 김지경 선임연구위원과 송현주박사가 함께 집필하였음.

는 차이의 틈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주소현, 2023, pp.36-37).

그렇다면, 금융이해력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각각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우선, 금융 지식(financial knowledge)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비교하고, 적절한 정보를 취하고 그에 따라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의 보유 정도(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25.04.29., p.7)로 설명된다.

구체적으로 금융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제 원리나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용어,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거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품의 가격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 등 금융시장의 작동 방식과 상품의 특성과 가격 변동에 대해 이해하는 것 등이 금융지식의 정도에 포함되는 사항이다(주소현, 2023, p.32). 후기청소년을 포함하여 청년층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 증진 프로그램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지식이 금융이해력 발달의 출발점 역할을 하며, 금융지식수준의 변화가 금융태도의 변화와 그에 따른 금융 행동의 변화를 촉발한다(Serido, 2022, p.32).

금융행위(financial behavior)는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소득과 지출 관리 등 금융 생활과 관련하여 개인이 취하는 행동의 적정성(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25.04.29., p.8)으로 설명된다. 개인의 재무 설계는 단기 투자나 금융상품의 수익률 달성, 또는 자산 증식에 초점을 두는 일명 ‘재테크(財tech)’가 아니고, 삶의 목표 설정 후 그 목표를 개인의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자원을 활용하면서 달성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저축 및 장기계획의 수립, 소득과 소비 관리, 신중한 구매, 신용 관리, 적절한 부채의 사용, 은퇴와 노후 준비 등이 모두 포함될 만큼 그 범위가 넓다(주소현, 2023, p.vi, x; Cude, 2022, p.9).

이어 금융태도(financial attitude)는 소비와 저축, 현재와 미래, 돈의 존재가치 등에 대한 선호도를 의미한다(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25.04.29., p.9). 금융태도를 개념화하고 측정 도구를 개발한 OECD의 기준을 따르면, 저축을 선호하고 장기적 시각과 관점을 갖는 이들에게 높은 금융태도 점수를 부여한다(Cude, 2022, p.9). 일반적으로 금융태도는 금융지식과 함께 금융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된다.

시간이 거듭될수록 금융지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서 금융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금융이해력을 적용하고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역량(financial capability or financial competency)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금융

이해력(financial literacy)과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을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여 사용하고 있기도 하나, 개념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앞서 기술한 OECD가 정립한 금융이해력의 개념에도 포함된 바와 같이, 금융이해력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삶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금융 웰빙(financial well-being)을 달성하기 위함이고, 그 과정에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금융이해력이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림 II-1. 금융이해력 구성 요소 및 확장 개념

2) 측정 내용 및 방식

앞서 설명한 금융이해력 수준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OECD에서는 2008년 산하 조직으로 설립된 INFE(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를 통해 측정 도구를 개발·보급하였다.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OECD/INFE가 개발한 측정 내용 및 방법을 준용하여 2012년부터 18세~79세를 대상으로 2년 주기의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4년에 실시된 조사가 일곱 번째에 해당한다(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25.04.29., p.18).

OECD/INFE가 개발한 금융이해력 측정 내용은 금융이해력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별로 구분되어 있고, 총 배점 20점을 기준으로 요소별 배점 또한 부여된다. 가령 금융지식은 총 7개 항목을 측정하면서 각 1점, 총 7점이고, 금융행위는 8개 항목으로 측정하지만, 하나의 항목에 배점을 2점 그 외 항목은 1점씩 배점하여 총 9점이다. 금융태도에는 3개의 항목으로 측정하고, 한 항목당 1.3333점의 배점을 부여한다.

표 II-1. 금융이해력 측정 내용

영역	분류	배점	비고
금융지식 (7문항)	인플레이션과 구매력	1	정답은 1점, 그 외는 0점
	이자 개념의 이해	1	
	단리 계산	1	
	복리 개념	1	
	위험과 수익간 관계	1	
	인플레이션 의미	1	
	분산투자 개념	1	
	소계	7	
금융행위 (9문항)	가계예산 관리 노력	1	가계예산 관리 노력 1점
	적극적인 저축 활동	1	저축 경험 있는 경우 1점, 그 외 0점
	신중한 구매	1	'매우 동의' 또는 '동의'의 경우 1점, 그 외 0점
	청구대금 적기 지급	1	
	평소 재무상황 점검	1	
	장기 재무목표 설정	1	
	정보에 입각한 금융상품 선택	2	전문적인 금융정보 또는 자문 이용 2점, 광고, 브로셔 또는 일반정보 이용 1점
	가계수지 적자 해소	1	차입에 의존 0점, 그 외 1점
	소계	9	
금융태도 (4문항)	저축보다 소비 선호	1.33	'매우 동의' 0점, '동의' 0.25점, '보통' 0.5점, '대체로 반대' 0.75점, '완전 반대' 1점
	미래보다 현재 선호	1.33	
	돈을 쓰기 위해 존재	1.33	
	소계	4	
금융이해력(합계)		20	

* 출처: 금융감독원, 한국은행(2025.04.29.). '2024년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 결과 보도자료, p.20.

금융지식을 측정하는 7가지 항목은 인플레이션과 이자 개념의 이해와 단리 또는 복리를 이해하여 계산할 수 있는가의 다소 수리적인 계산 능력, 위험과 수익 관계 및 분산투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대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성인의 가장 이해도가 낮은 항목은 ‘복리 개념’이다.

총 7개 항목, 각 1점씩 7점으로 측정한 금융지식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한 ‘2024년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금융지식 요소의 평균 점수는 73.6점이지만, 복리 개념을 측정한 항목의 점수는 이보다 크게 낮은 44.9점이고, 후기청소년을 포함하는 20대 점수(45.3점)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2. '24년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금융지식 점수

(단위: 점)

구분		전체	20대 ^{주)}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금융지식 7개 항목 평균		73.6	73.3	76.4	76.6	76.3	71.1	63.1
측정 항목	인플레이션과 구매력	56.6	56.3	57.9	59.1	56.7	56.3	50.5
	이자 개념 이해	96.7	95.4	97.9	99.0	98.8	95.2	91.0
	단리 계산	75.2	73.2	81.0	80.5	79.5	70.6	58.6
	복리 개념	44.9	45.3	51.6	49.3	49.2	40.2	24.7
	위험과 수익간 관계	90.6	91.3	94.1	90.0	90.9	90.3	85.2
	인플레이션 의미	80.8	80.0	80.8	83.5	85.6	78.5	70.7
	분산투자 개념	70.6	71.8	71.5	74.6	73.2	66.8	60.9

* 출처: 금융감독원, 한국은행(2025.04.29.). '2024년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 결과 보도자료, p.16 발췌·재구성.
 * 주: 18세~29세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측정한 결과는 아니지만, ‘복리 개념’에 대한 후기청소년의 이해 수준이 청년층 연령대에서 가장 낮다는 조사 결과가 발견된다. 예컨대 서민금융진흥원이 실시한 ‘2024년 청년금융실태조사’ 결과에서 금융지식을 측정하는 항목 중 복리 개념이 반영된 5년 뒤 정기예금 계좌의 금액 항목의 정답률을 살펴보면, 5가지 항목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특히 청년층 내 세부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면, 후기청소년인 19세~24세에서 유독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3. '24년 청년금융실태조사 결과: 금융지식 측정 항목 정답률

(단위: 명, %)

구분	청년 전체	19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사례수(비율)	1,624(100.0)	494(30.4)	558(34.4)	572(35.2)
1년 후에 받을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	59.1	55.1	58.4	63.1
정기예금 1년 뒤 계좌 금액	58.6	56.3	58.1	61.0
정기예금 5년 뒤 계좌 금액	46.9	39.9	50.0	49.8
수익률이 높은 투자는 상대적으로 큰 위험을 수반할 것임	80.8	78.7	80.6	82.7
높은 인플레이션은 생활비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함	84.5	83.4	83.0	86.9

* 출처: 서민금융진흥원(2024. 12). 「청년금융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281에서 발췌 및 재구성.

한편, 금융행위를 측정하는 8가지 항목은 일상생활에서 적정한 재무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예산관리나 저축 활동을 하는지, 상품 구매 시 정보에 입각한 신중한 구매를 하는지, 청구되는 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는지, 평소 재무 상황을 점검하고 가계수지의 적자 해소를 위해 적절한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장기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려고 노력하는지가 이에 해당한다. 2점 배점의 항목은 '정보에 입각한 금융상품 선택'이다. 주어진거나 활용하는 정보의 유통 채널이 다양하고 행위 범위가 넓기에 다른 항목에 비해 배점을 높게 설정한 측면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정보에 입각한 건전한 금융 의사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파악된다.

앞서 금융이해력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의 개념 정의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금융이해력이 실제 금융 생활에 적용되고 발휘되는 '금융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금융행위에서 측정되는 항목 각각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2022년과 2024년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 결과에 나타난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행위는 전반적으로 낮아진 상태이다. 특히 후기청소년을 포함하는 20대의 금융행위 점수는 2022년 대비 2024년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이고, 8가지 항목 중 평소에 재무 상황을 점검하는지, 장기 재무 목표를 설정하였는지의 항목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인다.

표 II-4. '24년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금융행위 2개 항목 점수

(단위: 점)

구분		전체	20대 ^{주)}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평소 재무상황 점검	2022년 (A)	55.7	55.8	55.7	57.2	56.8	54.6	51.2
	2024년 (B)	43.4	33.2	45.9	48.8	48.8	41.9	41.9
	차이 (B-A)	-12.3	-22.6	-9.8	-8.4	-8.0	-12.7	-9.3
장기 재무목표 설정	2022년 (A)	48.0	48.0	53.7	50.3	51.1	39.8	41.7
	2024년 (B)	42.5	36.1	47.5	45.1	47.2	42.5	29.9
	차이 (B-A)	-5.5	-11.9	-6.2	-5.2	-3.9	2.7	-11.8

* 출처: 금융감독원, 한국은행(2025.04.29.), '2024년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 결과 보도자료, p.3 발췌·재구성.

* 주: 18세~29세

금융태도는 총 3가지 항목으로 측정하는데, 저축보다 소비를 선호하는지와 미래보다 현재를 선호하는지, 그리고 돈은 쓰기위해 존재한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한다. 측정 점수는 소비보다는 저축, 현재보다는 미래, 돈은 쓰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방향으로 동의 정도가 강할 때 금융태도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산출된다. 앞서 살펴본 금융행위와는 달리, 금융태도 점수는 전반적으로 2022년에 비해 2024년 높아졌고, 그중에서도 후기청소년을 포함하는 20대의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표 II-5. '24년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금융태도 점수

(단위: 점)

구분	전체	20대 ^{주)}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22년 (A)	52.4	48.9	50.9	53.0	52.6	53.8	57.6
2024년 (B)	53.7	50.8	52.7	53.8	54.4	54.9	56.8
차이 (B-A)	1.3	1.9	1.8	0.8	1.8	1.1	-0.8

* 출처: 금융감독원, 한국은행(2025.04.29.), '2024년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 결과 보도자료, p.9 발췌·재구성.

* 주: 18세~29세

이상과 같이 살펴본 OECD/INFE의 금융이해력 측정 내용 및 방식을 19세~24세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이해력 측정에 적용한다면, 국가 단위 및 국제 표준화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우선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같은 측정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조사를 통해 포착되는 후기청소년의 낮은 금융이해력과 구체적인 취약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본 연구를 통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OECD/INFE의 금융이해력 측정 도구만으로는 본 연구의 목적인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별도의 문항과 항목을 개발·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설명 이론 및 영향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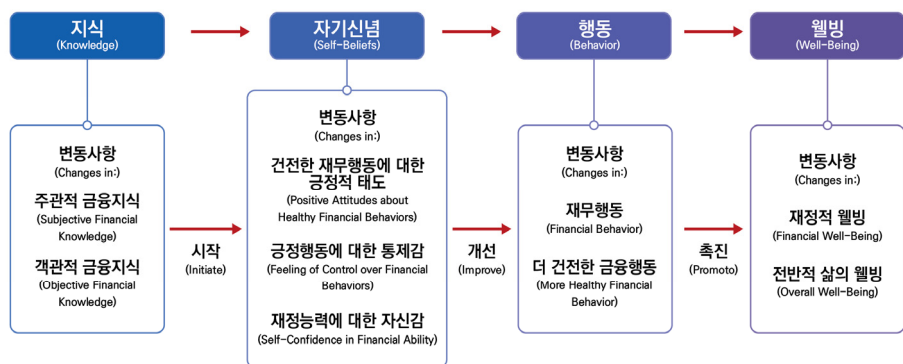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여기에서는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 일반 이론과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 주된 이론 두 가지(①금융사회화 이론, ②정체성 형성 이론)를 간략하게 논의하고,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을 살펴봄.

1) 설명 이론

(1)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 일반 이론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 이론은 어떠한 점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는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개인의 신념이나 심리적 욕구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여기에는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이나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이 해당된다. 이들 이론에서는 금융과 관련된 행동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개인이 그 자체에 가치를 느낀다거나 동기가 있어야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김지경 외, 2023., pp.22-23; Antia & Nocile., 2022., pp.18-19). 이와 같은 설명을 청년 금융역량의 개념 모델인 [그림 II-2]에 적용해보면, 행동 단계에 앞서 자기 신념에 따른 가치와 동기가 발생할 때, 금융행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금융역량을 증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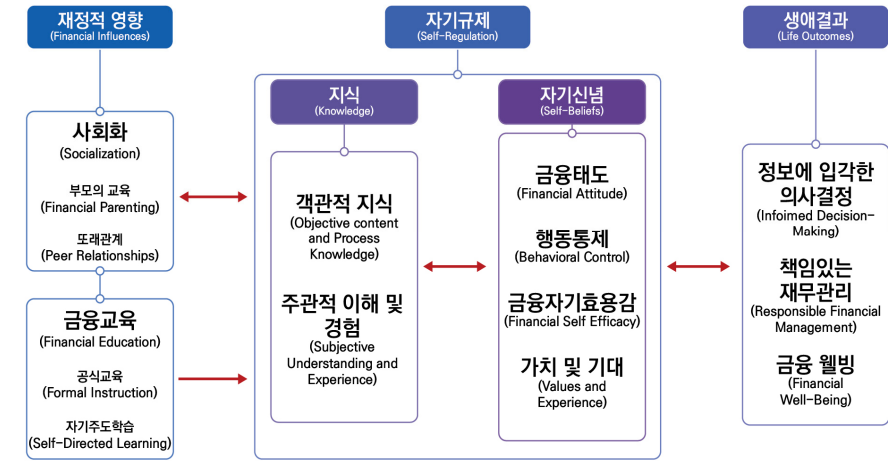
* 출처: Serido(2022). 3. Financial Literacy among Young Adults, The Routledge Handbook of Financial Literacy. p.33. Figure 3.1.

그림 II-2. 청년 금융역량의 개념적 모델

이러 다른 관점으로 관찰이나 모방 또는 학습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이 있는데, 이 관점에서는 개인이 다른 사람, 즉 부모나 교사 또는 또래와 같은 타인을 관찰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받고 학습한다고 설명한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이 이에 해당한다(Kadoya & Khan, 2020).

또 다른 관점으로 인지 발달이나 인지 수준 또는 방향에 초점을 두는 이론이 있다. 개인의 인지 발달수준이 금융이해력의 기초가 된다고 보는 인지발달이론(Cognitive development theory)이나 현재에 대한 더 큰 가치를 갖는 인지편향과 더불어 사회적 규범과 또래 압력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행동경제학이론(Behavior Economic theory)이 이에 해당한다(김지경 외, 2023., p.24; Caniglia & Michali, 2018; Kadoya & Khan, 2020).

이들 이론을 [그림 II-3]에 제시된 청년 금융이해력 개발의 기본 틀에 적용해 본다면, 사회적 학습이론은 초기 사회화 과정에서의 비공식적이고 암묵적인 사회 학습과 학교를 통한 금융교육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며, 인지발달과 행동경제학 이론에서는 지식과 자기신념의 단계에서의 요소들에 집중하여 설명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 출처: Serido(2022). 3. Financial Literacy among Young Adults, The Routledge Handbook of Financial Literacy. p.40. Figure 3.2.

그림 II-3. 청년 금융이해력 개발의 기본 틀

이처럼 금융이해력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고, 청년층의 금융이해력이나 금융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용하는 개념 모델은 설명 이론이 모두 총망라되어 반영될 만큼 하나의 이론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20대 초반, 후기청소년 연령대(young adult)의 금융이해력에 초점을 둔다면, 앞서 살펴본 이론들의 범주 내에서 조금 더 좁혀 들어갈 수 있다. 주로 생애 발달과정에서의 사회적 학습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 주된 이론이 되는데, 금융사회화 이론과 정체성 형성이론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이론이다.

(2)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 주된 이론

① 금융사회화 이론

금융사회화 이론에서 금융사회화(financial socialization)는 개인이 부모, 또래, 교육 기관과 같은 사회화 주체를 관찰·모방·상호작용함으로써 개인의 금융지식, 태도, 행동을 학습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지칭한다(Moschis, 1985). 금융이해력을 형성하는 데 있어 부모는 가장 중요한 주체로, 자녀는 부모의 금융교육, 소비습관, 저축, 부채관리 방식 등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금융역량을 형성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부모와 이루어

어지는 금융 관련 의사소통은 금융지식을 내면화하고 금융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를 Shim, Barber, Card, Xiao와 Serido(2010)는 4단계 모델('사회화 주체(부모·학교·근로 경험)→학습→태도→행동')로 설명한다. 즉 청소년기에 부모나 또래를 통해 얻은 다양한 금융관련 경험들이 학습되어 축적된다. 이것이 저축이나 예산관리 등에 대한 금융태도를 형성하고, 최종으로는 금융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Sirsch, Zupancic, Poredos, Levec와 Friedlmeier(2019) 역시 모델링과 의사소통을 통한 학습이 금융태도와 행위 간 연결을 강화시켜 금융이해력이 향상된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금융사회화 과정에서 사회화 주체를 통한 학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후기청소년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시기이므로, 발달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부모의 영향은 약화되고 개인의 독립성이나 주변인의 영향이 강화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금융사회화에 있어서도 부모가 중요하긴 하지만 동시에 근로 경험, 또래 관계, 사회적 네트워크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후기청소년기의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친다(한지형, 2013; Curran, Parrott, Ahn, Serido & Shim, 2018; Damian, Negru-Subtirica, Domocus & Friedlmeier, 2019; Gibby, Pettit, Hill, Yorgason & Holmes, 2020).

이와 같이 금융사회화 이론은 후기청소년기의 금융이해력을 사회적 학습과 발달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어, 후기청소년기의 금융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② 정체성 형성 이론

정체성 형성 이론은 개인의 정체성이 평생에 걸쳐 확산(diffusion)과 성취(achievement)라는 연속선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고 설명한다. 이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은 탐색(exploration), 몰입(commitment)의 두 축을 통해 정체성 형성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파악한다. 이를 조금 더 구체화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정체성의 상태는 '성취(achieved), 유예(moratorium), 폐쇄(foreclosed), 확산(diffused)'이라는 4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Bosch, Serido, Card, Shim & Barber, 2016).

이러한 정체성 상태는 금융이해력 수준을 이해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먼저, '성취된 상태(achieved)'는 금융에 대해 충분히 탐색한 후 자신만의 기준을 확립한 상태(高탐

색, 高물입), ‘유예 상태(moratorium)’는 활발한 탐색과 고민은 이루어지나 확실한 기준을 아직 수립하지 못한 과도기적 상태이다(高탐색, 低물입). ‘폐쇄된 상태(foreclosed)’는 탐색 없이 부모나 사회적 기대를 수용해 형성된, 즉 타인의 기준을 따르는 상태이며(低탐색, 高물입), ‘확산된 상태(diffused)’는 금융에 대한 관심도, 방향도 설정되지 않은 상태이다(低탐색, 低물입).

후기청소년의 금융정체성을 살펴본 연구로는 Bosch와 Serido, Card, Shim, Barber(2016)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은 미국 대학생의 금융정체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대학 입학과 졸업 시점의 금융정체성 상태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시점 간 금융정체성은 변화하기보다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특히 이 시기에 부모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후기청소년의 금융정체성은 폐쇄(foreclosed) 상태로 유지되고 자기주도적 탐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하여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안정성을 나타내던 금융정체성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후기청소년기는 진로나 취업뿐만 아니라 소비·저축과 같은 금융행동에 있어서도 자율적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금융이해력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서 넘어서 어떠한 금융정체성을 갖출 것인가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정체성 형성 이론은 후기청소년이 자기주도적이고 책임있는 금융이해력을 갖추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2)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

(1) 그간 실증연구 동향에서 나타난 영향 요인

금융이해력은 1990년대 후반 미국과 영국 등에서 연구가 먼저 시작되어 2000년대에 국내에 소개된 후, 국내에서는 2010년대 이후 실증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우리보다 먼저 연구가 시작된 해외에서는 개인의 금융행동 결과와 금융이해력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에서 시작해 세대나 성별간 금융이해력의 차이나 교육효과 검증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방법론 면에서도 장기적, 실험적, 거시적 차원의 연구로 확장되었다. 이에 비해 국내의 경우는 주로 개인의 금융이해력의 결정요인이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효과 등의 연구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 주제의 다양성이나 방법론적 확장성 측면에

서 해외에 비해 초기 단계라 볼 수 있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주로 성인이나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관련 연구들이 대다수로, 생애 전환기인 ‘후기청소년기’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매우 적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후기 청소년의 금융이해력과 역량에 대한 관심으로 수행되는 실증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후기청소년 시기가 금융태도나 금융행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금융정체성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확산, 그리고 청년부채·사회진입 지연 등으로 최근 청년층이 정책 지원대상으로 주목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관련 국내외 실증연구들에서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후기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고용상태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 가령, 성별의 경우 남성은 여성보다 금융이해력이 높다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윤희정, 김홍배, 2021; 이운호, 2015; 이운호, 2018; 최현자, 조혜진, 2011; 한진수, 장경호, 2022; Breithbach & Walstad, 2016; Grohmann, Kouwenberg & Menkhoff, 2015; Karakurum-Ozdemir, Kokkizil, & Uysal, 2019).

연령의 경우, 금융이해력과 부(-)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결과와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결과를 연구가 혼재되어 나타난다(윤희정, 김홍배, 2021; 이운호, 2018; Breithbach & Walstad, 2016; Grohmann et al., 2015; Karakurum-Ozdemir et al., 2019). Karakurum-Ozdemir 외(2019)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이해력이 높아지다가 중·장년층 이후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교육수준은 금융이해력과의 관계에서 가장 일관적으로 정(+)의 영향을 나타낸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대학이나 경상계열 전공 경험, 경제 관련 과목 수강, 금융 관련 학습 경험은 금융이해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이다(윤희정, 김홍배, 2021; 이운호, 2015; 이운호, 2018; 최현자, 조혜진, 2011; 한진수, 장경호, 2022; Breithbach & Walstad, 2016; Karakurum-Ozdemir et al., 2019).

개인의 소득 역시 금융이해력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고소득층일수록 금융이해력이 높고(Breithbach & Walstad, 2016; Grohmann et al., 2015), 부모의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최현자, 조혜진, 2011). 고용상태와 직업 역시 영향 요인으로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자나 무직자보다 금융이해력이 높으며, 실업자나 비경제활동 인구는 상대적으로 낮다(Breithbach & Walstad, 2016; Karakurum-Ozdemir et al., 2019). 부모의

직업 역시 자영업, 생산직, 사무직 종사자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금융이해력이 높다(한진수, 장경호, 2022).

그 외에도 결혼 여부(기혼자 정(+))나, 수도권 거주 여부(수도권 정(+)), 고등학교 유형, 수학 실력, 금융계좌 개설 및 주식 투자 경험, 금융미디어 접촉 등이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된 결과도 있다(이운호, 2015; 이운호, 2018; 최현자, 조혜진, 2011; 한진수, 장경호, 2022; Breithbach & Walstad, 2016; Karakurum-Ozdemir et al., 2019; Grohmann et al., 2015). 이와는 달리, 금융사기 경험, 위험회피 성향, 일부 교육 경험, 예컨대 고등학교에서의 경제과목 선택 등은 오히려 금융이해력을 낮추는 부(-)적 영향을 보이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도 있다(윤희정, 김홍배, 2021; 한진수, 장경호, 2022; Grohmann et al., 2015).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하면, 금융이해력에는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교육, 경험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교육수준, 소득, 고용상태 같은 인적자본 요인을 핵심적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요인이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에도 영향 요인으로 동일하게 나타날 것인지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2) 금융이해력 구성 3요소의 영향 요인

금융위기 이후 OECD에서 금융이해력 개념을 정립하기 전까지는 금융이해력과 관련한 다수의 실증분석에서 금융이해력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하위요소 각각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된 바 있다. 이에 이들 하위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융지식은 성별, 연령, 인종, 교육수준, 근로경험, 소득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금융지식이 높는데, 특히 대학교육과 같은 고등교육과 학업성적은 정(+)의 효과를 보인다(Jorgensen & Savla, 2010; Lee & Mortimer, 2009; Peng, Bartholomae & Cravener, 2007). 소득 또한 금융지식과 정(+)의 관계이고, 저축액과 신용점수가 높은 개인일수록 금융지식 수준이 높으며, 18세 이전 은행계좌 개설이나 주식·채권 보유 경험과 같은 초기 금융경험이 금융지식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Peng et al., 2007).

이들 요인과는 달리, 성별은 통계적 유의성에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가령 일부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금융지식이 높다고 보고되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차이

가 없거나 오히려 여성이 더 높은 주관적 금융지식을 가진 경우도 있다(한지형, 2013; Annabi, González-Ramírez & Müller, 2018; Curran et al., 2018; Peng et al., 2007; Shim, Xiao, Barber & Lyons, 2009). 연령 또한 특정 연구에서는 정(+)의 영향을 보이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요인이다(한지형, 2013; Annabi et al., 2018; Peng et al., 2007).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금융지식 수준에는 개인의 교육수준, 소득, 금융 경험이 주로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배경보다는 개인 경험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어 금융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금융행위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의 영향력은 일관적이지 않은데, 금융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 초기에는 남성의 금융행동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지만, 대학 졸업 이후 성별 차이가 거의 사라진다는 결과도 있다(김아름, 양혜경, 2016; Damian, Negru-Subtirica, Domocus, & Friedlmeier, 2019; Serido, LeBaron, Li, Parrott & Shim, 2020). 연령의 경우, 장기적 금융행동과 정(+)의 관계이며, 특히 25세 이상부터는 저축·투자와 같은 장기적 행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단기적 행동은 특정 연령대에서 부(-)적 영향을 보이기도 한다.

교육수준과 소득 또한 금융행위와 정(+)의 관계인데, 고학력자와 고소득자일수록 저축, 투자, 지출 관리 등의 금융행동을 실천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고용상태는 취업자가 비취업자에 비해 장·단기 금융행동을 모두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Henager & Cude, 2016; Robb & Woodyard, 2011). 반면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고용상태, 소득과 같은 배경 특성은 금융행위에 일관된 영향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부모의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자녀의 긍정적 평가만이 금융행위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나타난다(김아름, 양혜경, 2016; 한지형, 2013).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금융행위는 지식 그 자체보다는 소득이 발생하는 고용상태 및 부모의 행동 모델링과 같은 실제 재정능력과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금융태도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부모의 교육수준도 영향을 미치는데, 예컨대 아버지가 중졸 이하인 경우 자녀의 금융태도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연구 결과도 있다(한지형, 2013). 소득이나 고용상태는 금융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모 소득과 학업성적은 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한지형, 2013; Jorgensen & Savla, 2010). 또한 학년이 높을수록 금융태도가 긍정적이

며, 부모와 함께 살거나 부모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금융태도가 긍정적으로 강화된다(한지형, 2013; Shim et al., 2009). 반면, 부모와의 재무적 갈등은 금융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한지형, 2013).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금융태도는 개인의 교육배경과 부모의 재무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가정 내의 재무적 갈등은 금융태도 형성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표 II-6. 선행연구에 나타난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 요약

구분	주요 영향요인	영향력 방향	영향요인
금융 이해력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고용상태, 직업, 결혼 여부, 거주지역, 수학 실력, 금융경험 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은 혼재된 효과 - 교육수준, 소득은 긍정적 영향 - 고용상태, 직업, 결혼여부, 수도권 거주, 수학 실력, 금융경험(계좌 개설, 주식 투자, 금융미디어 접촉) 긍정적 영향 - 금융사기 경험, 위험회피 성향, 일부 교육 경험(예: 고등학교 경제과목 선택)은 오히려 부정적 영향
금융 지식	교육수준, 소득, 근로경험, 조기 금융경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수준, 소득, 저축액, 신용점수는 긍정적 영향 - 조기 금융경험(18세 이전 은행계좌 개설, 주식·채권 보유) 긍정적 영향 - 부모배경은 대체로 무의미 - 연령과 성별은 연구마다 다른 결과 보임
금융 행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고용상태, 부모, 재무행동 평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차이는 대학 이전에 나타나다가 졸업 후 거의 사라짐 - 연령은 장기적 금융행동(저축 투자)에서는 정적 관계, 단기 지출관리에서는 연령별 차이 - 교육수준과 소득은 정적 영향, 고용상태(취업자) 긍정적 금융행동 - 부모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자녀 금융행동 강화
금융 태도	교육수준, 부모교육수준, 학업성취도, 부모 재무행동평가, 부모 갈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수준(대졸 이상), 부모교육수준, 학업성취도 긍정적 영향 - 부모의 재무행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태도 강화, 부모와의 재무적 갈등은 태도에 부정적 영향 - 소득과 고용상태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으나, 부모 소득은 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

3. 소결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이 장에서는 2012년 OECD/INFE에서 정립한 금융이해력의 개념과 개념을 구성하는 3개의 요소, 그리고 개념을 반영한 OECD/INFE의 표준 측정 가이드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2년 주기로 측정하는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 결과를 통해 측정 방식을 살펴봄.
-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 이론과 그간의 실증연구는 양적인 측면에서 많지 않고, 19세~24세 생애전환기 특성을 고려하여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 이론은 생애주기 발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금융사회화이론과 금융정체성이론으로 집약됨.
- 선행 실증연구에서 나타난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의 영향 요인은 정(+)의 요인과 부(-)의 영향 요인 모두 나타나며, 사회인구학적 특성 이외, 금융경험이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됨.

2012년 OECD/INFE가 정립한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의 개념은 “건전한 금융의사 결정을 내리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금융웰빙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금융 인식, 지식, 기술, 태도, 행동의 조합”이며, 이 개념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각각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 요소의 상호 영향으로 나타나는 “조합”에 방점이 있는 것이다. 금융이해력은 그 자체로서 중요하기보다는 실제 의사결정에 어떻게 적용하여 활용하는가 보다 더 중요하며, 이를 금융이해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일명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이 강조되고 있다. OECD/INFE에서는 각국의 금융이해력과 금융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국가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돕기 위해 표준화된 금융이해력 측정 도구를 개발·보급하였다. 우리나라도 그 기준을 준용하여 2년 주기로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4년 7번째로 실시된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전부터 확인되었던 20대 청년의 금융이해력이 낮다는 사실 이외, 장기 재무목표를 설정한다거나 평소 재무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생활 실천의 항목에서 다른 연령대 대비 현격한 하락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어떠한 이유에서 그와 같은 급격한 저하가 발생하는지 알려진 내용은 없다. 물론 19세~24세 후기청소년 연령대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대한 자료는 없다. 한 가지 자료가 있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금융 실태조사’ 결과에서 우리나라 성인이 공통 취약점인 ‘복리 개념의 이해’ 관련 항목의 점수가 금융지식을 측정하는 항목 중 가장 낮고, 특히 19세~24세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점수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처럼 많지는 않으나 몇 가지 조각으로 드러나는 사실들은 금융이해력 증진을 국가 전략으로 수립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취약한 지점이 어디인가를 명확하게 짚어낸다. 그렇다면 취약한 19세~24세 후기청소년 연령대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지금까지 어떠한 내용으로 설명되어 왔는가?

좁은 연령범위에 초점을 두는 연구, 그중에서도 실증연구는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 중반부터 금융시장의 관점이 아닌 생애 발달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행되었고, 그들 연구에서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은 크게 두 가지, 즉 금융사회화이론과 금융정체성 이론으로 압축되어 설명된다. 금융사회화 이론에서는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부모나 교사,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금융지식, 행동, 태도를 학습하고 내면화한 결과의 영향으로 설명한다. 또한 금융정체성 이론에서는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금융에 대한 탐색과 몰입이 부족한 ‘확산(diffusion)’ 상태와 충분히 탐색하여 확고한 금융정체성을 갖는 ‘성취(achievement)’ 상태의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들 이론을 적용한 연구를 포함하여 그간의 실증분석을 통해 파악된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의 주요 영향 요인은 사회인구학적 요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고용 상태, 직업, 결혼여부, 거주지역) 이외, 수학 실력 및 금융 경험, 그리고 개인의 성향이다. 금융 경험의 경우, 계좌 개설이나 주식투자 경험, 금융미디어를 통한 정보 탐색은 금융이해력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금융사기의 경험이나 일부 교육경험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위험회피와 같은 개인의 성향 또한 부정적인 영향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만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후기청소년 개인 특성뿐만 아니라, 금융생활과 관련한 광범위한 경험과 인식의 특성까지 반영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 장에서 간략하게 고찰한 OECD/INFE의 금융이해력 개념과 측정 방식을 준용하고, 선행연구들을 통해 파악된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 이론과 영향 요인을 이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측정 도구의 개발·작성에 활용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다음 장에서는 후기청소년의 금융 경험 및 현재의 금융 생활과 관련이 되는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 — 제3장 후기청소년 금융 지원 정책 동향 및 현황 분석

- 1. 최근 10여 년간 금융지원
정책 동향
- 2. 후기청소년 금융교육 지원
추진 체계
- 3. 소결

1. 최근 10여 년간 금융지원 정책 동향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여기에서는 20대 초반, 후기청소년 금융지원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10여 년간의 청년대상 금융지원 정책을 시간 흐름 선상에서 정부정책 발표 자료 등을 검토·분류하고, 분류된 결과를 구조화하여 제시함.
- 이어 금융지원 정책의 흐름 선상에서 정부가 그간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을 지원해왔는지, 근거 법률과 추진체계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논의함.

1) 주요 지원 내용의 발전과 변화

학자금 지원이나 주거지원이 아닌, 금융정책의 영역에서 20대 초반 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정책은 지난 10여 년간 시대의 요구와 함께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 검색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최근 10여 년 동안 정부가 발표한 금융정책 자료를 연도 및 주제별로 나열하고, 주된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내용을 반복하여 검토한 후 분류해 보면, 크게 세 가지(채무조정, 목돈마련, 맞춤형 교육)의 정책 흐름이 발견된다.

우선 2018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초반까지, 20대 청년층 대상 정부의 금융정책 지원은 청년층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거나 연체 관리나 채무조정을 개선하는 방식의 지원이 중심이 되었다(금융위원회, 2013.06.26.; 2017.11.06). 이 시기는 일명 ‘등록금 인하’로 집약되는 대학 교육비 부담의 문제가 청년 지원의 핵심이 되었고, 그에 따라 2012년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20년 8월 ‘청년특별지원’으로 국가장학금 유형을 분류하여 지원을 확대(서동용, 2021.10, p.1) 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게 된 것이다.

3) 이 장은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그러한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대학에 재학한 후기청소년을 비롯한 20대 청년 지원은 교육비 지원이 중심이 되었으며, 그 외 금융 분야 내에서 지원되는 것은 부채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전환과 저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햇살론뿐인 것이다. 이후 청년정책이 중앙정부 대상자 정책으로 자리 잡으면서 청년 고금리 전환 지원이나 채무조정 등의 지원은 청년맞춤형 대출 공급, 특히 주거지원 측면에서 저금리 대출이 확대되었다(금융위원회, 2020.03.26.; 2021.11.22). 또한 소득이 없는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에 갓 입사한 청년, 그리고 저소득 청년 창업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햇살론유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하였다(금융위원회, 2024.10.30.; 2025.06.09).

고금리 전환 및 채무조정, 저금리 대출 지원의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청년층 금융지원은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목돈 마련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그 배경에는 이 시기, 우리 사회의 소득격차를 넘는 자산 격차가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갈등과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인식의 확산이 있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으로 압축 표현되는 삶에 대한 좌절의 심리가 컸고 사회진입도 전에 삶의 비전을 박탈당하는 세대라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청년 세대의 자산형성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모여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먼저 시도된 지원은 2018년 군 입대한 청년 병사의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이자 비과세와 적립 금액 상한 확대, 그리고 우대금리와 같은 금융상품을 통한 지원 확대이다(금융위원회, 2018.05.23.). 이후 2021년 대상자 맞춤의 자산형성 지원 상품이 다양화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저소득층 청년을 지원하는 저축 계좌 이외에도 소득공제 펀드나 적금 등의 상품으로 확대된 결과이다(국무조정실, 2021.08.26.). 이어 2022년 2월에는 저소득층만이 아닌,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희망적금’이 본격 출시되었다(금융위원회, 2022.02.08.). 이 청년희망적금은 이듬해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로 변경되었고, 지원 범위 확대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며(국무조정실, 2024.03.05.; 금융위원회, 2024.05.22.; 2024.07.23.), 2025년 6월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 이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26년 6월에 출시 계획을 밝힌 바 있다(대한민국정부, 2025.09., 국정과제 82., p.130).

채무조정이나 자산 형성 이외 최근 2~3년 동안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또 다른 금융정책

은 바로 ‘금융교육’이다. 2022년 12월 생애주기별 대상자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 계획이 발표된 이후, 2023년 청년층 대상 금융 습관 형성을 위한 금융교육 강화 방안이 금융교육 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듬해 2024년에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금융 콘텐츠 이용 방법을 학생 카드 발급이나 대출 이용 시 알려주는 서비스의 개시 등 생활 밀착된 금융교육 정보제공이 시행되었다(금융위원회, 2022.12.22.; 2023.12.22.; 2024.03.04.).

뿐만 아니라, 금융교육캠페인이나 토크 콘서트 개최 등을 통해 금융교육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알리기도 하였으며(금융위원회, 2024.06.26.; 2024.10.30.), 대학의 ‘실용 금융’ 강좌를 개설 및 강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금융감독원, 2025.06.04.). 최근에는 청년 금융컨설팅 서비스를 통한 금융교육, 이전부터 일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이나 햇살론유스의 서비스 이용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담, 그리고 현행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자산 형성지원 상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정보 또는 교육자료의 제공 등으로 금융교육 내실화를 위한 채널이 확대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금융감독원, 2025.04.08.; 금융위원회, 2025.04.29.)

이상과 같은 최근 10여 년간 후기청소년을 포함하는 청년층 금융지원 정책의 동향을 구조화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제시하면, [그림 III-1]과 같다. 그림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채무조정 및 대출 지원은 2018년 이전부터 금융정책 분야 내에서 계속 지원해 왔던 것을 지원의 범위와 내용을 계속하여 확대하고 고도화되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기존 목돈마련 지원의 강화와 더불어 ‘청년희망적금’이라는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산형성 지원정책은 ‘청년도약계좌’로 바뀌며 지원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다시 ‘청년미래적금’이 신설을 앞두고 있다. 한편,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은 2023년부터 청년 맞춤형 교육의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융컨설팅 및 채무조정이나 자산 형성 지원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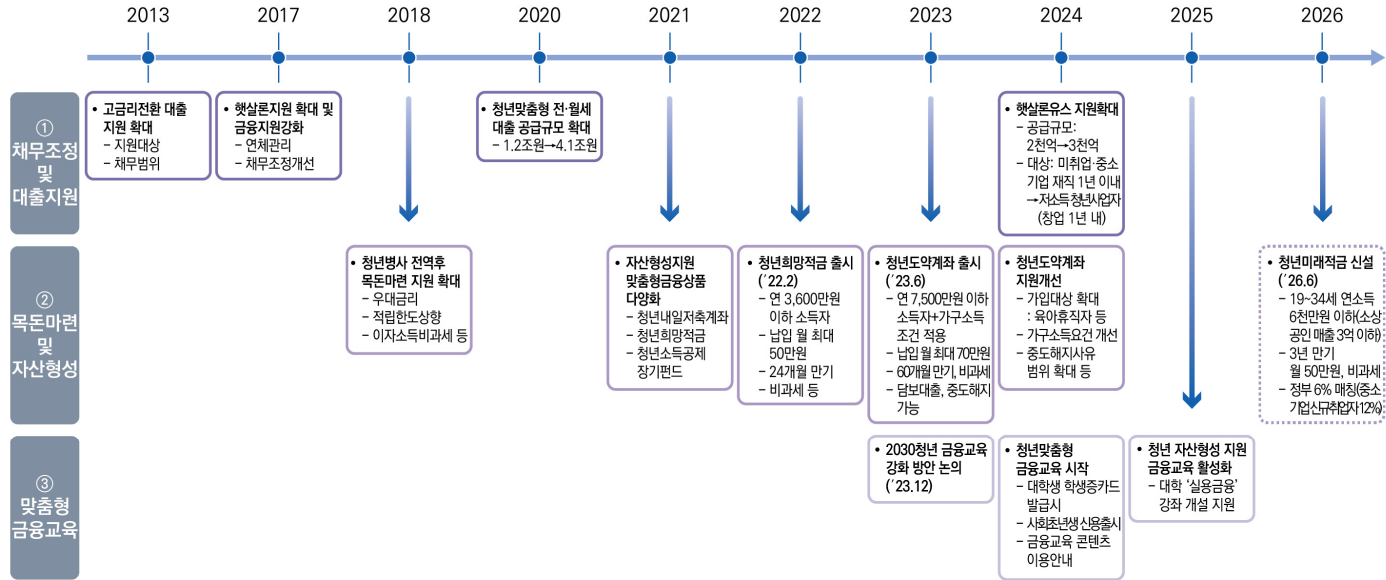


그림 III-1. 최근 10년간 청년금융지원 주요 정책 동향

2) 세 가지 주요 지원 사항

(1) 채무조정 및 대출 지원

앞서 살펴본 최근 10여 년간의 금융지원 정책 동향에 이어, 여기에서는 세 가지 주요 지원 사항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첫 번째인 ‘채무조정 및 대출 지원’으로 묶여진 지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사항(주거자금, 학자금, 긴급자금, 채무조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III-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을 제외하고, 그 외 지원 사항은 모두 19세~34세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먼저, 주거자금은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리고 시중은행이나 지원 상품을 지정 계약한 수탁은행을 통해 청년의 전·월세 자금을 대출 등의 지원이다. 학자금은 교육부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저금리로 학자금을 대출 해주고, 상환 이자 등의 부담을 경감 해주는 지원을 포함한다(관계부처 합동, 2025.04., pp.55-57, pp. 426-431). 이들 지원은 일반적으로 청년층 금융 분야 지원보다는 주거지원이나 교육 지원으로 분류된다.

표 III-1. 채무조정 및 대출 지원

구분	주거자금	학자금	긴급자금	채무조정
지원 대상	19세~34세 청년 전월세 자금, 정책모기지	학자금 대출 및 상환 부담 경감	19세~34세, 저소득 사회초년생 및 미취업 청년	19세~34세 연체 채무자 (대학생, 미취업자) 채무조정 및 특례 지원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운영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시중은행, 수탁은행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원, 시중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주요 사업	청년 전월세 대출 장기 정책모기지	저금리 학자금 대출 및 상환부담 경감	청년·대학생 햇살론	프리/개인 워크아웃 청년 특례
근거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조, 「한국 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에 관한 법률」 제75조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5.04.).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II. 주거. pp.55~57, III. 교육. pp. 426~431, IV. 생활복지문화. pp.24~33에서 발췌 및 재구성.

긴급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시중은행을 통해 저소득 사회초년생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저리의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햇살론유스가 이에 해당한다. 앞서 살펴본 정책 동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그 대상의 범위를 창업 1년 이내에 해당하는 청년 자영업자도 포함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편, 채무조정 지원은 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90일 이상 연체 중인 한국장학재단의 채권을 조정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최장 20년의 상환기간을 제공지만 채무 원금이 2천만 원 미만이면 최장 10년 기간을 제공한다. 또한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미만인지에 따라 3개월 이상은 개인워크아웃, 3개월 미만은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하는데, 두 경우 모두 청년에 대해서는 이자율 조정이나 상환 전 유예기간, 신청 비용 측면에서 특례를 적용한다(관계부처 합동, 2025.04., pp.30-33).

표 III-2. 채무조정 특례 지원

구분	프리워크아웃 (1~3개월 미만 연체)		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연체)	
	일반	청년	일반	청년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	좌동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	좌동
이자율 조정	약정이자율의 30~70% 인하	약정이자율의 70% 인하	-	-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이자·연체이자) 전액감면 (미상각채권원금) 0~30% 감면 (상각채권원금) 20~70% 감면	좌동 좌동 (상각채권원금) 최대 70% 감면
상환전 유예	최장 1년	최장 3년	최장 1년	(대학생) 재학기간 상환 유예 및 졸업 후 취업시 까지 최장 4년 상환유예 (미취업청년) 취업시까지 최장 5년 상환유예
유예이자	상환유예기간 중 이자납입(연 2%)	좌동	상환유예기간 중 이자납입(연 2%)	상환유예기간 중 이자 면제
신청비	납부	면제	신청비 납부	면제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5.04.).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IV. 생활복지문화. p.32에서 발췌.

(2) 목돈마련 및 자산 형성

2015년 이후, 즉 지난 10년간 정부가 청년층의 목돈마련이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은 주로 세액공제나 지원금 매칭 지원, 이자 소득 비과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현 시점에서 파악되는 지원 상품 및 제도는 총 9가지(①청년ISA, ②청년내일채움공제, ③청년희망키움통장, ④장병내일준비적금, ⑤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 ⑥청년희망적금, ⑦청년내일저축계좌, ⑧청년도약계좌, ⑨청년주택드림청약)로 요약된다. 이 중 현재 가입 및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5가지(①청년ISA, ④장병내일준비적금, ⑦청년내일저축계좌, ⑧청년도약계좌, ⑨청년주택드림청약)이고, 신규 가입이 중단된 것은 3가지(②청년내일채움공제, ③청년희망키움통장, ⑥청년희망적금), 올해 말까지만 가입 가능하고 곧 중단 예정인 것이 한 가지(⑤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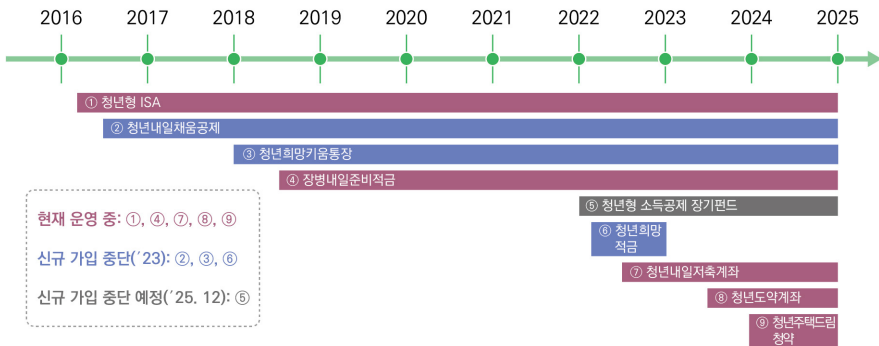


그림 III-2. 중앙정부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 도입 흐름 및 현황

현재 가입 신청이 가능한 5가지 상품을 중심으로 각각 어떠한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개인종합관리계좌(ISA)’는 19세~34세 청년 중 5천만 원 이하 소득이나 3,800만 원 이하 종합금융자가 여러 금융상품에 연 2천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한 상품으로,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시 기간 내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하는 세제혜택 중심의 상품이다(청년자산센터, 2025.05.13. 검색 및 인출). 일반 ISA상품에 가입 시 비과세 인정이 2백만 원까지이고, 소득 5천만 원 이하 서민형이 4백만 원까지인데, 청년의 경우 서민형에 준하여 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두 번째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입대한 장병들의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립 상한 금액을 2018년 지원 이래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고, 현재 월 55만 원을 군복무 기간 동안 납입하면, 만기시 이자 비과세 뿐만 아니라 납입 원금만큼의 금액을 국가가 매칭 지원하는 상품이다(국방부 홈페이지, 2025.05.20. 검색 및 인출).

이어 세 번째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지원, 그리고 빈곤 예방을 위한 목적의 사업이다.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차상위 이하 계층의 경우 지원 연령대를 15세~39세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3년간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의 정액을 지원하는데, 차상위 이하 계층의 경우 지원 금액은 30만 원으로 증가한다(보건복지부, 2025). 대상자가 일반 청년이 아닌 저소득 청년, 특히 기초수급과 차상위 계층의 청년의 자립 및 자산형성 지원은 물론, 이를 통해 빈곤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경제부처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관리·운영한다.

네 번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자산형성을 위한 전용 금융상품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청년희망적금’을 명칭을 바꾸고 확대 지원한 것이다. 예컨대 가입 대상의 조건은 당초 개인소득 기준 6천만 원 이하와 동시에 적용되는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였던 가입 기준을 개인 7천 5백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되었고, 월 납입 한도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도 있는데, 이는 6천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만 제공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3%~6%로 차등 지급되는 구조로 운영된다(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2025.05.13. 검색 및 인출).

끝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월 2만 원~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주택 청약계좌에 자유 납입할 경우, 시중 금리보다 높은 연 4.5%를 제공하는 주거지원 금융상품이다.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하는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025.05.13. 검색 및 인출).

이상과 같은 중앙정부의 청년자산형성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다. 17개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할 때, 현 시점까지 사업 운영이 파악되는 지자체는 총 13개 지역이고, 4개 지역(울산, 충북, 충남, 제주)에서는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자체 사업 없이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도만이 운영되고 있다. 2015년 서울시가 가장 먼저 시작하였고, 서울에 이어 2016년

경기, 2017년 전남 순으로 연이어 청년층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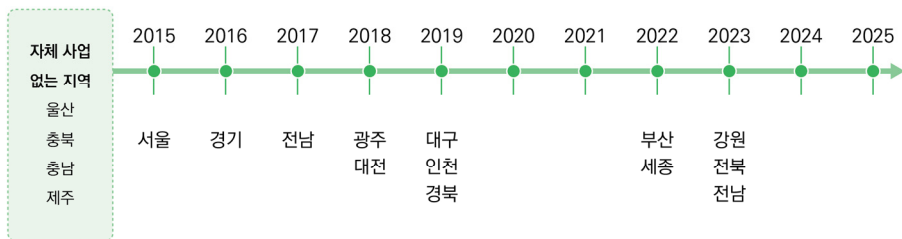


그림 III-3. 지자체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 도입 시점 및 현황

지자체마다 자치법규인 「조례」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연령 범위에 따라 대상자의 연령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지자체 거주 근로 청년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120%~150%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경북도나 경남도의 경우 미혼의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조건이 있고, 세종시의 경우 동일 사업장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이 추가 된다.

지원의 목적에 있어서도 청년, 그중에서도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기본으로 경제적 자립을 명시한 지자체들이 다수이다. 자립이 아닌 미래 준비 지원(부산, 대전, 전남)이나 장기근속(인천, 강원), 정착(경북, 경남), 그리고 본 연구의 수행 목적에 부합하는 금융역량 또는 금융교육(광주, 전북)을 지원사업의 목적으로 명시한 지자체도 소수이기는 하나 존재한다. 주요한 지원의 내용은 지자체 간 큰 차이 없이 대동소이하다. 즉, 지원 대상의 청년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정액을 2년 또는 지자체에 따라 3년 기간까지 저축하면, 납입한 저축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함으로써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매칭 지원금은 대체로 시·도 또는 시·군이 함께 분담하고 있으나, 서울시나 강원도와 같이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분담하는 지자체도 있다.

표 III -3. 중앙정부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 현황

번호	구분	사업 목적	내용	대상	담당 부처	운영 기관	지원시작 시기	현재 운영 여부
1	청년형 개인 종합관리 계좌(SA)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 및 자산형성 지원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여 운영하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3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분리과세(9%) 혜택. 연 2천만 원씩 5년간 최대 1억 납입 가능	서민형 미충족자 중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병역이행기간 차감 연령)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시중은행, 증권사 등	2016년 3월 14일	운영 중
2	청년내일 채움공제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 근무 및 자산형성,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2년간 정규직 근무 시 본인·기업·정부 각 400만 원(총 1,200만 원+이자) 적립, 만기 일시금 지급	15~34세(군필 39세), 5~50인 미만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 고용센터	2016년 7월	2023년 12월 31일부로 신규 가입 종료
3	청년희망 키움통장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산형성 및 자립 촉진, 탈수급 유도	3년간 근로·사업소득 유지 시, 근로소득 공제금(10만 원)+근로소득장려금(최대 월 66.3만 원) 적립, 탈수급 등 조건 충족 시 전액 지급, 용도 제한(주거·교육 등), 본인 저축 의무 없음	15~39세, 생계급여 수급 청년, 근로·사업소득 10만 원 초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시중은행	2018년 4월	2021년 모집 마감 (기존 가입자만 만기시까지 운영 중)
4	장병내일 준비저금	전역 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1인 2계좌, 각 계좌별 월 30만 원, 개인별 최대 월 55만 원을 적립할 수 있으며 만기 해지 시 적금 납입금의 은행이자 5%에 추가하여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매칭 지원금 지급. 이자소득은 비과세	병 급여 및 복무관리 체계를 적용 받는 자로, 전역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	국방부, 병무청, 금융위원회	시중 14개 은행, 국군재정관리단	2018년 8월 29일	운영 중
5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및 투자 활성화, 세제혜택 제공	연 600만 원 납입 시 40%(최대 240만 원) 소득공제, 3~5년 만기, 국내주식 40% 이상 투자,	19~34세(병역이행 시 40세),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최근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기획재정부	시중은행, 증권사 등	2022년 1월 1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

번호	구분	사업 목적	내용	대상	담당 부처	운영 기관	지원시작 시기	현재 운영 여부
6	청년희망 적금	청년의 자산형성 및 저축습관 형성, 재정적 자립 지원	월 50만 원 한도 자유적립, 2년 만기, 은행이자(비과세) + 정부 저축장려금 (최대 36만 원) 지급	19~34세,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무직 불가, 국세청 소득증명 필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11개 시중은행	2022년 2월 21일	2022년 3월 4일 마감
7	청년내일 저축계좌	자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 지원, 빈곤 예방	3년간 월 10~50만 원 저축, 정부 월 10만 원(차상위 이하 30만 원) 추가, 만기 720~1,440만 원(이자 별도), 근로·금융 교육 등 조건, 17개 은행 계좌 개설 가능	19~34세(차상위 이하 15~39세),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사업소득 조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한국 자활복지개발원, 17개 은행	2022년 7월 18일	운영 중
8	청년도약 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및 재정안정 지원	월 70만 원 한도, 5년 저축, 정부 기여금·이자소득 비과세, 만기 최대 5,000만 원 (이자 포함), 소득 따라 정부기여금 차등	19~34세,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 1인 1계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11개 시중은행	2023년 6월 15일	운영 중
9	청년주택 드림청약	무주택 청년의 내 집 마련 및 자산형성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	월 2만~100만 원 자유납입, 최대 연 4.5% 금리, 이자소득 500만 원 비과세, 납입액 40% 소득공제, 1년 이상 유지 시 청약자격,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2%대 대출	19~34세 무주택 청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미혼 등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시기금, 수탁은행 9곳	2024년 2월 21일	운영 중

* 출처: 1) 청년자산센터. <https://youthassetcenter.kr>에서 2025년 5월 13일 검색 및 인출.
2) 고용24. <https://m.work24.go.kr>에서 2025년 5월 13일 검색 및 인출.
3) 보건복지부(2025). 2025년 자활사업안내(II)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4) 국방부. <https://www.mnd.go.kr>에서 2025년 5월 20일 검색 및 인출.
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3.06.09.). <https://www.korea.kr>에서 2025년 5월 13일 검색 및 인출.
6)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에서 2025년 5월 13일 검색 및 인출.
7) 복지포. <https://www.bokjiro.go.kr>에서 2025년 5월 13일 검색 및 인출.
8)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에서 2025년 5월 13일 검색 및 인출.
9)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에서 2025년 5월 13일 검색 및 인출.

표 III-4. 지자체(시도) 지역별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 현황

지역	제도명	사업 목적	내용	대상	담당 부처	운영 기관	지원 시작 시기	현재 운영여부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근로청년 자산형성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월 10/15만 원 2~3년 저축 시 동일 금액 매칭(서울시+민간)	18~34세 서울 거주 근로청년, 월소득 255만 원 이하, 부모(배우자) 연소득 1억·재산 9억 미만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2015년	운영 중
부산	기쁨두배통장	청년 자산형성 및 미래 준비 지원	월 10만 원 2년(480만), 3년(720만) 저축 시 동일 금액 매칭	18~39세 부산 거주 근로청년, 4대보험 직장가입자, 중위소득 150% 이하	부산시 청년 희망정책과	부산경제진흥원	2022년	운영 중
대구	청년희망적금	근로청년 자산형성 및 자립 지원	월 10만 원 12개월 저축 시 120만 원 매칭, 만기 240만 원,	19~39세 대구 거주 근로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140% 이하	대구시 청년정책과	대구시, 청년센터	2019년	운영 중
인천	드림 For 청년통장	장기근속 자산형성·자립 지원	월 15만 원 3년 저축 시 동일 금액 매칭, 만기 1,080만 원	18~39세 인천 거주, 1년 이상 재직, 4대보험 가입, 중위소득 150% 이하	인천시 일자리경제과	인천시, 고용안정센터	2019년	운영 중
광주	청년13 (일+살)통장	근로청년 자산형성·금융역량 강화	월 10만 원 10개월 저축 시 100만 원 매칭, 만기 200만 원	19~39세 광주 거주 근로청년, 3개월 이상 근로, 월급 87만~287만 원,	광주시 청년정책관	금융복지지원센터, 광주청년센터	2018년	운영 중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근로청년 자산형성 및 미래 준비	월 10, 15만 원 2~3년 저축 시 동일 금액 매칭, 3년 1,080만 원	18~39세 대전 거주 근로청년, 중위소득 140% 이하	대전시 청년정책과	대전청년내일재단, 일자리경제진흥원	2018년	운영 중
울산	지자체 자체 사업 없음							-
세종	청년 미래적금	청년 자산형성 및 정착 지원	월 15만 원 3년 저축 시 동일 금액 매칭, 만기 1,080만 원	19~39세 세종 거주, 6개월 이상 동일사업장 근로, 중위소득 120% 이하	세종시	세종일자리 경제진흥원	2022년	운영 중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근로청년 자산형성 및 자립 지원	월 10만 원 2년 저축 시 도비 매칭, 만기 580만 원 적립	19~39세 경기 거주 근로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경기도 청년기획과	경기복지재단	2016년	운영 중
강원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청년 자산형성·장기재직 유도	월 10만 원 3년 저축 시 기업·도·시·군 각 5만 매칭, 만기 720만 원	18~45세 강원 거주 중소기업 근로청년, 중위소득 150% 이하	강원도 경제국	강원도경제 진흥원	2023년	운영 중
충북	지자체 자체 사업 없음							-

지역	제도명	사업 목적	내용	대상	담당 부처	운영 기관	지원 시작 시기	현재 운영여부
충남	지자체 자체 사업 없음							-
전북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청년 자립·생활안정 금융교육	월 10만 원 2년 저축 시 도비 매칭, 만기 480만 원	18~39세 전북 거주 근로청년, 중위소득 140% 이하	전북도 기획조정실	전북청년 정책재단	2023년	운영 중
전남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청년 자산형성·미래준비 지원	월 10만 원 3년 저축 시 도·시군 매칭, 만기 720만 원	18~39세 전남 거주 근로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전남 인구청년정책관	전남도, 각 시군청	2017년	운영 중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중소기업 청년 자산형성·정착	월 15만 원 2년 저축 시 도·시군 분기별 175만 원(총 700만) 매칭	19~39세 경북 거주 미혼 청년, 중소기업 3개월 이상 재직, 중위소득 150% 이하	경북 청년정책관실	경북경제진흥원	2019년	운영 중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중소기업 청년 자산형성·정착	월 20만 원 2년 저축 시 도·시군 매칭, 만기 960만 원	18~39세 경남 거주 중소기업 재직 청년, 중위소득 130% 이하	경남 청년정책과	경남투자경제진흥원	2023년	운영 중
제주	지자체 자체 사업 없음							-

- * 출처: 1) 서울특별시 청년몽땅 정보통, <https://youth.seoul.go.kr>에서 2025년 5월 14일 검색 및 인출.
2) 부산청년플랫폼, <https://young.busan.go.kr>에서 2025년 5월 14일 검색 및 인출.
3) 대구광역시, <https://youthdream.daegu.go.kr>에서 2025년 5월 14일 인출.
4) 인천청년포털, <https://youth.incheon.go.kr>에서 2025년 5월 14일 인출.
5) 남도일보(2018.07.03.), 광주시, 일하는 청년의 저축 지원한다, <https://www.namdnews.com>에서 2025년 5월 14일 인출.
6) 대전청년포털, <https://www.daejeonyouthportal.kr>에서 2025년 5월 14일 검색 및 인출.
7) 세종청년센터, <https://4242.or.kr>에서 2025년 5월 14일 검색 및 인출.
8) 경기도 사업안내, <https://account.ggvf.or.kr>에서 2025년 5월 14일 검색 및 인출.
9) 강원특별자치도, <https://state.gwd.go.kr>에서 2025년 5월 14일 검색 및 인출.
10) 전북청년허브센터, <https://double.jb2030.or.kr>에서 2025년 5월 14일 검색 및 인출.
11) 전남일보(2024.04.08.), 전남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1167명 만기 지급, <https://www.jnilbo.com>에서 2025년 5월 14일 검색 및 인출.
12) 경상북도경제진흥원, <https://happyplatform.gepa.kr>에서 2025년 5월 14일 검색 및 인출.
13) 경상남도 청년정보플랫폼, <https://youth.gyeongnam.go.kr>에서 2025년 5월 14일 인출.

(3) 맞춤형 금융교육

앞서 금융지원 정책 동향에서 간략하게 기술한 바와 같이, 후기청소년을 포함하는 청년층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이 정책 계획으로 발표되고 추진된 것은 최근 2~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 중 2개의 국정과제(82.생애주기별 금융자산 소득 형성-전국민 경제·금융교육 강화, 100. 시민교육 강화로 전 인적 역량 함양-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의 세부 추진 과제로 금융교육이 선정(대한민국정부, 2025.09., p.130, p.158)된 것에 비추어 본다면, 청년층 맞춤형 금융교육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추진된 청년층 금융교육은 청년들에게 효과적으로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금융이해도를 증진시킨다. 나아가 일상에서 자산 및 신용 관리능력의 함양뿐만 아니라,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청년 대상 금융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23년 청년의 올바른 금융습관 형성을 위한 금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금융교육협의회 논의에서부터 출발한다(금융위원회, 2023.12.22.). 여기에서 전 금융권 공동으로 ‘금융기초체력키우기’ 캠페인과 더불어 청년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 계획이 수립되었고, 수립된 내용에 따라 2024년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첫 맞춤형 금융교육이 시행된 것이다(금융위원회, 2024.03.04.).

맞춤형 금융교육은 가령 학생증과 연계된 은행카드를 발급받는 대학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득에 맞는 지출 관리나 신용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군 장병 대상으로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도약계좌’와 같이 정부가 지원하는 목돈 마련 상품의 가입과 활용법을 교육하고,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청년을 대상으로는 신용융자 거래 시 유의 사항이나 연금저축 활용법, 연말정산 절세 가이드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주택금융 이용자 대상으로는 전·월세 계약 시 유의 사항이나 등기부등본 읽는 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정보와 교육이 제공된다(금융위원회, 2024.06.26.). 그 외, 청년층을 위한 콘텐츠 제작·배포는 물론, 일상의 금융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의 금융교육 캠페인 전개하기도 한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튜버와 협업한 금융교육을 연 2회 정도 실시하면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금융 습관에 대한 인식의 환기와 금융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정보제공도 제공된 바 있다(금융위원회, 2024.10.30.).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신청을 통해 대학에서 ‘실용 금융’의 강좌를 학기 단위로 개설

할 경우, 강의에 필요한 강사, 교재 및 강의 자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2016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다. 즉, 강의 개설을 신청하는 대학이 희망하는 경우 출강하는 금융교육 강사를 지원하고, 학생들에게는 금융감독원이 개발한 교재(「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표준강의안 등 교수활동 자료를 지원하고 온라인 강좌 전용 강의 영상과 학습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2025년 1학기 기준, 전국 72개 대학 87개 강좌가 지원받아 개설·운영되었다(금융감독원, 2025.06.04.).

표 III -5. 맞춤형 금융교육 지원

구분	내용
목적	청년층에게 금융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금융이해도를 제고하고, 청년층의 자산·신용관리 및 금융사기로부터의 피해 예방을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들의 금융역량 제고를 위해 청년들에게 유익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금융감독원 등 금융교육기관을 통해 금융교육 실시 전달체계: ① “금융교육협의회”에서 금융교육 정책 의결 → ② 금융교육기관 콘텐츠 개발 및 교육제공 → ③ “금융교육협의회”에서 실적 등 점검
지원 대상	청년층
담당 부처	금융위원회
운영 기관	금융감독원 등 금융교육 관계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투자협회(투자자교육협의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
지원시작 시기	2021년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03: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교육 관련 정책 추진체계 법적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년부터 “금융교육 추진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09년부터 “금융교육협의회”로 명칭 변경 ’21.03월 이후 연2회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24.01~09: 금감원 등 16개 교육기관은 대학생, 군장병 등 계층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교육인원 총 67만 3,005명) ’24.07~11: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 진행(금융위, 금감원, 소비자보호재단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페인 영상 제작·배포(유튜버 슈가가 출연하는 숏폼 영상시리즈) - 청년정책 박람회 등 참여를 통해 금융교육 홍보부스 운영 - 금융권 공동 금융교육 캠페인 소문내기 이벤트 진행 ’24: 1:1 맞춤형 재무상담 서비스 실시 대학 ‘실용금융’ 강좌 개설 지원(16~ 계속)
현재 운영 여부	운영 중
사업 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0조(금융교육), 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5.04.).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IV. 생활복지문화. pp.34~38에서 발췌 및 재구성.

2. 후기청소년 금융교육 지원 추진 체계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여기에서는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는 금융교육의 추진 근거 법령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과 금융교육과 관련하여 최근 발의된 법안을 간략하게 살펴봄.
- 근거 법률과 함께 어떠한 체계로 후기청소년을 비롯한 청년대상 금융교육이 추진되고 있는가 또한 간략하게 살펴봄.

1) 근거 법률 및 관련 법률 제정안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한 주된 정책인 금융정책은 2020년 3월에 제정되어 2021년 3월에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30조와 제31조에 근거한다. 제30조에서는 금융교육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해야 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제31조에서는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협의체로서의 ‘금융교육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5.09.03. 검색 및 인출).

법률이 시행된 지 불과 4년밖에 경과되지 않았기에 생애주기별 또는 대상자별 금융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법률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금융교육을 통해 높은 금융이해력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며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가 금융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5.09.03. 검색 및 인출). 다만, 예산의 지원은 ‘해야 한다’의 의무 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의 임의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어, 금융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증액은 법률에서부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행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통해 개발·보급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나 자료 등의 생산은 제31조제2항에 의무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 대상 학교 교육과 금융교육의 연계, 그리고 평생교육과 연계된 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것도 같은 법 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3년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교육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같은 법 제4항의 사항도 금융교육을 위한 의무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5.09.03. 검색 및 인출). OECD의 가이드에 따라 2년 주기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가 금융역량 조사 실시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결과가 금융교육에 반영되느냐 하는 부분이다.

기 발표된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20대 연령대가 60대 이상의 노년층과 유사한 수준의 낮은 금융이해력을 갖는다는 결과가 반복되어 보고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요인에 의해 낮은 금융이해력을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2030청년층’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본 연구의 수행이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며, 수행될 필요성이 높은 논리적 당위성을 제공한다.

한편, 앞서 언급한 제31조에서는 금융교육 정책을 위한 심의·의결 기구인 ‘금융교육협의회’에 관한 근거 규정과 협의회회의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협의회 의장이 되며, 총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협의회가 구성된다. 협의회 위원으로는 제31조제5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금융교육과 관련된 다수의 관계 부처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는 구조이고, 관계 부처는 시행령으로 보완하여 규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5.09.03. 검색 및 인출).

표 Ⅲ-6. 금융교육 정책 추진 근거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0조(금융교육)	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p>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에 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자원을 할 수 있다.</p> <p>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p> <p>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④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금융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p>	<p>①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이하 생략)</p> <p>③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협의회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p> <p>⑤ 협의회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금융교육과 관련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p> <p>2.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부원장 (이하 생략)</p>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에서 2025년 9월 3일 검색 및 출력).

현행과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하나의 조항으로 금융교육을 규정하기에는 청소년기 금융교육의 중요성과 전 국민의 금융이해력과 역량 수준을 높이는 것이 사회정책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금융교육을 진흥하거나 활성화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법안이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예컨대 지난 21대 국회(2020.5.30.~2024.4.29.)에서는 2개의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하나는 학교 금융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홍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 제정안 「금융교육진흥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 금융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들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어 진행된 논의가 이어지지 못하였으나, 민형배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은 제22대 국회(2024.5.30.~현재)에서 다시 법률 제정안으로 발의되어 현재 소관위원회의 심사 중에 있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25.09.22. 검색 및 인출).

이 법률 제정안에는 학교 금융교육 및 학교 외 금융교육을 모두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에서 규정하는 내용 이상의 방향과 구체적인 사항이 담기지는 않았고, 당위적 요소 중심으로 법률안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금융교육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근거 기반의 실증자료들이 현재로서는 부족하기에 법률 제정안도 다소 구체성이 낮은 수준에서 국가정책 하에서 갖추어야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금융교육의 진흥 또는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면, 현행 근거 법률이 갖는 한계에 대한 실증 기반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더하여 금융교육 정책을 추진 함에 있어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의 시각에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체계적 분석도 요구된다.

표 III-7. 금융교육 관련 최근 발의 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주요 목적	제안일	의결결과
2210627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시민 금융역량 강화	2025.05.29	소관위심사
2120766	금융교육진흥법안	학교 금융교육 진흥	2023.03.20	임기만료폐기
2112555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시민 금융역량 강화	2021.09.14	임기만료폐기

*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에서 2025년 9월 22일 검색 및 출력).

2) 추진 체계 및 내용

2022년 12월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안건으로 발표된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 자료를 살펴보면, 생애주기를 크게 4단계(아동·청소년기-청년기-중장년기-노년기)로 나누고, 이들 생애 단계별 금융교육을 총괄하고 협업하는 기관을 분류한 일명 ‘실무협의체’의 구성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실무협의체가 바로 현행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금융교육 추진의 기본적인 체계라 할 수 있다. <표 III-8>에 제시한 청년기의 실무협의체를 살펴보면, 총괄 기관은 금융감독원이고, 모두 6개의 협업 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구성되어 있다(금융위원회, 2022.12.22.).

이들 각 협업 기관의 기능 및 역할의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화된 것이 없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나, 금융감독원이 금융교육이 필요한 수요처와 교육 공급기관으로서 이들 협업 기관을 연계하는 기능을 하거나, 청년층을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별로 나누어 금융교육을 나누어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떠한 기준과 사항을 고려하여 이들 추진체계를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가늠하기 어렵기는 하나, 분명한 것은 금융교육의 협업 기관이 교육을 제공하는 금융권의 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표 III-8. 금융교육협의회 실무협의체

구분	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총괄기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협업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신협중앙회, 주택금융공사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시니어금융교육 협의회, 신협중앙회, 주택금융공사

* 자료: 금융위원회(2022.12.22.). 「생애주기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금융교육 추진 방안」, p.15 [별표1] 일부 발췌 및 재구성.

한편, 2023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결과로 발표된 「2030 청년 대상 금융교육 중점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분기별로 개최되는 금융교육협의회 실무협의회를 반기 1회로 조정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업무 협조를 위해 수시로 협의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금융교육협의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였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실무협의체에 참여 하는 금융교육 실적을 보고한 바 있다(금융위원회, 2023.12.22.). 이에 따라 청년기 금융교육에 협업하는 기관 중 2024년 교육 실적을 보고한 4개 기관의 실적을 살펴보면, <표 III-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괄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실적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청년층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 긴급자금 저리 대출인 ‘햇살론유스’ 사업을 맡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순이다(국회정무위원회, 2025.08., p.44). 이들 실적은 교육받은 사람의 수로 양적 실적에 해당한다.

표 III-9. 청년기 금융교육 협업기관 주요 교육 내용 및 실적

구분	주요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 대상	'24년 실적
금융감독원	1사1교 금융교육, 대학 실용금융강좌, 강사양성교육, 수시 방문교육 등	청소년, 대학생, 군장병, 취약계층, 금융교육 강사	33.4만 명
서민금융진흥원	찾아가는 금융교육, 온택트 실시간 강의, 동영상 교육 등	햇살론 등 정책금융 이용자, 서민·취약계층 등	12.4만 명
신용회복위원회	현장방문 교육, 실시간 화상 강의, 동영상 교육 등	채무조정 신청자, 학생, 군장병 대상 일반교육	19.2만 명
신용보증기금	산학연 연계 대학 강의, 현장 방문교육, 동영상 교육 등	청소년 및 대학생, 예비 창업자 등	0.2만 명

* 출처: 국회정무위원회(2025.08.),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 보고」, p.44 내용 중 청년 대상 교육기관 일부 발췌 및 재구성.

3. 소결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본 장에서는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의 동향과 시간 흐름 선상에서 분석된 주된 정책의 현황을 동시에 검토분석하고, 후기청소년을 포함하는 청년층 금융교육 자원의 법률 근거와 추진체계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음.
- 최근 1여 년간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은 크게 세 가지(①채무조정 및 대출 지원, ②목돈마련 및 자산 형성, ③맞춤형 금융교육)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에 근거하여 최근 2~3년 동안 금융교육 관련 정책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본 장에서는 최근 10여 년간 정부가 청년 대상으로 지원해 온 금융지원 정책의 동향을 시간의 흐름 선상에서 살펴보고, 주요 사항을 세 가지(①채무조정 및 대출 지원, ②목돈마련 및 자산 형성, ③맞춤형 금융교육)로 구조화하였으며, 각 사항의 주요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전부터 지원했던 채무조정은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 주고, 이자를 감면해 주는 등의 내용을 넘어 소득이 없는 대학생과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대출해주는 ‘햇살론유스’로 까지 발전되었다. 주거지원의 측면에서 전월세 지원이나 학자금 지원의 정책들은 청년정책의 강화와 더불어 확대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이보다 더 큰 변화는 이전에 없던 청년세대에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정책의 도입이다. 소득격차를 넘어 자산 격차의 문제를 인지한 문재인 정부 시절 ‘청년희망적금’을 신설하여 국가 제고하에서 청년층에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상품을 마련한 것이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도약계좌’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2026년 6월 출시될 ‘청년미래적금’으로 자산 형성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OECD를 통한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금융교육의 강조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을 계기로 생애 단계별 대상자를 나누어 접근하는 금융교육이 추진되었다. 청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추진 계획도 수립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금융교육 자료 및 콘텐츠 개발·배포, 특강, 대학 ‘실용 금융’ 강좌 개설의 지원 등의 사업도 조금씩 확대되어 가고 있다.

금융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시대적 요구로 국회에서 금융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 법안 발의도 최근 세 차례 이루어진 바 있으나, 내용적 측면에서의 구체성과 그 구체성을 담는 형태적 체계의 구성이 조금 더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현행 금융교육의 체계로 연령대별 대상자와 실무협의체로 참여하는 주체들의 역할을 분담하는 수준이므로

국가정책으로서의 포괄 범위와 정책 추진의 체계는 조금 더 확대 보완될 필요 지점이 보인다. 다만,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실증 자료가 필요하다. 제안되는 새로운 법률 제정안에 금융교육의 방향과 정부가 해야 할 사항들을 채워 넣고, 현행 운영되는 정책 추진의 체계를 보완할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한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부가 금융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금융 웰빙, 즉 '삶의 질'이라는 관점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 웰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자 일관된 관점으로 견지되어야 할 것이 생애 금융 웰빙의 달성을 위한 금융교육의 적기가 바로 후기청소년 시기라는 인식이다. 즉, 생애 단계에서 금융 생활이 본격화되고 자기 의사결정이 확대되는 시기라 할 수 있는 후기청소년시기에 금융교육이 왜 집중되어야 하며, 생애 금융 웰빙의 수준을 가늠하는 시기로서 왜 이 시기가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청년층 맞춤형 금융교육이 추진된 것이 최근 2~3년 사이의 일이므로, 첫걸음부터 모든 것을 채워갈 수는 없겠으나, 분명한 것은 정부가 지원해 온 금융지원 정책들은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에 직간접적으로 금융 경험 측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에 대해 실증 근거에 기반한 결과 자료를 확보하고,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가를 실증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앞선 제2장에서 고찰한 선행 연구 결과와 함께 본 장에서 검토한 정책 지원의 내용도 다음 단계에서 작성되는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측정 도구 개발 및 작성 작업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어 다음 장에서는 측정 도구 개발 및 구체적인 문항 작성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후기청소년의 실제 금융생활 단면을 볼 수 있는 2차 자료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자료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생활 속에서의 후기청소년들의 생생한 금융 생활 경험을 청취하고 동시에 현실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고자 한다.

○ — 제4장 후기청소년 금융 생활실태 조사도구 개발 기초 작업

- 1. 2차 자료에 나타난
금융생활 실태
- 2. 금융생활 실태 측정 문항
개발을 위한 FGI
- 3. 소결

1. 2차 자료에 나타난 금융생활 실태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후기청소년의 금융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KOSIS의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금융실태조사' 일환으로 수행된 신용평가사 보유 DB자료(24년 9월 기준) 분석 결과 중 일부를 발췌 및 재구성하여 활용함.
- 후기청소년(19세~24세)의 소득은 개인소득 연평균 1,307만 원, 연평균 생활비 2,976만 원, 자산(540만 원)과 부채(271만 원)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주식과 가상자산, 부동산 자산의 보유도 통계수치로 파악되는 정도로 포착되어 자산 형성이 이 연령대부터 어느 정도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청년(19세~34세) 대출자의 84.0%가 은행에 대출잔액이 있지만, 후기청소년의 경우 은행의 비율(77.1%)이 상대적으로 낮고, 할부금융사와 저축은행에 대출잔액이 있는 비율이 25세 이상 연령대에 비해 높음.
- 청년(19세~34세) 대출자의 16.7%가 세 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이고, 후기청소년은 이보다 낮은 12.1% 수준임.
- 연체비율도 5% 이내로 낮은 수준이고, 후기청소년 연체자의 32.0%가 90일 미만에 해당되어 단기 채무조정, 즉 프리워크아웃의 대상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1) 활용 자료 및 방식의 개요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앞선 제2장에서 고찰한 이론 및 선행연구와 제3장에서 검토하고 분석한 정책 동향 및 현황 내용에 더하여, 금융생활에 대한 실체가 어떠한가에 대한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에 나타난 금융생활 실태로 이해의 윤곽(outline)을 그려보았다. 그리고 현실 밀착된 구체적인 생활상에 대해서는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그 내용을 본 장에 나누어 담았다.

4) 이 장의 1.은 송현주박사가 초고를 작성하고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수정보완하였으며, 2.는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먼저 2차 자료에 나타난 후기청소년의 금융실태는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공개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자료와 비공개 자료이기는 하나, 국회와 정책연구실무협의를 통해 확보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4년 ‘청년금융실태조사’ 일환으로 수행된 신용평가사의 카드 사용 및 대출 이용 등의 DB자료(‘24년 9월 기준) 분석 결과를 활용하였다.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수집되는 대표적인 국가승인통계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생활과 관련된 조사 항목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항목(소득, 지출, 자산, 부채)을 제외한 실제 카드 사용 및 현금서비스 등의 연계 금융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사 DB자료 분석 결과를 활용하였다.

자료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청년층(19세~34세) 내 연령대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후기청소년의 금융생활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즉, 청년 연령대를 5세 단위로 끊어 3개 연령대(19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로 나누고, 주요 사항을 비교 해석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2) 소득 및 지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후기청소년의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개인 총소득은 1,307만 원이고 이들이 속한 가구의 총소득은 4,917만 원이다. 일반적으로 19세~24세 연령대의 절대다수가 대학생이고, 본격적인 경제활동이 시작되기 전단계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청년층 내 연령대별 비교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대략적인 소득 규모가 연평균 1,307만 원 정도 된다는 사실의 확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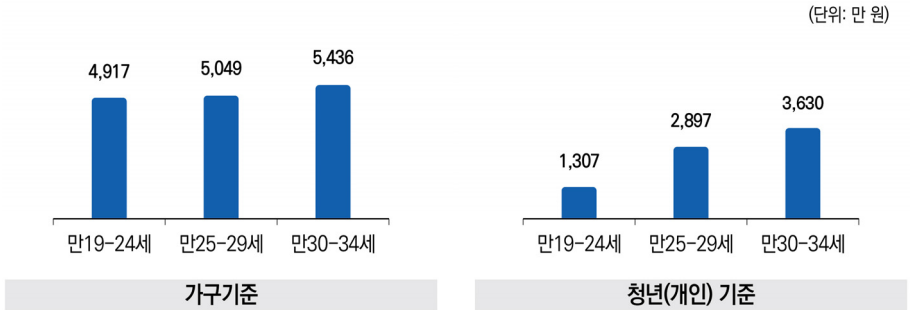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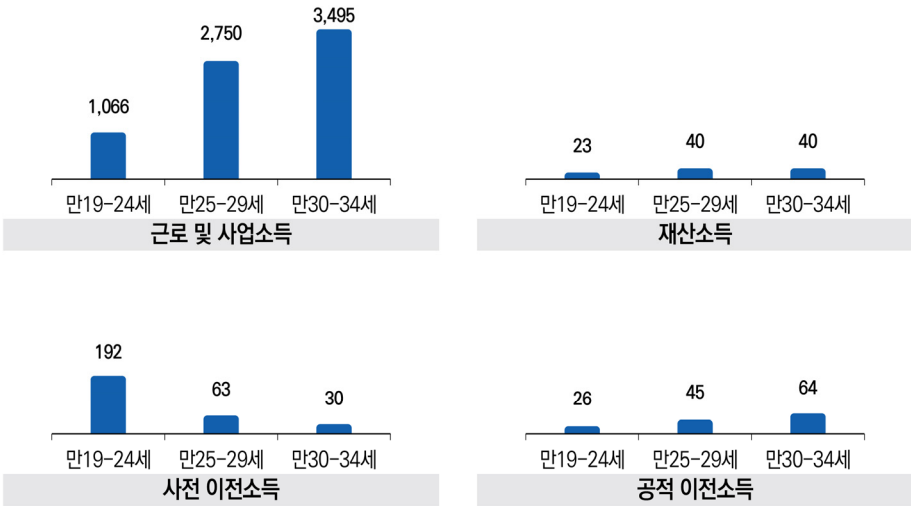


그림 IV-1. 가구 및 개인 총소득 비교

소득원천의 구성을 살펴보면, 근로 및 사업소득이 1,066만 원으로 가장 많고, 사적이전 소득이 192만 원 정도이다. 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근로 및 사업소득은 25세~29세 연령대에 두배 이상 많아지는 반면, 사적 이전소득은 25세부터 급격하게 낮아진다. 이는 25세~29세에 청년의 경제활동이 본격화되면서 근로 및 사업소득은 늘어나고,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이나 생활비와 같은 사적 이전소득은 크게 감소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많지는 않으나 재산소득이 19세~24세 23만 원, 25세 이상 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는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후기청소년의 경우가 없지 않음을 의미한다.

(단위: 만 원)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청년의 삶 실태조사' 자료 재구성(<https://kosis.kr>, 2025.04.16. 검색 및 인출).

그림 IV-2. 소득원천별 비교

소득에 이어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19세~24세의 연평균 총생활비는 2,976만 원으로 경제활동이 본격화되는 25세~29세(3,275만 원)와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항목별 지출비를 살펴보면, 식료품비와 교육비, 통신비 및 교통비는 25세 이상 연령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주거비와 오락·문화비의 지출 금액은 낮다. 결과적으로 필수적인 항목에 대한 지출은 25세 이상 연령대에 비해 많고, 선택적 지출은 여윌돈의 부족으로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1. 연령대별 총생활비 및 항목별 월평균 가구 지출

(단위: 만 원)

연령	구분	총생활비		항목별 월평균 가구지출					
		평균	중위	식료 품비	주거비 (월세)	주거비 (주거 관리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
만 19~24세		2,976	271	83	13	15	22	15	23
만 25~29세		3,275	1,339	76	15	15	5	13	20
만 30~34세		5,341	3,265	80	12	16	5	13	22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청년의 삶 실태조사' 자료 재구성(<https://kosis.kr>, 2025.04.16. 검색 및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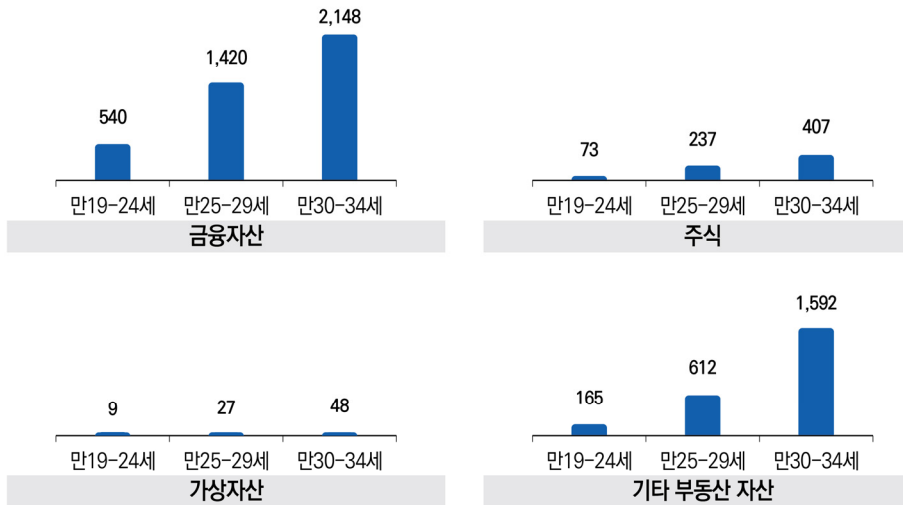
3) 자산 및 부채

같은 자료와 방식으로 후기청소년의 자산 보유 수준을 살펴보면,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서 자산과 관련하여 측정하고 있는 항목은 총 4개 항목(금융자산, 주식, 가상자산, 기타 부동산 자산)인데, 이 중 주식과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에 포함되기에 크게 금융자산과 기타 부동산 자산을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4가지 항목 각각에 대해 연령대별 비교를 해보면, 예·적금 등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은 경제활동이 본격화되는 25세~29세 연령대가 되어야 연평균 1,420만 원 정도 되고, 30세~34세는 연평균 2,148만 원 정도가 된다. 19세~24세 후기청소년은 연평균 540만 원 정도의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연령대별 비교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19세~24세 후기청소년은 자산의 절대적 규모가 작고, 예·적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이 중심이 되나, 25세~29세에는 금융자산, 주식과 함께 기타 부동산 자산이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하고, 30세~34세에서는 기타 부동산 자산이 상당 비율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그 가운데 후기청소년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금액이 적기는 하나 주식과 가상자산 그리고 기타 부동산 자산의 보유도 통계수치로 파악되는 정도로 포착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산 형성이 후기청소년 연령대부터 어느 정도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위: 만 원)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청년의 삶 실태조사' 자료 재구성(<https://kosis.kr>, 2025.07.10. 검색 및 인출).

그림 IV-3. 금융자산 및 기타 부동산 자산 비교

자산에 이어 부채 보유 실태를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면, 총부채는 가구와 개인 기준 모두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 19세~24세 후기청소년 개인 기준 총부채 평균 금액은 271만 원이다. 이를 부채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주택관련 부채가 151만 원으로 가장 많고, 학자금(60만 원 그 다음으로 많다. 생활비(11만 원)나 자산 투자금(9만 원)으로 부채가 있는 경우도 평균 수치로 나타날 정도의 규모가 된다.

자산 투자금의 비중은 25세~29세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30세~34세 연령대에서는 25세~29세 금액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한다. 주택 관련 부채나 생활비도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구조를 보인다. 단 하나, 학자금의 경우 25세~29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대학 졸업까지의 누적된 학자금 부채가 30세~34세에는 어느 정도 상환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평균 수치로 포착되는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자산투자금으로 인한 부채 금액은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연령대에서 이미 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돈을 빌려 쓰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조사 통계를 통해 파악된다는 점이다.

표 IV-2. 연령대별 총부채 및 부채유형별 비교

(단위: 만 원)

연령	구분	총부채		부채 유형			
		가구 기준	청년(개인) 기준	학자금	자산 투자금	주택 관련	생활비
만 19~24세		2,976	271	60	9	151	11
만 25~29세		3,275	1,339	96	70	833	36
만 30~34세		5,341	3,265	48	139	2,487	58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청년의 삶 실태조사' 자료 재구성(<https://kosis.kr>, 2025.07.10. 검색 및 인출).

4) 카드 사용 및 대출 관련 현황

(1) 카드 사용

① 월평균 카드(신용·체크) 소비

19세~24세 후기청소년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으로 소비하는 월평균 금액은 81.9만 원으로, 청년층 전체 평균 146.7만 원의 약 55.8%의 수준으로 나타난다. 소비 구간별 비율을 살펴보면, 후기청소년의 80.2%가 월 25만 원 미만을 사용하여 이들 연령대의 카드사용은 대체로 소액 중심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IV-3. 후기청소년 월평균 카드 소비 금액

(단위: 명, 천 원, %)

구분		청년층 전체 (19세~34세)	19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사례수		9,274,074 (100.0)	2,678,951 (29.0)	3,131,400 (33.8)	3,454,723 (37.2)
평균 소비 금액		1,467	819	1,448	1,987
소비 구간별 비율	25만 원 미만	50.4	80.2	44.8	32.2
	25만 원~50만 원 미만	5.9	4.3	6.9	6.3
	50만 원~100만 원 미만	11.2	6.2	13.4	13.2
	100만 원~200만 원 미만	16.2	5.8	18.8	21.9
	200만 원~300만 원 미만	8.0	2.0	8.5	12.2
	300만 원~500만 원 미만	5.4	1.1	5.2	9.1
500만 원 이상		2.8	0.4	2.4	5.1

* 출처: 서민금융진흥원(2024.12.). 「청년금융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p.42~43에서 발췌 및 재구성.

②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보유 개수

소액결제에 주로 사용하는 후기청소년의 신용카드 평균 보유 개수는 1개로, 청년층 전체의 평균 보유 개수인 1.7개 보다 적은 개수를 보유한다. 다수의 후기청소년(74.0%)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데 반해,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신용카드 보유 개수는 늘어 25세~29세 1.7개, 30세~34세 2.3개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체크카드의 경우 연령 대별 큰 차이 없이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절대다수로, 청년층 전체의 86.9%, 후기청소년의 88.3%가 체크카드를 보유하지 않는다.

표 IV-4. 후기청소년 신용 및 체크카드 보유 개수

(단위: 명, 개, %)

구분		청년층 전체 (19세~34세)	19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사례수		9,274,074 (100.0)	2,678,951 (29.0)	3,131,400 (33.8)	3,454,723 (37.2)
신용 카드	평균	1.7	1.0	1.7	2.3
	0개	39.4	74.0	31.7	19.4
	1개	24.7	18.7	31.6	23.2
	2개	17.5	5.1	20.8	24.1
	3개 이상	18.4	2.2	15.9	33.3
체크 카드	평균	0.2	0.3	0.2	0.1
	0개	86.9	88.3	85.7	86.9
	1개	11.8	10.7	12.8	11.9
	2개	1.2	1.1	1.5	1.2
	3개 이상	0.0	0.0	0.0	0.0

* 출처: 서민금융진흥원(2024.12.). 「청년금융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p.44~47에서 발췌 및 재구성.

③ 월평균 신용카드 할부 사용 금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세~24세 연령대는 월평균 25만 원 미만의 소액 중심으로 카드 소비를 하고, 신용카드를 보유한 비율 또한 높지 않은 만큼 월평균 신용카드 할부 사용액 또한 25.66만 원 정도로 나타난다. 이는 청년층 전체 평균 36.64만 원의 약 70.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할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후기청소년은 71.2%, 사용하는 비율은 28.2%이다. 이들이 할부거래에 따른 잔액이 부채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7.8%에 해당하는 후기청소년은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신용카드 할부 금액 규모가 커지며, 30세~34세는 19세~24세보다 월평균 약 15.3만 원 더 많이 사용한다. 또한 할부를 사용하지 않는 비율은 감소하고,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할부 금액 비율이 증가한다.

표 IV-5. 후기청소년 신용카드 할부 사용 금액

(단위: 명, 천 원, %)

구분		청년층 전체 (19세~34세)	19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사례수		9,274,074 (100.0)	2,678,951 (29.0)	3,131,400 (33.8)	3,454,723 (37.2)
평균 할부 금액		366.4	256.6	346.7	409.1
할부 구간별 비율	0원	66.8	71.2	66.2	66.1
	25만 원 미만	8.5	8.4	8.9	8.2
	25만 원~50만 원 미만	6.9	6.4	7.2	6.9
	50만 원~100만 원 미만	7.4	6.2	7.5	7.7
	100만 원~200만 원 미만	6.1	4.9	6.2	6.3
	200만 원~300만 원 미만	2.1	1.6	2.1	2.3
	300만 원~500만 원 미만	1.3	0.9	1.2	1.5
	500만 원 이상	0.8	0.4	0.7	1.0

* 출처: 서민금융진흥원(2024. 12.), 「청년금융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p.48-49에서 발췌 및 재구성.

④ 월평균 신용카드 리볼빙 사용 금액

일명 회전식 결제라고 불리는 ‘리볼빙 제도(revolving system)’는 일부결제금액 이월 약정제도이다.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면 남은 잔액은 일정액의 수수료가 추가되어 다음 결제일로 이월되는 결제 서비스이고, 일시불과 현금서비스 결제 모두에 사용이 가능하다(다음백과, 2025.10.08. 검색). 가입한 금융회사에서는 대금 결제의 이월을 카드 대금 연체로 간주하지 않기는 하나, 실제 내용 측면에서는 결제하고 이월하는 잔액은 할부 잔액과 같이 부채로 볼 수 있다.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월평균 리볼빙 사용액은 190.3만 원이고, 이는 청년층 전체 평균 316만 원의 약 60.2% 수준이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용액은 증가한다. 그러나 구간별 비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청년층은 리볼빙을 사용하지 않고, 특히 후기청소년의 97.2%는 리볼빙 사용액이 ‘0’원이다. 이는 후기청소년의 극소수만이 리볼빙 사용을 통한 부채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IV-6. 후기청소년 월평균 신용카드 리볼빙 사용 금액

(단위: 명, 천원, %)

구분		청년층 전체 (19세~34세)	19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사례수		9,274,074 (100.0)	2,678,951 (29.0)	3,131,400 (33.8)	3,454,723 (37.2)
평균 리볼빙 금액		3,167	1,903	2,950	3,651
리볼빙 구간별 비율	0원	94.7	97.2	94.8	94.0
	25만 원 미만	0.7	0.5	0.7	0.8
	25만 원~50만 원 미만	0.5	0.4	0.5	0.5
	50만 원~100만 원 미만	0.7	0.5	0.8	0.8
	100만 원~200만 원 미만	0.9	0.5	0.9	0.9
	200만 원~300만 원 미만	0.6	0.3	0.6	0.6
	300만 원~500만 원 미만	0.7	0.3	0.7	0.8
500만 원 이상		1.1	0.3	1.0	1.5

* 출처: 서민금융진흥원(2024.12.). 「청년금융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p.50~51에서 발췌 및 재구성.

⑤ 월평균 현금서비스 사용 금액

‘현금서비스’는 카드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급전(다음백과, 2025.10.08. 검색)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리볼빙 사용 금액과 비교해 볼 때, 후기청소년의 월평균 현금서비스 사용 금액은 5.37만 원 가량이고, 이는 청년층 전체 6.99만 원의 약 76.8% 수준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용 금액 또한 증가한다.

현금서비스 구간별 비율을 살펴보면, 후기청소년의 95.1%는 현금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연령대에서도 큰 차이 없는 비율로 현금서비스 이용 금액이 ‘0’인 비율이 나타난다. 가령 25세~29세는 95.7%이고, 30세~34세는 96.4%가 현금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리볼빙 사용자 비율(2.8%)과 비교해 볼 때, 현금서비스 사용 비율(4.9%)이 다소 높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현금서비스를 사용하는 후기청소년은 5% 미만 선의 소수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 IV-7. 후기청소년 월평균 현금서비스 사용 금액

(단위: 명, 천원, %)

구분		청년층 전체 (19세~34세)	19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사례수		9,274,074 (100.0)	2,678,951 (29.0)	3,131,400 (33.8)	3,454,723 (37.2)
평균 현금서비스 금액		69.9	53.7	67.2	76.1
현금 서비스 구간별 비율	0원	96.0	95.1	95.7	96.4
	25만 원 미만	0.8	1.2	0.9	0.6
	25만 원~50만 원 미만	0.6	0.9	0.6	0.5
	50만 원~100만 원 미만	0.7	1.0	0.8	0.6
	100만 원~200만 원 미만	0.8	1.0	0.9	0.7
	200만 원~300만 원 미만	0.4	0.4	0.4	0.4
	300만 원~500만 원 미만	0.4	0.3	0.4	0.4
500만 원 이상		0.3	0.1	0.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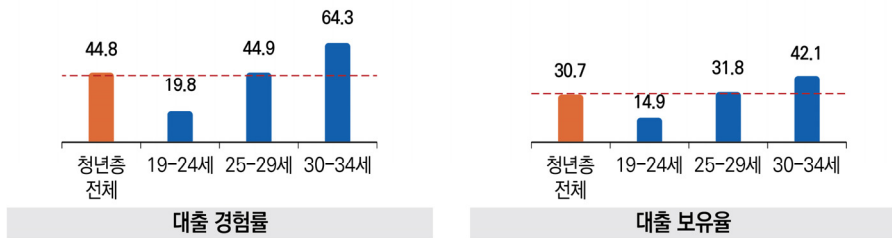
* 출처: 서민금융진흥원(2024.12.). 「청년금융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p.52~53에서 발췌 및 재구성.

(2) 대출 현황

① 대출 경험 유무 및 보유 여부

앞서 제3장의 금융정책 지원의 동향과 현황을 통해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저리의 긴급자금을 대출해 주는 지원이 있고, 금융권 및 비금융권에서의 소액 대출 또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19세~24세 연령대에서 대출 경험이 없을 것이라 단언하기 어렵다.

신용평가사의 DB자료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대출 경험률은 19.8%이고, 현재 보유하는 비율 또한 14.9%로 낮지 않다. 그러나 청년층 전체(44.8%)와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대출 경험률과 보유율은 크게 증가한다. 비율로 환산해 보면, 19세~24세의 대출 경험률 19세~24세의 대출 경험률은 청년층 전체의 약 44%, 30세~34세의 약 31% 수준이다. 대출 보유율도 청년층 전체의 49%, 30세~34세의 약 35% 수준을 보인다.



* 출처: 서민금융진흥원(2024.12.). 「청년금융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p.54-57에서 발췌 및 재구성.

그림 IV-4. 대출 경험률 및 보유율

② 대출잔액

이어 대출잔액을 살펴보면,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평균 대출잔액은 1,000만 원으로 청년층 전체 평균 3,700만 원의 약 27% 수준을 보인다. 앞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대출 보유율이 증가한 바와 같이, 대출잔액 또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표 IV-8. 후기청소년 대출잔액 및 업권별 비율

단위: 명, 백만 원, %

구분		청년층 대출자 (19세~34세)	19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사례수		2,850,636 (100.0)	400,320 (14.0)	994,292 (34.9)	1,456,024 (51.1)
평균 대출잔액		37	10	25	44
업권별 대출잔액 비율	은행	84.0	77.1	81.4	85.4
	보험	1.8	1.2	1.3	1.9
	신용카드	0.5	0.7	0.8	0.4
	할부금융	5.1	9.8	6.7	4.2
	저축은행	4.2	7.1	5.4	3.6
	조합업권	0.1	0.1	0.1	0.1
그 외 기타업권		4.3	4.0	4.3	4.3

* 출처: 서민금융진흥원(2024.12.). 「청년금융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p.58-59에서 발췌 및 재구성.

대출을 해준 곳, 즉 업권별 대출잔액 비율을 살펴보면, 청년층 전체의 84.0%가 은행에 대출잔액이 있다. 19세~24세 후기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낮은 77.1% 수준이지만, 할부금

영업이나 저축은행에 대출잔액이 있는 비율은 19세~24세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는 경제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는 19세~24세 후기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소액 및 단기 대출이 가능한 비은행권을 통한 대출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음을 시사한다.

③ 대출 건수 및 다중채무자 비율

대출잔액에 이어 대출 건수 및 다중채무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평균 대출 건수는 1.7건이고, 1개의 대출을 갖는 비율이 67.7%로 청년층 전체(61.2%)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는 후기청소년 10명 중 7명은 평균 1개의 대출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출을 세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받아 이용하는, 즉 다중채무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청년층 전체 16.7%이고, 19세~24세 후기청소년은 12.1% 수준을 보인다. 대다수가 대학생으로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연령대에서 세 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이들이 12.2%라는 수치는 결코 낮은 비율로 보기 어렵다. 특히 앞서 살펴본 업권별 대출잔액 비율에서 할부금융과 저축은행에서의 대출잔액이 있는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비율이 25세 이상 연령대에 비해 높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이들 비은행권 대출잔액 보유자는 은행 대출과 함께 복수의 대출을 보유하는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표 IV-9. 대출 건수 및 다중채무자 비율

(단위: 명, 개, %)

구분	청년층 대출자 (19세~34세)	19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사례수	2,850,636 (100.0)	400,320 (14.0)	994,292 (34.9)	1,456,024 (51.1)
평균 대출 건수	2.0	1.7	2.0	2.1
1개	61.2	67.7	61.1	59.5
2개	22.1	20.2	21.7	22.8
3개	9.0	7.7	9.2	9.2
4개 이상	7.8	4.5	8.0	8.5
다중채무자 비율	16.8	12.2	17.2	17.7

* 출처: 서민금융진흥원(2024. 12.). 「청년금융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p.61-63에서 발췌 및 재구성.

④ 연체 경험 및 현재 연체율

이어 대출금 상환 연체 경험률과 현재 연체율을 살펴보면, 청년층 전체의 연체 경험률(11.1%)이나 현재 연체율(6.2%)에 비해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연체 경험률은 각각 4.6%, 2.6%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 연체율이라는 것이 시간 누적되는 측면이 있어, 25세~29세 연령대에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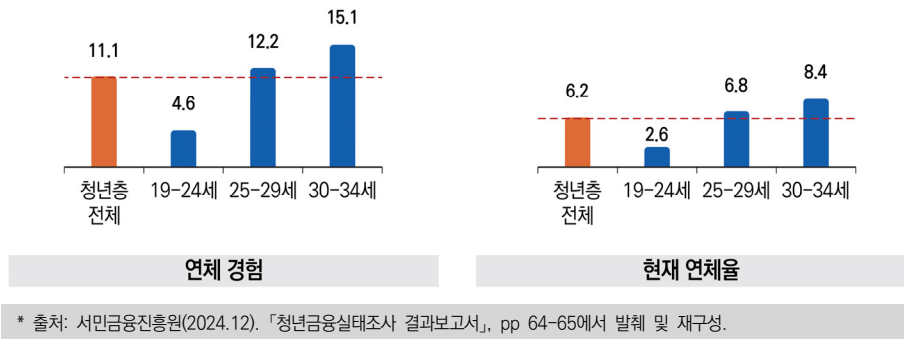


그림 IV-5. 연체 경험 및 현재 연체율

⑤ 연체 일수

연체율에 이어 연체 일수를 살펴보면,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평균 연체 일수는 116.7일이고, 이는 청년층 전체 평균 연체 일인 121.9일보다 짧다. 연체 일수도 연체율과 같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 연체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연체 일수를 구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19세~24세의 32.0%가 30~90일 미만에 해당한다. 앞선 제3장에서 살펴본 ‘채무조정 특례 지원’ 중 1개월~3개월 미만 연체자를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에 적용해 본다면, 19세~24세의 연체자의 32%는 채무조정 특례 지원을 받아 약정이자율의 70% 인하, 상환 전 유예기간 3년,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90일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을 모두 하나로 묶어내면, 연체 3개월을 초과자의 비율이 19세~24세 후기청소년에서 68.1%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프리워크아웃’으로 되지 않고, 3개월 이상 연체자를 지원하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채무 금액의 감면받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빠르게 신용회복을 지원받아야 하는 비율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표 IV-10. 연체 일수

(단위: 명, 일, %)

구분		청년층 연체자 (19세~34세)	19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사례수		572,347 (100.0)	69,552 (12.2)	211,520 (36.9)	291,275 (50.1)
평균 연체일		121.9	116.7	118.9	125.3
연체 일수 구간별 비율	30일~90일 미만	25.6	32.0	26.5	23.4
	90일~180일 미만	25.6	27.0	25.9	25.0
	180일~1년 미만	24.5	21.4	24.0	25.7
	1년~2년 미만	14.9	13.1	14.6	15.5
	2년~3년 미만	4.8	4.2	4.6	5.1
3년 이상		4.6	2.4	4.3	5.3

* 출처: 서민금융진흥원(2024.12.). 「청년금융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p.68-69에서 발췌 및 재구성.

이상과 같이, 두 가지의 2차 자료를 통해 후기청소년 금융 생활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 후기청소년의 구체적이고 현실 밀착적인 금융 생활을 파악하고자 초점집단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후기청소년 당사자들의 생생한 금융 생활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였다.

2. 금융생활 실태 측정 문항 개발을 위한 FGI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여기에서는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조사 도구를 마련하고자, 후기청소년의 구체적인 금융생활의 경험과 생활 속에서의 인식 등을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청취할 수 있도록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실시하고, 분석을 거쳐 문항 개발·작성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의미를 도출함.
-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주요 상태를 고려하여 3개 집단(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으로 구성하고, 연구진이 설정한 참여자 구성 및 선정 기준에 따라 확정된 총 16명의 후기청소년이 참여함.
-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통해 청취된 내용을 자료화 및 분석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의미를 도출함.
 - ① 후기청소년의 낮은 금융이해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19세~24세 연령세대가 갖는 몇 가지 특성이 발견됨.
 - ② ‘돈’에 대한 가치관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현실 인식 체감
 - ③ 부모의 사회화가 아닌 부모의 금융사회화를 주도하는 역사회화 주제로서의 역할 수행
 - ④ 저축과 투자 경험의 시작 및 경험이 쌓이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 존재
 - ⑤ 세대 내 다양한 측면의 차이 발견

1) FGI 조사 개요

(1) 초점집단면접조사(FGI)의 목적 및 추진 과정

앞서 2차 자료를 통해 후기청소년의 금융 생활 실태에 관한 개략적인 현황을 살펴본 데 이어, 여기에서는 후기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지 현실의 금융 생활을 당사자들의 경험을 초점집단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초점집단면접조사(FGI)의 일차적인 목적은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질 설문조사의 조사도구, 즉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금융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의 개발과 작성에 있다. 그러나 비단 문항 개발 및 작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연구의 서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및 방법이 단계적으로 이어지고, 앞선 단계에서 도출된 결과가 이후 단계에서 자료로 활용되는 방식의 순차적 통합연구방법으로 설계되었다. 이후 단계는 제5장에서 설명될 설문조사의 도구 개발을 위해서만 본 장의 초점집단면접조사의 결과가 활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실증분석 결과의 해석 및 각 단계에서의 결과들을 종합 분석하여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안하는 단계에서도 활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본 장의 초점집단면접조사가 연구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지점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그림 IV-6]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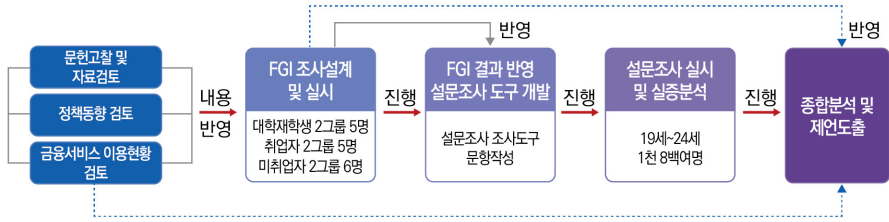


그림 IV-6. 연구 추진 단계에서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위치 및 활용

(2)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 구성

① 참여자 집단 구성 및 섭외 기준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설계 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던 부분이 그룹의 구성 기준이다. 그룹 간 기준 특성이 달라 중첩되지 않아야 하고, 각 그룹 내 참여자들은 기준 특성은 같지만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이들로 구성해야만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공통된 금융 생활의 측면과 개별적 차이를 한 번에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 검토하며 그룹 구성의 기준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기준은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상태, 즉 대학 진학 여부 및 취업 여부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때 준거가 되었던 것은 202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자료이다. 이 자료를 사용한 데에는 후기청소년 연령대의 고등교육 수학 상태와 취업상태 등이 함께 제시되는 자료가 흔치 않고, 15세~29세 연령층을 세 개의 연령범주(15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로 구분하여 청년층 내 연령대별 상태 비중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이 자료가 유일하기 때문이다(통계청, 2024.07.16.).

이러한 과정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참여 집단은 우선 크게 3개 그룹(대학재학생, 취업자, 미취업자)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을 다시 학제 또는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나누어 총 6개 그룹(대학재학생 그룹(2·3년제, 4년제), 취업자(고졸, 대졸), 미취업자(고졸, 대졸))으로 구성하였다. 이어 각 그룹에 참여하는 참여 인원수는 예산 제약을 고려하여 각 3명씩 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총 참여자를 기준으로 남녀 성비, 출신 지역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공통의 섭외 기준을 마련하였고, 특히 대학생 그룹은 동일 학교, 취업자 그룹은 동일 직장 근무자로 구성한다거나 서로 아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그룹별 섭외 기준으로 추가하였다.

표 IV-11. FGI 참여자 그룹 구성 및 섭외 기준

구분		특성	인원		섭외 기준	
			배정	참여	공통	그룹
대학생	그룹1	2·3년제 대학 재학생	3	2	남녀 성비, 출신 지역 쏠림 없이 구성	동일 학교 재학생 구성 불가
	그룹2	4년제 대학 재학생	3	3		
취업자	그룹3	고졸 취업자	3	2	서로 아는 참여자를 하나의 그룹에 구성 불가	동일 직장 근무자 구성 불가
	그룹4	대졸 취업자	3	3		
미취업자	그룹5	고졸 미취업자	3	3		구직, 취준, 진학준비 등
	그룹6	대졸 미취업자	3	3		

② 참여자 구성 및 특성

그룹 구성 및 참여자 섭외 기준 마련 후 조사 전문 회사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신청한 참여자 중 연구진이 설정한 섭외 기준에 부합하는지와 더불어 금융생활 경험에 관한 간략한 사전 확인 정보를 바탕으로 총 18명을 참여자로 섭외·확정하였다. 참여자를 모집하고, 선정하는 전 과정에서 언제든지 참여자가 참여를 철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각 추진 단계에서의 연구윤리 준수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참여가 확정된 18명 중 대학생 그룹1과 취업자 그룹3에서 각 1명씩 면접조사 당일 참여를 철회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최종 참여자는 18명에서 2명이 제외된 16명이다. 이들 참여자의 간략 특성은 <표 IV-12>에 제시하였다.

그룹별 참여자 특성을 살펴보면, 대학생 그룹1은 2·3년제 전문대학에 재학하는 고학년 남학생과 저학년 여학생 각 1명씩으로 구성되었는데, 여학생은 중학교 3학년 때 주식 투자 경험이 있지만, 이 경험으로 인해 현재는 금융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남학생은 현재 미국 주식과 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 대학생 그룹2는 4년제 대학에 재학하는 2학년 여학생 1명과 3학년 남학생 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2학년 여학생은 신용카드 사용과 예금 등의 저축을 하고, 3학년 남학생들은 신용카드 할부 사용과 예적금 및 주식, 코인 등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 경험이 있는 이들이다.

표 IV-12. FGI 그룹별 참여자 구성 및 특성

구분			성별	연령	재학 학년/ 최종 학력	현재 상태/ 업무 경력	금융생활 경험 특성
대학 재학생	그룹1 (2·3년제)	G1-A	여	20	2년제 1학년	-	중3 때 국내, 미국 주식 투자 시작
		G1-B	남	23	3년제 3학년		현재 미국 주식, 코인 단타 투자
	그룹2 (4년제)	G2-A	여	19	4년제 2학년	-	신용카드 사용, 예금 등 저축만
		G2-B	남	20	4년제 3학년		할부, 예·적금 저축, 주식, 코인 투자
		G2-C	남	22	4년제 3학년		전세자금 대출 및 신용카드 할부 주식, 코인, 펀드, 채권, 외화 투자
취업자	그룹3 (고졸)	G3-A	여	19	특성화고졸	1년	할부, 예·적금 저축, 주식 투자
		G3-B	여	20	특성화고졸	2년	대출 상환 중, 신용카드, 주식 투자
	그룹4 (대졸)	G4-A	여	24	2년제 대졸	2개월	고교 때부터 주식 투자, 청약 저축
		G4-B	여	24	4년제 대졸	1년	학자금 대출, 주식, 코인 투자
		G4-C	남	24	4년제 대졸	1년	예·적금 저축, 주식 투자
미취업자	그룹5 (고졸)	G5-A	남	23	일반고졸	취업 준비	할부, 청약저축
		G5-B	남	22	특성화고졸	취업 준비	적금
		G5-C	남	22	일반고졸	취업 준비	주식, 코인 투자
	그룹6 (대졸)	G6-A	여	24	4년제 대졸	진학 예정	예·적금 저축
		G7-B	여	22	2년제 대졸	취업 준비	주식 투자
		G8-C	남	24	4년제 대졸	취업 준비	담보 및 학자금 대출, 미국 주식 투자

취업자 그룹3은 고졸 여성 취업자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특성화고교를 졸업한 지 1년~2년 정도 되었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신용카드 할부 사용의 경험과 예·적금, 주식 투자 경험이 있고, 이들 중 한 명(G3-B)의 경우는 대출 및 상환 경험이 있기도 하다. 취업자 그룹4는 2년제 대졸 여성 1명과 4년제 대졸 여성과 남성 각 1명씩으로 구성되었고, 모두 1년 이하의 짧은 근속 경력을 사회 초년생들이다. 2년제 대졸 여성(G4-A)의 경우, 고등학생 때부터 주식 투자의 경험이 있고, 현재 청약 저축을 하고 있으며, 4년제 대졸 여성은 학자금 대출과 주식 및 코인 투자 경험을 갖는다. 4년제 대졸 남성은 예·적금 저축과 주식 투자의 경험이 있다.

미취업자 그룹5는 고졸 미취업자 그룹인데, 모두 남성 참여자들이 참여하였다. 미취업 상태이기는 하나, 저축 및 주식, 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 대졸 미취업자 그룹인 그룹6은 4년제 대졸자 여성, 남성 각 1명씩, 2년제 졸업자 여성 1명으로 구성되었고, 이들 또한 저축과 주식 투자 경험, 그리고 대출 경험이 있다.

2) 초점집단면접조사(FGI) 내용 및 방법

(1) 조사내용의 구성

총 6개 그룹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조사 내용은 공통으로 앞선 장들에서 고찰되고 검토되었던 자료를 토대로 설계되었다. 우선 제2장의 선행 연구 고찰에서 논의하였던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 두 개의 주된 이론, 즉 금융사회화와 금융정체성을 고려하였고, 제3장에서 살펴본 청년층 대상의 금융지원 정책의 내용, 그리고 앞서 2차 자료를 통해 살펴본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금융서비스 이용 현황을 모두 종합하여 검토한 후,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작성하였다.

작성된 질문은 최대한 간략하게 경험과 인식을 중심의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초점을 명확하게 하는 간략한 질문은 참여자들의 답변 내용을 풍성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답변 과정에서 구성된 그룹 간 특성은 물론, 그룹 내 참여자들의 개별 특성에 따른 답변의 차이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구성된 주요 내용은 <표 IV-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크게 금융 생활 경험과 금융이해력 인식 및 태도이다. 금융 생활 경험으로는 4가지 사항(저축과 투자 경험, 카드 사용 경험, 금융교육 경험, 부채 및 금융 피해의 경험)을 기본 축의 질문으로 활용하였고, 금융이해력 인식 및 태도 또한 4가지 사항(금융지식수준,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 금융이해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금융이해력 필요성 및 중요성)이 공통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구성된 질문 이외, 면접조사 과정에서는 그룹에 따라 참여자들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계되거나 파생되는 새로운 질문이 추가되기도 하였음을 밝힌다.

표 IV-13.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주요 내용 구성

구분	내용	
금융 생활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축과 투자 경험• 금융교육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드 사용 경험• 부채 및 금융 피해 경험
금융이해력 인식 및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지식수준• 금융이해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 금융이해력 필요성 및 중요성

(2) 조사 실시

① 조사계획에 대한 IRB 심의

참여자 구성 및 섭외, 그리고 질문 작성이 완료된 후 본격적인 초점집단면접조사가 시작되기 전, 연구 관리 절차에 따라 조사 실시 계획에 대한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 신청 및 승인 통보 후 초점집단면접조사가 실시되었다(승인번호: 202503-HR-고유-003, 통보일: 2025.03.31.).

② 조사의 진행

초점집단면접조사는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설명과 함께 시작하였고, 참여 전 동의를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다시 한번 분석을 위한 내용의 녹취에 대한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쳤다. 개인의 경험보다는 본 연구의 문제 제기이자 질문의 시작점이기도 한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이 왜 낮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도입 질문으로 설정되었다.

그룹마다 이 도입 질문을 시작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내용의 반구조화된 질문 주제가 순차적 질문으로 제시되었다. 앞서 조사 내용의 구성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그룹 특성에 따라 또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질문이 추가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설정된 질문 주제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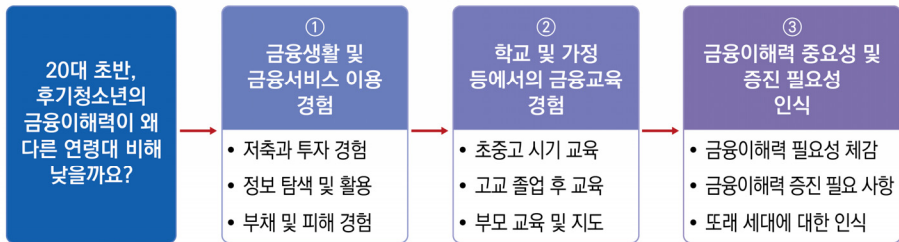


그림 IV-7. FGI 주요 내용 구성 및 진행 흐름

③ 조사 일정 및 방식

초점집단면접조사는 참여자들과의 일정 조율을 거친 후 2025년 4월 16일~25일까지 6개 그룹의 일정을 확정하고 순차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당일 조사가 실시된 시간은

대략 시작 시간으로부터 90분을 기본으로 설정하여 진행하되, 초과 될 경우라도 최대 120분 이내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추진된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추진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IV-14>와 같다.

표 IV-14.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추진 방법 개요

구분	내용
참여자 섭외 및 참여자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 조사 업체에서 온라인으로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 후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 풀(pool) 확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진이 설계한 참여자 그룹 구성에 부합 정도를 필터링 면접조사를 통해 청취하고자 하는 금융 생활 경험 내용이 있는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여 목록화 계획된 면접조사 일정을 안내하고 참여 가능 여부 타진 후 신청자 우선 섭외 순위 부여 확정된 일시 및 장소, 조사 방식 및 소요 시간 안내 후 조사 참여에 대한 최종 동의 후 확정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에 안내된 장소로 참여자 내방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4월 16일~ 4월 25일(10일 간)
조사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구조화된 주요 질문의 내용을 참여자들에게 사전에 제공 각 그룹의 특성 및 참여자 개개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연구자가 사전에 숙지한 후 진행 연구의 취지 및 목적, 연구 수행의 필요성과 배경을 각 그룹 참여자들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도입 질문으로 연결한 후 참여자들과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 연구책임자가 6개 그룹 면접조사를 모두 진행함으로써 그룹별 주요 질문의 방식과 내용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일관성을 유지함.
참여 횟수 및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룹별 1회, 면접조사 시간은 90분을 기본으로 설정 참여자들의 이야기가 많은 경우 최대 120분 이내로 조정하여 운영
기록 및 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섭외 과정에서 기록을 위한 내용 녹취에 대해 안내 및 사전 동의를 구함. 면접조사 시작 전, 다시 기록 및 분석을 위해 내용 녹취의 필요성 설명 및 동의 여부 확인
진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진
IRB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03.31. 심의 완료

(3)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자료의 분석

녹취된 6개 그룹의 초점집단면접조사의 내용은 전문 속기사에 의해 전사된 후, 연구진과 함께 동석한 전문 조사 업체의 연구원에 의해 검토된 후 최종 전사 자료로 산출하였다. 전사된 자료는 면접조사 직후 연구진이 그룹별로 기록한 주요 사항과 함께 주제별로 1차 분류하였고, 이어 참여자 세대가 갖는 공통된 특성과 세대 내에서 발견되는 차이를 고려하여 재범주화 하는 과정을 반복한 후 의미를 도출하고 구조화하였다.

3)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주요 결과

(1)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이 낮은 이유

① 경험 기회가 부족했던 학교 금융교육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19세~24세 후기청소년은 학교 금융교육이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기 이전 시기와 일부 정책이 추진되었던 초기인 2010년~2020년 사이 초·중·고에 재학했던 세대이다. 앞서 제3장의 금융지원 정책 동향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2021년 3월이고, 금융위원회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한 것이 2022년 12월로 2020년 이후에 본격화되었기에 후기청소년 세대가 학교 재학 시기에는 금융교육이 활성화된 시기는 아니다.

다만, 학교 교과목 중 사회과나 가정과 교육에서 일부 교과목이 단위 내용이나 교사가 개인의 역량을 발휘한 교육은 있었다. 또 금융감독원이 2016년 7월부터 추진한 ‘1교1사’ 사업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던 시기이므로, 후기청소년이 중·고등학교 재학했던 시기에 금융회사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강의하는 외부강사 활용 교육도 그리 활성화된 단계는 아니었다(금융감독원 홈페이지, 2025.9.19. 검색).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조사 다수의 참여자들은 학교 금융교육에 관해 거의 경험이 없다고 보고한다. 한 참가자는 ‘OO금융고등학교’라는 특성화고교를 졸업하였지만, 다른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재학 중 금융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졸업한 학년 120명의 학생 중 취업한 학생은 겨우 3명뿐이었고, 모두 진학을 선택하였기에 진학 준비 교육만이 있었다고 답하였다.

“일단 전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학교는 다녔는데 금융에 대한 교육은 거의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목으로는. … (중략) 저는 특성화고를 나왔는데, 거기서도 상업 경제라는 그런 과목이 있어요. 이것도 상업계열 사람들만 배우고, 저는 공업 계열이기 때문에 아예 안 배웠죠. 특강도 없었어요.” (참여자 G1-B)

“일단 경제 과목이, 사회 과목 중에서 선호도가 제일 낮기도 하고, 선택해도 금융 관련된 거는 거의 안 배우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론만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금융을 접할 방법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G2-B)

“저는 일단 금융고를 나왔어요. 이름 자체가 금융인데, 금융고등학교를 나왔는데도 그런 교육은 거의 안 했어요. 사실상 금융고라고 해도 금융에 대한 교육은 잘 안 배웠어요. OO은행에서 누가 와서 강연한다든지, 정말 말 그대로 진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거 말고는 사실 없었어요. 저희 학년 120명 중에서 총 3명인가 취업했고, 나머지는 다 진학했어요.” (참여자 G3-B)

② 입시/취업 준비로 금융교육의 주변화는 물론, 주식 열풍도 비껴간 세대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이 부재하였던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한 직·간접적인 교육도 부재하였다는 사실 또한 참여자들의 답변 속에서 드러난다. 예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모 세대부터가 ‘금융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낯설기에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가정에서의 지도와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후기청소년들은 초·중·고 시기에 입시나 취업 준비,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금융교육을 접할 수 있는 경로가 차단되고 주변화된 세대라 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에 가야 한다. 수능을 봐야 한다. 이런 어른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이런 것들은 약간 뒷전이라고 해야 하나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고등학생인 애들도 어리다고 생각해서, 뭐 투자를 해보고 싶어요. 주식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 그런 지식을 갖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무시하죠.” (참여자 G3-A)

“고등학생 때 느꼈던 게, 그 나이에서부터 (금융) 투자에 관심을 가지면, 부모님께서 그 시간에 공부해라, 라는 의식이 조금 더 컸던 것 같거든요.” (참여자 G6-C)

한편, 청소년까지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주식 열풍에 휩싸였던 때에도 후기청소년들은 고등학교 2~3학년으로 한창 입시 준비를 해야 했었다고 하며, 참여자들은 후기청소년 세대가 주식 열풍조차 비껴간 세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일단 코로나 때 좀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 때 19세에서 24세 사이는 아까 (다른 분이) 말하셨듯이 공부를 어떻게든 해야 할 시기, 그때 그렇게 공부해야 할 가장 중요한 때였고.” (참여자 G2-B)

③ 청소년 전용 핀테크 금융서비스도 비껴간 세대

2020년 10월 카카오뱅크에서는 14세 이상의 청소년 전용의 선불충전식카드를 출시하였고, 이듬해 2021년 12월 토스뱅크에서 연령대를 더 내린 7세 이상 대상으로 발급하는 청소년 전용 카드를 선보였다. 이후 다른 은행들도 잇달아 청소년 전용 카드를 출시하였고, 휴대폰 앱을 통한 다양한 청소년 대상 금융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하였다. 2020년부터 시작된 청소년 전용 카드의 출시는 단숨에 10대 청소년의 절대다수가 이용자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금융회사의 잠재고객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업체들은 10대 청소년의 이용 특성에 부합하는 금융서비스를 속속 선보였다.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청소년 전용 금융서비스는 금융거래 범위에 있어 제한은 있으나, 이른 시기부터 디지털 금융 생활이 일상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앱으로 지원되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면서 금융 정보와 더불어 합리적 소비 습관 형성을 돕는 순기능이 있다. 구체적으로 초4~고3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 수준 및 영향 요인을 분석한 선행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선불충전식카드 사용자가 비사용자에 비해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고, 특히 금융행위 점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근거가 확인된다(김지경 외, 2023., p.146, p.188).

그런데, 후기청소년은 이들 선불충전식 청소년 전용 카드의 출시 초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세대이고, 고등학교 시절 카드를 사용해 보았다 할지라도 친구들과 함께 사용해 본 기간이 짧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일명 ‘알파세대’인 현재 초·중·고 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이해력, 그중에서도 금융행위 요소 점수가 낮다는 것에 대해 일정 부분 설명이 가능하다. 초점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한 참여자들도 이에 대한 같은 의견을 갖는다.

“흔히 말하는 지금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대 때 그런 온라인을 처음 접해보는 세대로서 이제 그거에 적응이 돼서 핀테크 업체, 유스 카드 그런 거를 만질 시간도 더 늘어난 그런 환경이 아마 현재 10대들이 지금 말하는 19세에서 24세 세대보다 금융지식이 높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G2-B)

“제가 동생을 좀 보는데 개네의 변화 이렇게 보잖아요. 개네 또래들의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확실히 토스나 이런 게 발달하면서 이런 금융이나 계좌 개설하는 시기, 주식 얘기도 막 하더라고요.

자기는 모의 투자를 했다 하면서. 요즘 애들을 보면 아, 요즘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접근성이 확실히 좋아지니까, 애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G2-A)

(2) ‘돈’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돈’ 관리 필요성 인식

① 노동 경험을 통한 ‘돈’에 대한 중요성과 현실 인식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아르바이트 또는 취업을 통한 노동과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일명 ‘돈을 버는 경험’은 후기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경험이다.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일을 하면서 이전까지 추상적이거나 막연하게 생각했던 ‘돈’에 대한 인식이 현실에 기반한 인식으로 변화하게 마련이다.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참여자들은 일 경험을 통해 ‘돈’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감하게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처음 알바한 건 군대 가기 전. 20살 막 되고 나서 시작했는데, 그전까지는 그냥 용돈만 받아서 쓰니까, 또 용돈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계속 썼어요.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나서 월급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소중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쓰면 안 되겠다. 너무 아까운데? (...) 내 피, 땀, 눈물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소중하게 써야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딱 들더라고요.” (참여자 G1-B)

“초중고 때는 아무래도 용돈도 타고, 알바도 되게 짧은 시간만 하잖아요. 그 외 것 부모님이 내주시니까 정말 책임질 거는 없어요. 이제 회사에 다니면서 제가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통신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교통비, 식비 이런 것도 다 내 돈으로 해야 하고, 그 외에도 친구들을 만난다든가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다든가 이럴 때도 부모님 손을 벌리지 않고 제가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막 쓰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보면 저도 모르게 처음에 핸드폰을 샀을 때 가입했는데 해지를 안 해서 계속 나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또 보면서 해지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바뀌게 되더라고요.” (참여자 G3-A)

“저는 솔직히 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살짝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제가 뭐 엄마 아빠 돈 받고 쓸 때는 그냥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자동차도 이렇게 다 타고 다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막상 제가 돈을 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금을 넣고 만기가 됐을 때 받는 것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세금 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집 한 채 이렇게 사는 것도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참여자 G4-C)

② 별어서 쓰는 ‘돈’, 관리의 필요성 체감

‘돈’에 대한 현실 인식의 변화와 함께 ‘돈’을 어떻게 써야 하고,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을 잘 관리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체감하는 것 또한 인식의 변화 중 하나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중요하게 포착되는 사실은 관리의 필요성을 느낄지라도, 정작 받은 돈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을 한다는 점이다. 이것을 인식했을 때,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는 등 정보에 입각한 금융 생활이 가능한 것이다. ‘돈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앞서 제2장에서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로 논의하였던 ‘금융정체성’ 이론과 연계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저를 위한 돈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위해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껴야겠다. 내 소비를 좀 줄이고 남을 위한 소비가 좀 높다 보니까 조금 아껴야겠다. 그렇게 안 하면 정말 통장에서 돈이 쭉쭉 나가니까, 비중을 좀 정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G3-B)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일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대학 수능 끝나고부터 대학 생활하면서 알바도 하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깐, 그때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막막한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알아보고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G6-A)

(3) 부모 금융사회화와 역사회화(reverse socialization), 부모보다 또래 영향

① 금융교육이나 지도는 부재, 자녀 명의의 대출은 적극적인 부모

앞서 입시 준비나 취업 준비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금융교육이나 지도가 부재하였다는 점이 언급된 바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후기청소년 시기는 생애 발달 측면에서 부모의 영향이 감소하고 또래나 연인의 영향력은 커지는 생애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Serido, 2022., p.31). 초점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한 이들의 경험 속에서도 부모로부터 명시적 교육이나 부모가 생활에서 보여주는 암묵적 교육 또는 지도 경험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그저 10대 청소년기에 은행에서 보통예금 통장을 만들어 준 경험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부모로부터의 금융사회화는 후기청소년기에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먼저 하자면, 그렇지 않다고 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의

금융사회화가 10대 청소년들에게서는 발견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한 주제와 내용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출’이다. 예컨대, 취업한 자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쓴다거나, 자녀가 정부 정책 지원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납부한 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그 방법을 알려주는 사례가 초점집단면접조사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포착되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상적인 부모로부터의 금융사회화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일상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단면이다.

“부모님은 약간 방임형이세요. 그러니까 네가 번 돈 네가 알아서 써. 우리가 준 용돈도 네가 알아서 써. 우리는 전혀 터치를 안 할 거야. 대신 모든 책임도 다 너의 몫이고 네가 알아서 해야 해. 그래서 저는 딱히 집에서는 뭐라고 들은 게 별로 없어요. (...) 제가 취업을 하자마자 제가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저에게 손을 벌리셔서. 그냥 제 이름으로 대출한 거죠. 돈은 아빠가 갚는다는데, 회사랑 관련되어서 좀 더 좋은 조건, 이왕이면 이자 조금인 걸로.” (참여자 G3-A)

“학자금 대출도 하나 있고, 담보 대출 하나 있어요. 청년 도약 계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걸로 담보를 걸어서 대출을. (대출할 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려주셨어요. 부모님이 알려주셔서 그냥 그대로 했어요.” (참여자 G6-C)

② 부모 역사회화(reverse socialization)

일반적으로 금융사회화는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 습관 형성 및 금융 정보의 활용, 저축 및 투자 방법의 이해를 돕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초점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한 이들의 금융사회화 경험 속에는 부모의 생활지도나 교육으로부터 얻게 되는 사회화의 과정은 대체로 부재하고, 역으로 후기청소년 자녀가 부모에게 금융정보와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즉 금융사회화의 방향 측면에서 역사회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는 금융사회화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나 선행 실증분석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급속하게 발전하는 금융서비스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확언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고된 선행 사례가 없다는 점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성인 연령이 된 후기청소년의 경우 더 이상 부모로부터 금융사회화의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만 위치하는 것이 아닌, 부모와 가족 구성원들을 향한 금융사회화의 주체가 되고 있으므로, 접근 방식과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당장 저희 부모님만 보더라도, 제가 엄마 꼬드겨서 주식계좌 만들고, 그리고 저를 보고 이모도 따라 하고. 그랬었던 말이에요. 그 당시 20년도에. 저랑 이모랑 만나면 막, 얼마 벌었다. 그런 얘기 하니까 이제 엄마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져서, 나도 해야 하나? 이러면서 막 알아보고 그랬던 거 생각하면 확실히 주변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참여자 G2-C)

“저도 원래 부모님이 그 주식 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셨는데 요즘은 (제가 하는 것을 보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같이 공유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G4-A)

③ 부모보다는 비슷한 또래의 영향

초점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한 후기청소년들의 경험 속에 부모로부터의 금융사회화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 세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정보에 대한 이해력이 낮고, 그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는 이들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정보의 유통이 디지털기기 사용으로 자녀 세대가 더 빠르고 더 많은 정보를 접하는 시대에기에 부모 세대와 비교했을 때, 자녀에게로 기우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후기청소년들은 금융 생활에 관한 대화의 상대가 부모보다는 비슷한 나이대의 또래와 더 많이 하게 된다고 보고한다.

“부모님이랑 저는 세대로 차이가 나고. 금융 상황, 재정 차이? 이게 소득이 있냐 없냐 이런 거부터 해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제 또래 친구들, 친구들이잖아요. 대부분 비슷비슷하던 말이에요. 금융 상황이. 그래서 더 와닿고, 제 상황에 어느 정도 통하는 게 있으니까, 더 그쪽으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참고하게 되더라고요.” (참여자 G2-A)

“저희 부모님은 주식을 모르세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나 주식을 한다. 나 여기에 몇 주 넣었다. 하면 생각하시는 게, 주식을 하려면 은행에 가서 여기를 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 줄로 아시고, 약간 그런 쪽을 저희 부모님은 잘 모르셔서. 그래서 주식 얘기를 하더라도, 대체로 부모님보다는 친구들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참여자 G3-A)

주변 비슷한 또래와 대화가 많다는 것은 또래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주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 자신의 투자 경험을 나누기도 한다. 그러한 또래 친구의 경험을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보기

도 하고, 친구의 실패한 투자 경험을 반면교사(反面教師)하여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결정을 하기도 한다.

“주변에 투자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저랑 같이 고등학교 때 경제에 관심이 많았고, 너는 어디 투자했냐, 뭐 이런 걸 서로 물어볼 만큼 그렇게 좀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는 데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더 경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나.” (참여자 G2-B)

“한 친구가 주식에 투자했는데, 엄청 크게 잃어서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웬만하면 이렇게 큰 투자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 친구들이 거의 주식 같은 걸 안 하는 것 같아요. 저축하지.” (참여자 G5-B)

“저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비트코인은 워낙 위험자산이다 보니까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눈도 안 쳐다봤는데, 제 주변 친구 중에 비트코인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 들리다 보니까 이거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까지 가게 돼 가지고, 영향이 큰 것 같기는 해요. 주변 친구가 한다고 하면.” (참여자 G4-A)

친구에게 영향을 받는 것과는 반대로 참여자가 주변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금융정보를 전달하거나, 투자 방법을 설명하고 권하며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

“확실히 친구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만 보더라도, 사실 저는 제가 영향을 주는 입장이었어서. 2020년도 고3에 그때 자산 가격 한창 오를 때, 주식 했는데 이만큼 올랐다 그러면서 친구들 꼬드겨서 다들 투자가 됐든 뭐든 금융 자체에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제가 만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왜 포모(FOMO)라고 그러잖아요. 나만 빠지는 것 같고 그런 현상들? 친구라든가 그 주변 사람에 대한 영향이 없으면 사실 그런 말도 안 나왔을 거로 생각해요. 내가 투자해서 얼마큼 벌었다. 근데 재도 투자해서 얼마큼 벌었네? 하면, 나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어서.” (참여자 G2-C)

“저는 제가 영향을 주고 다닌 쪽이었어요. 투자를 그때 하던 친구들은 몇 명 있었는데, 주식 열풍이 있을 때 코인 쪽으로 제가 좀 많이 끌어들였죠. 막 저한테 이득이 가게 권유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여자 G5-C)

(4) 저축 및 투자 경험으로 인한 변화

① 개인 유튜브로 금융 정보탐색 시작, 점차 뉴스와 경제 정보로 발전

‘돈’의 필요가 10대 청소년 시기에 비해 더 많은 후기청소년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 경험을 통해 돈을 벌기도 하고, 사회 초년생 취업자로서 월급을 받으면서 ‘돈’에 대한 중요성과 관리 필요성에 대한 현실감을 체감한다. 전에 없던 일정 수준의 돈이 생기면서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을 하기도 하고, 주변 또래 친구들에게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주식과 코인 같은 투자를 해보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 정보를 탐색하는 일차적인 창구는 ‘유튜브 콘텐츠’가 압도적이라는 사실이 초점집단면접조사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즉, 절대다수의 후기청소년들이 유튜브 콘텐츠, 그 중에서도 개인유튜버의 콘텐츠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보다 개인투자자 또는 또래 유튜버의 콘텐츠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참고한다고 보고한다.

“유튜브에서 영상 찾아보고, 그리고 최대한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거. 필요한 것들을 키워드로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사회 초년생을 위한 단기 적금.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길어질수록 자세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걸로 찾아보죠.” (참여자 G3-B)

“(유튜브라도) 은행에서 하는 거는 되게 짧게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하는 게 많아요. 금융 용어들도 많이 쓰기도 하고, 아무래도 금융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개인투자자들은 정말 아무 금융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영상 길이가 조금 길더라도 뭔가 세세하게 얘기를 해준다고 할까요? 금융 용어 같은 것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주려고 하고 그런 게 있어서 아무래도 개인투자자가 더.” (참여자 G3-A)

그렇다고 하여, 오로지 개인 유튜버 콘텐츠에만 의존한 정보탐색이나 습득을 하고, 그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후기청소년들에게 개인 유튜버의 전달하는 내용은 초기 단계의 정보탐색의 진입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진입 통로를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얻고, 이후 추가적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채널로 옮겨간다. 개인에 따라 그것이 금융회사나 해당 기업의 공식 홈페이지가 되기도 하고, 전문 채널로 옮겨가기도 한다.

“처음에 투자할 때는 유튜브나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접근하기 편하고 좋으니까 많이 접하긴 했었는데, 어떤 것이든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내 관점이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저 스스로 검증해 봐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점차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참여자 G2-C)

“처음 종목을 접할 때 유튜브. 개인 경험 (유튜브). 그걸로 이제 종목을 보고 이제 그 후에 따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보는.” (참여자 G4-B)

“사고 싶은 주식 종목이 있으면 유튜브에 그 종목을 검색하면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는 개인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한번 보고, 제가 사실 뭐 주식 차트를 보고 이런 방법을 아예 모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이제 인터넷에 그 회사를 치면 그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회사가 어떤 직종의 분야에 있고, 총매출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는 거 같습니다.” (참여자 G4-C)

중·고등학교 시기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투자를 유지하는 참여자들의 경우, 유튜브 콘텐츠 보다는 객관적인 정보를 더 많이 탐색하고, 습득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관심 있는 회사에 대한 실적 정보 등을 탐색한다거나, 일상적으로 국내·외 경제 뉴스 및 시장, 기업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 있었던 기업이나 업종의 시장 변화의 동향을 파악한다. 이와는 달리, 경제전문가들이 정리해 놓은 전문 도서를 중심으로 자기 학습을 해 나가기도 한다.

“저는 해외 언론 찾아봐요, 맨날 뉴스 보면서, 세상 정세 같은 거, 어떻게 되는지.” (참여자 G1-B)

“요즘에는 뉴스 찾아보는 정도로만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 주식을 한다거나 할 때 들은 건 많으니까 뭐 증권신고서를 봐야 하니 막 그런 거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또 핀테크 업체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사실 그 정보가 되게 간략하고 보기 쉽게 정리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기타 기사, 뭐 경제가 됐든 정치가 됐든 사회가 됐든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좀 투자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참여자 G2-C)

“한국경제에서 아침에 30분 잠깐 뉴스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전반적인 경제를 설명해 줘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이런 거고, 어떤 회사는 요즘 이런 상황이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관심 있는 회사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괜찮다 싶으면 투자하는. 재무제표나 아니면

요즘 뉴스들. 이 회사의 뉴스들. 약간 이 회사가 미래에 어떤 거를 할지 약간 그런 걸 좀 위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참여자 G4-A)

“처음에 유튜브에서 의견 내는 거 말고 공부만 시켜주는 그런 유튜브 보다가, 뭔가 정보가 안 걸러지는 것 같아서 그 후부터는 책만 봤어요. 인터넷은 아예 안 보고. 책이 조금 더 정제돼 있으니까, 정보가. 저는 가치 투자 쪽은 잘 못하고 지표 보고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제가 책을 땀 처음에 닥치는 대로 봐서,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하다 싶으면 일단 다 봐서. 딱 어느 분야에 집중되어 있지 않았어요.” (참여자 G5-C)

② ‘금융이해력’과 ‘효능감’은 투자 경험으로, ‘자기통제력’은 지출 관리와 저축으로 항상 저축과 투자의 경험을 갖는 후기청소년들은 정보의 탐색과 획득,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한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금융지식 측면의 이해력의 향상과 스스로 알아보고 결정한 것에 대한 효능감을 얻었다고 이야기한다.

“사실 저도 뭐, 고등학교 때 경제에 관심이 있어서 주식 관련 책도 읽어보고, 다른 사람들의 주식 관련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것도 온라인으로 봤지만, 그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아, 이게 된 뜻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였구나. 공부하면 그 시야가 바뀌듯이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참여자 G2-B)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점점 경험이 다양해지면서, 단순히 어릴 때는 9시 뉴스 끝나고 뒤에 오늘 하루 주식 시장 이러면서 숫자가 나와도 된 숫자인지 전혀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은 다 이해한다든가. 그게 아니더라도 경제 정책이든 사회적인 뉴스든 그런 거를 접했을 때도, 이제 다 저는 이해를 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런 금융적인 지식이 적은 친구들이라든가, 동생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보면서, 어 저게 뭐지? 하는 거를 보면 아, 그래도 내가 이거 투자하면서 어떻게 든 투자 잘해 보려고 노력했던 게 도움이 되었구나.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는 꽤 효능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참여자 G2-C)

금융투자를 위해서는 정보 탐색과 획득을 위한 시간 자원을 먼저 투자해야 하고,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을 통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다른 소비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휘되어야 하는 심리적 기제가 ‘자기통제력’이다. 초점집단면

접조사 참여자들의 이야기 속에는 자기통제력이 단순히 금융투자 경험의 유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어떠한 과정으로 금융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후기청소년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음이 드러난다.

“참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돈이다 보니까 목표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참는 것 같아요.” (참여자 G4-A)

“이제 월급을 받고 제가 보통 한 달에 얼마 정도 쓰는지 그 생활을 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외적인 돈은 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G4-C)

“주식이란 코인으로 통제력이 딱히 생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통제력은 오히려 적금 같은 게 생기지.” (참여자 G5-A)

(5) 저축과 투자 경험에서 나타난 후기청소년 세대 내 차이

① 온라인 도박과 같은 ‘투기’ vs 미리 역량을 갖추어 놓기 위한 ‘연습’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금융시장 발달과 가상화폐 시장의 확대에 의해, 소비 습관 형성이나 저축의 단계 없이 바로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체로 후기청소년 중 남성, 그중에서도 고졸자 집단에서 그러한 특성이 여실히 나타난다. 왜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일까에 대해, 초점집단면접조사 과정에서 하나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것은 바로, 10대 청소년시기 남자 청소년들이 주로 빠져드는 ‘온라인도박’ 경험이다.

초점집단면접조사 참여자, 특히 고졸 미취업자 집단의 참여자들은 고등학교 시절 온라인도박 경험이 많은 포래들이 코인 시장으로 쉽게 유입된다는 의견에 절대적인 동의를 표하면서,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한다.

가령 고등학교 재학 시기에 온라인도박을 했던 친구들의 절대다수가 코인 투자를 하는데, 특히 레버리지(자본을 빌려서 더 큰 규모로 투자하는 방식, 수익률 극대화 및 적은 자본금으로 큰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변동 폭이 큰 코인 시장에서 손실위험이 크고 대출이자 등의 비용 발생)를 활용한 투자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는 금융투자를 마치 중·고등학교 시절 경험했던 ‘온라인도박’과 같은 경험으로 간주하거나, 그보다 더 큰 배팅을 하는 또 다른 투기의 장으로 접근하는 고졸 남성이 수가 과히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가상화폐) 일단은 등락이랑 등고율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분 단위로 계속 바뀌다 보니까, 흔히 말해 도파민에 절여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벌고 나서 그 쾌감을 못 잊으니까, 계속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참여자 G1-B)

“고등학교 때 온라인 토토가 굉장히 유행했는데,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학교에서. 토토. 온라인도박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잃거나 두 배로 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도파민에 중독이 돼서 주식 조금씩 움직이는 것으로는 만족 못 하는 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시드 머니도 더 적고 하니까 코인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라고 하죠. 계속 변동성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으니까. 시드머니가 적은 이제 막 성인 되는 애들 입장에서는 좀 더 돈이 벌리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리스크도 크고 리턴도 큰 걸 좀 더 선호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여자 G5-C)

“아는 친구 중에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투자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걸 갚아야 하는 돈인데, 그걸 투자해서 잃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위험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여자 G4-C)

이와는 대조적으로 후기청소년 시기의 저축과 투자의 경험을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애 역량을 미리 갖추기 위한 일종의 ‘연습’으로 보는 후기청소년들도 있다. 초점집단 면접조사에 참여한 이들 중, 4년제 대학 재학생 집단과 졸업생 집단에서 그러한 생각과 관점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즉, 금융투자의 역량은 어차피 생애주기 전반에서 갖추어야 할 필수 역량이기 때문에 연습 차원에서 적은 금액으로 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주변 친구들 또한 그러한 경우도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한다.

“시드가 적다 하더라도, 일단은 공부 겸 약간 부딪혀 보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고, 시드가 많다 하더라도 그 모든 시드를 주식에 넣는 애들은 또 드물고. 뭐, 그냥 사실 우리 때 나이는 주식을 돈 벌려고 하는 것 보다, 한번 배워보고 나중에 좀 시드가 크게 굴려졌을 때 좀 대처를 잘할 수 있게, 한번 그렇게 계획을 세워놔야겠다고 생각해서 주식을 시작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여자 G2-B)

“넓은 범위에서 보면 달려 나가는 과정은 맞죠. 어쨌거나 적은 돈으로 해봤을 때, 뭐든 시도를 해봤을 때, 사실 뭐 똑같은 10%를 잃는다고 해도 100만 원에서 10%랑 1천만 원에서의 10%랑

1억에 10%는 다르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면 지금 하는 게 언젠가는 미래에는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는.” (참여자 G2-C)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인생에서 투자 같은 거 해봐야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때 잡을 수도 있고. 그런데 돈을 잃으면 그냥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번 해볼 만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G5-A)

② 정부지원 금융상품과 금융회사 마케팅 ‘미끼 상품’에 대한 민감도

저축과 투자 경험에서 제도적으로 배제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일정 소득 또는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의 자산 형성 지원 상품의 가입이다. 초점집단면접조사가 진행된 고졸자 그룹의 참여자들은 모두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정부의 자산 형성 상품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나, 개인소득이 없어 가입자격을 갖추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공통된 답을 하였다. 가입자격이 없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속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졸 미취업 청년은 자산 형성 초기 단계의 지원에서 애당초 비껴나 있다.

“(청년도약계좌) 저는 하려고 했었는데 소득 조건 때문에. 조건이 시중 조건보다 좋아서 하려고 했었어요.” (참여자 G5-A)

“관심은 많지만, 저도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참여자 G5-B)

“저도 조건이 해당이 안 됐어요. (지원사업) 신청 자격조건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몇 개 안 되다 보니 안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참여자 G5-C)

한편, 초점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한 후기청소년들의 금융 생활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핀테크 회사를 비롯하여, 금융회사에서 상품 홍보나 가입자 모객을 위해 제공하는 일종의 마케팅 미끼 상품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는 사실이다. 즉, 후기청소년이 가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 계좌 중에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가령, 가입 시 5천 원 또는 1만 원 증정과 같은 미끼를 제공할 경우, 쉽게 계좌 가입을 결정한다. 이것에 주목하는 이유는 5천 원, 1만 원이라는 미끼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값싼 대가라는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좌 가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미취업자 집단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의 수가 적지 않은 상황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토스 앱을 자주 쓰는데 토스뱅크가 계속 광고가 떠서. 돈 5천 원 준다고 그러면서 그냥 만들어 보고.” (참여자 G5-A)

“이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증권사 신규 가입 이벤트. 이거 가입하면 얼마, 미국 해외 주식 얼마 지급하겠다. 사실 그런 걸로 먼저 들어갔다가 찾아보게 되고, 그걸로 입문하게 된 것 같아요. 이벤트.” (참여자 G6-B)

③ 성별 차이 vs ‘청년장병내일적금’ 유무의 차이

흔히 저축과 투자 경험에 있어서 성별(gender)에 따른 경향성이 있는 것처럼 단순히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여성이 보다 위험 회피적이고 안전성을 추구하며, 남성이 투기 성향이 강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이 현실이 후기청소년 금융 생활에도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후기청소년들의 금융 생활 경험에 있어서 성별 차이는 포착되지 않는다. 다만,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성별 차이가 아닌 목돈이 있는가의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정부에서 군복무 장병들에게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이 있고, 특히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의 폭이 확대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군복무를 마친 후기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차이 경험에 있다. 뿐만 아니라, 목돈은 있으나 그것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지출하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 또한 발견된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원하는 교육도 있고, 국방부에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금융이해력과 역량을 높이는 수준까지 전인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청년장병내일적금’과 연계하여 군복무 기간에 실시하는 금융교육의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군 적금 깨면 천만 원 넘게 나왔거든요? 지금은 한 천오백은 좀 넘을 텐데,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은 이제 딱 제대하고 군 적금 해약해서 내 수중에 천오백만 원이 생겼을 때, 그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없는 사람의 결과가 같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금융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거는 예금을 할까? 뭐 어디에 투자할까?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사실 그런 개념조차 없으면, 어, 공돈 천오백만 원이네? 이거 어디다 쓰지? 하면서 노트북, 휴대폰 다 바꾸고, 뭐 해외여행 갔다 오고 그러면서 거의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딱 그때 갈리는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정부에서는 그걸 목돈 삼아 도움 되라고 추진했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되려면 경제적인 지식이 뒷받침돼야 하죠.” (참여자 G2-C)

“군 적금은 1년 반인데 군대에서 또 금융지식 관련된 것을 안 알려주다 보니까. 나 그냥 맥북 살래. 나 그냥 게임에 그냥 현질 한 번 100만 원 이상 해볼래. 나 차 뽑을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허투루 쓰는 경우가 이거를 시드 삼아서 저축, 투자해 볼래. 라는 경우보다 훨씬 많거든요.” (참여자 G2-B)

“친구들이 전역하고 목돈이 생겼는데, 이거를 그냥 놔두는 경우들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저축을 하든가, 아니면 투자에 좀 쓰든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때 금융교육 좀 미리미리 필요하지 않나.” (참여자 G5-C)

3. 소결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본 장에서는 실제 금융 생활을 측정하는 조사 문항 개발·작성을 위하여 2차 자료를 통해 나타나는 금융 생활에 관한 개략적인 실태를 살펴보고, 초점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한 후기청소년들의 생생한 경험 청취를 통해 현실의 금융 생활상을 파악하였음.
- 2차 자료에 나타난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금융생활은 연평균 1,307만 원의 소득과, 2,976만 원의 생활비를 지출하고, 절대 규모는 작으나 540만 원 정도의 금융자산이 있고, 271만 원의 부채가 있음. 후기청소년의 80.2%가 월 25만 원 미만의 소액 중심으로 카드결제를 사용하고, 할부나 리볼빙, 현금서비스 이용자는 극소수임.
- 대출 경험률은 19.8%, 대체로 은행에 대출잔액이 있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할부금융이나 저축은행에 대출 잔액이 있는 비율은 25세 이상 연령대에 비해 높음. 세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의 비율은 12.1%이고, 연체 비율은 5% 미만으로 낮으며, 90일 미만의 단기간 연체에 해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후기청소년 16명이 참여한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견되었음.
 - ① 19세~24세 연령대가 공통으로 갖는 특성으로 인해 금융교육 기회가 적었던 사회환경의 배경 파악됨.
 - ② 노동 경험을 통해 돈에 대한 가치 인식과 관리의 필요성 체감
 - ③ 부모로부터 금융사회화의 영향은 거의 없지만 역으로 부모의 금융사회화를 돕는 역사화화도 포착, 부모보다는 또래 친구의 영향이 다수 발견됨.
 - ④ 투자 경험으로 금융이해력이 향상되고 효능감을 얻기도 하지만, 자기통제력 만큼은 투자의 경험이 아닌 소비지출 관리와 저축의 과정에서만 얻을 수 있음을 인지함.
 - ⑤ 같은 세대에서 금융투자를 10대 청소년 시절 경험했던 '온라인도박'과 같이 "투기"로 접근하는 이들과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 놓기 위한 "연습"으로 접근하는 이들로 구분됨. 또 마케팅 금융 미끼 상품에 민감도가 높아 다수의 계좌를 보유하기도 하고, 성별보다는 목돈 유무에 따른 차이가 만드는 차이가 큼.

본 장에서는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후기청소년의 금융 생활에 관한 실제 상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당사자들을 통해 현실에서의 금융 생활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먼저 두 개의 2차 자료(24 청년의 삶 실태조사, '24년 청년금융 실태조사 내, 신용평가사(KCB) 카드사용 및 대출 이용 등의 DB자료 분석 결과)를 통해 본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금융생활은 소득수준은 낮지만, 소비지출의 수준은 25세~29세 연령대와 큰 차이가 없다. 규모는 작으나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예적금, 주식 및 가상자산의 투자와 기타 부동산 자산이 통계수치로 포착되어 자산 형성을 시작한 후기청소년이 일정 비율 있음이 확인된다. 후기청소년의 80.2%는 25만 원 미만으로 소액의 카드 결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 할부를 사용하지 않는 비율은 71.2%, 리볼빙이나 현금서비스의 이용자는 비율은 극소수이다. 청년층 내 25세 이상 연령대에 비해 대출 경험률이나 다중채무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대출 경험률 19.8%, 대출자 중 세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

자의 비율이 12.1%로 과히 낮은 비율은 아니다. 연체 경험률은 4.6%로 낮고, 32.0%가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자이다.

이와 같은 개략적인 후기청소년의 금융 생활에 관한 자료를 파악한 후, 구체적인 현실의 경험을 청취하고자 실시된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는 2차 자료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의미들이 도출되었다. 그중의 첫 번째는 19세~24세 후기청소년 세대가 공통으로 경험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 세대가 초중고 시기에는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기회가 현행보다 많지 않았고, 청소년 전용 카드의 출시 및 사용의 보편화를 경험하지 못한 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또 10대 청소년 세대까지 주식 열풍이 불었던 시기에 이들 세대는 입시 또는 취업 준비로 열풍에서 비껴나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의 필요가 커지면서 아르바이트 또는 취업을 통해 노동을 경험하면서 돈에 대한 가치 인식과 돈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체감하게 되었다. 10대 청소년 시기부터 부모의 교육이 부재했던 만큼 부모의 영향은 거의 없으나, 금융투자의 필요성을 또래 친구들과 나누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투자에 성공한 사례들을 직·간접적으로 공유하면서 학습과 경험을 얻기도 한다. 저축과 투자를 경험한 후기청소년들은 투자를 경험으로 금융이해력 수준의 향상과 의사결정과 직접 경험에 대한 효능감을 얻었지만, 자기통제력 만큼은 투자 경험이 아닌, 소비지출의 관리와 저축의 과정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한다. 한편, 16명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파악되는 또 다른 사실은 19세~24세 연령대 동일 세대 내에서 드러나는 차이이다. 그중 하나는 금융에 관심을 갖는 후기청소년들이 크게 두 개의 집단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예컨대 금융이해력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10대 청소년 시기 접했던 ‘온라인도박’의 연장선에서 금융투자를 ‘투기’로 접근하고 있는 집단이 있고, 이와는 달리 금융이해력을 쌓고 금융투자의 방법을 익히는 것을 생애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기에 미리 ‘연습’해 두는 것으로 접근하는 집단이다. 전자는 고졸자 집단에서 후자는 4년제 대학 재학생 집단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인다.

또 다른 세대 내 차이는 금융계좌의 보유인데, 저축할 돈이 많지 않은 후기청소년들이 보유하는 금융계좌의 수가 적지 않다. 그러한 이유는 금융회사 마케팅 미끼 상품을 받기 위해 가입한 계좌가 많기 때문이다. 미끼 상품에 민감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후기청소년의 특성까지 포착하지는 않았지만, 마케팅 미끼 상품의 정보를 이득이 된다고 판단할 정도의 금융 정보가 있는 이들이 계좌를 만드는 것은 분명하다.

한편, 쉽게 갖는 선입견 중 하나가 여성이 남성보다 안정적인 금융자산을 선호한다는

등의 성별 차이이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금융에 관한 관심이나 투자에 대한 성향 차이는 성별이 아닌, 목돈을 보유하는지에 따른 차이라고 이야기한다. 예컨대 남성들은 대체로 군복무 기간에 급여를 복무기간 동안 저축하고, 납입한 금액만큼을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청년장병내일적금’으로 최대 2천여 만 원의 목돈을 군복무 후 마련할 수 있기에 일명 금융투자의 자금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장의 2차 자료와 초점집단면접조사의 결과를 통해 얻은 내용은 다음 단계에서 구조화를 거쳐 설문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문항으로 개발·작성된다. 구체적으로 다음 제5장에서는 설문조사 도구의 개발과 조사 실시, 그리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기초 분석, 제6장에서는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과 영향 요인이 실증모델로 분석된다.

○ — 제5장 후기청소년 금융 이해력 및 금융생활 실태 설문조사

- 1. 조사개요
- 2.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실태 분석
- 3. 소결: 기초분석 결과의 종합과
실증모델 분석의 방향

1. 조사개요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여기에서는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 분석을 위한 양적 자료를 확보하고자, 19세~24세 후기청소년 대상 할당표집과 온라인 조사 방법으로 조사를 설계함.
- 설문조사의 내용은 크게 세 부문(금융이해력, 금융생활실태, 응답자 특성)으로 구성하였고, 금융이해력은 OECD/INFE가 개발한 측정 가이드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2년 주기로 측정하는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의 내용을 준용, 금융생활 실태와 관련해서는 앞선 제2장~제4장에서 검토되고 분석된 내용을 반영하여 문항 개발·작성. 응답자 특성에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배경으로서 부모 특성 및 10대 청소년기 경험 특성을 반영함.
- 총 1,814명의 표본이 분석자료 활용되었고, 할당 표집된 세부 집단별 표본수는 대학생 1,077명, 취업자 286명, 미취업자 451명임.

1) 설문조사 추진 및 표본 구성

(1) 조사 추진 과정

설문조사 추진에 앞서 조사 도구로서 내용 구성 및 문항 개발·작성을 중심으로 하는 조사 내용의 설계가 선행되었다. 조사 내용의 설계는 앞서 제2장에서 고찰된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 이론과 선행 실증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영향 요인이 기본 틀이 되었고, 제3장에서 검토된 정책 지원 현황의 내용과 제4장에서 분석된 2차 자료 및 초점집단면접조사 자료가 구체적인 문항을 구성하고 작성하는 데 주된 자료로 활용되었다.

작성된 설문조사 문항 초안은 전문가 검토 및 후기청소년의 검토가 이루어졌고,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전문가 검토는 각기 다른 배경을 갖는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선정·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

5) 이 장은 김지경 선임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사항을 한눈에 파악하는 등의 효과와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문가 검토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대상인 후기청소년을 표본 설계와 같이 세 집단(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으로 구성하여 당사자 시각에서의 수정·보완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 수정된 조사표는 설문조사 개시 전, 연구 관리 절차에 따라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조사 실시 계획과 함께 심의 신청되었으며, IRB 심의가 완료된 후 실사 준비를 거쳐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절차로 추진된 설문조사 추진 과정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그림 V-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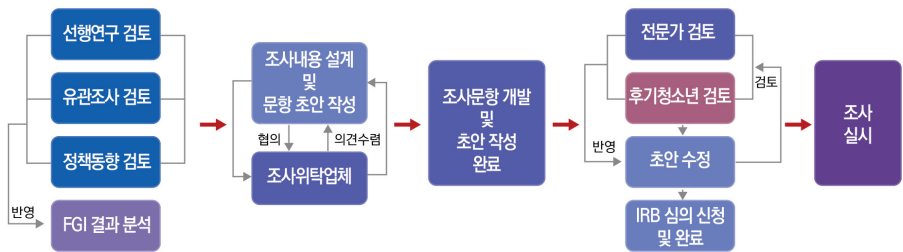


그림 V-1. 설문조사 추진 과정

(2) 표본 구성

19세~24세 연령대의 후기청소년 대상 표본 설계를 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이 부재하기에 확률 표집을 활용하지 못하고, 비확률표집 방법 중 기준을 설정하여 비교적 체계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할당표집을 활용하였다.

할당의 기준은 앞선 제4장의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설계 시 설명된 바와 같이, 통계청의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가승인통계에서 청년층 중 세부 연령대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고, 15세~29세 세부 연령대(15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의 고등교육 수학 상태와 취업상태를 발표하는 것은 이 자료가 유일하므로, 이 자료에서의 ‘수학 상태’와 ‘취업 여부’를 할당표집의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로 삼았다.

총 표본수는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가능한 최대 표본인 1,800명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 표본으로 설정하였고,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자료의 대학재학생 비율, 최종 학력에 따른 취업자 비율을 준용하여 세부 집단의 목표 표본 수를

설정하였다.

단, 취업자 표본은 졸업 시기의 지연, 군입대, 노동시장 이행의 지연 등 19세~24세의 연령대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증분석이 가능한 최소 표본수만은 확보될 수 있도록 하한선으로 설정하였다. 최종 확보된 총 표본수는 1,814명이고, 이들 중 대학 재학생은 1,077명(2·3년제 재학생 371명, 4년제 이상 재학생 706명), 취업자는 286명(고졸 77명, 대졸 209명), 미취업자 451명(고졸 170명, 대졸 281명)이다.

한편, 당초 계획으로는 성별 5:5 동수 할당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남성의 군입대가 집중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취업자 집단에서 성별 5:5 표본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성별 할당은 적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할당표집에 따른 표본수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V-1>과 같다.

표 V-1. 할당 표본수 및 조사 완료 표본수

(단위: 명)

구분	대학 재학생		최종학교 졸업자			
			취업자		미취업자	
	2·3년제	4년제 이상	고졸	대졸	고졸	대졸
할당 표본 (완료 표본)	370 (371)	630 (706)	최소 70 (77)	최소 170 (209)	170 (170)	390 (281)
소계	1,000 (1,077)		240 (247)		560 (490)	
			800 (737)			
총 표본 수	1,800 (1,814)					

* 주: 1) 표본 할당 기준: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통계청, 2024.7.16.) 결과 준용하여 연구진 설정
2) 표본 설계 시, 실증모델 분석 가능한 최소 표본수 확보를 위해 하한선 설정
3) 4년제 이상 대학재학에 대학원생 포함

2) 조사 내용 구성 및 측정 문항 개발

(1) 조사내용 구성

설문조사 내용은 크게 세 부문(①금융이해력, ②금융생활실태, ③응답자 특성)으로 구성하였고, 각 부문에 하위 영역을 갖는 방식으로 체계화하였다.

먼저, 금융이해력 부문에서는 앞서 제2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OECD/INFE가 정립한 3개 구성 요소(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및 개념을 반영하여 개발한 표준 측정

도구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2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는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의 문항 구성을 준용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의 기술은 10대 청소년 금융이해력을 조사하여 분석한 선행연구(김지경 외, 2023)의 조사표 문항을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금융생활실태 부문에서는 제2장에서 고찰한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 이론과 선행 실증분석의 결과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요인들, 그리고 제3장에서 검토한 금융지원 정책 현황과 제4장의 2차 자료로 살펴본 금융 생활의 현황을 토대로 세 가지 영역, 즉 ‘금융사회화’, ‘금융태도 및 인식’, ‘금융생활 경험’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 특성 부문에는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공통으로 하고, 세부 집단별 특성을 세부 영역으로 추가하였다. 또한 배경으로서 부모 특성과 앞서 제2장에서 고찰한 선행 연구의 결과 및 제4장에서 실시된 후기청소년 FGI 결과를 반영하여 ‘10대 청소년기의 경험 특성’을 하나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된 각 부문과 하위 영역에서 측정되는 구체적인 문항은 <표 V-2>에 제시하였다.

표 V-2. 조사 내용의 구성

구분		구성 문항	
금융 이해력	금융지식	①주관적 금융지식 수준 ②인플레이션과 구매력 ③이자개념의 이해 ④단리 계산	⑤복리개념의 이해 ⑥위험과 수익간의 관계 ⑦인플레이션의 의미 ⑧분산 투자 개념
	금융행위	①예산(용돈)관리 ②적극적인 저축 활동 ③신중한 구매 ④청구 대금 적기 지급	⑤평소 재무상황 점검 ⑥장기 재무목표 설정 ⑦정보에 입각한 금융상품 선택 ⑧적자 해소
	금융태도	①저축보다 소비 선호 ②미래보다 현재 선호 ③돈은 쓰기위해 존재	
금융 생활 실태	금융사회화	①부모 금융사회화 ②부모 역금융사회화	③또래 금융사회화 ④또래 역금융사회화
	금융 태도 및 인식	①금융정체성 ②금융자신감	③주관적 금융관리능력 ④지각된 행동통제력
	금융생활 경험	[소비지출 및 카드 사용]	
		①월평균 소비지출 ②체크카드 사용 ③모바일결제 수단 사용	④신용카드 사용 및 할부거래 ⑤휴대폰 소액결제 사용 및 연체

구분		구성 문항			
응답자 특성		[저축 및 투자]			
		①보통예금 유무		⑥암호·가상화폐 투자 및 보유 금액	
		②예·적금 유무 및 보유 금액		⑦저작권 투자 및 보유 금액	
		③저축보험 및 보유 금액		⑧마케팅 미끼 계좌 개설	
		④주식·채권 유무 및 보유 금액		⑨저축 및 투자정보 습득 경로	
		⑤외화 투자 여부 및 보유 금액			
		[대출 경험 및 부채]			
		①대출 및 부채 유무		③총부채 및 남은 금액	
		②부채 사유 및 유형		④대출 및 부채관리 정보 획득 경로	
		[청년자산형성 지원 상품]			
		①가입한 청년자산형성 지원 상품			
		[주관적 금융지식 및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			
	①주관적 금융지식 수준		②금융교육 필요성 인식		
사회 · 인구 특성	공동	①출생년월일		⑤군복무 완료 여부 및 복무기간	
		②최종학력		⑥거주지역	
	세대 집단별	③취업여부		⑦금융 관련 자격증	
		④성별		⑧월평균소득	
		[대학 재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①학년 및 재학상태		①근로형태	①취업 경험 유무
		②전공		②근속기간	②미취업 기간
		③금융 관련 수강 경험		③금융업 종사 경험	③주된 활동
		④고교 졸업 후 금융교육		④직종	④고교 졸업 후 금융교육
				⑤월급여(또는 수입)	
				⑥직장 금융교육 경험	
				⑦고교 졸업 후 금융교육	
10대 시기 경험 특성	①졸업한 고교 유형		⑥체크카드 사용 시작 시기		
	②초·중·고 시기 주요 거주지역		⑥청소년 전용카드 사용 여부		
	③초·중·고 시기 학교, 부모, 학교 이외 금융교육 경험		⑦금융 정보활동 여부		
	④초·중·고 시기 금융투자경험		⑧부정적 금융 경험(온라인도박, 휴대폰결제강, 폰테크, 소액대출)		
부모 특성	①부모와 동거 여부		④주식, 가상화폐 투자 여부		
	②경제활동 여부		⑤월평균 소득		
	③금융업 종사 여부		⑥최종 학력		

(2) 조사 문항의 개발 및 작성

조사 내용의 구성과 각 부문의 하위 영역을 구성한 후, 구성된 영역에 위치하는 개별 문항의 작성이 이루어졌다. 금융이해력 측정 도구는 이미 개발된 문항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보완을 위한 검토 작업만이 이루어졌고, 금융생활 실태와 응답자 특성 측정 문항은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위해 연구진이 초안을 작성하였다. 초안 작성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온라인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짧은 시간에 명확하게 조사 참여자에게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더하여 연구자가 구성한 순서가 아닌, 응답자 측면에서 쉽고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내용 순으로 질문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많이 고려되었다.

연구진이 작성한 조사 문항 초안은 앞서 조사 추진 과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문가 검토와 후기청소년 검토가 각각 진행되었다. 작성자 측면에서의 검토라고 볼 수 있는 전문가 검토에서는 4가지 사항(①측정 내용의 적정성, ②측정 방법의 적절성 및 효율성, ③선택 항목 구성의 적절성, ④문항 연계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검토가 되었다. 응답자 측면에서 검토라고 볼 수 있는 후기청소년 검토에서도 4가지 사항(①문항 이해도(또는 난이도), ②분량의 적정성, ③응답 항목의 적정성, ④응답하기 어려운 점)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림 V-2. 측정 문항 개발 과정

이후, 전문가 및 후기청소년 검토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이 작성되었고, 수정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반복된 후 최종 수정안이 작성되었다. 수정된 조사표는 설문조사 계획과 함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았으며, IRB 심의 완료 및 승인(승인번호: 202503-HR-고유-003, 통보일: 2025.07.09.)을 통해 최종 조사표가 확정되었다.

최종 확정된 조사표는 본 보고서 [부록]에 제시하였으며, 주요 문항과 문항 작성의 근거는 <표 V-3>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V-3. 조사 문항 및 문항 작성의 근거

구분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또는 작성 근거
		주문항	하위문항	
금융 이해력	금융지식	인플레이션과 구매력	F1	2022 금융이해력 조사에 기초하여 작성된 '2023년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 중 고등 학생용 조사표 문2.~ 문8. 사용
		이자개념의 이해	F2	
		단리 계산	F3	
		복리개념의 이해	F4	
		위험과 수익간의 관계	F5	
		인플레이션의 의미	F6	
		분산 투자 개념	F7	
	금융행위	예산관리 노력	F8	'2023년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실태조사' 중 고등학생용 조사표 문29. 수정사용
		적극적인 저축활동	F9	'2023년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실태조사' 중 고등학생용 조사표 문10. 수정사용
		신중한 구매	F10	'2023년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 중 고등학생용 조사표 문11.~문14. 사용
		청구대금 적기 지급	F11	
		평소 재무상황 점검	F12	
		장기 재무목표 설정	F13	'2023년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 중 고등학생용 조사표 문15-1. 수정사용
		정보에 입각한 금융상품 선택	F14	
	금융태도	적자 경험 유무 및 적자 해소 방법	F15	F15-1 '2023년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 중 고등학생용 조사표 문16, 문16-1. 수정사용
		저축보다 소비 선호	F16	'2023년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 중 고등학생용 조사표 문17.~문19. 사용
		미래보다 현재 선호	F17	
		돈은 쓰기 위해 존재	F18	
금융 생활 실태	금융 사회화	부모 금융사회화	E1	Gibby, Pettit, Hill, Yorgason & Holmes(2020) 연구 및 FGI 내용 반영 하여 연구진 작성
		부모 금융역사회화	E2	
		또래 금융사회화	E3	
		또래 금융역사회화	E4	
	금융정책성 및 주관적 자기신념	금융정책성	E5	Bosch, Serido, Card, Shim & Barber(2016) 연구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금융자신감	E6	Serido, Shim & Tang(2013) 연구의 '재정적 자기효능감' 측정 내용 참조하여 연구진 수정 작성

구분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또는 작성 근거
		주문항	하위문항	
	주관적 금융관리능력	E7		Xiao, Chattejee & Kim(2014), Henager & Cude(2016) 연구 참조하여 연구진 수정 작성
	지각된 행동통제력	E8		Serido, Shim & Tang(2013) 연구의 '재정적 자기효능감' 측정 내용 참조하여 연구진 수정 작성
소비지출 및 카드사용	월평균 생활비	E9		연구진 작성
	체크카드 사용	E10		
	모바일결제 'Pay' 사용	E11		
	신용카드 사용	E12		FGI 내용 반영 연구진 작성
	신용카드 연체 경험		E12-1	
	신용카드 할부거래 이용		E12-2	
	할부거래 부채 인식 여부		E12-3	연구진 작성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	E13		
저축 및 투자	휴대폰 사용료 연체 경험		E13-1	FGI 내용 반영 연구진 작성
	보통예금 계좌 사용	E14		
	예금 및 적금 유무	E15		
	예금 및 적금 총금액		E15-1	
	납입 저축성 보험 유무	E16		
	저축성 보험 총금액		E16-1	
	주식 및 채권 유무	E17		
	주식 및 채권 총금액		E17-1	
	외화 유무	E18		
	외화 총금액		E18-1	
	암호·가상화폐 유무	E19		
	암호·가상화폐 총금액		E19-1	
	저작권 투자 유무	E20		
	저작권 총금액		E20-1	
대출 경험 및 부채	마케팅 미끼 계좌 개설	E21		'2023년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 결과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마케팅 미끼 계좌 개설 수		E21-1	
	저축 및 투자 정보 습득 경로	E22		
	부채 유무	E23		
	부채 사유		E23-1	서민금융진흥원 '2024년 청년금융 실태조사' 문항 F2-3. 및 FGI 내용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부채 유형		E23-2	
	부채 총금액		E23-3	
	상환 잔액		E23-4	
	대출 및 부채관리 정보 습득 경로	E24		FGI 내용 반영 연구진 작성
정부 지원	가입한 정부지원	E25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실태

구분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또는 작성 근거
		주문항	하위문항	
	상품 가입	청년자산형성 상품		조사('24)문항 G3. 및 FGI 내용, 정책자료 검토 내용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남성)군복무기간	B3-3	FGI 내용 반영 연구진 작성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B3-4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기간 및 납부금액	B3-5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유지 및 지원금 수령	B3-6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총금액	B3-7	
	주관적 금융지식 수준 및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	또래 비교 주관적 금융지식 수준	E26	'2023년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 중-고등학생용 조사표 문1.
		자신에게 금융교육이 필요한 정도	E27	FGI 내용 반영 작성
응답자 특성	사회·인구 학적 특성 [공통]	출생년도	A1	연구진 작성
		학력	B1	
		성별	B3	
		군복무 여부 및 기간	B3-2, B3-3	
		거주지역	C1	
		금융자격증 보유	C2	
	사회·인구 학적 특성 [세부 집단별]	월평균 소득	C3	연구진 작성
		[대학 재학생]		
		재학 학년	D1	
		대학 전공	D2	
		재학 중 '금융' 과목 수강	D3	연구진 작성
		고교 졸업 후 금융교육	D3-1	
		[취업자]		연구진 작성
		근로 형태	D4	
		근속 기간	D5	
		금융업 조사 경험 유무	D6	
		직종	D7	연구진 작성
		월급(또는 월수입)	D8	
		현 직장 금융교육 경험	D9	연구진 작성
		고교 졸업 후 금융교육	D9-1	

구분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또는 작성 근거
		주문항	하위문항	
	[미취업자]			
	취업 경험 유무	D10		연구진 작성
	미취업 기간	D11		경제활동인구조사(‘24.5) 청년층 부가조사 문78. 수정 사용
	주된 활동	D12		경제활동인구조사(‘24.5) 청년층 부가조사 문79. 수정 사용
	고교 졸업 후 금융교육	D13		연구진 작성
	졸업 고교 유형	C4		‘2024 청년의삶실태조사’ 문D1. 사용
	성장 지역	C5		연구진 작성
	초·중·고 시기 학교 금융교육 경험	C6		‘2023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 생활실태조사’ 문27, 27-1. 수정사용
	초·중·고 시기 부모 금융교육 경험	C7		Jorgensen & Savla(2010)의 ‘부모금융교육 영향’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초·중·고 시기 학교 외 금융교육 경험	C8		‘2023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 문28, 28-1. 수정사용
	중·고교 시기 저축 및 투자 경험	C9		‘2023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 문22. 수정·보완 사용
	본인 체크카드 사용 시기	C10		‘2023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 생활실태조사’ 문23-1. 수정사용
	청소년전용 카드 사용	C11		‘2023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 생활실태조사’ 문25. 수정사용
	금융정보 탐색활동 경험	C12		‘2023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 생활실태조사’ 문29. 수정사용
	(중·고교 시기 부정경험) 온라인 도박	C13		‘2023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 생활실태조사’ 문30. 수정사용
	휴대폰결제강	C14		
	폰테크	C15		
	소액대출	C16		
	부모와 동거 여부	C17		연구진 작성
	부모 경제활동 여부	C18		‘2023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 생활실태조사’ 배문6. 사용
	부모 중 금융업 종사 유무	C19		‘2023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 생활실태조사’ 배문7. 사용
	부모 금융투자 여부	C20		연구진 작성
	부모 월평균 소득	C21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참조하여 작성 (https://www.mohw.go.kr , 2025.06.24. 검색)
	부모 최종 학력	C22		연구진 작성

3)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1) 자료 수집 방법

최종 조사표가 확정된 후, 본격적인 실사 준비가 이루어졌다. 실사 준비는 온라인 조사를 위한 Web기반 설문조사 프로그래밍이 조사위탁업체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이 또한 개발 초안에 대한 반복된 검토와 수정 협의를 거쳐 수정안이 마련되었다.

이후, 연구진과 더불어 조사표 검토에 참여하였던 후기청소년들이 Web 상에 구현된 온라인 설문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응답자 편의와 기술적 오류를 반영한 수정 작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수정 완료로 통해 온라인 설문 응답 프로그램의 구축이 최종 완료되었고, IRB심의 완료 및 승인을 확인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실사는 온라인 접속참여자 중 응답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응답 자료를 할당 표본수를 확인해 가며 확인하였고, 데이터 오류 확인(data cleaning) 등을 거쳐 자료수집을 마무리하였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자료수집의 방법 및 과정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그림 V-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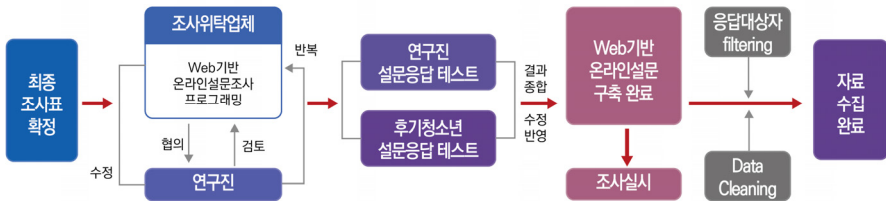


그림 V-3. 자료 수집 방법 및 과정

(2) 자료 분석 방법

자료수집과 오류 확인이 완료된 최종 조사 자료는 기본적인 기술통계 분석과 차이 검증, 그리고 실증모델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되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측정된 응답자 특성은 기술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금융이해력 점수 또한 산출하여 기초 통계 수치로 비교한 후, 그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차이 검증(t-test, GLM-test)으로 확인하였다. 이어 금융생활 실태에 관한 내용도 기술통계를 기본으로 응답 내용을 살펴보고, 금융생

활 특성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의 차이를 중심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차이 검증(t-test, GLM-test, χ^2 -test)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후, 차이 검증의 결과를 토대로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실증모델 분석을 설정하고, 수집된 데이터의 특성과 성격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절한 실증모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선정된 실증모델은 ‘Robust OLS Model’이다.

본 연구에서 이 모델을 선택한 이유는 수집된 데이터를 일반 OLS(Ordinary Least Square) 모델로 추정할 수 없는 오차항의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의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분산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추정값이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의 영향 요인과 함께 각 요인의 영향력을 함께 산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일반 OLS로 추정되는 회귀모형은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증분석 모델로서 ‘Robust OLS Model’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본 장이 아닌, 제6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표 V-4. 주요 분석 내용 및 방법

분석 내용	분석 방법	비고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인구학적 특성, 집단별 추가 특성 • 초중고 10대 시기 특성, 부모 관련 특성 	▶ 기술통계 - 빈도, 비율, 평균 및 표준편차	제5장
금융이해력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및 집단별 금융이해력 점수 비교 • 응답자 특성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차이 검증 	▶ 기술통계 및 차이 검증 - 빈도, 비율, 평균 및 표준편차 - t-test, GLM-test	
금융생활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및 집단별 금융생활 실태 비교 • 금융생활 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차이 검증 	▶ 기술통계 및 차이 검증 -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 t-test, GLM-test, χ^2 -test	
금융이해력 수준 영향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및 집단별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 • 전체 및 집단별 영향 요인의 영향력 크기 비교 	▶ Robust OLS Model - 오차항 이분산성 수정	제6장

4) 응답자 특성 분석

(1)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분석자료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총 1,814명이다. 이는 할당표집 기준에 따라 구성된 대학생 1,077명, 취업자 286명, 미취업자 451명을 합한 수치이다. 이들 응답자의 공통 사회인구학적 특성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면, <표 V-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여성의 비율(62.2%)이 남성(37.8%)보다 높는데, 이는 앞서 표본 구성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세~24세 연령대에 군입대가 집중되기 때문에 여성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만의 상황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1.47세이고, 22세~24세의 비율(52.3%)이 19세~21세(47.7%)보다 다소 높다. 학력은 표본 할당의 기준 중 하나가 수학 상태였기에 대학 재학생의 비율이 절반 이상(55.4%)이고, 대졸 이상(31.0%)과 고졸 이하(13.6%)의 순으로 구성 비율이 높다. 고졸 이하의 비율은 미취업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37.7%)을 보인다.

한편, 응답자의 54.0%는 서울을 제외한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24.5%), 서울 거주(21.5%) 순으로 비율이 높는데, 서울에 거주하는 취업자의 비율(27.6%)과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미취업자의 비율(31.0%)은 전체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보인다. 응답자 중 금융자격증을 보유한 비율은 전체 7.0% 수준이나, 취업자의 경우 11.9%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대학 재학생이므로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에 40.6%가 집중되어 있고, 미취업자 집단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비중(61.9%)을 보인다. 취업자는 200만 원~300만 원의 비율(48.3%)이 가장 높다. 전체 평균 소득은 212.63만 원 정도이다.

표 V-5. 응답자의 공통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세, 만 원)

특성		전체		대학생 ³⁾		취업자		미취업자	
		1,814	(100.0)	1,077	(100.0)	286	(100.0)	451	(100.0)
성별	남성	685	(37.8)	496	(46.1)	77	(26.9)	112	(24.8)
	여성	1,129	(62.2)	581	(53.9)	209	(73.1)	339	(75.2)
연령	19세-21세	865	(47.7)	661	(61.4)	64	(22.4)	140	(31.0)
	22세-24세	949	(52.3)	416	(38.6)	222	(77.6)	311	(69.0)
	평균(편차)	21.47	1.63	21.01	1.56	22.44	1.43	21.95	1.51
학력	고졸이하	247	(13.6)	-	-	77	(26.9)	170	(37.7)
	대학재학	1,005	(55.4)	1,005	(93.3)	-	-	-	-
	대졸이상	562	(31.0)	72	(6.7)	209	(73.1)	281	(62.3)
거주지역	서울	390	(21.5)	244	(22.7)	79	(27.6)	67	(14.9)
	서울 외 대도시 ¹⁾	979	(54.0)	601	(55.8)	134	(46.9)	244	(54.1)
	그 외 지역	445	(24.5)	232	(21.5)	73	(25.5)	140	(31.0)
금융자격증 보유 여부	있음	127	(7.0)	69	(6.4)	34	(11.9)	24	(5.3)
	없음	1,687	(93.0)	1,008	(93.6)	252	(88.1)	427	(94.7)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737	(40.6)	441	(40.9)	17	(5.9)	279	(61.9)
	100-200만 원 미만	443	(24.4)	302	(28.0)	46	(16.1)	95	(21.1)
	200-300만 원 미만	320	(17.6)	145	(13.5)	138	(48.3)	37	(8.2)
	300만 원 이상	314	(17.3)	189	(17.5)	85	(29.7)	40	(8.9)
	평균(편차)	212.63	508.49	202.05	484.86	359.72	530.64	144.62	531.60

* 주: 1) 서울 외 대도시: 6개 광역시, 「지방자치법」 지정 특례시(5개) 및 대도시 특례 지역(14개)

2) 대학재학생에는 대학원생 72명 포함(이하 동일)

이어 세부 집단별 추가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대학생 집단부터 살펴보면, <표 V-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할당표집 기준을 적용한 바와 같이, 학제별로는 2·3년제 대학생(34.4%)보다 4년제 대학생(65.6%)이 많다. 재학하고 있는 학년은 2학년(32.0%)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학 졸업 유예나 수료(5.2%) 또는 대학원 재학생(6.7%)도 응답자에 포함되어 있다. 전공별 분포를 살펴보면, 공학계열(23.1%)로 가장 높고, 교육 계열(4.5%)이 가장 낮다. 대학 재학생 중 금융 관련 과목 수강 경험이 있는 비율은 24.0%이고, 고등학교 졸업 후 금융교육을 받은 경험률은 9.9% 정도이다.

이어 취업자 집단의 추가 특성을 살펴보면, 57.3%가 정규직 취업자이고 61.9%가 현재 직장에서 일 한지 1년 미만의 사회초년생이다. 금융업에 종사 경험을 갖은 이들은 8.7%이

고, 현 직종은 사무직(36.7%), 서비스직(23.1%), 전문직(18.9%) 순의 비율이 높다. 절반 이상(51.4%)이 월 200만 원~3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현 직장 급여 평균은 259.97만 원 정도이다. 현 직장에서 금융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19.2%, 그 외 현 직장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금융교육이 있는 비율은 17.7%이다.

미취업자의 경우 살펴볼 수 있는 특성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이전 및 현재 상태를 중심으로 측정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선 현재는 미취업 상태이지만, 이전에 취업 경험이 있는 비율이 59.6%로 10명 중 약 6명이 이에 해당한다. 1년 이상의 미취업 상태에 있는 비율은 39.3%로 낮지 않으며, 미취업 상태에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비율(30.4%)이 가장 높아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일명 ‘쉬는 청년’이 상태가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도 일정 수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V-6. 응답자 특성: 세부 집단별 특성 비교

(단위: 명, %, 개월, 만 원)

특성		전체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1,814 (100.0)	1,077 (100.0)	286 (100.0)	451 (100.0)
[대학재학생]		1,077 (100.0)	1,077 (100.0)		
학제	23년제 대학	371 (34.4)	371 (34.4)		
	4년제 대학 이상	706 (65.6)	706 (65.6)		
학년	1학년	215 (20.0)	215 (20.0)		
	2학년	345 (32.0)	345 (32.0)		
	3학년	237 (22.0)	237 (22.0)		
	4학년	152 (14.1)	152 (14.1)		
	대학 졸업유예/수료	56 (5.2)	56 (5.2)		
	대학원생	72 (6.7)	72 (6.7)		
전공	인문계열	164 (15.2)	164 (15.2)		
	사회계열 경제·경영	118 (11.0)	118 (11.0)		
	사회계열 일반	106 (9.8)	106 (9.8)		
	교육계열	48 (4.5)	48 (4.5)		
	공학계열	249 (23.1)	249 (23.1)		
	자연계열	104 (9.7)	104 (9.7)		
	의·약학계열	111 (10.3)	111 (10.3)		
	예·체능계열	155 (14.4)	155 (14.4)		
	기타	22 (2.0)	22 (2.0)		

특성		전체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1,814 (100.0)	1,077 (100.0)	286 (100.0)	451 (100.0)
금융 관련 과목 수강 경험	있음	259 (24.0)	259 (24.0)		
	없음	818 (76.0)	818 (76.0)		
고교 졸업 후 금융교육 경험 ¹⁾	전체	818 (100.0)	818 (100.0)		
	있음	81 (9.9)	81 (9.9)		
	없음	737 (90.1)	737 (90.1)		
[취업자]		286 (100.0)		286 (100.0)	
근로형태	1년 미만 계약	37 (12.9)		37 (12.9)	
	1년-2년 미만 계약	34 (11.9)		34 (11.9)	
	무기계약	37 (12.9)		37 (12.9)	
	정규직	164 (57.3)		164 (57.3)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	14 (4.9)		14 (4.9)	
현 직장 근속 기간	1년 미만	177 (61.9)		177 (61.9)	
	1년-2년 미만	55 (19.2)		55 (19.2)	
	2년 이상	54 (18.9)		54 (18.9)	
	평균(편차)	13.46 15.07		13.46 15.07	
금융업 종사 경험	있음	25 (8.7)		25 (8.7)	
	없음	261 (91.3)		261 (91.3)	
현 직종	관리직	10 (3.5)		10 (3.5)	
	전문직	54 (18.9)		54 (18.9)	
	사무직	105 (36.7)		105 (36.7)	
	서비스직	66 (23.1)		66 (23.1)	
	판매직	15 (5.2)		15 (5.2)	
	농림어업 숙련직	2 (0.7)		2 (0.7)	
	기능원 및 기능직	11 (3.8)		11 (3.8)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직	5 (1.7)		5 (1.7)	
	단순노무직	18 (6.3)		18 (6.3)	
현 직장 급여(수입)	100만 원 미만	27 (9.4)		27 (9.4)	
	100-200만 원 미만	37 (12.9)		37 (12.9)	
	200-300만 원 미만	147 (51.4)		147 (51.4)	
	300만 원 이상	75 (26.2)		75 (26.2)	
	평균(편차)	259.97 (236.05)		259.97 (236.05)	

특성		전체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1,814 (100.0)	1,077 (100.0)	286 (100.0)	451 (100.0)
현 직장 금융교육 경험	있음	55 (19.2)		55 (19.2)	
	없음	231 (80.8)		231 (80.8)	
고교 졸업 후 금융교육 경험 ²⁾	전체	231 (100.0)		231 (100.0)	
	있음	41 (17.7)		41 (17.7)	
	없음	190 (82.3)		190 (82.3)	
[미취업자]		451 (100.0)			451 (100.0)
미취업 이전 취업 경험	있음	269 (59.6)			269 (59.6)
	없음	182 (40.4)			182 (40.4)
미취업 기간	3개월 미만	82 (18.2)			82 (18.2)
	3개월-6개월 미만	92 (20.4)			92 (20.4)
	6개월-1년 미만	100 (22.2)			100 (22.2)
	1년-2년 미만	78 (17.3)			78 (17.3)
	2년 이상	99 (22.0)			99 (22.0)
미취업자 주된 활동	구직활동	84 (18.6)			91 (20.2)
	직업교육(훈련)	31 (6.9)			32 (7.1)
	취업학원, 도서관	95 (21.1)			95 (21.1)
	진학학원, 도서관	41 (9.1)			44 (9.8)
	집에서 보냄	137 (30.4)			137 (30.4)
	여행, 독서 등	42 (9.3)			43 (9.5)
	육아·가사 활동	3 (0.7)			3 (0.7)
	기타	18 (4.0)			6 (1.3)
고교 졸업 후 금융교육 경험	있음	74 (16.4)			74 (16.4)
	없음	377 (83.6)			377 (83.6)

* 주: 1) 금융관련 과목 수강 경험이 없는 대학재학생 대상 고교 졸업 후 금융교육 경험 측정
2) 금융교육 받은 경험이 없는 취업자 대상 고교 졸업 후 금융교육 경험 측정

(2) 초·중고 10대 시기 특성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이어 또 다른 응답자 특성인 초·중고 10대 시기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V-7>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졸업한 고등학교의 유형을 살펴보면, 절대다수가 일반고(73.8%)를 졸업하였고, 특성화고(14.9%)를 제외한 고등학교의 유형은 5% 미만 수준이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이들의 비율은 취업자(21.7%)와 미취업자(17.7%)에서 전체 평균 수치보다 높고, 검정고시 등으로 고졸 학력을 취득한 이들의 비율은 미취업자(5.3%)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한편, 초·중고 시기 성장한 지역은 앞서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살펴본 거주지역의 분포와 큰 차이가 없다.

다음으로 초·중고 시기 금융교육 경험을 살펴보면, 학교에서의 교과목 수업은 45.6%, 동아리 활동은 26.5%, 외부 강사 특강은 41.0%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모의 금융교육은 4점 리커트 척도 측정하였는데, '조금 배웠다'(56.0%)는 응답이 절반을 웃돈다. 부모에게 '전혀 배우지 않았다'는 응답은 미취업자(7.3%)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매우 많이 배웠다'는 응답과 '학교 외 교육 경험'은 취업자(21.0%, 19.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어 중·고등학교 시기 저축 및 투자 경험을 살펴보면, 예·적금 경험(65.7%)은 10명 중 6.5명이 경험하였고, 주식(27.2%), 가상화폐(11.8%), 저작권(6.2%) 투자 경험도 일정 비율 포착되었다. 한편, 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체크카드 사용 시작 시기'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26.6%)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사용하기 시작한 비율(19.0%)과 중학교 1학년(12.5%)에 사용하기 시작한 비율도 낮지 않다. 체크카드 이외 청소년 전용 카드의 사용은 43.7%가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10명 중 4명 정도(39.3%)는 중·고등학교 시절 금융정보 탐색을 해보았다.

한편, 중·고등학교 시기의 '돈' 사용과 관련한 부정 경험을 살펴보면, 4가지 측정 항목(온라인 도박(8.3%), 휴대폰 결제강(6.4%), 폰테크(9.2%), 소액 대출(2.7%))의 경험률이 일정 수준 포착되었으며, 취업자 집단의 경우 4가지 항목 모두에서 전체 평균을 웃도는 수치(온라인 도박(10.8%), 휴대폰 결제강(9.8%), 폰테크(10.1%), 소액 대출(3.5%))를 보였다. 이와 같은 10대 청소년 시기의 경험 유무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의 차이 등은 다음 단계에서 차이 검증과 실증모델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V-7. 응답자 특성: 초·중·고 10대 시기 특성

(단위: 명, %)

특성		전체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1,814 (100.0)	1,077 (100.0)	286 (100.0)	451 (100.0)
졸업한 고교 유형	일반고	1,339 (73.8)	816 (75.8)	192 (67.1)	331 (73.4)
	자율고	60 (3.3)	52 (4.8)	4 (1.4)	4 (0.9)
	과학고·영재학교	13 (0.7)	9 (0.8)	3 (1.0)	1 (0.2)
	외국어고·국제고	21 (1.2)	12 (1.1)	6 (2.1)	3 (0.7)
	예술고·체육고	22 (1.2)	17 (1.6)	2 (0.7)	3 (0.7)
	마이스터고	15 (0.8)	7 (0.6)	5 (1.7)	3 (0.7)
	특성화고	270 (14.9)	128 (11.9)	62 (21.7)	80 (17.7)
	대안학교	10 (0.6)	7 (0.6)	1 (0.3)	2 (0.4)
	기타(통신고, 해외 고교, 검정고시 등)	64 (3.5)	29 (2.7)	11 (3.8)	24 (5.3)
초·중고 시기 주된 성장지역	서울	343 (18.9)	219 (20.3)	59 (20.6)	65 (14.4)
	서울 외 대도시 ¹⁾	986 (54.4)	601 (55.8)	144 (50.3)	241 (53.4)
	그 외 지역	485 (26.7)	257 (23.9)	83 (29.0)	145 (32.2)
[초·중·고 시기 학교 금융교육]					
교과목 수업	있음	828 (45.6)	518 (48.1)	134 (46.9)	176 (39.0)
	없음	986 (54.4)	559 (51.9)	152 (53.1)	275 (61.0)
동아리 활동	있음	481 (26.5)	304 (28.2)	87 (30.4)	90 (20.0)
	없음	1,333 (73.5)	773 (71.8)	199 (69.6)	361 (80.0)
외부 강사 특강	있음	743 (41.0)	484 (44.9)	114 (39.9)	145 (32.2)
	없음	1,071 (59.0)	593 (55.1)	172 (60.1)	306 (67.8)
부모 명시적 금융교육	전혀 배우지 않음	95 (5.2)	45 (4.2)	17 (5.9)	33 (7.3)
	거의 배우지 않음	363 (20.0)	213 (19.8)	64 (22.4)	86 (19.1)
	조금 배움	1,016 (56.0)	612 (56.8)	145 (50.7)	259 (57.4)
	매우 많이 배움	340 (18.7)	207 (19.2)	60 (21.0)	73 (16.2)
학교 외 금융교육	있음	291 (16.0)	185 (17.2)	55 (19.2)	51 (11.3)
	없음	1,523 (84.0)	892 (82.8)	231 (80.8)	400 (88.7)

특성		전체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1,814 (100.0)	1,077 (100.0)	286 (100.0)	451 (100.0)			
[중·고교 시기 저축 및 투자 경험]								
적금 또는 예금	있음	1191 (65.7)	736 (68.3)	196 (68.5)	259 (57.4)			
	없음	623 (34.3)	341 (31.7)	90 (31.5)	192 (42.6)			
주식	있음	494 (27.2)	315 (29.2)	88 (30.8)	91 (20.2)			
	없음	1,320 (72.8)	762 (70.8)	198 (69.2)	360 (79.8)			
가상화폐	있음	214 (11.8)	141 (13.1)	39 (13.6)	34 (7.5)			
	없음	1,600 (88.2)	936 (86.9)	247 (86.4)	417 (92.5)			
저작권	있음	112 (6.2)	76 (7.1)	19 (6.6)	17 (3.8)			
	없음	1,702 (93.8)	1,001 (92.9)	267 (93.4)	434 (96.2)			
본인 명의 체크카드 사용 시작 시기	초등 저학년+고학년	82 (4.5)	50 (4.6)	15 (5.2)	17 (3.8)			
	중학교 1학년	226 (12.5)	150 (13.9)	29 (10.1)	47 (10.4)			
	중학교 2학년	208 (11.5)	125 (11.6)	30 (10.5)	53 (11.8)			
	중학교 3학년	208 (11.5)	124 (11.5)	32 (11.2)	52 (11.5)			
	고등학교 1학년	482 (26.6)	283 (26.3)	68 (23.8)	131 (29.0)			
	고등학교 2학년	145 (8.0)	89 (8.3)	19 (6.6)	37 (8.2)			
	고등학교 3학년	119 (6.6)	70 (6.5)	23 (8.0)	26 (5.8)			
	고등학교 졸업 후	344 (19.0)	186 (17.3)	70 (24.5)	88 (19.5)			
중·고교 시기 청소년이용카드	사용함	792 (43.7)	534 (49.6)	90 (31.5)	168 (37.3)			
	사용안함	1,022 (56.3)	543 (50.4)	196 (68.5)	283 (62.7)			
중·고교 시기 금융정보탐색	활동함	713 (39.3)	456 (42.3)	113 (39.5)	144 (31.9)			
	활동안함	1,101 (60.7)	621 (57.7)	173 (60.5)	307 (68.1)			
[중·고교 시기 부정 경험]								
온라인 도박 경험	있음	150 (8.3)	95 (8.8)	31 (10.8)	24 (5.3)			
	없음	1,664 (91.7)	982 (91.2)	255 (89.2)	427 (94.7)			
휴대폰 결제강	있음	116 (6.4)	67 (6.2)	28 (9.8)	21 (4.7)			
	없음	1,698 (93.6)	1,010 (93.8)	258 (90.2)	430 (95.3)			
폰테크	있음	167 (9.2)	105 (9.7)	29 (10.1)	33 (7.3)			
	없음	1,647 (90.8)	972 (90.3)	257 (89.9)	418 (92.7)			
소액대출	있음	49 (2.7)	36 (3.3)	10 (3.5)	3 (0.7)			
	없음	1,765 (97.3)	1,041 (96.7)	276 (96.5)	448 (99.3)			

* 주: 서울 외 대도시: 6개 광역시, 「지방자치법」 지정 특례시(5개) 및 대도시 특례 지역(14개)

(3) 부모관련 특성

응답자 특성 영역으로 구성된 부모 관련 특성은 후기청소년의 배경 및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 중 하나인 ‘금융사회화’ 이론을 기본 틀로 하여 구성된 내용이 측정되었다.

측정된 부모와 동거 여부부터 살펴보면, 절대다수인 80.2%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며, 취업자만이 평균보다 크게 낮은 동거 비율(65.4%)을 보인다. 부모는 모두 일하는 맞벌이의 비율(60.2%)이 다수이고, 부모 중 금융업에 종사하는 경우(6.6%)는 많지 않지만, 부모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하고 있는 비율(35.7%)은 낮지 않다. 구간으로 측정한 부모의 월평균 소득 수준은 300만 원~600만 원대 응답 비율(41.4%)이 가장 높다. 다만, 미취업자 집단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비율(29.3%)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특성이 있다. 부모의 학력 수준은 대학 졸업의 비율(부 48.7%, 모 47.3%)이 절반 가까운 수치를 보인다.

표 V-8. 응답자 특성: 부모관련 특성

(단위: 명, %, 만 원)

특성		전체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1,814 (100.0)	1,077 (100.0)	286 (100.0)	451 (100.0)
부모와 동거 여부	동거	1,455 (80.2)	877 (81.4)	187 (65.4)	391 (86.7)
	비동거	331 (18.2)	187 (17.4)	94 (32.9)	50 (11.1)
	해당 없음 ¹⁾	28 (1.5)	13 (1.2)	5 (1.7)	10 (2.2)
부모 경제활동	전체	1,786 (100.0)	1,064 (100.0)	281 (100.0)	441 (100.0)
	부모 모두 일함	1,075 (60.2)	659 (61.9)	157 (55.9)	259 (58.7)
	부만 일함	514 (28.8)	302 (28.4)	86 (30.6)	126 (28.6)
	모만 일함	141 (7.9)	75 (7.0)	29 (10.3)	37 (8.4)
	부모 모두 일안함	56 (3.1)	28 (2.6)	9 (3.2)	19 (4.3)
금융업 종사 부모 유무 ²⁾	전체	1,730 (100.0)	1,036 (100.0)	272 (100.0)	422 (100.0)
	있음	115 (6.6)	75 (7.2)	21 (7.7)	19 (4.5)
	없음	1,615 (93.4)	961 (92.8)	251 (92.3)	403 (95.5)
부모 주식, 가상화폐 투자	전체	1,786 (100.0)	1,064 (100.0)	281 (100.0)	441 (100.0)
	투자 함	638 (35.7)	391 (36.7)	104 (37.0)	143 (32.4)
	투자 안함	706 (39.5)	402 (37.8)	120 (42.7)	184 (41.7)
	모름	442 (24.7)	271 (25.5)	57 (20.3)	114 (25.9)

특성		전체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1,814 (100.0)	1,077 (100.0)	286 (100.0)	451 (100.0)
부모 월평균 소득	전체	1,786 (100.0)	1,064 (100.0)	281 (100.0)	441 (100.0)
	300만 원 이하	359 (20.1)	169 (15.9)	61 (21.7)	129 (29.3)
	300-600만 원 미만	739 (41.4)	447 (42.0)	117 (41.6)	175 (39.7)
	600-800만 원 미만	356 (19.9)	221 (20.8)	55 (19.6)	80 (18.1)
	800-1,000만 원 미만	177 (9.9)	127 (11.9)	24 (8.5)	26 (5.9)
	1,000만 원 이상	155 (8.7)	100 (9.4)	24 (8.5)	31 (7.0)
[부모 최종 학력]		1,786 (100.0)	1,064 (100.0)	281 (100.0)	441 (100.0)
부	중학교 졸업 이하	61 (3.4)	32 (3.0)	13 (4.6)	16 (3.6)
	고등학교 졸업	658 (36.8)	352 (33.1)	115 (40.9)	191 (43.3)
	대학 졸업	870 (48.7)	564 (53.0)	121 (43.1)	185 (42.0)
	대학원 졸업	132 (7.4)	84 (7.9)	21 (7.5)	27 (6.1)
	해당 없음 ³⁾	65 (3.6)	32 (3.0)	11 (3.9)	22 (5.0)
모	중학교 졸업 이하	58 (3.2)	28 (2.6)	7 (2.5)	23 (5.2)
	고등학교 졸업	752 (42.1)	412 (38.7)	137 (48.8)	203 (46.0)
	대학 졸업	844 (47.3)	547 (51.4)	113 (40.2)	184 (41.7)
	대학원 졸업	89 (5.0)	57 (5.4)	16 (5.7)	16 (3.6)
	해당 없음 ³⁾	43 (2.4)	20 (1.9)	8 (2.8)	15 (3.4)

* 주: 1) 부모 모두 안 계시는 경우 '해당 없음'에 응답.

2) 부모 모두 일 안하는 경우 측정하지 않음(문항 skip).

3) 부모 중 한 분이 안 계시는 경우 '해당 없음'에 응답, 부모 모두 안 계시는 경우 측정하지 않음(문항 skip).

2.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실태 분석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여기에서는 측정된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점수를 산출하고,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정 통계(t-test, GLM-test) 분석으로 확인함.
-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의 100점 환산 점수는 68.71점이고, 세부 집단별 점수 중 취업자(69.80점)와 대학생(69.49점) 집단이 전체 평균보다 높고, 미취업자(66.16점) 집단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이해력 구성의 3가지 요소별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측정 항목을 살펴보면, 금융지식에서는 '복리 개념', 금융행위에서는 '적극적인 저축 활동', 금융태도에서는 '미래보다 현재 선호'가 나타남.
- 후기청소년의 특성 및 금융생활실태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의 차이 검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함.
 - ① 부모와 또래 친구의 명시적 금융교육 및 역사회화 주제 경험자가 금융이해력 점수 높음.
 - ② 금융정체성 유형(성취형→유예형→폐쇄형→확산형)에 따라 금융이해력 점수 뚜렷한 차이 보임.
 - ③ 금융자신감, 주관적 금융관리 능력, 지각된 행동 통제 능력이 있는 집단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더 높음.
 - ④ 월 200만 원 이상 지출 집단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가장 낮고, 할부 잔액이 부채임을 인지하는 집단이 점수 높음.
 - 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하는 취업자 및 주식, 가상화폐, 외화 투자하는 대학생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음.
 - ⑥ 마케팅 미끼로 금융계좌 개설 유경험자가 금융이해력 점수가 더 높음.
 - ⑦ 청년도약계좌 등 정부 지원 금융상품 또는 제도 가입자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음.
 - ⑧ 주관적 금융지식에 대해 '매우 높음' 응답 집단보다 '높은 편' 응답 집단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더 높음.
 - ⑨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금융이해력 점수도 높음.

1) 금융이해력 수준

(1)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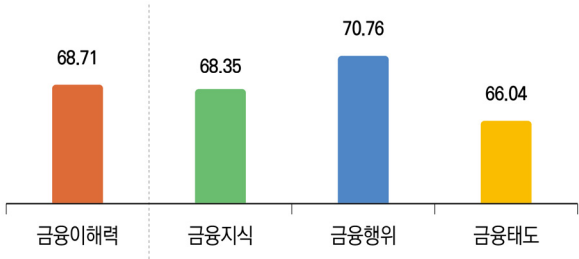
① 금융이해력 평균 점수 및 구성 요소별 점수

앞선 제2장의 금융이해력 개념의 측정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금융이해력 측정 문항의 총점수는 3가지 구성 요소의 배점, 즉 금융지식(7점)과 금융행위(9점), 금융태도(4점) 점수를 모두 합한 20점이지만, 조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비교 편의를 위하여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를 사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쉽도록 응답자들이 획득한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산출된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100점 기준 68.71점이다. 금융이해력을 구성하는 3가지 구성 요소의 점수도 각각 산출한 결과, 금융지식 68.35점, 금융행위 70.76점, 금융태도 66.04점으로 금융행위가 금융지식이나 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대상과 방법, 그리고 시점이 달라 직접 명목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으나, '2024년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에서 20대(18세~29세)의 평균 금융이해력이

62.6점이고, 금융지식(73.3점)이 금융행위(59.5점)나 금융태도(50.8점)보다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25.04.29.)는 선행 결과와는 명확하게 다른 경향성을 보인다.

(단위: %)



* 주: 100점 환산 점수, 금융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의 소비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이하 동일)

그림 V-4. 금융이해력 수준

산출된 점수를 성별과 세부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성별 비교에서는 여성(69.04점)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남성(68.17점)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3가지 구성 요소를 나누어 비교해 보아도 전반적으로 여성의 점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 집단 비교에서는 취업자의 금융이해력 점수(69.80점)가 대학생(69.49점)과 큰 차이 없고, 미취업자(66.16점)의 경우 취업자나 대학생보다 낮은 수치가 한눈에 파악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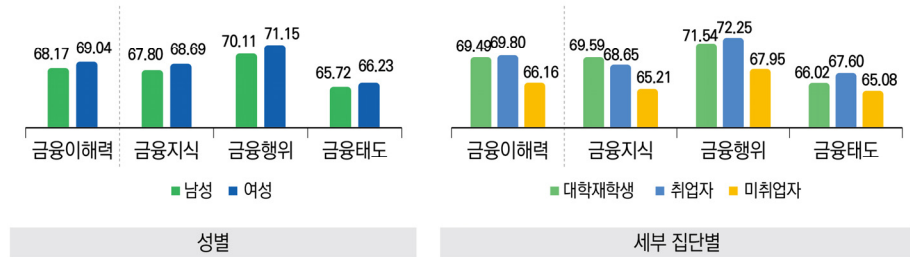


그림 V-5. 성별 및 세부집단별 금융이해력 수준

② 금융이해력 측정 문항별 점수

측정된 각 항목의 점수를 비교해 보면, 7개의 금융지식 항목 중 ‘복리개념’의 점수(33.24점)가 가장 낮은 항목이고, 특히 상대적으로 남성(29.64점)과 대학생(32.13점)의 점수가 전체 평균보다도 낮았다. 9개의 금융행위 항목에서는 ‘적극적인 저축 활동’의 점수(57.17점)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여기에서는 특히 여성(54.21점)과 미취업자(51.66점) 집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3개의 금융태도 항목에서는 ‘돈은 쓰기 위해 존재’한다는 데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강한데, 특히 남성 후기청소년들의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여 전체 평균보다도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V-9. 금융이해력 측정 문항별 점수

(단위: 점)

구분	배점	전체		성별 ¹⁾		세부 집단 ¹⁾		
		평균 획득 점수	100점 환산 점수 ¹⁾	남성	여성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금융이해력	20점	13.74	68.71	68.17	69.04	69.49	69.80	66.16
금융지식	7점	4.78	68.35	67.80	68.69	69.59	68.65	65.21
① 인플레이션과 구매력	1	0.75	75.47	73.58	76.62	77.81	70.98	72.73
② 이자개념의 이해	1	0.79	78.67	75.91	80.34	79.02	79.02	77.61
③ 단리 계산	1	0.76	76.35	75.47	76.88	77.53	79.02	71.84
④ 복리개념의 이해	1	0.33	33.24	29.64	35.43	32.13	37.41	33.26
⑤ 위험과 수익 간 관계	1	0.88	88.15	84.82	90.17	88.86	86.01	87.80
⑥ 인플레이션의 의미	1	0.67	67.25	71.09	64.92	69.64	70.63	59.42
⑦ 분산 투자 개념	1	0.59	59.21	63.94	56.33	62.02	57.34	53.66
금융행위	9점	6.32	70.76	70.11	71.15	71.54	72.25	67.95
① 예산관리 노력	1	0.76	75.58	73.58	76.79	76.04	79.02	72.28
② 적극적인 저축 활동	1	0.57	57.17	62.04	54.21	59.15	58.39	51.66
③ 신중한 구매	1	0.86	86.00	82.92	87.87	85.33	85.31	88.03
④ 청구대금 적기 지급	1	0.80	79.55	73.72	83.08	79.67	80.42	78.71
⑤ 평소 재무상황 점검	1	0.92	91.73	89.20	93.27	91.92	91.61	91.35
⑥ 장기 재무목표 설정	1	0.82	82.14	80.58	83.08	82.73	82.87	80.27
⑦ 정보 입각 금융상품 선택	2	0.79	79.38	82.92	77.24	83.57	85.31	65.63
⑧ 적자 해소	1	0.80	80.21	81.02	79.72	80.32	82.17	78.71

구분	배점	전체		성별 ¹⁾		세부 집단 ¹⁾		
		평균 획득 점수	100점 환산 점수 ¹⁾	남성	여성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금융태도 ²⁾	4점	2.64	66.04	65.72	66.23	66.02	67.60	65.08
① 저축보다 소비 선호	1.333	0.91	68.26	68.33	68.10	68.07	70.47	67.03
② 미래보다 현재 선호	1.333	0.99	74.26	74.14	74.32	74.64	75.43	72.58
③ 돈은 쓰기 위해 존재	1.333	0.74	55.51	54.71	56.30	55.40	56.91	55.67

* 주: 1) 총 20점(금융지식 7점+금융행위 9점+금융태도 4점) 중 획득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
2) 금융태도 ①~③ 각 항목 평균 점수 동의할수록 점수가 낮아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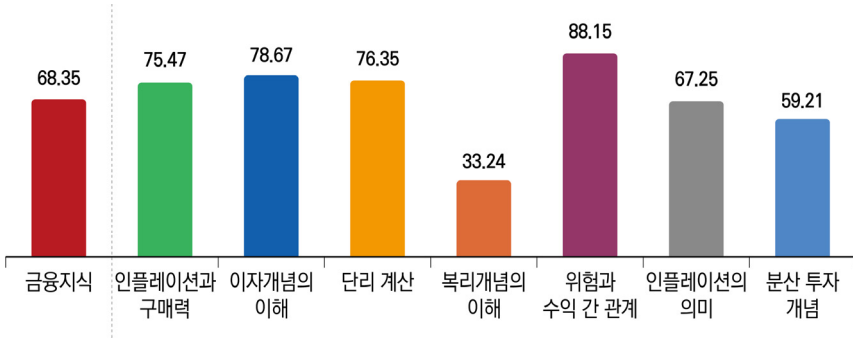


그림 V-6. 금융지식 측정 문항별 점수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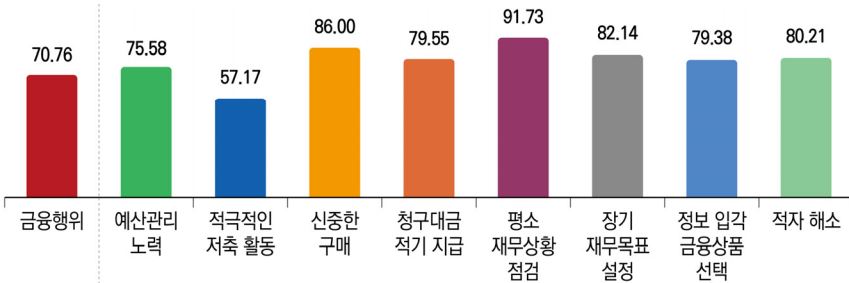


그림 V-7. 금융행위 측정 문항별 점수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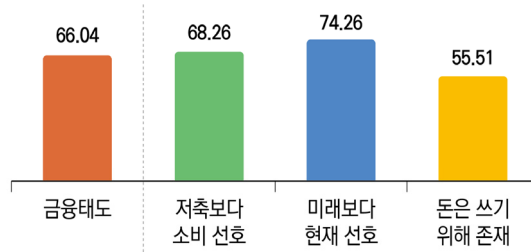


그림 V-8. 금융태도 측정 문항별 점수 비교

(2) 후기청소년 특성별 금융이해력 점수 차이 검증

①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차이 검증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후기청소년의 특성별 금융이해력 점수 차이를 살펴보고, 수치로 나타나는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인지의 여부를 두 가지 검정 통계방법(t-test, GLM-test)으로 확인하였다. 우선, 앞서 금융이해력 점수는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100점 환산 점수를 활용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차이 검정이 목적이므로 금융이해력 20점 배점을 기준으로 응답자가 실제 획득한 점수, 즉 환산 전 점수를 기준으로 각 특성 집단별 금융이해력 평균 점수의 차이를 검증했음을 밝힌다.

〈표 V-10〉에 제시된 사회인구학적 공통 특성별 금융이해력 차이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후기청소년의 세부 집단별 금융이해력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취업자의 점수(13.96점)가 가장 높고, 미취업자(13.23점)가 가장 낮다. 또한 성별에 따른 점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고, 연령대와 학력, 거주지역과 월평균 소득 수준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학력과 거주지역 특성에 따른 차이는 금융이해력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특성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은 22세~24세 후기청소년의 점수(13.90점)가 19세~21세 점수(13.57점) 보다 다소 높다.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아, 대졸 이상 후기청소년의 점수(13.94점)가 고졸 이하의 점수(12.64점) 보다 높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서울 지역에 사는 후기청소년의 점수(14.23점)가 서울 외 대도시(13.72점)에 살거나 그 외 지역(13.38점)에 사는 이들에 비해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은 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또 대체로 월평균 소득 수준 200만 원~300만 원의 금융이해력 점수(14.06점)가 다른 소득 구간대의 후기청소년의 점수보다 높은 것도 유의미한 차이이다.

표 V-10.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금융이해력 차이 검증

(단위: 점)

구분		금융이해력	금융이해력 구성 3요소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전체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세부 집단	대학생	13.90 (3.27)	4.87 (1.80)	6.39 (1.89)	2.64 (0.63)
	취업자	13.96 (3.15)	4.80 (1.89)	6.45 (1.88)	2.70 (0.63)
	미취업자	13.23 (3.40)	4.56 (1.92)	6.07 (1.89)	2.60 (0.60)
	GLM-test	7.256***	4.415*	5.432**	2.318
성별	남성	13.63 (3.41)	4.74 (1.91)	6.26 (1.95)	2.63 (0.65)
	여성	13.81 (3.23)	4.81 (1.81)	6.35 (1.86)	2.65 (0.60)
	t-test	-1.100	-0.688	-1.011	-0.684
연령	19세-21세	13.57 (3.35)	4.69 (1.89)	6.25 (1.90)	2.62 (0.65)
	22세-24세	13.90 (3.25)	4.86 (1.81)	6.38 (1.88)	2.66 (0.59)
	t-test	-2.157*	-1.949	-1.358	-1.501
학력	고졸이하	12.64 (3.53)	4.33 (1.99)	5.79 (2.10)	2.52 (0.65)
	대학재학	13.90 (3.26)	4.88 (1.79)	6.38 (1.90)	2.64 (0.63)
	대졸이상	13.94 (3.16)	4.80 (1.86)	6.44 (1.75)	2.70 (0.59)
	GLM-test	16.199***	8.945***	11.288***	7.137***
거주지역	서울	14.23 (3.22)	4.93 (1.86)	6.55 (1.87)	2.75 (0.60)
	서울 외 대도시 ¹⁾	13.72 (3.27)	4.79 (1.78)	6.31 (1.90)	2.61 (0.61)
	그 외 지역	13.38 (3.39)	4.63 (1.97)	6.13 (1.88)	2.61 (0.64)
	GLM-test	7.054***	2.675	5.099**	8.096***
금융자격증 보유 여부	있음	13.51 (3.54)	4.20 (2.05)	6.70 (2.05)	2.61 (0.64)
	없음	13.76 (3.28)	4.83 (1.83)	6.29 (1.88)	2.64 (0.62)
	t-test	-0.773	-3.366***	2.199*	-0.564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13.40 (3.49)	4.73 (1.90)	6.06 (1.96)	2.61 (0.63)
	100-200만 원 미만	13.95 (3.06)	4.90 (1.72)	6.42 (1.82)	2.63 (0.60)
	200-300만 원 미만	14.06 (3.20)	4.99 (1.84)	6.40 (1.89)	2.67 (0.62)
	300만 원 이상	13.94 (3.20)	4.54 (1.88)	6.69 (1.76)	2.70 (0.62)
	GLM-test	4.705**	3.896**	9.537***	1.854

* 주: 1) 서울 외 대도시: 6개 광역시, 「지방자치법」 지정 특례시(5개) 및 대도시 특례 지역(14개)
 ***p<.001, **p<.01, *p<.05

② 세부 집단별 추가 특성의 차이 검증

공통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차이 검증에 이어 세부 집단별 추가 특성별 금융이해력 점수 차이 검증의 결과를 살펴보면 <표 V-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대학생 특성 중에는 학제와 전공 그리고 금융 관련 과목 수강 여부와 고교 졸업 후 금융교육 경험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 재학생의 금융이해력 점수(14.41점)가 2·3년제 대학 재학생의 점수(13.02점)보다 높다. 사회계열 중 경제·경영 전공자의 점수(14.36점)가 다른 전공들에 비해 높다는 결과를 비롯하여 각 전공 계열 간 평균 점수의 차이 또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는다. 또한 금융 관련 과목을 수강한 경험자의 점수(14.87점)가 수강 경험이 없는 이들의 점수(13.59점)에 비해 높고, 고교 졸업 후 금융교육 유경험자의 점수(14.79점)가 경험 없는 이들의 점수(13.46점)에 비해 높다는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이다.

취업자 특성 중에는 금융업 종사 경험과 현 직장의 급여에 따른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분석되었다. 금융업 종사 경험에서는 종사 경험이 있는 경우의 점수(12.56점)가 오히려 종사 경험이 없는 이들의 점수(14.09점)에 비해 낮는데, 결과적으로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또한 현 직장의 급여 수준에 따른 차이는 앞서 공통 특성에서 살펴본 월평균 소득에 따른 차이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미취업자 특성에서는 미취업 기간과 미취업자의 주된 활동 특성, 고교 졸업 후 금융교육 경험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특성으로 분석되었다. 미취업 기간의 경우, 1년~2년 미만의 미취업 기간을 갖는 이들의 점수(13.86점)가 가장 높고, 그 외 기간별로 나타나는 금융이해력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미취업 상태에서 진학(14.24점) 또는 취업(13.98점)을 준비하는 이들이 다른 활동을 하는 후기청소년들의 점수에 비해 높은 금융이해력 점수를 갖고, 활동별 점수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11. 세부 집단별 특성별 금융이해력 차이 검증

(단위: 점)

구분		금융이해력	금융이해력 구성 3요소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전체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대학생]					
학제	2·3년제 대학	13.02 (3.38)	4.51 (1.92)	6.00 (1.95)	2.52 (0.65)
	4년제 대학 이상	14.41 (3.08)	5.10 (1.67)	6.60 (1.82)	2.71 (0.59)
	t-test	-6.464***	-4.978***	-4.786***	-4.539***
학년	1학년	13.57 (3.14)	4.78 (1.82)	6.17 (1.81)	2.62 (0.69)
	2학년	13.84 (3.48)	4.88 (1.85)	6.33 (1.98)	2.62 (0.63)
	3학년	14.10 (3.14)	4.84 (1.77)	6.55 (1.80)	2.71 (0.60)
	4학년	14.65 (2.70)	5.32 (1.59)	6.66 (1.74)	2.67 (0.53)
	대학 졸업유예/수료	12.69 (3.81)	4.32 (1.80)	5.91 (2.36)	2.46 (0.67)
	대학원생	13.83 (3.38)	4.68 (1.86)	6.53 (1.79)	2.63 (0.62)
	GLM-test	3.837**	3.239**	2.436*	1.773
전공	인문계열	13.52 (3.26)	4.68 (1.90)	6.26 (1.92)	2.58 (0.66)
	사회계열 경제·경영	14.36 (3.29)	5.08 (1.78)	6.55 (1.92)	2.73 (0.67)
	사회계열 일반	14.22 (3.48)	4.67 (1.93)	6.75 (1.95)	2.80 (0.53)
	교육계열	13.90 (3.09)	4.90 (1.60)	6.23 (1.79)	2.78 (0.78)
	공학계열	14.09 (3.09)	5.09 (1.68)	6.40 (1.82)	2.60 (0.61)
	자연계열	14.13 (3.50)	4.85 (1.88)	6.60 (1.99)	2.69 (0.56)
	의·약학계열	14.04 (3.06)	5.10 (1.63)	6.30 (1.88)	2.64 (0.67)
	예·체능계열	13.11 (3.35)	4.50 (1.87)	6.10 (1.84)	2.51 (0.61)
	기타	14.27 (3.37)	5.09 (1.66)	6.45 (1.99)	2.73 (0.43)
	GLM-test	2.069*	2.148*	1.407	2.640**
금융 관련 과목 수강 경험	있음	14.87 (2.90)	5.12 (1.62)	7.02 (1.82)	2.73 (0.65)
	없음	13.59 (3.32)	4.79 (1.85)	6.19 (1.87)	2.61 (0.62)
	t-test	5.963***	2.754**	6.282***	2.619**
고교 졸업 후 금융교육 경험 ²⁾	있음	14.79 (2.84)	5.04 (1.63)	7.06 (1.68)	2.69 (0.53)
	없음	13.46 (3.35)	4.76 (1.87)	6.09 (1.87)	2.60 (0.63)
	t-test	3.432***	1.264	4.484***	1.140

구분		금융이해력	금융이해력 구성 3요소			
			금융지식		금융행위	
전체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취업자]						
근로형태	1년 미만 계약	13.87 (3.62)	4.76 (2.29)	6.59 (1.55)	2.52 (0.72)	
	1년-2년 미만 계약	13.18 (3.42)	4.47 (1.89)	5.97 (2.04)	2.74 (0.51)	
	무기계약	13.48 (3.31)	4.84 (1.85)	6.05 (2.33)	2.59 (0.60)	
	정규직	14.33 (2.84)	4.91 (1.78)	6.65 (1.75)	2.77 (0.62)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	13.02 (3.95)	4.43 (2.24)	6.00 (2.18)	2.60 (0.72)	
	GLM-test	1.633	0.532	1.682	1.763	
현 직장 근속 기간	1년 미만	13.82 (3.29)	4.68 (1.92)	6.42 (1.90)	2.71 (0.64)	
	1년-2년 미만	14.10 (2.67)	4.91 (1.94)	6.58 (1.61)	2.61 (0.51)	
	2년 이상	14.27 (3.16)	5.09 (1.75)	6.41 (2.10)	2.77 (0.68)	
	GLM-test	0.495	1.071	0.165	0.916	
금융업 종사 경험	있음	12.56 (3.69)	3.36 (2.02)	6.40 (2.50)	2.80 (0.76)	
	없음	14.09 (3.07)	4.94 (1.83)	6.46 (1.82)	2.69 (0.61)	
	t-test	-2.340*	-4.103***	-0.109	0.674	
현 직종	관리직	13.70 (3.55)	4.20 (2.20)	7.00 (1.70)	2.50 (0.82)	
	전문직	14.15 (3.26)	4.94 (1.76)	6.31 (1.92)	2.89 (0.63)	
	사무직	14.25 (2.95)	5.10 (1.69)	6.44 (1.94)	2.72 (0.56)	
	서비스직	13.63 (3.62)	4.48 (2.31)	6.50 (1.94)	2.65 (0.66)	
	판매직	13.09 (2.55)	4.13 (1.77)	6.47 (2.07)	2.49 (0.67)	
	농림어업 숙련직	15.00 (2.36)	4.50 (0.71)	7.50 (2.12)	3.00 (0.47)	
	기능원 및 기능직	14.97 (2.45)	5.55 (0.93)	6.45 (1.81)	2.97 (0.53)	
	장기기계조작 및 조립직	14.53 (2.27)	4.40 (1.82)	7.40 (1.14)	2.73 (0.95)	
	단순노무직	12.85 (3.07)	4.44 (1.98)	6.06 (1.39)	2.35 (0.58)	
	GLM-test	0.842	1.282	0.478	2.090*	
현 직장 급여(수입)	100만 원 미만	12.62 (3.04)	3.93 (2.09)	6.26 (1.61)	2.43 (0.85)	
	100-200만 원 미만	12.85 (4.05)	4.14 (2.38)	6.00 (2.19)	2.71 (0.61)	
	200-300만 원 미만	14.31 (2.99)	5.16 (1.72)	6.50 (1.86)	2.65 (0.59)	
	300만 원 이상	14.30 (2.79)	4.75 (1.69)	6.64 (1.84)	2.91 (0.57)	
	GLM-test	4.205**	5.516**	1.096	5.033**	
현 직장 금융교육 경험	있음	13.68 (2.99)	4.24 (1.87)	6.84 (1.87)	2.61 (0.73)	
	없음	14.02 (3.19)	4.94 (1.88)	6.36 (1.87)	2.73 (0.60)	
	t-test	-0.717	-2.498*	1.697	-1.071	
고교 졸업 후 금융교육 경험	있음	14.53 (3.18)	4.93 (1.79)	6.83 (1.80)	2.77 (0.53)	
	없음	13.92 (3.20)	4.94 (1.90)	6.26 (1.88)	2.72 (0.61)	
	t-test	1.114	-0.047	1.780	0.546	

구분		금융이해력	금융이해력 구성 3요소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전체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미취업자]					
미취업 이전 취업 경험	있음	13.47 (3.28)	4.71 (1.82)	6.17 (1.90)	2.59 (0.60)
	없음	12.89 (3.56)	4.35 (2.05)	5.91 (1.86)	2.62 (0.59)
	t-test	1.783	1.883	1.431	-0.574
미취업 기간	3개월 미만	13.54 (3.14)	4.83 (1.67)	6.06 (1.78)	2.65 (0.63)
	3개월-6개월 미만	13.37 (3.49)	4.54 (2.00)	6.17 (1.95)	2.65 (0.53)
	6개월-1년 미만	13.28 (3.42)	4.54 (2.00)	6.16 (1.89)	2.58 (0.56)
	1년-2년 미만	13.86 (3.23)	4.78 (1.81)	6.46 (1.77)	2.62 (0.57)
	2년 이상	12.31 (3.52)	4.21 (2.03)	5.57 (1.94)	2.53 (0.68)
	GLM-test	2.757*	1.482	2.775*	0.723
미취업자 주된 활동	구직활동	13.05 (3.56)	4.37 (1.97)	6.04 (1.98)	2.64 (0.60)
	직업교육(훈련)	12.92 (3.72)	3.97 (2.18)	6.25 (1.90)	2.70 (0.73)
	취업학원, 도서관	13.98 (3.23)	4.81 (1.88)	6.45 (1.83)	2.71 (0.58)
	진학학원, 도서관	14.24 (2.66)	5.07 (1.61)	6.48 (1.66)	2.70 (0.57)
	집에서 보냄	12.42 (3.36)	4.39 (1.97)	5.58 (1.83)	2.44 (0.54)
	여행, 독서 등	13.60 (3.24)	4.93 (1.67)	6.07 (1.94)	2.60 (0.54)
	육아·가사 활동	8.11 (2.52)	1.67 (2.08)	4.67 (1.15)	1.78 (0.69)
	기타	17.00 (1.38)	5.67 (0.52)	8.00 (0.89)	3.33 (0.56)
	GLM-test	4.762***	2.935**	3.450**	4.632***
고교 졸업 후 금융교육 경험	있음	14.55 (2.71)	5.00 (1.43)	6.84 (1.58)	2.71 (0.60)
	없음	12.98 (3.47)	4.48 (2.00)	5.92 (1.91)	2.58 (0.59)
	t-test	4.333***	2.669**	3.904***	1.647

* 주: 1) 금융관련 과목 수강 경험이 없는 대학재학생 대상 고교 졸업 후 금융교육 경험 측정

***p<.001, **p<.01, *p<.05

③ 초중고 10대 청소년 시기 경험 특성별 차이 검증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차이 검증에 이어 초중고 10대 청소년기 경험 특성별 금융이해력 점수 차이 검증의 결과를 살펴보면 <표 V-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졸업한 고교의 유형과 주된 성장 지역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분석되었다. 즉, 자유훈고 졸업자의 점수(15.21점)가 가장 높은 것을 비롯하여 각 학교 유형별 평균 점수의 차이는 의미 있는 차이이고, 서울 지역에서 성장한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점수(14.16점)가 가장 높은 등 성장 지역에 따른 점수 차이 또한 의미 있게 해석될 수 있는 차이인 것이다.

다음으로 초중고 시기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관련하여 측정된 항목에서는 교과목 수업을 제외한 동아리 활동과 외부 강사의 특강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금융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의 점수(13.46점)보다 경험이 없는 이들의 점수(13.85점)가 다소 높고, 외부 강사의 특강 경험이 있는 경우(14.03점)가 없는 경우(13.54점)보다 높은 것 또한 의미 있게 해석될 수 있는 차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부모의 명시적 교육이나 학교 외 금융교육의 경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에게 금융교육을 ‘매우 많이 받음’의 점수(14.13점)가 가장 높고, 금융교육을 받았다고 인지되는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점수의 차이가 의미가 있으며, 학교 외 금융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13.08점)가 없는 경우(13.87점)에 비해 금융이해력 점수가 낮다는 결과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중·고교 시기 저축 및 투자 경험에 있어서는 예·적금, 주식, 저작권, 금융정보 탐색 여부의 특성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예·적금 저축 경험이 있는 경우(14.15점)가 없는 경우(12.96점)에 비해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고,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경우(14.41점)가 없는 경우(13.49점)에 비해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다. 또한 저작권 투자 경험은 경험이 없는 경우(13.81점)가 투자 경험이 있는 경우(12.75점)에 비해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은데, 이는 음원과 같은 저작권 투자가 청소년기 자산 투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좋아하는 것에 대한 몰입, 일명 ‘팬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중·고교 시기 금융정보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14.58점)가 없는 경우(13.20점)에 비해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다는 사실 또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해석될 수 있는 차이이다.

이어 중·고교 시기 부정 경험과 관련해서는 온라인도박 경험, 휴대폰 결제강, 소액 대출 경험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부정 경험이 없는 이들의 점수가 부정 경험이 있는 이들의 금융이해력 점수에 비해 높다. 구체적으로 온라인도박 경험이 있는 경우(12.36점)가 없는 경우(13.87점)에 비해 점수가 낮고, 휴대폰 결제강 경험이 있는 경우(11.97점)가 없는 경우(13.86점)에 비해 낮으며, 소액 대출 경험이 있는 경우(12.20점)가 경험이 없는 경우(13.79점)에 비해 점수가 낮다.

표 V-12. 초·중·고 10대 시기 특성별 금융이해력 차이 검증

(단위: 점)

구분		금융이해력	금융이해력 구성 3요소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전체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졸업한 고교 유형	일반고	13.88 (3.20)	4.86	(1.80)	6.35	(1.86)	2.66	(0.62)
	자율고	15.21 (2.78)	5.33	(1.26)	7.10	(1.71)	2.78	(0.50)
	과학고·영재학교	13.82 (2.52)	4.46	(1.66)	6.85	(1.68)	2.51	(0.66)
	외국어고·국제고	15.02 (2.69)	5.05	(1.60)	7.38	(1.36)	2.59	(0.58)
	예술고·체육고	13.62 (3.65)	4.91	(1.69)	6.18	(1.99)	2.53	(0.69)
	마이스터고	13.44 (2.67)	4.33	(1.72)	6.27	(1.53)	2.84	(0.74)
	특성화고	12.70 (3.52)	4.27	(2.09)	5.94	(2.02)	2.50	(0.63)
	대안학교	12.07 (4.71)	3.90	(2.13)	5.80	(2.39)	2.37	(0.60)
	기타(통신고, 해외 고교, 검정고시 등)	13.89 (3.78)	4.97	(2.09)	6.19	(2.01)	2.73	(0.63)
	GLM-test	5.991***	4.259***		3.844***		3.142**	
초·중고 시기 주된 성장지역	서울	14.16 (3.30)	4.89	(1.89)	6.55	(1.91)	2.72	(0.62)
	서울 외 대도시 ^(주)	13.70 (3.25)	4.78	(1.78)	6.31	(1.89)	2.61	(0.61)
	그 외 지역	13.53 (3.37)	4.72	(1.96)	6.17	(1.88)	2.64	(0.63)
	GLM-test	3.827*	0.859		3.912*		4.060*	
[초·중고 시기 학교 금융교육]								
교과목 수업	있음	13.68 (3.22)	4.64	(1.86)	6.42	(1.84)	2.62	(0.59)
	없음	13.80 (3.36)	4.91	(1.83)	6.23	(1.94)	2.66	(0.64)
	t-test	-0.786	-3.077**		2.071*		-1.339	
동아리 활동	있음	13.46 (3.34)	4.40	(1.92)	6.46	(1.91)	2.59	(0.62)
	없음	13.85 (3.28)	4.92	(1.80)	6.26	(1.88)	2.66	(0.62)
	t-test	-2.230*	-5.196***		1.976*		-2.022*	

구분		금융이해력	금융이해력 구성 3요소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전체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외부 강사 특강	있음	14.03 (3.12)	4.81 (1.77)	6.59 (1.80)	2.63 (0.61)
	없음	13.54 (3.40)	4.76 (1.90)	6.13 (1.93)	2.65 (0.62)
	t-test	3.157**	1.654	5.055***	-0.536
부모 명시적 금융교육	전혀 배우지 않음	13.04 (3.77)	4.62 (1.96)	5.78 (2.13)	2.64 (0.78)
	거의 배우지 않음	13.38 (3.41)	4.85 (1.87)	5.91 (2.03)	2.63 (0.59)
	조금 배움	13.81 (3.16)	4.83 (1.80)	6.33 (1.81)	2.64 (0.58)
	매우 많이 배움	14.13 (3.39)	4.61 (1.92)	6.86 (1.78)	2.67 (0.70)
	GLM-test	4.664**	1.654	17.956***	0.283
학교 외 금융 교육	있음	13.08 (3.48)	4.05 (2.04)	6.40 (1.95)	2.62 (0.65)
	없음	13.87 (3.25)	4.92 (1.78)	6.30 (1.88)	2.65 (0.61)
	t-test	-3.605***	4.064***	0.831	-0.688
[중·고교 시기 저축 및 투자 경험]					
적금 또는 예금	있음	14.15 (3.08)	4.92 (1.73)	6.56 (1.83)	2.67 (0.61)
	없음	12.96 (3.55)	4.53 (2.03)	5.85 (1.92)	2.59 (0.64)
	t-test	7.057***	1.417	7.773***	0.774
주식	있음	14.41 (3.11)	4.88 (1.75)	6.87 (1.77)	2.66 (0.64)
	없음	13.49 (3.33)	4.75 (1.88)	6.11 (1.90)	2.63 (0.61)
	t-test	5.523***	1.417	7.791***	0.774
가상화폐	있음	13.75 (3.24)	4.57 (1.89)	6.60 (1.91)	2.58 (0.68)
	없음	13.74 (3.31)	4.81 (1.84)	6.28 (1.89)	2.65 (0.61)
	t-test	0.025	-1.837	2.312*	-2.391*
저작권	있음	12.75 (3.75)	3.69 (2.12)	6.55 (2.02)	2.51 (0.69)
	없음	13.81 (3.26)	4.86 (1.81)	6.30 (1.88)	2.65 (0.61)
	t-test	-2.921**	-5.689***	1.363	1.625
본인 명의 체크카드 사용 시작 시기	초등 저학년(초1~초2)	14.71 (3.01)	5.23 (1.43)	6.78 (2.08)	2.70 (0.58)
	중학교 1학년	13.86 (3.04)	4.85 (1.75)	6.42 (1.85)	2.59 (0.65)
	중학교 2학년	13.58 (3.07)	4.83 (1.86)	6.19 (1.66)	2.56 (0.60)
	중학교 3학년	13.63 (3.34)	4.64 (1.96)	6.39 (1.99)	2.60 (0.64)
	고등학교 1학년	13.92 (3.19)	4.91 (1.75)	6.37 (1.82)	2.64 (0.62)
	고등학교 2학년	13.71 (3.07)	4.81 (1.85)	6.23 (1.73)	2.67 (0.54)
	고등학교 3학년	13.18 (3.75)	4.36 (2.01)	6.08 (1.94)	2.73 (0.60)
	고등학교 졸업 후	13.57 (3.65)	4.66 (1.98)	6.22 (2.08)	2.69 (0.65)
	GLM-test	1.995	2.346*	1.444	1.625

구분		금융이해력	금융이해력 구성 3요소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전체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중·고교 시기 청소년전용 카드	사용함	13.66 (3.18)	4.69 (1.81)	6.39 (1.87)	2.59 (0.60)
	사용안함	13.81 (3.39)	4.86 (1.87)	6.27 (1.91)	2.68 (0.63)
	t-test	-0.947	-1.932	1.339	2.558*
중·고교 시기 금융정보탐색	활동함	14.58 (3.02)	4.95 (1.68)	6.93 (1.70)	2.69 (0.60)
	활동안함	13.20 (3.36)	4.67 (1.94)	5.92 (1.91)	2.61 (0.63)
	t-test	9.047***	3.264**	11.850***	2.558*
[중·고교 시기 부정 경험]					
온라인 도박 경험	있음	12.36 (3.19)	3.87 (1.99)	5.98 (1.94)	2.51 (0.65)
	없음	13.87 (3.28)	4.87 (1.81)	6.35 (1.89)	2.65 (0.62)
	t-test	-5.394***	-5.877***	-2.283*	-2.739**
휴대폰 결제강	있음	11.97 (3.24)	3.53 (1.97)	5.98 (1.95)	2.45 (0.61)
	없음	13.86 (3.27)	4.87 (1.81)	6.34 (1.89)	2.65 (0.62)
	t-test	-6.048***	-7.103***	-1.970*	-3.427***
폰테크	있음	13.60 (3.35)	4.53 (1.93)	6.49 (2.01)	2.58 (0.68)
	없음	13.76 (3.29)	4.81 (1.84)	6.30 (1.88)	2.65 (0.61)
	t-test	-0.599	-1.882	1.200	-1.140
소액대출	있음	12.20 (2.94)	3.63 (1.80)	6.22 (2.07)	2.34 (0.61)
	없음	13.79 (3.30)	4.82 (1.84)	6.32 (1.89)	2.65 (0.62)
	t-test	-3.335***	-4.439***	-0.349	-3.459***

* 주: 서울 외 대도시: 6개 광역시, 「지방자치법」 지정 특례시(5개) 및 대도시 특례 지역(14개)

***p<.001, **p<.01, *p<.05

④ 부모 관련 특성별 차이 검증

부모 특성과 관련해서는 <표 V-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를 제외하고 측정한 항목에서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부모와의 동거의 경우 비동거(13.82점)와 동거(13.81점) 간의 금융이해력 점수 차이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 검증이 유의한 것은 ‘해당 없음’으로 측정된 집단, 즉 부모가 생존하지 않은 이들을 ‘해당 없음’으로 포함하였는데, 이들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9.37점으로 현저히 낮아 집단 간 차이에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금융업 종사 부모의 유무에 따라서는 종사하는 부모가 없는 경우(13.89점)가 있는 경우(13.22점)에 비해 점수가 높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부모의 주식,

가상화폐 투자 여부에 따라서는 투자하는 경우(14.66점)가 그렇지 않은 경우(13.54점)에 비해 점수가 높다. 또한 부모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도 월 800만 원~1,000만 원 구간에 서 점수(14.24점)가 가장 높고, 구간 간의 금융이해력 점수 차이는 유의미하다. 부모 각각의 학력에 따라서도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대체로 높고, 그 차이도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다.

표 V-13. 부모 관련 특성별 금융이해력 차이 검증

(단위: 점)

구분		금융이해력	금융이해력 구성 3요소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전체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부모와 동거 여부	동거	13.81 (3.24)	4.82 (1.81)	6.34 (1.88)	2.65 (0.62)
	비동거	13.82 (3.30)	4.85 (1.86)	6.34 (1.91)	2.63 (0.60)
	해당 없음	9.37 (3.29)	2.11 (1.91)	4.68 (1.93)	2.58 (0.87)
	GLM-test	25.697***	30.804***	1.672	0.244
부모 경제활동	부모 모두 일함	13.81 (3.25)	4.80 (1.82)	6.37 (1.86)	2.63 (0.62)
	부만 일함	13.97 (3.16)	4.89 (1.78)	6.38 (1.85)	2.69 (0.60)
	모만 일함	13.69 (3.33)	4.92 (1.81)	6.18 (2.01)	2.59 (0.61)
	부모 모두 일안함	12.76 (3.77)	4.38 (2.10)	5.88 (2.19)	2.51 (0.71)
	GLM-test	2.434	1.587	1.672	2.427
전체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금융업 종사 부모 유무	있음	13.22 (3.33)	4.07 (1.94)	6.57 (1.86)	2.59 (0.65)
	없음	13.89 (3.22)	4.89 (1.78)	6.34 (1.87)	2.65 (0.61)
	t-test	-2.140*	-4.763***	23.157***	-1.059
부모 주식, 가상화폐 투자	투자 함	14.66 (2.87)	5.22 (1.54)	6.74 (1.76)	2.70 (0.61)
	투자 안함	13.54 (3.39)	4.76 (1.86)	6.13 (1.94)	2.64 (0.58)
	모름	13.02 (3.29)	4.35 (1.98)	6.10 (1.86)	2.57 (0.67)
	GLM-test	39.089***	3.065*	23.157***	5.679**
부모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하	13.21 (3.55)	4.64 (1.90)	5.98 (2.07)	2.59 (0.66)
	300~600만 원 미만	14.08 (3.12)	4.95 (1.75)	6.46 (1.80)	2.67 (0.58)
	600~800만 원 미만	13.61 (3.23)	4.70 (1.85)	6.23 (1.85)	2.68 (0.64)
	800~1,000만 원 미만	14.24 (3.10)	5.05 (1.72)	6.60 (1.89)	2.60 (0.61)
	1,000만 원 이상	13.89 (3.17)	4.70 (1.90)	6.59 (1.75)	2.59 (0.63)
	GLM-test	5.454***	3.065*	8.658***	3.469**

구분		금융이해력	금융이해력 구성 3요소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부모 최종 학력]					
부	중학교 졸업 이하	12.81 (3.42)	4.31 (1.87)	5.89 (1.97)	2.61 (0.72)
	고등학교 졸업	13.58 (3.24)	4.77 (1.79)	6.19 (1.91)	2.62 (0.63)
	대학 졸업	14.14 (3.15)	4.93 (1.79)	6.52 (1.78)	2.69 (0.60)
	대학원 졸업	14.18 (3.32)	5.00 (1.81)	6.60 (1.95)	2.58 (0.60)
	해당 없음 ^{주)}	12.04 (3.59)	4.18 (2.17)	5.42 (2.19)	2.44 (0.54)
	GLM-test	9.901***	9.217***	8.658***	3.469**
모	중학교 졸업 이하	11.77 (3.55)	3.86 (2.03)	5.36 (2.11)	2.55 (0.62)
	고등학교 졸업	13.64 (3.16)	4.76 (1.79)	6.24 (1.85)	2.63 (0.62)
	대학 졸업	14.22 (3.12)	5.00 (1.75)	6.55 (1.82)	2.67 (0.61)
	대학원 졸업	13.74 (3.71)	4.81 (2.02)	6.35 (2.06)	2.58 (0.61)
	해당 없음 ^{주)}	11.74 (3.94)	3.88 (2.18)	5.40 (2.19)	2.47 (0.55)
	GLM-test	14.298***	9.217***	9.831***	2.093

* 주: 부모 중 한 분이 안 계시는 경우 '해당 없음'에 응답, 부모 모두 안계신 경우 측정하지 않음(문항 skip)

***p<.001, **p<.01, *p<.05

2) 후기청소년 금융생활실태와 금융이해력 차이

(1) 금융사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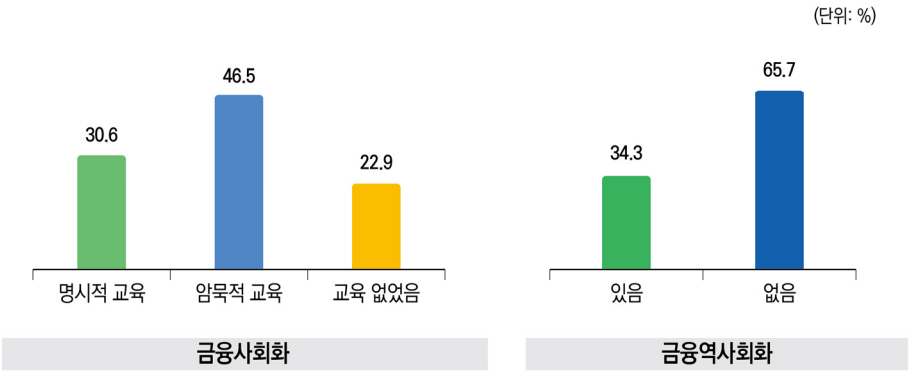
① 부모 금융사회화 및 역사회화

앞서 후기청소년 특성별 금융이해력 점수의 차이를 확인한 데 이어, 여기에서는 후기청소년의 금융생활 실태와 그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는가를 같은 방식의 검정 통계를 확인하였다.

먼저, 부모의 금융사회화를 세 가지 항목과 역사회화 2가지 항목으로 측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V-9]와 [그림 V-10]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부모의 금융사회화에 대해 '부모의 생활을 보며 암묵적으로 배웠다'로 응답한 비율(46.5%)이 가장 높고, '부모가 명시적으로 가르쳐 주었다'의 비율(30.6%), 그리고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배운적 없다'의 비율(22.9%)도 낮지 않은 수준을 보인다. 반대로 후기청소년이 부모에게 돈 관리나 금융정보 전달, 가입과 투자 방법을 알려주는 역사회화의 경험 비율(34.3%)도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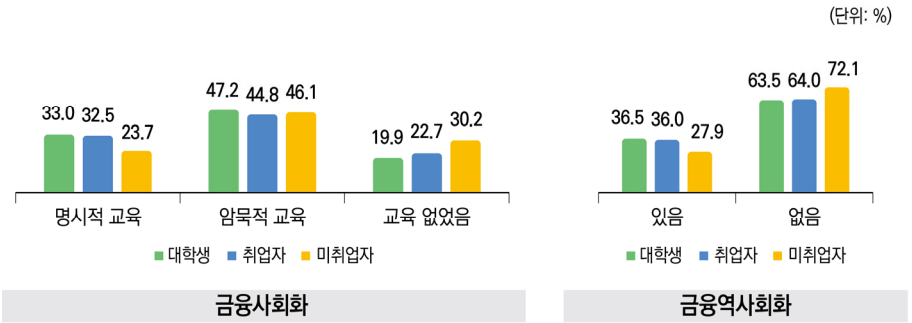
이를 세부 집단별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미취업자에서 부모의 명시적 교육 비율

(23.7%)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모의 금융교육이 없었다는 비율(30.2%)이 상대적으로 높고, 금융역사회화 비율(27.9%) 또한 상대적으로 낮다.



* 주: 1) 명시적 교육: 부모가 명시적으로 가르쳐줌. 암묵적 교육: 부모의 생활을 보며 암묵적으로 배움
2) 금융역사회화: 부모에게 금융정보, 가입 방법, 이용 및 투자 이용을 알려줌

그림 V-9. 부모 금융사회화 및 역사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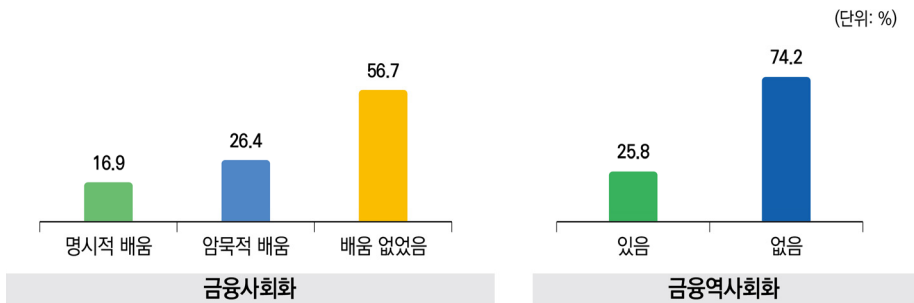


* 주: 1) 명시적 교육: 부모가 명시적으로 가르쳐줌. 암묵적 교육: 부모의 생활을 보며 암묵적으로 배움
2) 금융역사회화: 부모에게 금융정보, 가입 방법, 이용 및 투자 이용을 알려줌

그림 V-10. 세부집단별 부모 금융사회화 및 역사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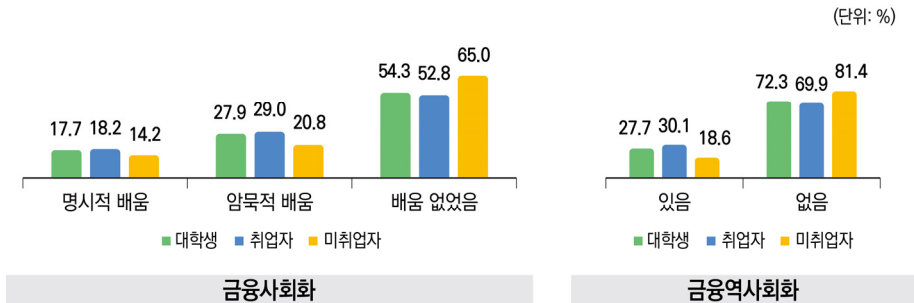
② 또래 금융사회화 및 역사회화

부모에 이어 또래의 금융사회화 및 역사회화를 살펴보면, [그림 V-11]과 [그림 V-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또래를 통한 금융사회화는 절반 이상이 ‘없었다’(56.7%)로 응답하였으나, ‘친구가 명시적으로 가르쳐 주었다’(16.9%) 또는 ‘친구의 생활을 보며 암묵적으로 배웠다’(26.4%)는 응답도 낮지 않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래 친구에게로의 금융역사회화는 74.2%가 경험이 없고, 25.8%만이 경험이 있다. 이를 세부 집단별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앞서 살펴본 부모의 금융사회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취업자 집단에서 또래의 금융사회화가 없다는 비율(65.0%)도 높고, 금융역사회화 경험 비율(18.6%)은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인다.



* 주: 1) 명시적 교육: 부모가 명시적으로 가르쳐줌. 암묵적 교육: 부모의 생활을 보며 암묵적으로 배움
2) 금융역사회화: 부모에게 금융정보, 가입 방법, 이용 및 투자 이용을 알려줌

그림 V-11. 또래 금융사회화 및 역사회화



* 주: 1) 명시적 교육: 부모가 명시적으로 가르쳐줌. 암묵적 교육: 부모의 생활을 보며 암묵적으로 배움
2) 금융역사회화: 부모에게 금융정보, 가입 방법, 이용 및 투자 이용을 알려줌

그림 V-12. 세부집단별 또래 금융사회화 및 역사회화

③ 금융사회화 및 역사회화 경험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차이

앞서 살펴본 부모와 또래의 금융사회화 및 역사회화 경험에 따른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표 V-14>와 같이 검증하였다.

차이 검증 결과, 부모의 금융사회화 및 금융역사회화에서는 전체 및 3개의 세부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또래의 경우, 금융역사회화는 전체와 세부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또래 금융사회화의 경우, 전체와 대학생 집단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표 V-14. 금융사회화 및 역사회화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단위: 점)

구분		전체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전체		13.74	13.90	13.96	13.23
부모	[사회화]				
	부모가 명시적으로 가르쳐 줌	14.09	14.11	14.49	13.67
	부모의 생활을 보며 암묵적으로 배움	14.07	14.19	14.04	13.80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배운 적 없음	12.61	12.86	13.03	12.02
	GLM-test	32.776***	13.845***	4.281*	13.097***
	[역사회화]				
	내가 부모에게 돈 관리, 금융 정보, 가입과 투자 방법 알려줌	14.59	14.61	14.59	14.56
	있음	13.30	13.49	13.61	12.72
	없음				
	t-test	8.314***	5.581***	2.544*	5.304***
또래	[사회화]				
	친구가 명시적으로 가르쳐 준 경험	14.28	14.56	14.13	13.58
	친구의 생활을 보며 암묵적으로 배움	13.61	13.58	13.65	13.65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배운 적 없음	13.64	13.85	14.07	13.02
	GLM-test	4.995**	5.393**	0.567	1.624
	[역사회화]				
	내가 친구에게 돈 관리, 금융 정보, 가입과 투자 방법 알려줌	14.80	14.87	14.59	14.78
	있음	13.37	13.53	13.69	12.88
	없음				
	t-test	8.656***	6.142***	2.244*	5.353***

***p<.001, **p<.01, *p<.05

구체적으로 부모의 금융사회화부터 살펴보면, 전체 수준에서 부모가 명시적으로 가르쳐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14.09점)가 암묵적(14.07점)으로 배웠거나 배운 적 없는 경우(12.61점)에 비해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다. 그러나 대학생과 미취업자 집단에서는 부모의 생활을 보며 암묵적으로 배운 경우의 점수(14.19점, 13.80점)가 명시적으로 배운 경우(14.11점, 13.67점)에 비해 높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다. 또한 부모에게 금융역사회화의 경험이 있는 경우(14.59점)가 없는 경우(13.30점)에 비해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고, 이러한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이다.

또래의 금융사회화의 경우, 전체와 대학생 집단에서 같은 경향성으로 나타나 친구가 명시적으로 가르쳐준 경험이 있는 경우(14.28점, 14.56점)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가장 높고, 친구의 생활을 보며 암묵적으로 배운 경우(13.61점, 13.58점)가 가장 낮다. 그러나 또래 역사사회화의 경우 세부 집단에 상관없이 모두 역사사회화 경험이 있는 경우의 점수가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2) 금융정체성 및 주관적 자기 신념

① 금융정체성 및 금융정체성 유형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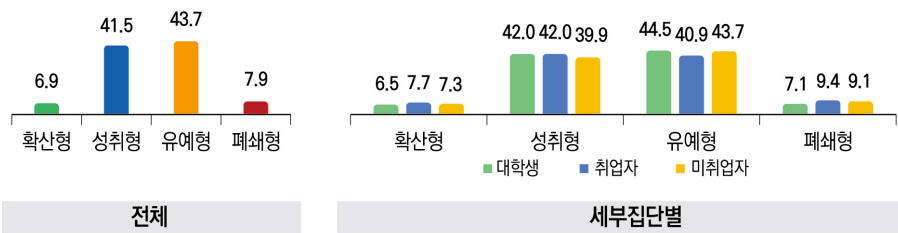
이러 금융사회화와 더불어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이 되는 금융정체성 유형을 살펴보면, 후기청소년 세대 내 큰 차이는 물론 금융교육의 시작점이 모두 같을 수 없음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돈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개인 재정문제에 큰 관심이 없다'로 표현되는 '확산형(Diffused)'은 전체의 6.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그다음으로 낮은 것은 '나에게 맞는 돈 관리 방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모님이라 생각하기에 부모님 의견을 전적으로 따라 결정하려고 한다'의 '폐쇄형(Foreclosed)'으로 전체의 7.9% 정도 된다. 이들 유형과 달리, '나는 재정 목표, 소비 습관 등에 대해 고민하고, 나에게 맞는 돈 관리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의 '성취형(Achieved)'은 41.5%이고, 가장 높은 비율(43.7%)을 보이는 것은 '아직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돈 관리 방식인지 잘 모르겠고, 어떤 방식이 나에게 맞을지 알아보면서 결정하려고 한다'의 '유예형(Moratorium)'이다.

이를 세부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19세~24세의 연령 범위가 좁은 후기청소년 세대 내에서도 대학 재학생과 졸업한 취업자 또는 미취업자 사이의 금융정체성은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돈에 그다지 관심 없는 '확산형'의 경우 대학생은 전체 평균(6.9%)보다 낮은

비율(6.5%)을 보이지만, 취업자(7.7%)나 미취업자(7.3%)는 평균보다 높다. 또한 부모님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른다는 ‘폐쇄형’의 경우도 대학생은 전체 평균(7.9%)보다 낮은 비율(7.1%)이나, 취업자(9.4%)나 미취업자(9.1%)는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아직 잘 모르니, 나에게 맞는 돈 관리 방법을 알아가고자 하는 ‘유예형’에서는 대학생(44.5%)이 전체 평균(43.7%)보다 높다. 한편, 나에게 맞는 돈 관리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성취형’의 경우, 미취업자의 비율(39.9%)만이 전체 평균(41.5%)보다 낮다.

(단위: %)



* 주: 확산형(Diffused): 돈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개인 재정문제에 큰 관심이 없음.
성취형(Achieved): 재정 목표, 소비 습관 등에 대해 고민하고, 나에게 맞는 돈 관리 방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음.
유예형(Moratorium): 어떤 것이 내게 가장 적합한 돈 관리 방식인지 모르겠고, 알아보면서 결정하려고 함.
폐쇄형(Foreclosed): 나에게 맞는 돈 관리 방식을 부모님이 가장 잘 알기에 부모님 의견을 전적으로 따라 결정려고 함.

그림 V-13. 금융정체성 유형

금융정체성 유형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는 어느 정도이며, 유형에 따른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정 통계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및 3개의 세부 집단 모두에서 금융정체성 유형에 따라 금융이해력 점수의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 것을 확인하였다.

먼저, 전체 집단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신에게 맞는 돈 관리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성취형’ 집단의 금융이해력 점수(14.58점)가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유예형’(13.80점)인데, 이들 유형의 점수는 전체 평균(13.74점)보다 높다. 그러나 부모의 결정을 전적으로 따르는 ‘폐쇄형’(11.47점)이나 돈 관리에 관심이 없는 ‘확산형’(10.92점)은 평균보다 낮고, 가장 낮은 집단은 ‘확산형’이다. 이러한 유형별 획득 점수의 경향은 대학생과 취업자 집단에서도 같게 경향을 보이지만, 미취업자 집단에서는 ‘확산형’(11.15점)보다 ‘폐쇄형’(10.66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5. 금융정체성 유형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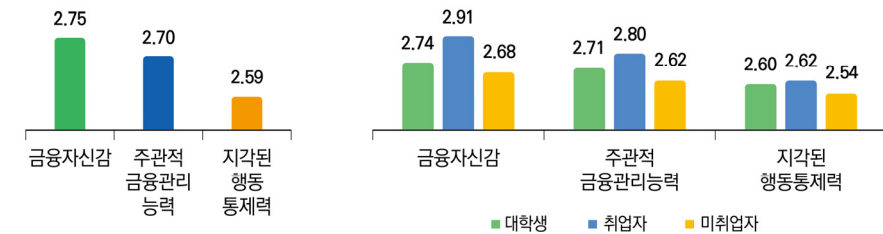
구분	전체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전체	13.74	13.90	13.96	13.23
확산형(Diffused)	10.92	10.76	11.09	11.15
성취형(Achieved)	14.58	14.61	14.82	14.36
유예형(Moratorium)	13.80	13.99	14.25	13.09
폐쇄형 (Foreclosed)	11.47	11.99	11.22	10.66
GLM-test	78.706***	41.619***	19.226***	21.076***

* 주: 확산형(Diffused): 돈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개인 재정문제에 큰 관심이 없음.
 성취형(Achieved): 재정 목표, 소비 습관 등에 대해 고민하고, 나에게 맞는 돈 관리 방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음.
 유예형(Moratorium): 어떤 것이 내게 가장 적합한 돈 관리 방식인지 모르겠고, 알아보면서 결정하려고 함.
 폐쇄형(Foreclosed): 나에게 맞는 돈 관리 방식을 부모님이 가장 잘 알기에 부모님 의견을 전적으로 따라 결정하려고 함.
 ***p<.001, **p<.01, *p<.05

② 주관적 자기 신념 및 3가지 측정 항목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이어 3가지 항목(금융자신감, 주관적 금융관리 능력, 지각된 행동 통제력)으로 구성된 주관적 자기 신념을 살펴보면, 후기청소년 세대가 갖는 주관적인 신념 중 ‘금융자신감’이나 ‘금융관리 능력’에 대한 주관적 인식보다 ‘행동 통제력’을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4점 척도로 측정한 이들 항목의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금융자신감(2.75점)-주관적 금융관리 능력(2.70점)-지각된 행동 통제력(2.59점) 순으로 나타난다.

(단위: 점)



전체	세부집단별
----	-------

* 주: 금융자신감: 스스로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4점 척도(1. 전혀 자신 없다-4. 매우 자신 있다)로 측정
 금융관리 능력: 스스로가 돈 관리를 잘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4점 척도(1. 전혀 못한다-4. 매우 잘한다)로 측정
 행동 통제력: 돈 관리할 때, 계획을 지키는 것이 쉽거나 어려운 정도, 4점 척도(1. 매우 어렵다-4. 매우 쉽다)로 측정

그림 V-14. 주관적 자기신념: 자신감, 관리능력, 행동 통제력

이들 항목을 세부 집단별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취업자가 대학생이나 미취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다. 가령 ‘금융자신감’의 경우, 취업자(2.91점)가 전체 평균(2.75점)보다 높고, 대학생(2.74점)과 미취업자(2.68점)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주관적 금융관리 능력’이나 ‘지각된 행동 통제력’의 경우도 같은 형태를 보인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미취업자 집단이 3가지 항목 모두에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미취업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의 경우, 주관적 자기 신념을 높이는 것을 일차적인 교육 목표로 설정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음에서는 이와 같은 경향성을 보이는 주관적 자기 신념 수준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와 그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측정한 4점 척도를 다시 2개 집단으로 나누어 금융이해력 점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3가지 항목의 금융이해력 점수의 차이가 전체와 세부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금융자신감이 있고, 주관적 금융관리 능력이 있으며,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있다’로 응답한 집단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없다’로 응답한 집단에 비해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 것이다.

표 V-16. 주관적 자기 신념 수준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단위: 점)

구분		전체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전체		13.74	13.90	13.96	13.23
금융자신감	없음	12.48	12.59	12.76	12.10
	있음	14.40	14.61	14.39	13.89
	t-test	-12.211***	-10.107***	-3.945***	-5.551***
주관적 금융관리 능력	없음	12.48	12.71	12.63	11.95
	있음	14.49	14.59	14.54	14.18
	t-test	-12.895***	-9.447***	-4.890***	-7.271***
지각된 행동 통제력	없음	12.80	13.02	13.17	12.10
	있음	14.53	14.61	14.58	14.28
	t-test	-11.462***	-8.163***	-3.862***	-7.147***

* 주: 4점 척도 중 ‘1. 전혀 자신 없다’와 ‘2. 자신 없는 편이다’는 ‘없음’으로, ‘3. 자신 있는 편이다’와 ‘4. 매우 자신 있다’는 ‘있음’으로 재범주화

***p<.001, **p<.01, *p<.05

(3) 소비지출 및 카드 사용

① 소비지출 수준

이어 여기에서는 소비지출 및 그와 연계되는 카드사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 후기청 소년의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은 70.12만 원이며, 월평균 50만 원 미만을 지출하는 비율(43.4%)이 가장 높다. 이를 세부 집단별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취업자의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이 96.33만 원으로 가장 많고, 취업자의 38.1%는 50만 원~100만 원의 소비지출을 하나, 2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비율(10.5%)이 낮지는 않다. 대학생은 월평균 66.96만 원을 지출하고, 전체 평균보다 높은 46.1%가 월평균 50만 원 미만을 지출한다. 월평균 61.06만 원을 지출하는 미취업자는 월평균 50만 원 미만을 지출하는 비율(53.4%)이 대학생에 비해 높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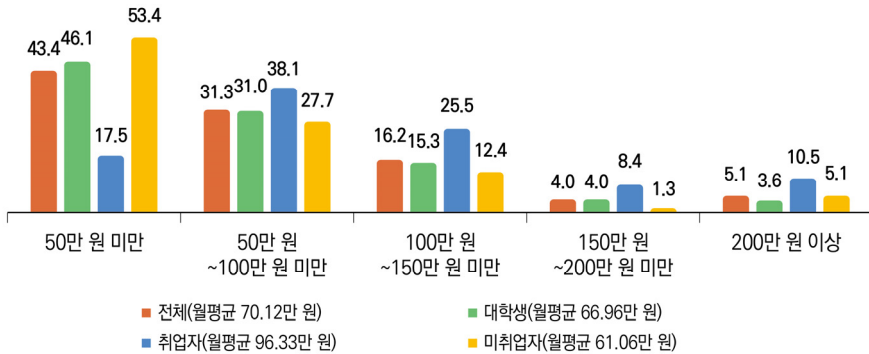


그림 V-15. 월평균 소비지출

이와 같은 월평균 소비지출 수준에 따라 금융이해력 점수가 차이를 보이는지,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인가를 검정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취업자 집단을 제외한 전체와 대학생, 취업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체 집단에서는 월평균 50만 원~100만 원의 지출하는 집단에서 금융이해력 점수(14.14점)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높은 집단이 50만 원 미만(13.80점)이다. 대학생도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취업자의 경우, 월평균 50만 원~100만 원 집단의 금융이해력 점수(14.66점)가 가장 높기는 하나, 두

번째로 높은 집단은 100만 원~150만 원(14.13점)이다.

한편, 이 분석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월평균 2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집단의 경우, 세부 집단에 상관없이 가장 낮은 금융이해력 점수(전체: 12.02점, 대학생: 11.72점, 취업자: 12.89점, 미취업자: 11.41점)를 보이고, 그 점수가 평균보다 크게 밀도는 점수라는 사실이다. 이는 월평균 200만 원 이상과 같은 후기청소년의 소비지출의 수준은 금융이해력 수준과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V-17. 월평균 소비지출 수준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단위: 점)

구분	전체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전체	13.74	13.90	13.96	13.23
50만 원 미만	13.80	14.04	13.27	13.41
50만 원~100만 원	14.14	14.28	14.66	13.31
100만 원~150만 원	13.47	13.31	14.13	13.09
150만 원~200만 원	13.32	13.57	13.01	12.78
200만 원 이상	12.02	11.72	12.89	11.41
GLM-test	9.364***	7.345***	3.541**	1.910

***p<.001, **p<.01, *p<.05

② 카드사용 및 휴대폰 소액결제

월평균 소비지출에 이어 카드 사용 및 휴대폰 소액결제를 살펴보면, 전체의 93.5%가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86.9%가 모바일 페이를 사용한다. 후기청소년이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연령대이다 보니, 신용카드 사용 비율(24.5%)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휴대폰 소액결제 비율(29.1%)보다도 낮다.

이를 세부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체크카드 사용률이 미취업자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95.6%)로 나타난다. 취업자의 경우 모바일페이 사용 비율(88.5%)과 신용카드 사용 비율(36.7%)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한편, 휴대폰 소액결제 비율은 미취업자(30.8%)와 대학생(29.3%)이 전체 평균(29.1%)보다 높고, 취업자(25.5%)는 전체 평균보다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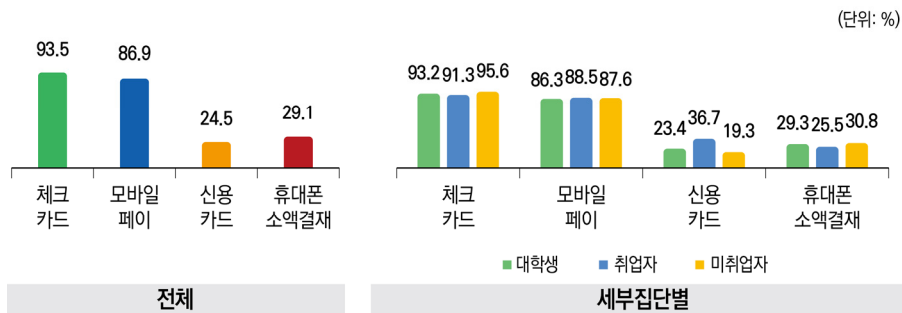


그림 V-16. 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경험

신용카드 사용자의 결제 연체나 할부거래의 경험률을 살펴보면, 연체 경험은 12.6%이고, 32.4%의 사용자가 할부거래 경험이 있다. 또한 휴대폰 소액결제의 연체 경험률은 18.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 할부거래와 상관없이 전체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한 ‘할부 잔액이 부채임을 안다/모른다’에 대해서는 68.2%가 알고 있는 반면, 31.8%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할부거래로 남은 잔액이 부채 인지의 여부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금융지식이 금융행위와 태도와 작용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이를 금융이해력 점수와 연계해서 살펴보면 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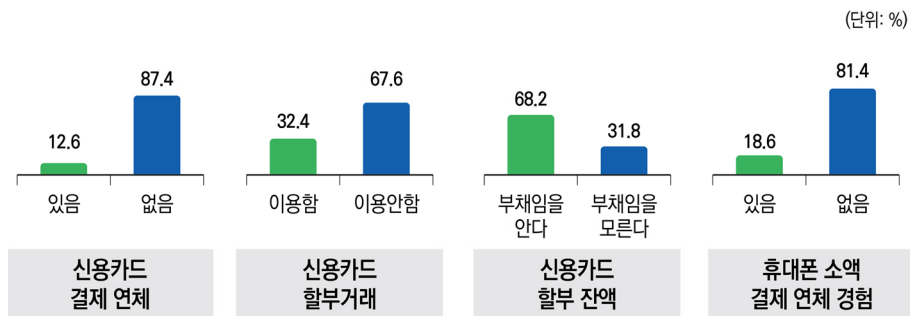


그림 V-17. 결제 연체 경험 및 할부 잔액 부채 인지

카드 사용 및 휴대폰 소액결제 경험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의 차이 검증 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대체로 사용률이 높은 체크카드와 모바일페이 사용자가 비사용자보다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다.

표 V-18. 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경험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단위: 점)

구분			전체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전체			13.74	13.90	13.96	13.23
체크 카드	사용안함		11.94	11.68	12.72	11.88
	사용함		13.87	14.06	14.08	13.30
	t-test		-5.114***	-4.909***	-1.709	-1.819
모바 일 페이	사용안함		12.47	12.37	13.05	12.38
	사용함		13.93	14.14	14.08	13.35
	t-test		-5.709***	-5.482***	-1.766	-1.772
신용 카드	사용안함		13.69	13.91	13.64	13.20
	사용함		13.91	13.85	14.51	13.36
	t-test		-1.232	0.271	-2.270*	-0.388
	결제 연체	있음	12.05	11.54	13.71	11.17
		없음	14.18	14.17	14.64	13.65
		t-test	-4.748***	-4.346***	-1.188	-2.248*
	할부 거래	이용함	13.64	13.45	14.25	12.76
		이용안함	14.04	14.00	14.78	13.56
		t-test	-1.214	-1.190	-0.964	-0.974
	할부 잔액	'부채' 임을 안다	14.45	14.60	14.40	14.15
		'부채' 임을 모른다	12.21	12.44	12.87	11.28
		t-test	13.114***	9.914***	3.446***	8.392***
휴대 폰 소액 결제	사용안함		13.85	13.94	14.13	13.45
	사용함		13.48	13.80	13.46	12.75
	t-test		2.196*	0.630	1.582	2.006*
	연체 경험	있음	12.04	12.32	12.83	11.07
		없음	13.80	14.07	13.69	13.22
		t-test	-5.029***	-3.608***	-1.073	-3.253**

***p<.001, **p<.01, *p<.05

다만, 통계적 유의성은 전체 집단과 대학생 집단에서만 나타났다.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신용카드 사용자(14.51점)가 비사용자(13.64점)보다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다. 신용카드 결제 연체에 따라서는 전체와 대학생, 미취업자 집단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연체 경험이 없는 집단(전체: 14.18점, 대학생: 14.17점, 미취업자: 13.65점)이 연체 경험이 있는 집단(전체: 12.05점, 대학생: 11.54점, 미취업자: 11.17점)에 비해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다. 할부거래 이용 여부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할부거래 잔액이 부채인지 아는 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예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와 세부 집단 모두에서 ‘안다’로 응답한 집단(전체: 14.45점, 대학생: 14.60점, 취업자: 14.40점, 미취업자: 14.15점)이 ‘모른다’로 응답한 집단(전체: 12.21점, 대학생: 12.44점, 취업자: 12.87점, 미취업자: 11.28점)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지식이 금융행위와 태도와 작용하고, 그 결과가 금융이해력 점수로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한편, 휴대폰 소액결제 사용 여부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의 차이는 전체와 미취업자 집단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는데, 휴대폰 소액결제를 사용하지 않는 집단(전체: 13.85점, 미취업자: 13.45점)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사용하는 집단(전체: 13.48점, 미취업자: 12.75점)에 비해 높다. 연체 경험의 경우, 취업자를 제외한 전체와 대학생, 미취업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 또한 예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연체 경험이 없는 집단(전체: 13.80점, 대학생: 14.07점, 미취업자: 13.22점)이 연체 경험이 있는 집단(전체: 12.04점, 대학생: 12.32점, 미취업자: 11.07점)에 비해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다.

(4) 저축 및 투자 여부와 보유 금액

① 저축 및 투자

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에 이어 여기에서는 저축 및 투자 여부와 보유 금액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저축은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으로 항목을 구성하였고, 투자는 주식 및 채권을 비롯하여 외화, 가상화폐, 저작권의 총 9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여 보유 여부와 금액을 측정하였다.

먼저, 9개 항목에 대한 저축 또는 투자율을 살펴보면, ‘보통예금’이 가장 높은 보유율(85.8%)을 보이고, ‘예금’(63.8%)과 ‘적금’(64.9%)은 60%대의 비율로 나타나고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적금의 비율이 다소 높아 두 번째이고, 예금이 세 번째 높은 보유율로 나타난다. 그다음으로는 주식이 38.1%의 보유율을 보이는데, 이는 후기청소년 10명 중 4명 정도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암호가상 화폐를 보유하는 비율은 12.9%인데, 저축성보험(17.3%)이나 외화(16.5%)에 비해 높지는 않지만, 보유율만을 본다면 채권(8.3%)보다 높다. 한편, 음원 투자와 같은 저작권 투자의 비율(4.0%)은 높지 않으나, 통계 수치로 잡힐 정도는 되는 수준이다.

이를 세부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보유율이 높은 ‘보통예금’에서 미취업자(87.1%)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취업자 집단에서는 ‘예금’(68.2%)과 ‘적금’(79.0%)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사회초년생들이 목돈마련의 수단으로 ‘적금’을 우선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축성 보험’도 취업자(25.9%)가 상대적으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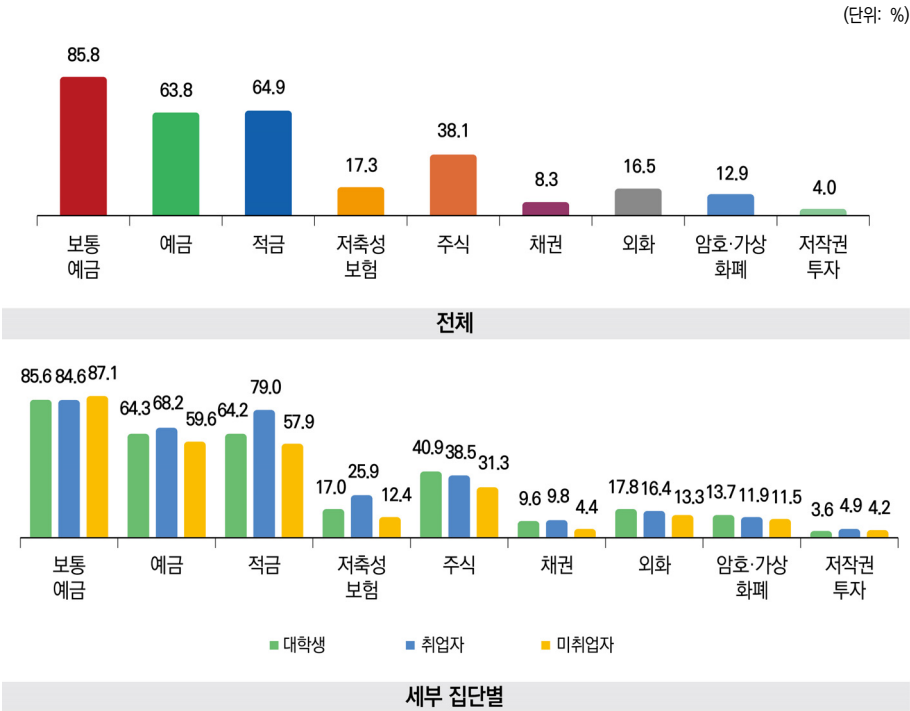


그림 V-18. 저축 및 투자 여부

취업자의 '채권'(9.8%)이나 '저작권'(4.9%) 보유율도 다소 높다. 그러나 주식과 외화, 암호·가상화폐의 경우, 취업자가 아닌 대학생(주식: 40.9%, 외화: 17.8%, 암호·가상화폐: 13.7%)이 가장 높은 보유율을 보인다. 이는 고정 수입이 있는 취업자들은 매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고, 고정 수입이 있더라도 금액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큰 대학생들은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세대가 주식이나 가상화폐, 그리고 외화 투자에 대한 이해가 높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9가지 저축 및 투자 여부에 따라 금융이해력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인가에 대한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저축성 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저축 및 투자 유형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즉, 저축 또는 투자하는 집단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통예금과 예·적금은 물론 주식에서는 전체와 세부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발견이 있었다. 채권은 미취업자 집단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있고, 외화는 취업자를 제외한 전체 및 대학생과 미취업자 집단에서, 암호·가상화폐 및 저작권은 미취업자를 제외한 전체 및 대학생과 취업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상대적으로 평균 점수를 크게 웃도는 금융이해력 점수를 보이는 집단이다. 다시 말해, 어떤 유형의 저축 또는 투자하는 세부 집단의 후기청소년이 높은 금융이해력을 갖는지 본 결과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으므로 평균 점수를 웃도는 금융이해력 점수를 갖는 집단이 어디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융이해력 총 배점 20점 중 15점 이상의 점수를 갖는 세부 집단이 모두 5곳(대학생 3곳, 취업자 2곳)에서 발견된다. 이중 획득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은 '주식 투자'하는 취업자 집단(15.13점)이다. 주식 투자하는 대학생(15.10점)도 높은 점수를 보인다. 또한 '암호·가상 화폐' 투자하는 대학생(15.11점)이 주식 투자하는 취업자 집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외화'에 투자하는 대학생(15.07점)도 '암호·가상 화폐' 투자하는 취업자(15.02점)도 점수가 높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전반적으로 19세~24세 후기청소년이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지만, 주식이나 외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대학생과 취업자들은 후기청소년 세대 내 금융이해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표 V-19. 저축 및 투자 여부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단위: 점)

구분			전체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전체			13.74	13.90	13.96	13.23
보통 예금	없음		11.22	11.29	11.67	10.67
	있음		14.16	14.34	14.37	13.61
	t-test		-12.313***	-9.885***	-4.664***	-6.423***
예 적금	예금	없음	12.88	13.14	12.95	12.29
		있음	14.23	14.32	14.43	13.87
		t-test	-8.307***	-5.618***	-3.542***	-4.825***
	적금	없음	12.62	12.84	12.17	12.30
		있음	14.35	14.49	14.43	13.91
		t-test	-10.568***	-7.768***	-5.154***	-5.017***
저축성 보험	예금	없음	13.73	13.93	13.91	13.19
		있음	13.81	13.76	14.11	13.56
		t-test	-0.402	0.637	-0.485	-0.934
주식 채권	주식	없음	12.97	13.07	13.23	12.61
		있음	15.00	15.10	15.13	14.61
		t-test	-14.037***	-10.840***	-5.413***	-6.643***
	채권	없음	13.71	13.86	14.02	13.16
		있음	14.14	14.22	13.43	14.77
		t-test	-1.415	-0.949	0.813	-2.070*
외화	없음		13.53	13.64	13.83	13.07
	있음		14.84	15.07	14.60	14.29
	t-test		-7.056***	-6.070***	-1.779	-2.613**
암호·가상화폐	없음		13.58	13.70	13.82	13.16
	있음		14.81	15.11	15.02	13.80
	t-test		-6.100***	-5.635***	-2.581*	-1.282
저작권투자	없음		13.82	13.97	14.14	13.27
	있음		11.77	11.97	10.38	12.39
	t-test		5.221***	3.781***	4.497***	1.109

***p<.001, **p<.01, *p<.05

② 미끼(bait) 계좌 개설 및 금융정보 습득 경로

앞선 제4장의 초점집단면접조사(FGI)에 참여한 후기청소년들이 보유하는 금융계좌 수가 적지 않다. 그러한 데에는 금융회사의 마케팅에 따른 미끼 상품을 받기 위해 계좌 개설을 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 바 있고, 설문조사에서 ‘마케팅 미끼에 의한 금융계좌를 개설한 경험 유무’를 측정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의 25.2%의 후기청소년들이 일명, 미끼계좌를 개설한 경험이 있고, 대학생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비율(26.6%)을 보인다.

한편, 금융 정보를 주로 어느 경로에서 습득하는가 또한 살펴보았다. 앞서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참여자들을 통해 ‘개인 유튜브로 시작하지만, 점차 경제 뉴스 등으로’ 금융 정보를 얻는 경로가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문조사의 문항으로 측정해 보았다. 복수 응답 문항으로 측정한 결과,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참여자들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전체의 57.6%가 유튜브 동영상에서 금융 정보를 얻으며, 이보다 다소 낮은 51.5%가 금융관련 앱을 사용하며, SNS 콘텐츠를 통해서(43.7%)도 금융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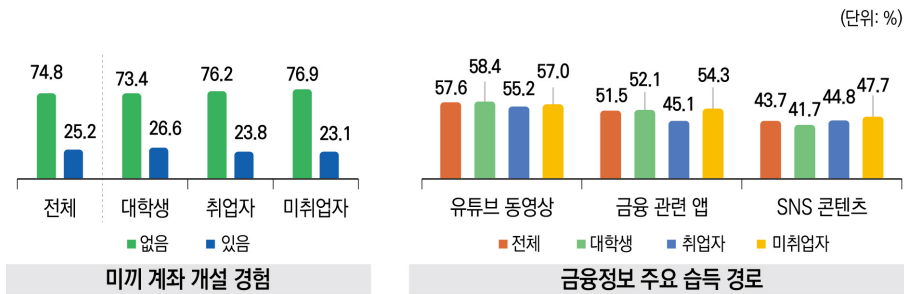


그림 V-19. 미끼 계좌 개설 경험 및 금융정보 주요 습득 경로

이어 다음에서는 마케팅 미끼 계좌의 가입 여부에 따라 금융이해력 점수가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였는데, 함께 살펴본 금융정보의 주요 습득 경로는 복수 응답으로 측정하였기에 차이 검증을 할 수 없어 금융이해력 평균 점수만 산출하였다.

미끼 계좌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차이의 검증 결과, 전체와 세부 집단 모두에서 마케팅 미끼 계좌를 개설한 경험이 있는 집단(전체: 14.86점, 대학생: 15.07점, 취업자: 14.75점, 미취업자: 14.32점)이 경험이 없는 집단(전체: 13.37점, 대학생: 13.47점, 취업자: 13.71점, 미취업자: 12.91점)보다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끼 상품에 대한 이해와 계좌 개설에 따른 혜택을 이해해야 계좌 가입도 가능하기에 상대적으로 금융이해력이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V-20. 미끼 계좌 개설 경험 및 금융정보 주요 습득 경로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단위: 명, %, 점)

구분		전체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전체		13.74	13.90	13.96	13.23
미끼 계좌 개설 경험	없음	13.37	13.47	13.71	12.91
	있음	14.86	15.07	14.75	14.32
	t-test	-9.769***	-8.449***	-2.679**	-4.230***
금융정보 주요 습득 경로	1순위_유튜브 동영상	13.85	13.95	14.36	13.29
	2순위_금융 관련 앱	14.37	14.60	14.39	13.83
	3순위_SNS 콘텐츠	13.50	13.57	14.01	13.05

* 주: 금융정보 습득 경로는 복수 응답으로 측정되어 차이 검증 할 수 없음.

***p<.001, **p<.01, *p<.05

(5) 대출 경험 및 부채

저축 및 투자에 이어 여기에서는 대출 경험 및 부채와 관련된 사항, 즉 부채 유무 및 주요 부채 사유, 그리고 대출 또는 빌려준 곳을 측정하였다.

먼저, 부채 보유율은 전체의 12.0%이고, 취업자(17.5%)가 가장 높고 미취업자(13.7%)도 전체 평균을 웃도는 수치로 나타났다. 복수 응답으로 측정한 부채 사유로 1순위는 ‘내 생활비 조달’이고, 전체의 57.6%가 이에 해당한다. 대학생(58.4%)의 경우가 전체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

함께 측정한 대출 또는 빌려준 곳은 복수 응답으로 측정하였는데, 전체의 48.4%가 ‘은행’이고, 47.5%는 학자금 대출을 운영하는 ‘장학재단’이다. 은행은 취업자(56.0%)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장학재단은 대학생(59.0%)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난다. 대출한 곳이 ‘저축은행’인 비율은 전체 12.9%이지만, 취업자의 경우 22.0%로 크게 웃도는 수치를 보인다. 또한 청년 대상의 정부 대출에서도 취업자의 비율은 전체 평균 10.1%보다 높은 14.0%를 보이고, 미취업자(8.1%)와 함께 ‘정책 서민금융’의 비율

(8.0%)이 전체 평균(6.9%)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난다. ‘정책 서민금융’은 앞선 제3장에서 검토한 바 있는 ‘햇살론 유스’와 같이 긴급자금을 대출했고, 이 비율이 미취업자와 취업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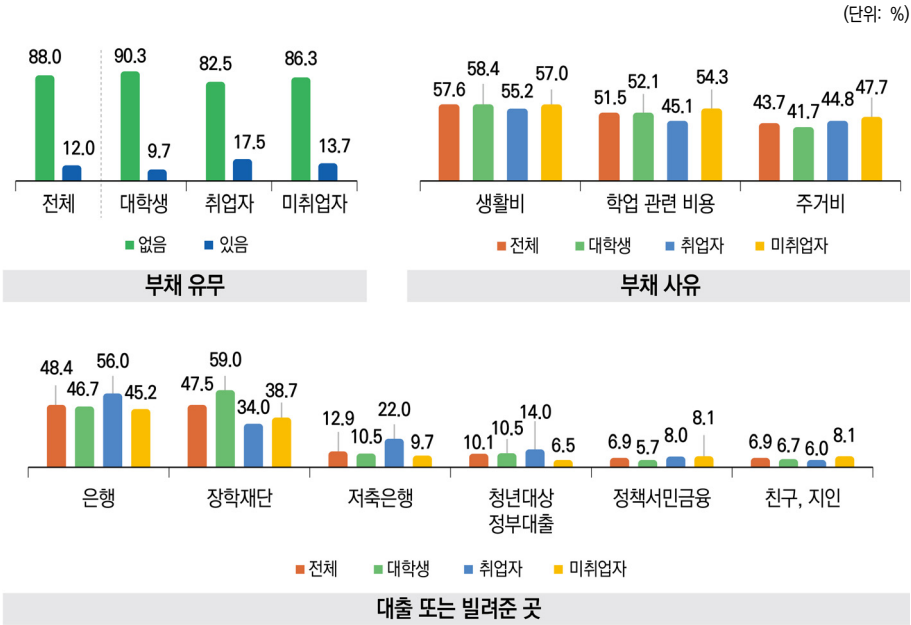


그림 V-20. 부채 유무 및 사유와 빌려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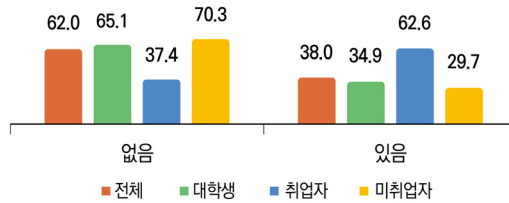
한편, [그림 V-20]에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전체 평균 총부채 금액은 1,092.6만 원이고, 대학생(760.29만 원)이나 미취업자(744.94만 원)보다 취업자의 총부채 금액(2,221.56만 원)이 상대적으로 많다. 또한 부채 유무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의 차이 또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부채 관련 정보를 주로 어떠한 경로에서 습득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또한 산출하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특이 사항이나 의미가 발견되지 않았고, 지면의 제한이 있어 이에 대한 결과 또한 제시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6) 정부 지원 금융상품 또는 제도의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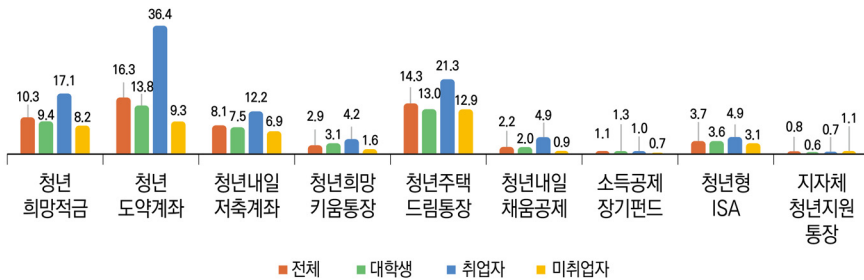
① 자산 형성지원 금융상품 또는 제도의 가입

대출 경험 및 부채에 이어 여기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 또는 제도의 가입을 살펴보았다. 먼저, 지원 상품 또는 제도의 가입률을 살펴보면, 전체의 38.0%가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 또는 제도에 가입하였고, 취업자 집단의 가입률(62.6%)이 전체 평균의 1.6배에 달한다. 이는 앞선 제3장의 금융지원 정책 동향 및 주요 지원 사항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정부 지원이 주로 일하는 청년 또는 일정 수준의 개인소득을 가입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위: %)



지원 금융상품 또는 제도 가입 여부



지원 상품 또는 제도별 가입률

그림 V-21. 지원 상품의 가입 여부 및 상품별 가입률

지원 금융상품 및 제도별 가입률을 살펴보면, 취업자를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시기에 도입된 ‘청년희망적금’과 이름을 변경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률(청년희망적금: 17.1%, 청년도약계좌: 36.4%)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저소득 근로 청년

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취업자 가입률(12.2%)도 낮지 않고, 주택 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통장’의 가입률(21.3%)도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 또는 제도 가입에 따라 금융이해력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정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측정된 9개 상품 또는 제도 중 5개(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주택드림통장, 청년형 ISA)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결과를 요약하면, 지원 상품 또는 제도에 가입한 집단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비가입 집단에 비해 높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수치는 <표 V-2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V-21. 정부 지원 금융상품 또는 제도 가입 여부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단위: 점)

구분			전체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전체			13.74	13.90	13.96	13.23
가입유무	없음		13.67	13.93	13.76	13.08
	있음		13.86	13.85	14.08	13.59
	t-test		-1.171	0.368	-0.838	-1.470
지원 상품별 가입여부	청년도약계좌	가입	14.48	14.58	14.76	13.42
		비가입	13.60	13.79	13.50	13.21
		t-test	4.567***	2.747**	0.375	0.375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	12.83	12.18	13.83	13.42
		비가입	13.82	14.04	13.98	13.22
		t-test	-3.924***	-4.967***	-0.261	0.316
	청년희망 키움통장	가입	11.98	12.07	11.67	12.10
		비가입	13.79	13.96	14.06	13.25
		t-test	-3.924***	-3.275**	-2.598**	-0.891
	청년주택 드림통장	가입	14.15	14.05	14.39	14.17
		비가입	13.67	13.88	13.84	13.09
		t-test	2.174*	0.579	1.198	2.249*
	청년형 ISA	가입	15.20	15.15	15.55	15.00
		비가입	13.69	13.85	13.88	13.18
		t-test	3.697***	2.431*	1.942	1.981*

* 주: 측정한 9개 상품 또는 제도 중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된 5개 상품만 제시함.

***p<.001, **p<.01, *p<.05

② 군복무 기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앞서 살펴본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 또는 제도 이외, 앞선 제3장에서 검토된 군복무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있다. 이에 대해서도 설문조사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남성 후기청소년 중 군복무를 완료한 비율은 40.0%이다. 이들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비율은 전체의 89.4%로, 군복무 완료한 10명 중 9명가량이 이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세부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학생의 가입률(93.1%)이 취업자(82.9%)나 미취업자(75.7%)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월납입금의 상한이 점차 높아졌기에 대학생의 월납입 평균 금액(37.39만 원)과 만기금액(1,149,52만 원)이 상대적으로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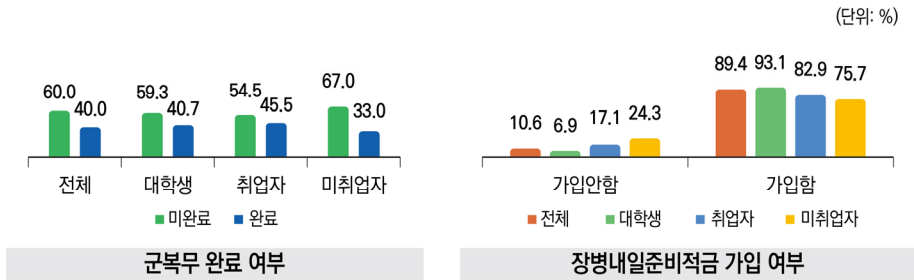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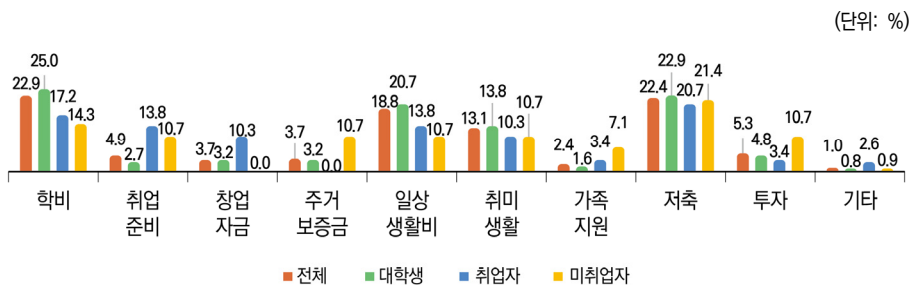
그림 V-22. 군복무 완료 여부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여부

표 V-22.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경험

(단위: 명, %, 개월, 만 원)

구분			전체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전체			685	(100.0)	496	(100.0)	77	(100.0)	112	(100.0)
장병 내일 준비 적금	가입안함		29	(10.6)	14	(6.9)	6	(17.1)	9	(24.3)
	가입함		245	(89.4)	188	(93.1)	29	(82.9)	28	(75.7)
	납입	월납입 평균(편차)	36.28	(11.35)	37.39	(10.01)	29.79	(15.79)	35.54	(12.57)
		납입 기간(편차)	17.15	(3.51)	17.40	(2.93)	15.24	(5.83)	17.39	(3.47)
	중도 해지	해지함	9	(3.7)	5	(2.7)	2	(6.9)	2	(7.1)
		해지안함	236	(96.3)	183	(97.3)	27	(93.1)	26	(92.9)
	만기금액(편차)		1,124.94	(432.13)	1,149.52	(406.15)	989.67	(572.03)	1,092.42	(434.55)

전체 평균(1,124.94만 원)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목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복수 응답으로 측정한 결과, 전체 집단에서는 ‘학비’(22.9%)와 ‘저축’(22.4%), 그리고 ‘일상 생활비’(18.8%) 순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 집단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취업자의 경우, ‘저축’(20.7%)–‘학비’(17.2%)–‘취업 준비’, ‘일상 생활비’(13.8%)의 순이고, 미취업자의 경우, ‘저축’(21.4%)–‘학비’(14.3%)–‘취업 준비’, ‘주거보증금’, ‘일상 생활비’, ‘투자’(10.7%)의 다양한 항목으로 나타난다. 또한 미취업자의 경우 ‘가족 지원’(7.1%)에 사용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만기금 사용

그림 V-23.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금액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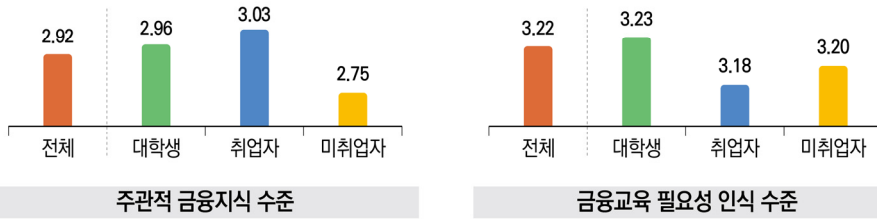
(7) 주관적 금융지식 수준 및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

앞서 정부 지원 금융상품 및 제도의 가입까지의 경험에 이어 여기에서는 후기청소년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자신의 금융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금융교육 필요성은 어느 정도로 인식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주관적 금융지식 수준은 5점 척도(1. 매우 낮음~5. 매우 높음)로 측정하였는데, 전체 평균 2.92점으로 ‘3.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집단별로 살펴보면, 취업자(3.03점)가 상대적으로 높고, 미취업자(2.75점)가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4점 척도(1. 전혀 필요하지 않음~4. 매우 필요)로 측정한 금융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체 평균 3.22점으로 후기청소년들이 대체로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세부 집단별로 살펴보면, 대학생(3.23점)이 취업자(3.18점)나 미취업자(3.20점)보다 상대적으로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 수준이 높다.

(단위: 점)



* 주: 주관적 금융지식 수준: 5점 척도(1. 매우 낮음, 2. 낮은 편, 3. 평균 수준, 4. 높은 편, 5. 매우 높음)로 측정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 4점 척도(1. 전혀 필요하지 않음~4. 매우 필요)로 측정

그림 V-24. 주관적 금융지식 수준 및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 수준

이와 같은 주관적 금융지식 수준 및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 수준별 금융이해력 점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두 가지 사항 모두 전체와 세부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스스로 평가하는 주관적 금융지식의 수준과 산출된 금융이해력 점수의 관계인데, 주관적 금융지식 수준에 대해 '매우 높음'으로 응답한 집단보다 '높은 편'으로 응답한 집단이 더 높은 금융이해력 점수를 갖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세부 집단 모두에서 동일하다. 획득한 점수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금융이해력 점수를 보이는 집단은 주관적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편'으로 응답한 대학생 집단이다.

표 V-23. 주관적 금융지식 수준별 금융이해력 점수

(단위: 점)

구분		전체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전체		13.74	13.90	13.96	13.23
주관적 금융지식 수준	1. 매우 낮음	10.40	10.83	8.93	10.12
	2. 낮은 편	13.06	13.14	13.34	12.79
	3. 평균 수준	14.06	14.14	14.36	13.65
	4. 높은 편	14.88	15.09	14.36	14.63
	5. 매우 높음	13.75	13.82	14.02	13.08
GLM-test		45.798***	24.812***	8.519***	12.186***

***p<.001, **p<.01, *p<.05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 수준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차이 분석의 결과에서는 전체와 세부 집단 공통으로 ‘매우 필요’로 응답한 집단이 가장 높은 금융이해력 점수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금융정체성’과 마찬가지로 후기청소년의 금융교육은 바로 필요성 인식에서 출발해야 함을 시사한다.

표 V-24.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 수준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단위: 점)

구분		전체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전체		13.74	13.90	13.96	13.23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	1. 전혀 필요하지 않음	10.42	11.97	9.00	8.81
	2. 필요하지 않은 편	11.32	10.96	11.89	11.46
	3. 필요한 편	13.86	13.97	14.33	13.33
	4. 매우 필요	14.27	14.44	14.36	13.78
GLM-test		42.663***	26.052***	9.948***	10.201***

***p<.001, **p<.01, *p<.05

3. 소결: 기초분석 결과의 종합과 실증모델 분석의 방향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본 장에서는 앞선 제2장~제4장의 단계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여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조사 도구를 마련하고, 온라인 실태조사를 통해 총 1,814명의 설문조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기초통계 및 응답자 특성과 금융생활 특성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의 차이를 검증함.
- 산출한 19세~24세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점수는 100점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68.71점이고, 세부 집단별로 나누어 보면, 대학생(69.49점)과 취업자(69.80점) 집단은 전체 평균 이상이지만, 미취업자(66.16점)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임.
- 응답자 특성에 따라 금융이해력 점수 및 구성 3요소(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의 각 점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된 특성은 다음과 같음.
 - ① 사회인구학적 특성: 학력과 거주지역, (대학생) 학제, 금융 관련 과목의 수강 경험, (미취업자) 주된 활동
 - ② 초·중고 10대 시기 특성: 졸업한 고교 유형, 금융정보 탐색 활동 여부, 온라인도박 경험, 휴대폰 결제강 경험
 - ③ 부모 특성: 부모 주식, 가상화폐 투자 여부, 월평균 소득, 부모 학력 수준
- 금융생활 특성에 따라 금융이해력 점수의 차이 검증에 나타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부모 및 또래 금융사회화 뿐만 아니라 금융역사회화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 발견
 - ② 금융정체성 유형과 주관적 자기 신념 수준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차이 뚜렷하게 확인됨.
 - ③ 소비자대출 금액, 카드 사용 및 할부거래에 대한 부채 인지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유의성 발견
 - ④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확인함.
 - ⑤ 대출 등 부채 경험에 따라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음.
 - ⑥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정부지원 금융상품 또는 제도 가입 여부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차이 확인함.
 - ⑦ 주관적 금융수준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차이와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 수준에 따른 점수 차이 있음.
- 이상과 같은 특성은 다음 제6장의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실증모델의 설명 변수를 구성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본 장에서는 앞서 제2장의 선행 연구 고찰의 결과와 제3장의 금융지원 정책의 동향과 주요 사항의 검토 결과, 그리고 제4장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2차 자료에 나타난 후기청소년의 금융생활에 더하여 초점집단면접조사를 통해 파악된 현실 금융생활의 생생한 경험 등을 토대로 설문조사의 도구를 개발·작성하였다. 또한 할당표집과 온라인 조사 방식을 통해 1,814명의 응답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어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응답자의 특성과 금융생활 특성을 파악하고, 금융이해력 점수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19세~24세 1,814명의 금융이해력 평균 점수는 100점 환산 기준으로 68.71점이다. 이를 세부 집단별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취업자가 68.80점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대학생 69.49점, 그리고 미취업자가 66.16점으로 가장 낮다.

이와 같이 산출된 금융이해력의 명목 점수의 수치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금융이해력 점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측정된 특성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를 산출하고, 점수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두 가지 방법의 검정 통계(t-test, GLM-test)로 확인하였다.

응답자 특성 및 금융생활 특성으로 포함되어 측정된 대부분의 항목에서 금융이해력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중에서도 금융이해력 점수와 금융이해력을 구성하는 3요소(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각각의 점수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특성은 몇 가지로 추려진다.

우선,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학력 수준과 거주지역을 우선 들 수 있다. 즉,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금융이해력과 구성의 3요소 점수가 높고, ‘서울 지역-서울 외 대도시-그 외 지역’ 거주자 순으로 점수가 높다. 세부 집단별로 추가된 특성 중에는 대학생의 경우, 학제(2·3년제 vs 4년제)와 금융 관련 과목의 수강 경험, 미취업자의 주된 활동이 금융이해력과 구성 3요소의 모든 점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된다. 즉, 학제는 4년제 재학생이 2·3년제 재학생보다 점수가 높고, 금융 관련 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비수강자 보다 점수가 높다. 또한 미취업자는 진로 준비나 취업 준비를 하는 후기청소년이 다른 활동을 하는 이들에 비해 점수가 높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이다.

초·중고 10대 시기 특성 중에는 졸업한 고등학교의 유형, 중·고등학교 시기에 금융 정보의 탐색 활동의 여부, 그리고 부정 경험으로서 온라인도박이나 휴대폰 결제깡을 했던 경험이 금융이해력 점수와 구성의 3요소 점수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갖는 특성이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점수 차이가 있는데, 자율고 졸업자의 점수가 가장 높다. 또한 중·고교 시기에 금융 정보 탐색을 했던 이들의 점수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높다. 그러나 같은 시기 온라인도박이나 휴대폰 결제깡과 같은 부정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그러한 부정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금융이해력 점수는 물론 구성의 3요소 점수가 모두 낮다.

한편, 부모 관련 특성 중에는 부모의 금융자산 투자 여부, 월평균 소득 수준, 부의 학력 수준이 금융이해력과 구성 3요소 점수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다. 즉, 부모가 주식이나 가상화폐와 같은 금융투자를 하는 후기청소년 집단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다. 또한 월평균 소득이 800만 원~1,000만 원 구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부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점수 또한 높다.

이와 같은 응답자 특성에 더하여 후기청소년의 금융생활 특성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의 차이를 검정 통계를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그 차이 검증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몇 가지 주요한 사항이 발견된다.

가령 제2장에서 고찰되었던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 ‘금융사회화’와 ‘금융정체성’ 이론을 반영하여 부모 및 또래의 금융사회화 및 돈 관리에 대한 관심과 자기 확신 정도에 따라 4가지(확산형, 성취형, 유예형, 폐쇄형) 유형으로 구분한 금융정체성은 이론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같이 뚜렷한 점수 차이가 확인되었다. 물론 차이 검증만으로 이론에 대한 실증적 증명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하기에 다음 단계에서 실증모델 분석이 필요하며, 다음 제6장에서 본 장에서 확인된 특성별 금융이해력 점수의 차이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때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할부거래 잔액이 부채’라는 사실을 인지하는지, 그 여부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의 차이가 상당하는 결과는 금융이해력의 개념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측정과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금융이해력을 구성하는 3개의 요소 각각이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닌, 금융지식-금융행위-금융태도의 상호작용과 그 “조합”에 방점이 있다는 것은 제2장에서 설명한 금융이해력 개념의 핵심 사항이고, 그에 해당하는 “조합” 관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실증 근거이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할부거래를 하고 잔액에 대한 결제를 계속해 나가는 것은 금융행위다. 그러나 그것이 부채인지를 아는 것은 금융지식이며, 부채임을 알고도 계속 할부거래를 하는 태도 또는 하지 않는 태도가 결합된 결과가 금융이해력 점수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할부거래라는 것과 부채 개념을 각각 알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실생활의 의사결정에 인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측정된 금융이해력 점수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 20대 초반 연령대 후기청소년이자 청년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의 투자를 잘 모르고 텀버드는 일명 ‘묻지마 투자자’ 또는 주식 열풍에 휩쓸리는 이들로만 이해하는 시각이 있지만, 본 장의 차이 검증의 결과를 보면 우선 “그렇지 않다”로 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축 및 투자 상품 유형별 보유 여부에 따라 금융이해력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취업자 집단과 주식, 가상화폐, 외화에 투자하는 대학생 집단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전 연령대는 물론 청년층 연령대 내에서도 낮은 것은 사실이나, 후기청소년 세대에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금융이해력을 갖추고 주식, 가상화폐, 외화에 투자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설명

이 가능한 실증 근거이다.

이와 더불어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정부 지원 청년 목돈마련이나 자산 형성지원 상품들이 있기에 이 또한 조사 문항으로 작성하여 9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측정 및 차이 검증 결과, 5가지 금융상품 또는 제도(①청년도약계좌, ②청년내일저축계좌, ③청년희망키움통장, ④청년주택드림통장, ⑤청년형ISA)의 가입자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비가입자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이해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들이 정부 지원 금융상품 또는 제도에 가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입하는 과정이나 가입 후 금융이해력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의 측면이 향상되는 것인지 그 인과의 방향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부 지원의 금융상품이나 제도가 비단, 매칭 지원금이나 이자에 대한 면세 혜택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돈’으로 제공되는 가시적 혜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애 금융웰빙의 삶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금융이해력과 그에 기초한 금융역량이 함께 길러지는 비가시적 지원 혜택과 그 기회가 동시에 주어진다는 사실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가 조금 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정교하고 명확한 근거로서 설명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인 실증모델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제6장에서는 본 장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특성을 반영하여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요인의 영향력을 실증모델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6장 후기청소년 금융 이해력 수준의 영향요인

- 1. 분석 모델의 선정 및 변수 구성
- 2.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 분석: Robust OLS 모델
- 3. 소결: 주요 결과 및 시사점

1. 분석 모델의 선정 및 변수 구성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본 장에서는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가장 적절한 실증분석 모델을 Robust OLS 모델로 선정하고, 실증분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모델1 set: 금융이해력과 구성 3요소의 영향 요인, 모델2 set: 성별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 모델3 set: 세부 집단별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음.
- 실증분석 모델의 공통된 종속변수는 금융이해력 점수이고, 설명변수는 앞서 제5장에서 설명한 측정 도구의 구성에 따라 크게 네 가지(①사회인구학적 특성, ②초중고 10대 시기 특성, ③부모 관련 특성, ④금융생활 특성)로 반영되었으며, 변수의 구체적인 형태는 제5장에서 분석한 기초통계 및 차이 검증의 결과를 참조하여 연속변수 또는 가변수로 투입되고, 단계적 변수 선택(stepwise) 방법으로 최종 투입 변수가 선정됨.

1) 실증분석 모델의 구성 및 선정

(1) 3가지 실증분석 모델의 구성

본 장에서는 앞선 제5장의 기초통계 및 차이 검증의 결과에 이어,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분석된 영향 요인의 영향력 방향과 크기를 살펴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증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 및 영향력 분석을 위한 실증분석 모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먼저, 첫 번째는 전체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과 영향력을 분석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앞서 제5장에서 측정된 금융이해력 점수와 금융이해력을 구성하는 세 가지 구성 요소(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의 점수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고, 이를 본 실증분석의 ‘모델1 set’로 정하였다.

6) 이 장의 1.은 김지경 선임연구위원과 송현주 박사가 함께 작성하였고, 2. 와 3. 은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두 번째는 후기청소년 전체 집단을 성별로 나누어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과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주요 영향 요인 및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는 ‘모델2 set’이다. 앞선 제5장에서 성별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의 차이 검증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로 구분한 각 집단 내에서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금융이해력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다면,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는 데 있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접근 방식이 요구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성별 각 집단의 분석을 ‘모델2 set’로 구성하였다.

세 번째는 앞선 제4장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의 참여 그룹 구성 및 제5장 설문조사에서의 할당 표집의 기준이 되었던 세 가지 세부 집단(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의 집단별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 및 영향력을 분석하는 ‘모델3 set’이다. 제5장의 특성별 차이 검증의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기청소년의 주요 상태로 구분한 세 가지 세부 집단 간 금융이해력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각 집단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각기 다른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확인하는 것은 앞서 성별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추진의 방향과 전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2) 실증분석 모델의 선정

① 종속변수의 점수 산정

실증모델 분석을 위한 첫 단계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절한 분석 모델을 찾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분석 모델은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의 형태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 다르므로, 종속변수의 산출과 성격을 살피는 것이 우선이다. 본 장의 실증분석 모델에서 공통으로 분석되는 종속변수는 금융이해력이다. 여기에 모델1 set의 경우 금융이해력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의 점수가 추가로 분석된다.

앞서 제5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융이해력 점수는 3개 구성요소의 점수 합으로 산정된다. 가령 금융지식은 총 7개 항목으로 측정되었고, 각 항목에 대한 정답에 1점을 부여하였고, 응답자가 획득한 금융지식의 점수는 총 0점~7점이다. 금융행위는 총 8개 항목으로 측정되었으나, 2점의 배점 항목이 하나 있어 획득 점수는 0점~9점이 된다. 금융

태도는 총 3개 항목이고 한 항목당 배점이 1.333점으로 나누어져 측정되었고, 총 0점~4점이 부여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의 총합인 금융이해력 점수는 0점~20점까지의 범위에서 합산하여 산출된다.

표 VI-1. 종속변수 점수 산정 기준

영역	문항	측정내용	배점	정답	정답률 ¹⁾	점수 산정 ²⁾
금융지식	1번	인플레이션과 구매력	1	3	75.5	정답=1점, 그 외=0점
	2번	이자개념의 이해	1	1	78.1	
	3번	단리 계산	1	2	76.4	
	4번	복리개념	1	2	33.2	
	5번	위험과 수익 간 관계	1	1	88.1	
	6번	인플레이션 의미	1	1	67.3	
	7번	분산투자 개념	1	1	59.2	
	계	금융지식 총 점수	7점			정답 수 총합
금융행위	8번	예산(용돈)관리	1			'1예' 응답=1점, 그 외 =0점
	9번	적극적인 저축활동	1			'1예' 응답=1점, 그 외 =0점
	10번	신중한 구매	1			①~② 응답= 0점, ③~④ 응답=1점
	11번	청구대금 적기 지급	1			①~② 응답= 0점, ③~④ 응답=1점
	12번	평소 재무상황 점검	1			①~② 응답= 0점, ③~④ 응답=1점
	13번	장기 재무목표 설정	1			①~② 응답= 0점, ③~④ 응답=1점
	14번	정보에 입각한 금융 상품 선택	2			•1) 또는 2)에 '①이용함' 응답이 있으면=2점, •2점 받지 않은 응답자 중 3) 또는 4)에 '①이용함' 응답이 있으면=1점, • 그 외= 0점
	15번	적자 해소	1			•15번-1의 ①~④에 응답이 있으면=1점 •1점 받지 않은 응답자 중 15번-1의 ⑤~⑧에 응답이 있으면=0점 •15번의 '②없다' 응답=0점
	계	금융행위 총 점수	9점			점수 총합
금융태도	16번	저축보다 소비 선호	1.33 333			•응답은 아래와 같이 측정함. ①전혀 동의안함=4점, ②별로 동의안함=3점, ③대체로 동의=2점, ④매우 동의=1점이며, •총 점수 산정 시에는 아래의 점수로 합산함.
	17번	미래보다 현재 선호	1.33 333			①전혀 동의안함=1.33333점, ②별로 동의안함=1.0점, ③대체로 동의=0.33333점, ④매우 동의=0점으로
	18번	돈은 쓰기 위해 존재	1.33 333			
	계	금융태도 총 점수	4점			점수 총합

* 주: 1) 정답률은 '모름/무응답' 까지 포함한 정답자/전체응답자의 비율
 2) 「전 국민 금융이해력조사」, 「2023년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실태조사」 점수 산정 방식 준용

본 연구의 기본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Y_i = \beta_0 + \beta_1 X_{1i} + \beta_2 X_{2i} + \dots + \beta_k X_{ki} + \varepsilon_i$$

여기서 Y_i 는 종속변수, $X_{1i} \sim X_{ki}$ 는 설명변수, ε_i 는 오차항이다. 이 식을 토대로 구체적인 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모델1(전체 집단 분석)

$$Y_i \in \{\text{금융이해력}, \text{금융지식}, \text{금융행위}, \text{금융태도}\}$$

모델2(성별 집단 분석)

$$Y_i = \text{금융이해력}, \quad \text{표본 : 남성/여성 각각 추정}$$

모델3(세부 집단 분석)

$$Y_i = \text{금융이해력}, \quad \text{표본 : 대학생/취업자/미취업자 각각 추정}$$

② 적정 모델의 선정

종속변수 산정 이후 본 연구에서는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 및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가장 적절한 회귀모형을 검토하였다. 우선, 최소제곱법(OLS: Ordinary Least Square)의 추정 방식에 기반한 회귀모형을 고려하였다. 일반적으로 OLS 회귀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가정 ①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선형성, ②관측치와 오차항의 독립성, ③오차항의 등분산성, ④오차항의 정규성, ⑤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없음)을 충족해야 하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었다.⁷⁾ 기본 가정을 충족한다면, 본 연구의 기본적인 분석 모델로 OLS 모델을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토 과정에서 오차항의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 문제가 발견되었다⁸⁾.

7) 참고로 Durbin-Watson 지수는 다음과 같음.

•모델1 set ①금융이해력:1.895, ②금융지식:1.894, ③금융행위:1.955, ④금융태도:1.901

•모델2 set ①남성 금융이해력:1.957, ②여성 금융이해력:1.818

•모델3 set ①대학생 금융이해력:1.943, ②취업자 금융이해력:1.954, ③미취업자 금융이해력:1.923

8) 각 회귀모형의 동분산 검정(Breusch-Pagan/Cook-Weisberg test for heteroskedasticity, H0: Constant variance) 실시 결과, 모든 모델에서 기각되어 이분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모델1 set: ①금융이해력: $\chi^2=96.29^{***}$, ②금융지식: $\chi^2=133.14^{***}$, ③금융행위: $\chi^2=77.74^{***}$,
④금융태도: $\chi^2=11.04^{**}$

일반적인 OLS 모델에서는 오차항의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을 전제로 표준오차를 추정하기 때문에, 이분산성이 존재할 경우, 표준오차가 실제보다 과소 혹은 과대 추정되는 문제가 있다. 이는 검정통계량 및 유의성 검정 결과의 왜곡을 초래하여 회귀계수에 대한 통계적 추론이 신뢰성을 잃게 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OLS 모델이 아닌 오차항의 이분산성을 보정 할 수 있는 Robust OLS 회귀모형을 선택하였다. Robust OLS는 White(1980)가 제안한 이분산 일치 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consistent standard errors)를 적용하는 모델로서, 이분산성이 존재하더라도 추정치와 표준오차가 보다 신뢰성 있게 산출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③ 설명변수의 구성

실증분석을 위한 분석 모델을 선정한 후, 효율적인 추정을 위하여 모델에 투입되는 설명변수를 구성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선택의 방식은 초기 단계에서 측정된 모든 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를 검토한 후, 모델 설명력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변수부터 제외하는 방식으로 변수의 수를 축소하였다. 분석 모델에 최종 포함된 설명변수는 다음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된 것이다.

첫째, 초기 전체 변수 투입 모델의 결과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변수

둘째, 초기 분석에 앞서 검토된 일반선형모형(GLM: General Linear Model) 검정 시, 종속변수의 분포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

셋째, 초기 분석의 결과로 나타난 통계적 유의성과는 상관없이, 이론적 근거와 선행 연구 등 검토 결과 영향력이 확인된 변수

넷째, 변수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없는 변수

모델에 투입되는 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VIF 값이 10 이상이면 심각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본 연구의 분석 모델에 투입되는 모든 설명변수의 VIF 값은 이 기준치 미만이다.

•모델2 set: ①남성 금융이해력: $\chi^2=50.47^{***}$, ②여성 금융이해력: $\chi^2=36.05^{***}$
•모델3 set: ①대학생 금융이해력: $\chi^2=72.02^{***}$, ②취업자 금융이해력: $\chi^2=10.99^{**}$
③미취업자 금융이해력: $\chi^2=8.62^{**}$ (** : $p<.01$, *** : $p<.001$)
이상의 결과에 따라 오차항의 이분산성을 보완할 수 있는 Robust OLS 모델 선정

이상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본 장의 실증분석의 모델은 이분산성이 보정된 강건(robust) 표준오차를 기반으로 하여, 설명변수 간 상관관계로 인한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의 영향 요인 및 영향력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적정 모델이라 할 수 있다.

2) 실증분석 모델의 변수

앞서 구성과 선정의 과정을 설명한 분석에 투입될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VI-2>와 같다. 종속변수인 금융이해력은 연속변수로 분석되고, 설명변수는 세 가지(①사회·인구학적 특성, ②초중고 10대 시기 특성, ③금융생활 실태 특성) 부문으로 나누어 구성된 응답자 특성 및 금융생활 특성이 부문별 개별 변수들이다. 개별 변수의 구체적인 사항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 특성 부분의 설명변수

①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후기청소년 전체 공통 특성과 세부 집단별로 추가되는 특성들이 있다. 공통 특성으로는 성별(남, 여)⁹⁾과 거주지역(서울, 서울 이외 대도시, 그 외 지역)이 더미변수로, 연령, 학력, 월평균 소득이 연속변수로 투입되었다.

추가로 대학생 집단 분석에는 학제(2·3년제, 4년제)와 전공(경제/경영, 그 외), 금융 관련 과목의 수강 경험(있음, 없음) 및 고등학교 졸업 후 금융교육 경험(있음, 없음)이 더미변수로 분석되었다. 취업자 집단 분석에는 현 직장의 급여 또는 수입이 연속변수로, 학력(고졸 이하, 대졸 이상)과 정규직 여부(정규직, 비정규직), 고교 졸업 후 금융교육 경험(있음, 없음)이 더미변수로 추가되었다. 미취업자 집단 분석에는 연속변수로 투입되는 미취업 기간을 제외하고, 학력(고졸 이하, 대졸 이상)과 고교 졸업 후 금융교육 경험(있음, 없음), 주된 활동(구직활동/직업교육/취업 준비, 그 외)이 더미변수로 분석되었다. 한편, 남성 청소년 분석 모델에는 군복무 완료자를 대상으로 측정된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금액이 연속변수로, 사용 용도가 2개의 더미변수(학비/취업 준비, 예·적금 저축, 그 외)로 포함되었다.

9) 밑줄 표기가 준거집단임.

② 초중고 10대 시기 특성

10대 시기 특성으로는 우선, 졸업한 고등학교의 유형이 더미 변수 3개(일반고, 자율/과학·영재/외국어/예술·체육, 마이스터/특성화, 대안학교/기타), 주된 성장 지역(서울, 서울 이외 대도시, 그 외 지역)이 2개의 더미변수로 투입되었다. 학교 금융교육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의 동아리 활동 경험(있음, 없음)과 외부 강사의 특강 경험(있음, 없음), 학교 외 금융교육 경험(있음, 없음)이 더미변수로, 4점 척도로 측정된 부모의 명시적 금융교육의 정도가 연속변수로 분석되었다. 또한 중·고교 시기 적금 또는 예금 경험(있음, 없음)과 주식 투자 경험(있음, 없음)을 비롯하여, 온라인도박 경험(있음, 없음)과 휴대폰 결제깡/폰테크/소액 대출 경험(있음, 없음)이 더미변수로 포함되었다.

③ 부모 관련 특성

부모 관련 특성으로는 4개의 더미변수와 3개의 연속변수가 포함되었다. 더미변수로는 부모와 동거(동거, 비동거/생존 부모 없음),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모두 일함, 그 외), 금융업에 종사하는 부모 유무(있음, 없음/모름), 부모의 주식, 가상화폐 투자(예, 아니오)가 해당된다. 연속변수로는 부모의 월평균 소득, 부와 모의 각 학력이 투입되었다.

(2) 금융생활 실태 부분의 설명변수

① 금융사회화 및 금융정체성과 주관적 자기 신념

부모와 또래와 관련된 금융사회화 변수는 총 4개의 변수가 포함되었다. 즉, 부모의 금융사회화와 또래의 금융사회화는 연속변수로, 부모와 또래 각각의 역사사회화(있음, 없음) 및 금융정체성 변수는 ‘유예형’을 준거변수로 하는 더미변수(확산형, 유예형, 성취형, 폐쇄형) 형태로 분석되었다. 또한 4점 척도로 측정된 3개의 변수(금융자신감(1. 전혀 자신 없다~4. 매우 자신있다), 주관적 금융 관리 능력(1. 매우 못한다~4. 매우 잘한다), 지각된 자기통제력(1. 매우 어렵다~4. 매우 쉬운 편이다)) 모두 연속변수로 투입되었다.

② 소비지출과 저축 및 투자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만 연속변수로 투입되고, 그 외 체크카드와 모바일페이 사용 여부, 신용카드 사용 및 할부 잔액이 부채 인지 여부, 휴대폰 소액결제 사용 여부는 모두 더미변

수(예, 아니오)로 분석되었다.

저축 및 투자와 관련된 변수들도 모두 더미변수(있음, 없음) 형태로 투입되었다. 구체적으로 예금/적금 유무, 주식/채권/외화 유무, 가상화폐/저작권 유무, 개설한 미끼 계좌 유무가 이에 해당한다. 추가로 저축이나 투자 정보의 주요 습득 경로도 앞서 제5장의 기초분석 결과로 나타난 후기청소년의 주요 정보 습득 경로를 추려 더미변수(유튜브 동영상, 금융관련 앱, 그 외)로 포함하였다.

③ 자산 형성 상품의 가입 및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

제5장의 기초분석 결과와 단계적 설명변수 선정의 과정을 거쳐 정부 지원의 청년 자산 형성 상품과 관련한 변수는 하나의 변수로만 반영하였는데, 여러 지원 상품 중 하나라도 가입한 것이 있는지, 그 여부가 더미변수(가입, 비가입)로 분석되었다. 이와는 달리, 5점 척도로 측정된 주관적 금융지식(1.매우 낮다~5.매우 높다)과 4점 척도로 측정된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1.전혀 필요하지 않다~4.매우 필요하다)은 연속변수로 투입되었다.

표 VI-2. 실증모델의 변수 구성

구분	변수	측정 척도 및 준거집단	변수 유형	비고
종속 변수	금융이해력 점수	금융지식+금융행위+금융태도 점수 총합	연속	공통
	- 금융지식 점수	총 7점	연속	공통
	- 금융행위 점수	총 9점		
	- 금융태도 점수	총 4점		
설명 변수	II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1= 남성, (0=여성)	더미	공통
	연령		연속	
	학력	1=고등학교 이하, 2=대학재학, 3=대졸 이상	연속	
	거주 지역	1=서울, (0=서울 이외 대도시), 2=그 외 지역	2개 더미	공통
	월평균 소득	만 원 단위 금액의 자연로그값	연속	공통
	학제	1=2,3년제, (0=4년제)	더미	대학생
	전공	1=경제/경영 (0=그 외)	더미	
	금융관련 과목 수강 경험	1=있음, (0=없음)	더미	
	고교 졸업 후 금융교육 경험(대)	1=있음, (0=없음)	더미	
	현 직장 급여(또는 수입)	세전 만 원 단위 금액의 자연로그값	연속	취업자
	고교 졸업 후 금융교육 경험(취)	1=있음, (0=없음)	더미	
	정규직 여부	1=정규직, (0=비정규직)	더미	
	미취업 기간	1=3개월 미만, 2=3개월~6개월,	연속	미취업자

구분	변수	측정 척도 및 준거집단	변수 유형	비고
		3=6개월~1년 미만, 4=1년~2년 미만, 5=2년 이상		
	고교 졸업 후 금융교육 경험(미)	1=있음, (0=없음)	더미	
	주된 활동	1=구직활동/직업교육/취업준비, (0=그 외)	더미	
	학력(추)	1=고졸 이하, (0=대졸 이상)	더미	취업자, 미취업자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금액	만 원 단위 금액의 자연로그값	연속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용용도	1=학비, 취업준비, (0=그 외), 2=예·적금 저축	2개 더미	남성
	㉔ 초·중고 10대 시기 특성			
	졸업 고교 유형	1=자율/과학 영재/외국어/예술 체육, (0=일반고) 2=마이스터/특성화, 3=대안학교/기타	3개 더미	
	주된 성장지역	1=서울, (0=서울 외 대도시), 2=그 외 지역	2개 더미	
	[초·중·고 학교 금융교육 경험]			
	동아리 활동	1=있음, (0=없음)	더미	
	외부강사 특강	1=있음, (0=없음)	더미	
	부모의 명시적 금융교육	1=전혀 배우지 않음, 2=거의 배우지 않음, 3=조금 배움, 4=매우 많이 배움	연속	공통
	학교 외 금융교육	1=있음, (0=없음)	더미	
	[중·고교 시기 저축 및 투자 경험]			
	적금 또는 예금	1=있음, (0=없음)	더미	
	주식	1=있음, (0=없음)	더미	
	[중·고교 시기부정 경험]			
	온라인 도박	1=있음, (0=없음)	더미	
	휴대폰 결제강/폰테크/소액 대출	1=있음, (0=없음)	더미	
	㉕ 부모 관련 특성			
	부모와 동거	1=동거, (0=비동거/생존부모 없음)	더미	
	부모 경제활동	1=모두 일함, (0=그 외)	더미	
	금융업 종사 부모 유무	1=있음, (0=없음/모름)	더미	
	부모 주식, 가상화폐 투자	1=예, (0=아니오)	더미	
	부모 월소득	1=300만 원 이하, 2=300만 원~600만 원 미만, 3=600만 원~800만 원 미만, 4=800만 원~1,000만 원 미만, 5=1,000만 원 이상	연속	공통
	부학력	0=모름/생존부모 없음, 1=초등학교 졸업, 2=중학교 졸업, 3=고등학교 졸업, 4=대학 졸업, 5=대학원 졸업	연속	
	모학력	0=모름/생존부모 없음, 1=초등학교 졸업, 2=중학교 졸업, 3=고등학교 졸업, 4=대학 졸업, 5=대학원 졸업	연속	
	㉖ 금융생활 실태			
	[금융사회화]			
	부모의 금융사회화	1=개인 재정 관리에 대해 배운 적 없다, 2=암묵적으로 부모님의 생활을 보며 배운 적 있다, 3=부모님이 명시적으로 돈 관리나 저축·투자 방법 등 개인 재정에 대해 가르쳐 준 적 있다.	연속	공통

구분	변수	측정 척도 및 준거집단	변수 유형	비고
	부모 역금융사회화	1=있음, (0=없음)	더미	
	또래의 금융사회화	1=개인 재정 관리에 대해 배운 적 없다, 2=암묵적으로 친구(동료)의 생활을 보며 배운 적 있다, 3=또래 친구(동료)가 명시적으로 돈 관리나 저축 투자 방법 등 개인 재정에 대해 가르쳐 준 적 있다.	연속	
	또래 역금융사회화	1=있음, (0=없음)	더미	
	금융정체성	1=확산형(Diffused), 0=유예형(Moratorium), 2=성취형(Achieved), 3=폐쇄형(Foreclosed)	3개 더미	
	[주관적 자기신념]			
	금융자신감	1=전혀 자신 없다, 2=못하는 편이다, 3=자신 있는 편이다, 4=매우 자신 있다	연속	
	주관적 금융관리능력	1=전혀 못한다, 2=못하는 편이다, 3=잘하는 편이다, 4=매우 잘한다	연속	
	지각된 자기통제력	1=매우 어렵다, 2=어려운 편이다, 3=쉬운 편이다, 4=매우 쉬운 편이다	연속	
	월평균 소비지출	만 원 단위 금액의 자연로그값	연속	
	[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체크카드 사용 여부	1=예, (0=아니오)	더미	
	모바일페이 사용 여부	1=예, (0=아니오)	더미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사용 여부	1=예, (0=아니오)	더미	
	할부잔액 부채 인지여부	1=예, (0=아니오)	더미	
	[휴대폰 소액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사용 여부	1=예, (0=아니오)	더미	
	[저축 및 투자]			
	예금/적금	1=있음, (0=없음)	더미	
	주식/채권/외화	1=있음, (0=없음)	더미	
	가상화폐/저작권	1=있음, (0=없음)	더미	
	미끼계좌	1=있음, (0=없음)	더미	
	저축/투자 정보 주요 습득경로	1=유튜브 동영상, (0=그외), 2=금융관련 앱	2개 더미	
	[청년 자산형성 상품 가입]			
	청년 자산형성상품 가입	1=가입, (0=비가입)	더미	
	[주관적 금융지식 및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			
	주관적 금융지식	1=매우 낮다, 2=낮은 편이다, 3=평균 수준이다, 4=높은 편이다, 5=매우 높다	연속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	1=전혀 필요하지 않다, 2=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3=필요한 편이다, 4=매우 필요하다	연속	

* 주: 표본수 확보를 위해 '해당 없음'은 더미변수 처리 시 0으로 처리함.

이상과 같은 실증모델에 투입된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2.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 분석: Robust OLS 모델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여기에서는 3가지 모델set으로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전체 집단 금융이해력과 3가지 구성요소별(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성별, 세부 집단별(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로 나누어 각 집단의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과 영향력의 크기를 Robust OLS 모델로 분석함.
- 모델1 set 분석 결과, 전체 집단의 금융이해력 수준 및 구성 3요소 모두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주식/채권/외화 보유 여부'이며,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은 '할부 잔액의 부채 인지 여부'로 분석됨.
- 성별 집단을 나누어 분석한 모델2 set 결과, 성별에 상관없이 금융이해력 수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은 '확실행'과 '폐쇄형'의 금융정체성이며, 남성은 '주식/채권/외화 보유 여부', 여성은 '할부 잔액의 부채 인지 여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으로 나타남.
- 세 개의 세부 집단 각각을 분석한 모델3 set 결과, 정(+)의 요인인 '할부 잔액의 부채 인지 여부'와 부(-)의 요인인 '폐쇄형'의 금융정체성이 세 집단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이며, 대학생과 미취업자 집단에서는 '할부 잔액의 부채 인지 여부', 취업자 집단에서는 '폐쇄형'의 금융정체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으로 분석됨.

1) 모델1 set: 금융이해력 및 3가지 구성 요소 수준의 영향 요인

(1) 금융이해력 및 구성 3요소 점수의 영향 요인

①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

금융이해력 수준과 이를 구성하는 3가지 구성 요소(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각각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Robust OLS 모델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 VI-3>과 같이 제시하였다. 총 4개의 모델 분석의 결과를 보았을 때, 금융이해력 수준과 3개 구성 요소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 하나, '주식/채권/외화 보유 여부'이다. 즉, 주식/채권/외화를 보유하는 후기청소년이 보유하지 않는 경우보다 금융이해력을 비롯한 3가지 구성 요소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과다. 이는 앞서 제5장의 차이 검증에서 나타난 결과가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그 통계적 유의성이 유지된다는 것의 확인이며, 특히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주식/채권/외화' 투자가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명확한 해석의 근거가 된다.

그 외,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정(+)의 영향 요인과 부(-)의 영향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정(+)의 요인부터 살펴보면, 초중고 10대 시기에 외부 강사 특강의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다. 또

부모가 주식,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금융이해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와 또래의 금융사회화를 경험한 집단도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다. 주관적 신념 측면에서 주관적 금융관리 능력이나 지각된 자기통제력 또한 정(+)의 영향력을 갖는다.

금융생활 측면에서 체크카드의 사용, 할부 잔액이 부채인지 아는 경우, 예·적금과 마케팅 미끼 계좌 보유하는 집단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다. 이에 더하여 금융 관련 앱을 저축/투자 정보의 주요 습득 경로로 하는 이들이 다른 경로 이용자보다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고, 금융교육 필요성의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금융이해력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는 달리, 금융이해력 수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초중고 10대 시기의 경험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이 다수 부(-)의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학교 동아리 활동을 통한 금융교육의 경험이 있는 집단은 동아리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금융이해력 점수가 낮다. 이는 단순히 금융교육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 경험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과 과정으로 동아리 활동을 했는가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학교 외 금융교육의 경험도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있는 집단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다.

한편, 초중고 10대 시기 특성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부정 경험이다. 온라인도박 경험이 있는 집단과 휴대폰결제강/폰테크/소액 대출 경험이 있는 집단은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금융이해력 점수가 낮다. 이는 앞서 제5장의 차이 검증에서 나타난 결과가 실증모델 분석을 통해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다시 명확하게 확인 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후기청소년의 낮은 금융이해력이 현재의 상태나 생활 특성만이 아닌, 중·고등학교 시기의 부정적인 경험들과 맞닿아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외, 부모가 금융업에 종사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금융정체성 유형 중 부모의 결정을 전적으로 따르는 ‘폐쇄형’ 또한 부(-)의 영향 요인이라는 결과와 연계되어 해석될 수 있다. 즉, 부모가 금융업에 종사하여 금융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녀가 부모에게 쉽게 의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이다. ‘폐쇄형’과 함께 금융정체성 중 부(-)의 영향을 보이는 유형은 돈 관리나 개인의 재정문제에 관심이 없는 ‘확산형’이다. 이는 금융정체성

에 따라 금융교육의 시작점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제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월소비지출 수준이 높을수록 금융이해력은 낮아진다.

표 VI-3.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영향 요인: 금융이해력 및 구성 3요소

변수	금융이해력	구성 3요소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표준화계수 β (t)	표준화계수 β (t)	표준화계수 β (t)	표준화계수 β (t)
〈사회인구학적 특성〉				
세부집단(대학생)_취업자	0.010(0.48)	0.007(0.29)	-0.002(-0.09)	0.039(1.49)
세부집단(대학생)_미취업자	-0.038(-1.76)	-0.050(-2.13)*	-0.014(-0.63)	-0.007(-0.27)
성별(여성)_남성	-0.039(-1.86)	0.026(1.13)	-0.084(-3.88)***	-0.027(-1.05)
연령	0.020(0.91)	0.026(1.11)	0.008(0.34)	0.005(0.17)
학력	0.018(0.83)	0.008(0.35)	0.007(0.31)	0.048(1.87)
거주지역(서울 외 도시)_서울	0.059(1.89)	0.041(1.30)	0.030(0.90)	0.101(2.57)*
거주지역(서울 외 대도시)_그 외 지역	-0.029(-0.92)	-0.021(-0.65)	-0.023(-0.71)	-0.018(-0.49)
로그 월소득	0.036(1.51)	0.007(0.25)	0.034(1.46)	0.068(2.34)*
〈초중고 10대 시기 특성〉				
졸업고교유형(일반고)_자율/과학 영재/외국어/예술 체육	0.032(1.77)	0.026(1.52)	0.032(1.69)	-0.005(-0.23)
졸업고교유형(일반고)_마이스터/특성화	-0.040(-1.68)	-0.032(-1.23)	-0.022(-0.93)	-0.049(-1.74)
졸업고교유형(일반고)_대안/기타	0.003(0.13)	0.010(0.37)	-0.014(-0.59)	0.031(1.37)
주된 성장지역(서울외 대도시)_서울	-0.012(-0.37)	0.002(0.06)	-0.012(-0.37)	-0.029(-0.73)
주된 성장지역(서울외 대도시)_그 외 지역	0.037(1.15)	0.024(0.73)	0.028(0.84)	0.037(0.99)
동아리 활동에서 금융교육 경험(없음) 있음	-0.069(-3.07)**	-0.074(-3.01)**	-0.028(-1.24)	-0.061(-2.30)*
외부강사 특강에서 금융교육 경험(없음) 있음	0.065(3.21)**	0.061(2.77)**	0.053(2.48)*	0.002(0.08)
부모의 명시적 금융교육	-0.039(-1.68)	-0.046(-1.79)	-0.006(-0.24)	-0.051(-1.77)
학교 외 금융교육 경험(없음) 있음	-0.063(-2.65)**	-0.087(-3.23)**	-0.030(-1.28)	0.018(0.65)
10대 시기 적금/예금 보유(없음) 있음	0.048(2.27)*	0.053(2.33)*	0.020(0.91)	0.034(1.40)
10대 시기 주식 보유(없음) 있음	0.002(0.09)	-0.032(-1.39)	0.048(2.19)*	-0.041(-1.57)
온라인 도박 경험(없음) 있음	-0.050(-2.27)*	-0.051(-2.08)*	-0.032(-1.36)	-0.016(-0.61)
휴대폰 결제강/폰테크/소액 대출 경험(없음) 있음	-0.057(-2.66)**	-0.046(-1.99)*	-0.040(-1.79)	-0.046(-1.86)
〈부모 특성〉				
부모와 동거 여부(그 외)_동거	0.036(1.81)	0.037(1.69)	0.021(0.98)	0.019(0.78)
부모 생활상태(그 외)_모두 일함	-0.025(-1.29)	-0.022(-1.06)	-0.013(-0.65)	-0.024(-1.09)
금융업 종사 부모 유무(없음) 있음	-0.042(-2.21)*	-0.071(-3.32)**	-0.001(-0.07)	-0.009(-0.34)
부모가 주식,가상화폐투자 여부(아니오)_예	0.060(3.11)**	0.085(4.10)***	0.015(0.75)	0.016(0.70)

변수	금융이해력	구성 요소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표준화계수 β (t)	표준화계수 β (t)	표준화계수 β (t)	표준화계수 β (t)
부모 월소득	-0.023(-1.14)	-0.019(-0.83)	-0.009(-0.43)	-0.038(-1.48)
아버지 학력	0.048(1.94)	0.026(0.94)	0.051(1.90)	0.021(0.75)
어머니 학력	0.053(1.92)	0.070(2.30)*	0.026(0.97)	-0.008(-0.29)
<금융생활실태 특성>				
부모의 금융사회화	0.060(2.55)*	0.014(0.51)	0.078(3.19)**	0.043(1.44)
부모 역금융사회화(없음) 있음	0.033(1.51)	-0.002(-0.08)	0.052(2.22)*	0.023(0.88)
도래의 금융사회화	-0.012(-0.61)	-0.030(-1.34)	0.011(0.53)	-0.010(-0.41)
도래 역금융사회화(없음) 있음	0.075(3.67)***	0.057(2.57)*	0.063(2.85)**	0.037(1.49)
금융정체성(유예형)_확산형	-0.095(-3.95)***	-0.115(-4.18)***	-0.035(-1.35)	-0.054(-1.96)
금융정체성(유예형)_성취형	0.025(1.19)	-0.047(-1.99)*	0.059(2.81)**	0.093(3.58)***
금융정체성(유예형)_폐쇄형	-0.114(-4.89)***	-0.138(-5.23)***	-0.048(-2.09)*	-0.047(-1.79)
금융자신감	0.034(1.19)	0.015(0.48)	0.058(1.86)	-0.042(-1.16)
주관적 금융관리능력	0.070(2.29)*	0.006(0.18)	0.084(2.56)*	0.096(2.51)*
지각된 자기통제력	0.118(4.69)***	0.004(0.13)	0.147(5.53)***	0.167(5.37)***
로그 월 소비지출	-0.053(-2.13)*	0.013(0.47)	-0.064(-2.71)**	-0.125(-4.19)***
체크카드 사용여부(아니오)_예	0.080(3.63)***	0.077(3.11)**	0.058(2.61)**	0.017(0.65)
모바일페이 사용여부(아니오)_예	0.034(1.59)	0.043(1.75)	0.037(1.77)	-0.058(-2.26)*
신용카드 사용여부(아니오)_예	0.032(1.66)	0.017(0.79)	0.039(1.97)*	0.000(0.00)
할부잔액 부채인지여부(아니오)_예	0.177(8.55)***	0.173(7.55)***	0.127(6.06)***	0.038(1.62)
휴대폰 소액결제 사용여부(아니오)_예	-0.012(-0.66)	-0.013(-0.65)	0.005(0.27)	-0.041(-1.92)
예금/적금 보유여부(없음) 있음	0.120(5.30)***	0.112(4.37)***	0.083(3.87)***	0.053(1.81)
주식/채권/외화 보유여부(없음) 있음	0.120(5.48)***	0.082(3.48)**	0.103(4.37)***	0.079(2.95)**
가상화폐/저작권 보유 여부(없음) 있음	-0.015(-0.80)	-0.015(-0.71)	-0.009(-0.44)	-0.010(-0.41)
미끼계좌 보유 여부(없음) 있음	0.061(3.42)**	0.074(3.90)***	0.037(1.89)	-0.010(-0.44)
저축/투자 정보 주요 습득경로(그 외)_유튜브 동영상	0.000(-0.02)	-0.004(-0.16)	-0.005(-0.25)	0.025(1.02)
저축/투자 정보 주요 습득경로(그 외)_금융 관련 앱	0.056(2.99)**	0.017(0.83)	0.072(3.65)***	0.025(1.16)
청년 자산형성 상품 가입 여부(비가입)_가입	0.033(1.63)	0.062(2.73)**	-0.014(-0.64)	0.033(1.37)
주관적 금융지식	0.048(1.90)	0.001(0.03)	0.081(3.14)**	0.003(0.10)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	0.112(5.53)***	0.083(3.75)***	0.109(5.02)***	0.018(0.69)
N	1,814	1,814	1,814	1,814
F	24.78***	13.95***	20.69***	6.53***
R ²	0.4216	0.2918	0.3712	0.174

* 주: 1) 변수의 () 뒤는 준거집단, _뒤는 더미 항목을 의미함.

2) *** $p < .001$, ** $p < .01$, * $p < .05$

② 금융지식 수준의 영향 요인

금융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정(+)의 요인과 부(-)의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결과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사실은 영향 요인이 대체로 정(+)의 요인이지만, 세부 집단으로서 미취업자와 금융정체성만이 부(-)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이다. 즉, 미취업자는 준거집단인 대학생에 비해 금융지식의 수준이 낮다. 그리고 아직 자신에게 맞는 저축 및 투자 방법을 몰라 알아가면서 결정하려고 하는 ‘유예형’의 금융정체성을 갖는 집단에 비해 ‘확산형’이나 ‘성취형’, 그리고 ‘폐쇄형’의 금융정체성을 갖는 이들은 모두 금융지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결정을 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알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후기청소년들의 금융지식 수준이 사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취형’에 비해서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을 살펴보면, 초중고 10대 시기 외부 강사 특강의 경험, 10대 시기 예·적금의 보유 경험, 부모가 주식,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경우, 어머니의 학력, 또래에 대한 역금융사회화, 체크카드 사용, 할부 잔액의 부채 인지, 현재 예·적금 및 미끼 계좌 보유, 청년 자산형성 상품 가입,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이 이에 해당한다.

③ 금융행위 수준의 영향 요인

금융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정(+)의 요인과 부(-)의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금융이해력이나 금융지식 모델분석의 결과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성별 변수가 유독 부(-)의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보다 남성의 금융행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 요인들은 모두 정(+)의 요인들인데, 초중고 10대 시기의 외부 강사 특강 경험, 10대 시기 주식 보유 경험이 있는 집단이 금융행위 점수가 높다. 앞서 금융지식에서는 10대 시기 예·적금 보유가 정(+)의 영향을 미친 것과는 달리, 금융행위에는 10대 시기 주식 보유의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흥미롭다.

금융생활 특성과 관련해서는 부모의 금융사회화뿐만 아니라 부모 및 또래 역금융사회화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돈 관리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성취형’의 금융정체성을 갖는 집단은 ‘유예형’보다 금융행위 점수가 더 높다. 그 연장선

상에서 주관적 금융 관리능력과 지각된 자기통제력 또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체크카드 사용이나 다른 분석 모델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신용카드 사용, 할부 잔액의 부채 인지, 예·적금 보유, 금융 관련 앱으로 저축/투자 정보 습득, 주관적 금융지식 수준 및 금융필요성 인식 수준도 정(+)의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④ 금융태도 수준의 영향 요인

금융태도는 앞서 제5장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3가지 측정 항목(저축보다 소비 선호, 미래보다 현재 선호, 돈은 쓰기 위해 존재)에 동의할수록 점수가 낮다. 즉 금융태도 점수가 높다는 것은 소비보다 저축을 선호하고, 현재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며, 돈은 쓰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태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의 요인과 부(-)의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월 소비지출 금액이 많을수록, 모바일페이를 사용하는 집단이 비사용집단에 비해 금융태도 점수 수준이 낮다. 즉, 현재의 소비를 선호한다는 결과이다. 이들 변수 이외 부(-)의 영향 요인이 하나 더 있는데, 초중고 10대 시기 동아리 활동에서의 금융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점수가 낮다.

그 외 몇 가지 정(+)의 영향 요인도 발견되는데, 하나는 금융정체성의 ‘성취형’으로 ‘유예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태도 점수가 높다. 이는 자신에게 맞는 돈 관리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는 집단이 알아가면서 결정하겠다는 집단에 비해 소비보다 저축을 선호하고, 현재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태도가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주관적 금융 관리 능력과 지각된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금융태도 수준이 높다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주식/채권/외화 보유 집단은 비보유 집단보다 금융태도 점수가 높은데, 이는 주식/채권/외화에 투자하는 후기청소년들이 소비보다는 저축, 현재보다는 미래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주요 영향 요인의 영향력 크기 비교

① 금융이해력 주요 영향 요인의 영향력

앞서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 분석에 이어 요인들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그림 VI-1]에 제시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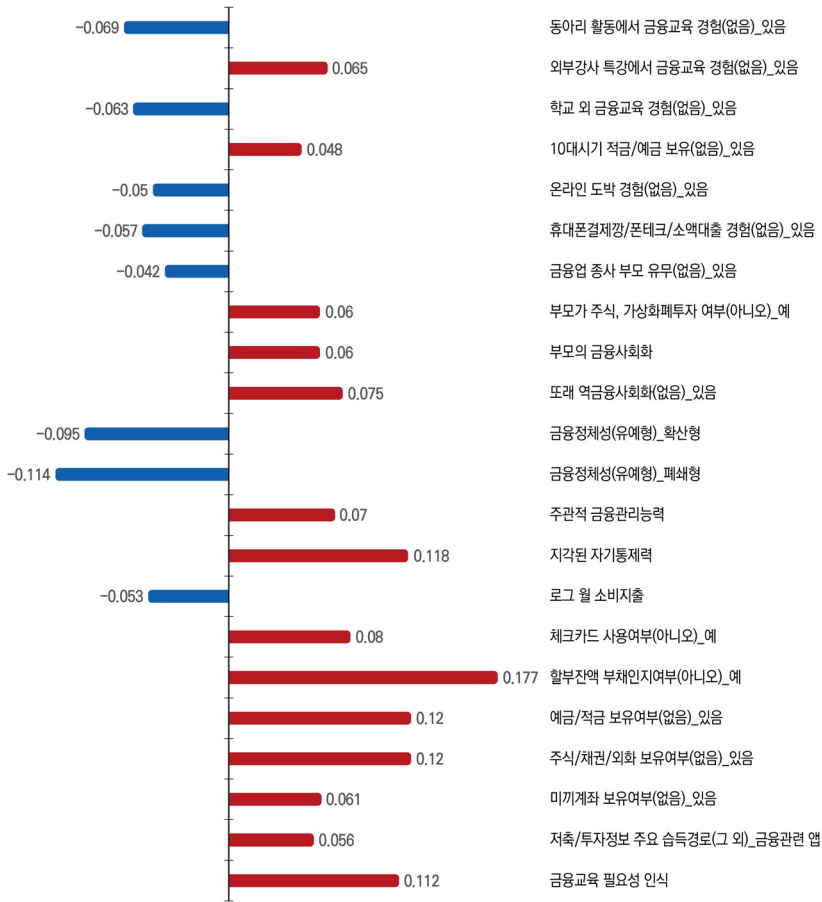


그림 VI-1. 금융이해력 수준 영향 요인의 영향력 크기 비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요인은 ‘할부 잔액의 부채 인지 여부’(0.177)이다. 즉, 할부 결제 후 남은 잔액이 부채인지를 아는지 모르는지가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을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높은 것은 현재의 금융생활 특성의 변수인데, ‘예·적금 보유 여부’와 ‘주식/채권/외화 보유 여부’로 이 두 변수의 영향력은 같다(0.12). 이어 ‘지각된 자기통제력’(0.118)이 세 번째로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이다. 이들 요인들은 모두 정(+)의 영향 요인으로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현재보다 더 끌어올리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들 요인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부(-)의 영향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영향력 크기가 작는데, 금융정체성 유형 중 ‘폐쇄

형'(-0.114)은 예외로 네 번째로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이다. 그다음으로 또다시 정(+)의 요인인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 수준'이 다섯 번째로 큰 영향력의 요인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 볼 때,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빠르게 완화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 개입이 필요한 대상이 '폐쇄형' 금융정체성을 갖는 후기청소년들이라 할 수 있다. 즉 그들이 부모가 아닌, 스스로 돈 관리와 개인의 생애 재무설계를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 것이다.

② 금융지식 주요 영향 요인의 영향력

금융지식 영향 요인의 영향력의 크기도 비교하면 [그림 VI-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앞서 금융이해력 수준 영향력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으로 확인된 '할부 잔액의 부채 인지 여부'가 금융지식 수준 분석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0.173)을 보인다.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은 '폐쇄형'의 금융정체성(-0.138)이며, 금융정체성 중 '확산형'(-0.115)은 세 번째로 큰 영향 요인이 된다. 이는 금융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10대 청소년이 아닌 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는가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 외, 영향력 크기가 0.1을 초과하는 요인 중 '예·적금 보유 여부'가 네 번째로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융이해력 수준에서와는 달리 '주식/채권/외화 보유 여부'는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예·적금의 보유'가 상대적으로 OECD에서 개발한 금융지식 측정 항목들이 기본적으로 예·적금에 대한 이해와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데에서 비롯된 결과로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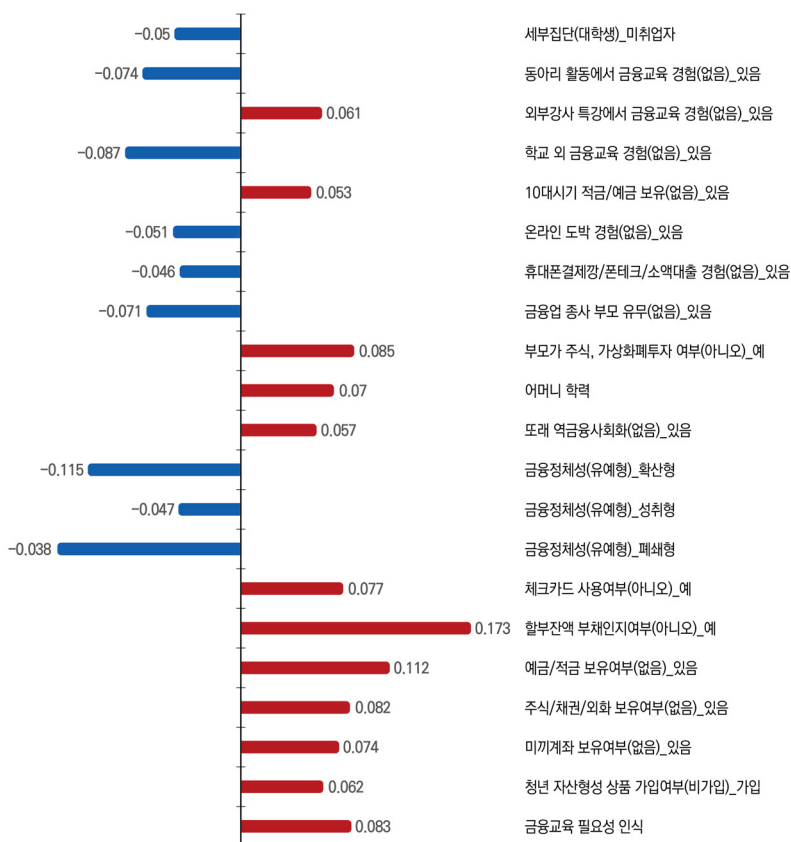


그림 VI-2. 금융지식 수준 영향 요인의 영향력 크기 비교

③ 금융행위 주요 영향 요인의 영향력

앞서 살펴본 금융이해력이나 금융지식 영향 요인의 영향력과는 달리, [그림 VI-3]에 제시된 금융행위 영향 요인의 영향력 크기에서는 ‘지각된 자기통제력’이 가장 큰 영향력(0.147)을 갖는 요인이 된다. 그다음으로는 ‘할부 잔액의 부채 인지 여부’(0.127)이고, 세 번째로는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0.109)이다. 네 번째가 ‘주식/채권/외화 보유 여부’(0.103)인데, 앞서 살펴본 금융지식 영향력 비교에서 ‘예·적금 보유 여부’가 네번째로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이라는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금융지식에는 예·적금, 금융행위에는 ‘주식/채권/외화 보유 여부’가 더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부(-)의 영향 요인 중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보이는 요인은 ‘성별’(-0.08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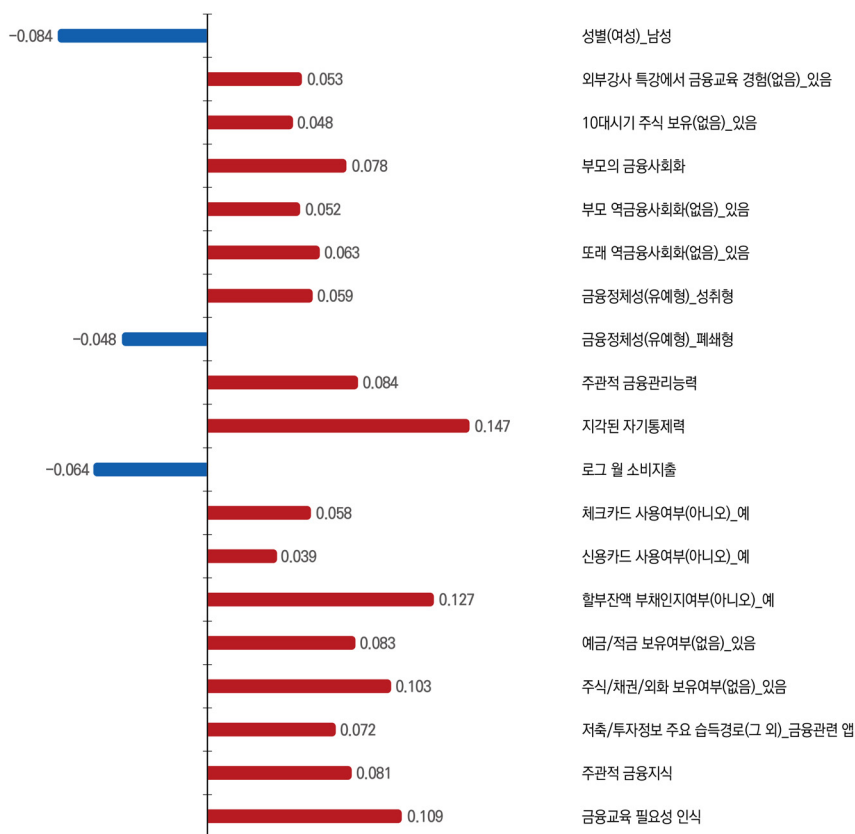


그림 VI-3. 금융행위 수준 영향 요인의 영향력 크기 비교

③ 금융태도 주요 영향 요인의 영향력

앞서 살펴본 금융행위와 같이 금융태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은 [그림 VI-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의 영향 요인 중 ‘지각된 자기통제력’(0.167)이다. 그다음으로는 큰 영향력은 부(-)의 영향 요인인 ‘월 소비지출’(-0.125)이고, 세 번째는 더미변수로 분석된 ‘서울 거주’(0.10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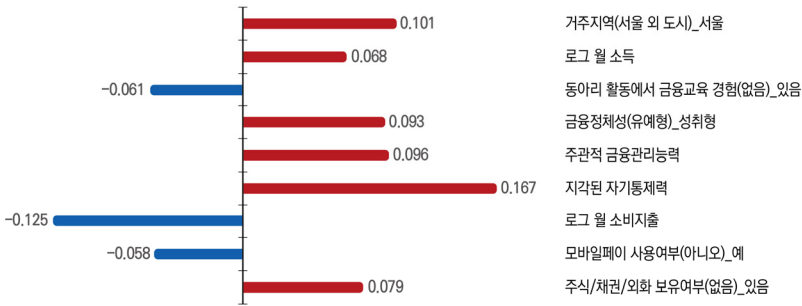


그림 VI-4. 금융태도 수준 영향 요인의 영향력 크기 비교

2) 모델2 set: 성별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

(1) 성별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

성별로 나누어 각각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을 분석해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도 있고, 한쪽 성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다. 또한 앞서 분석한 ‘모델1 set’의 결과와 같이 정(+)의 영향 요인과 부(-)의 영향 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공통 요인과 차별 요인을 파악하여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보다 효과적인 전략과 접근 방법을 선택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공통 영향 요인부터 살펴보면 <표 VI-4>에 제시한 바와 같다.

남성과 여성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수이지만, 그중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금융정체성 뿐이다. 즉, 금융정체성이 ‘확산형’인 경우와 ‘폐쇄형’인 경우 준거집단인 ‘유예형’에 비해 금융이해력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다. 그 외 다른 공통 영향 요인들은 모두 성별에 상관없이 정(+)의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지각된 자기통제력’과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 그리고 금융생활 경험과 관련된 여러 변수들(체크카드 사용, 할부 잔액의 부채 인지, 예·적금 보유, 주식/채권/외화 보유, 미끼계좌 보유)이 이에 해당한다.

공통 요인을 제외하고, 남성에게만 나타나는 요인은 6개로 부(-)의 영향 요인 2개와 정(+)의 영향요인 4개가 있다. 먼저, 부(-)의 영향 요인 중 하나는 초중고 10대 시기 ‘동아리 활동에서 금융교육 경험’이고, 다른 하나는 중·고등학교 시기 ‘온라인도박 경험’이다.

즉, 동아리 활동에서 금융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은 경험 없는 집단에 비해, 그리고 온라인 도박 경험이 있는 집단이 경험 없는 집단보다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4개의 정(+)의 요인은 ‘부모가 주식, 가상화폐 투자’, ‘신용카드 사용’, ‘금융 관련 앱으로 금융 정보 습득’, ‘청년 자산형성 상품 가입’이다. 부모가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경우 일종의 암묵적 금융사회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남성에게서는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신용카드와 금융앱을 사용하는 집단이 사용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금융정보를 통한 금융지식은 물론 실제 금융행위로 이어지기에 금융이해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데, 그것이 남성에게서만 의미가 있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자산형성 상품에 가입한 이들이 비가입자보다 금융이해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남성에게만 나타나는 결과이다.

그렇다면, 여성에게서만 나타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공통요인을 제외하고 여성에게서만 나타나는 요인은 모두 8개, 이중 부(-)의 영향 요인 2개이고 나머지가 정(+)의 영향 요인이다. 먼저, 부(-)의 영향 요인으로서는 초중고 10대 시기 ‘학교 외 금융교육 경험’과 ‘휴대폰 결제깡/폰테크/소액 결제 경험’이 이에 해당한다. 학교 외 금융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은 경험 없는 집단에 비해 금융이해력 점수가 낮고, 중·고등학교 시기에 휴대폰 결제깡/폰테크/소액 결제의 경험이 있는 집단은 경험 없는 집단에 비해 금융이해력 점수가 낮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남성 대상 분석에서 중·고등학교 시기 ‘온라인도박 경험’이 부(-)의 영향 요인인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10대 청소년기 부정 경험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성별에 따른 경험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남자 청소년들은 온라인도박, 여자 청소년들은 휴대폰 결제깡과 일명 ‘대리입금’이라고 불리는 소액 결제 이용이 많은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 외, 정(+)의 영향 요인으로서는 초중고 10대 시기 ‘외부 강사 특강에서 금융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경험 없는 집단보다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고,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금융사회화’나 ‘또래 역금융사회화’가 명시적 교육일수록 금융이해력 수준도 높아진다. 한편, ‘주관적 금융 관리 능력’이나 ‘주관적 금융 지식’을 높게 인식할수록 금융이해력 수준도 높다.

표 VI-4. 성별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

변수	전체	성별	
		남성	여성
	표준화계수 β (t)	표준화계수 β (t)	표준화계수 β (t)
〈사회인구학적 특성〉			
세부집단(대학생)_취업자	0.010(0.48)	0.018(0.55)	-0.015(-0.53)
세부집단(대학생)_미취업자	-0.038(-1.76)	0.020(0.59)	-0.072(-2.46)*
연령	0.020(0.91)	-0.056(-1.44)	0.056(1.93)
학력	0.018(0.83)	0.012(0.34)	0.039(1.39)
거주지역(서울 외 도시)_서울	0.059(1.89)	-0.016(-0.30)	0.100(2.55)*
거주지역(서울 외 대도시)_그 외 지역	-0.029(-0.92)	-0.048(-0.86)	-0.036(-0.96)
로그 월소득	0.036(1.51)	0.028(0.70)	0.044(1.51)
〈초중고 10대 시기 특성〉			
졸업고교유형(일반고)_자율/과학 영재/외국어/예술 체육	0.032(1.77)	0.022(0.72)	0.034(1.53)
졸업고교유형(일반고)_마이스터/특성화	-0.040(-1.68)	-0.030(-0.79)	-0.053(-1.70)
졸업고교유형(일반고)_대안/기타	0.003(0.13)	-0.056(-1.31)	0.041(1.44)
주된 성장지역(서울외 대도시)_서울	-0.012(-0.37)	0.063(1.22)	-0.048(-1.19)
주된 성장지역(서울외 대도시)_그 외 지역	0.037(1.15)	0.084(1.44)	0.024(0.63)
동아리 활동에서 금융교육 경험(없음)_있음	-0.069(-3.07)**	-0.104(-2.95)**	-0.036(-1.22)
외부강사 특강에서 금융교육 경험(없음)_있음	0.065(3.21)**	0.042(1.24)	0.078(3.01)**
부모의 명시적 금융교육	-0.039(-1.68)	-0.023(-0.61)	-0.036(-1.20)
학교 외 금융교육 경험(없음)_있음	-0.063(-2.65)**	-0.039(-1.06)	-0.068(-2.20)*
10대 시기 적금/예금 보유(없음)_있음	0.048(2.27)*	0.058(1.73)	0.035(1.30)
10대 시기 주식 보유(없음)_있음	0.002(0.09)	-0.028(-0.77)	0.022(0.92)
온라인 도박 경험(없음)_있음	-0.050(-2.27)*	-0.075(-2.14)*	-0.034(-1.19)
휴대폰 결제강/폰테크/소액 대출 경험(없음)_있음	-0.057(-2.66)**	-0.062(-1.72)	-0.059(-2.19)*
〈부모 특성〉			
부모와 동거 여부(그 외)_동거	0.036(1.81)	0.022(0.69)	0.043(1.66)
부모 생활상태(그 외)_모두 일함	-0.025(-1.29)	-0.050(-1.57)	-0.012(-0.53)
금융업 종사 부모 유무(없음)_있음	-0.042(-2.21)*	-0.033(-1.04)	-0.046(-1.83)
부모가 주식/가상화폐투자 여부(아니오)_예	0.060(3.11)**	0.066(2.08)*	0.047(1.86)
부모 월소득	-0.023(-1.14)	0.030(0.92)	-0.048(-1.92)
아버지 학력	0.048(1.94)	0.002(0.04)	0.079(2.46)*
어머니 학력	0.053(1.92)	0.072(1.61)	0.044(1.27)
〈금융생활실태 특성〉			
부모의 금융사회화	0.060(2.55)*	0.050(1.25)	0.058(1.99)*
부모 역금융사회화(없음)_있음	0.033(1.51)	0.050(1.25)	0.031(1.20)

변수	전체	성별	
		남성	여성
	표준화계수 β (t)	표준화계수 β (t)	표준화계수 β (t)
도래의 금융사회화	-0.012(-0.61)	-0.001(-0.03)	-0.011(-0.46)
도래 역금융사회화(없음)_있음	0.075(3.67)***	0.063(1.77)	0.075(3.01)**
금융정체성(유예형)_확산형	-0.095(-3.95)***	-0.112(-2.64)**	-0.081(-2.89)**
금융정체성(유예형)_성취형	0.025(1.19)	-0.007(-0.18)	0.039(1.46)
금융정체성(유예형)_폐쇄형	-0.114(-4.89)***	-0.092(-2.30)*	-0.138(-5.05)***
금융자신감	0.034(1.19)	0.052(1.10)	0.013(0.39)
주관적 금융관리능력	0.070(2.29)*	0.038(0.73)	0.108(2.96)**
지각된 자기통제력	0.118(4.69)***	0.134(3.07)**	0.097(3.23)**
로그 월 소비지출	-0.053(-2.13)*	-0.021(-0.52)	-0.059(-1.89)
체크카드 사용여부(아니오)_예	0.080(3.63)***	0.099(2.59)*	0.071(2.66)**
모바일페이 사용여부(아니오)_예	0.034(1.59)	0.005(0.13)	0.053(1.85)
신용카드 사용여부(아니오)_예	0.032(1.66)	0.063(2.01)*	0.009(0.37)
할부잔액 부채인지여부(아니오)_예	0.177(8.55)***	0.130(3.82)***	0.204(7.72)***
휴대폰 소액결제 사용여부(아니오)_예	-0.012(-0.66)	-0.025(-0.79)	-0.003(-0.15)
예금/적금 보유여부(없음)_있음	0.120(5.30)***	0.151(3.61)***	0.094(3.98)***
주식/채권/외화 보유여부(없음)_있음	0.120(5.48)***	0.170(4.67)***	0.085(3.22)**
가상화폐/저작권 보유여부(없음)_있음	-0.015(-0.80)	-0.015(-0.46)	-0.026(-1.10)
미끼계좌 보유여부(없음)_있음	0.061(3.42)**	0.077(2.47)*	0.049(2.16)*
저축/투자정보 주요 습득경로(그 외)_유튜브 동영상	0.000(-0.02)	0.007(0.21)	-0.006(-0.23)
저축/투자정보 주요 습득경로(그 외)_금융 관련 앱	0.056(2.99)**	0.076(2.51)*	0.045(1.84)
청년 자산형성 상품 가입여부(비가입)_가입	0.033(1.63)	0.082(2.36)*	0.008(0.32)
주관적 금융지식	0.048(1.90)	0.012(0.27)	0.065(2.24)*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	0.112(5.53)***	0.099(2.70)**	0.122(4.94)***
<남성 군복무 관련>			
로그 장병내일적금 만기금액		0.067(1.61)	
장병내일적금 사용용도(그 외)_학비/취업준비		-0.040(-1.04)	
장병내일적금 사용용도(그 외)_저축		0.034(1.14)	
N	1,814	685	1,129
F	24.78***	10.05***	18.17***
R ²	0.4216	0.4382	0.4432

* 주: 1) 변수의 ()는 준거집단, _뒤는 더미 항목을 의미함.
2) *** $p < .001$, ** $p < .01$, * $p < .05$

(2) 성별 주요 요인의 영향력 크기 비교

이어 성별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들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해 보면, 앞서 ‘모델1 set’와는 달리, 영향력 크기의 순서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주요 변수가 전혀 다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수는 ‘주식/채권/외화 보유 여부’(0.170)이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예·적금 보유 여부’(0.151)로 금융생활의 측면에서 실제 저축과 투자 여부가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남성 후기청소년의 경우, 실제 스스로가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금융이해력을 높이는데 가장 주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 번째로 영향력이 큰 것은 ‘지각된 자기통제력’(0.134), 네 번째는 ‘할부 잔액의 부채 인지 여부’(0.13), 다섯 번째는 금융정체성 중 ‘확산형’(-0.112)이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이해력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의 측면이 모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지각된 자기통제력은 금융지식을 금융행위로 연결하는데 핵심적인 고리가 되는 자기 신념이고, 할부 잔액이 부채인지 아는 것은 금융지식이자 그것을 실제 적용하는 역량이며, 확산형은 돈 관리와 개인 재무에 관심이 전혀 없는 금융태도가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한편, 여성의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은 ‘할부 부채의 인지 여부’(0.204)인데, 앞서 ‘모델1 set’ 분석에서는 산출되지 않았던 크기의 영향력이다.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요인은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0.122)이고, 이들은 모두 정(+)의 영향력이다. 그러나 세 번째로 큰 요인은 부(-)의 영향 요인으로 금융정체성 중 ‘폐쇄형’(-0.138)이 이에 해당한다. 네 번째로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금융 관리 능력’(0.108)이다. 이들 상위의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들은 대체로 객관적인 경험보다는 금융 지식과 결합된 인식 및 태도에 해당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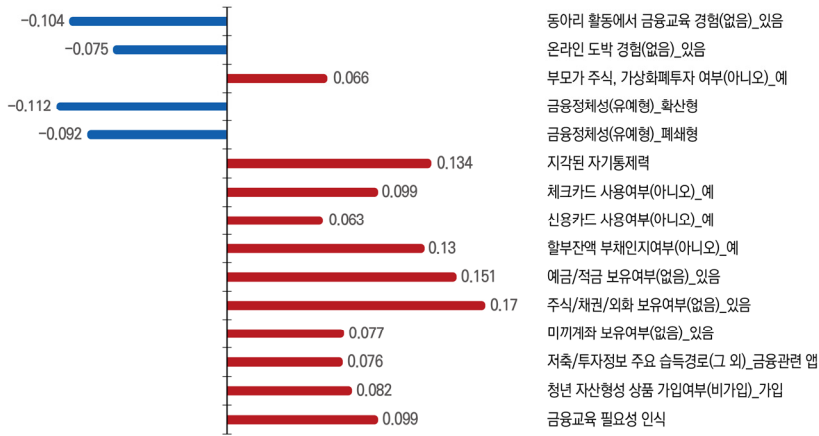


그림 VI-5. 남성 금융이해력 수준 영향 요인의 영향력 크기 비교



그림 VI-6. 여성 금융이해력 수준 영향 요인의 영향력 크기 비교

요약하자면, 앞서 살펴본 남성에게서 큰 영향력을 갖는 주요 요인들은 대체로 경험 측면의 ‘보유 여부’와 같은 객관적인 사항이고, 여성의 경우는 지식에 기초한 인식과 태도의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

3) 분석 모델3: 세부 집단별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

(1) 세부 집단별 금융이해력 점수 영향 요인 비교

① 세 집단의 공통 영향 요인

앞서 분석한 성별 집단별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이 다르듯이, 후기청소년이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라도 각 집단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가를 세 집단(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별로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VI-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세 집단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 두 가지뿐인데, 하나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할부 잔액의 부채 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폐쇄형’ 금융정체성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요인이 각 집단에서 갖는 영향력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할부 잔액의 부채 인지’ 요인의 영향력은 미취업자 집단(0.244)에서 대학생(0.145)이나 취업자(0.128)보다 큰 영향력을 갖는다. 그러나 ‘폐쇄형’의 금융정체성은 취업자 집단(-0.204)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그다음은 미취업자집단(-0.157), 대학생 집단(-0.064)에서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가 아닌 스스로 돈 관리를 비롯해 생애 재무 관리를 왜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서 출발하는 금융교육이 가장 필요한 대상이 바로 취업자 집단이며, 미취업자 집단은 할부 잔액 또한 부채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금융지식에 기초한 접근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어 다음에서는 이들 공통 요인 이외, 세 개의 각 집단(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에서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의 요인과 부(-)의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② 대학생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

대학생 집단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한 범위에서 발견된다. 또한 다른 집단(취업자, 미취업자)의 분석 결과와 비교했을 때, 부(-)의 영향 요인이 상대적으로 다수 발견되기도 한다. 이에 대학생 금융이해력 수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부(-)의 요인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성별과 재학하고 있는 대학의 학제이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금융이해력 점수가 낮고, 2·3년제 대학 재학생은 4년제 대학 재학생

보다 점수가 낮다. 이는 2·3년제 대학 남학생이 금융이해력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금융이해력 수준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20대 청년 → 그중에서도 더 낮은 연령대인 19세~24세 후기청소년 → 후기청소년 연령대 중에서도 2·3년제 대학재학 남학생”으로 취약한 집단의 범위가 보다 선명해진다.

두 번째 부(-)의 요인은 초·중고 10대 시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 동아리 활동에서 금융교육 경험과 부모의 명시적 금융교육, 그리고 학교 외에서의 금융교육 경험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앞서 ‘모델1 set’ 분석 결과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아리 활동에서 금융교육을 경험했다는 것, 그리고 초·중고 시기 부모의 명시적 금융교육이나 학교 외에서의 금융교육의 경험이 있다는 것, 그 자체는 금융이해력과 연계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경험의 여부 그 자체보다는 어떠한 내용과 과정으로 경험하느냐가 금융이해력을 높이는데 관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온라인도박 경험은 취업자나 미취업자 집단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대학생 집단에서는 부(-)의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중·고등학교 시기에 온라인도박 경험이 있는 집단은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금융이해력 점수 수준이 낮다.

세 번째 부(-)의 요인은 금융생활실태 특성에서 발견되는데, 하나는 금융정체성 중 ‘폐쇄형’과 ‘확산형’이고 다른 하나는 월 소비지출이다. 이들 세 가지 요인 중 ‘폐쇄형’의 금융정체성과 할부 잔액의 부채인지는 취업자와 미취업자 집단에서도 발견되는 ‘공통 요인’이므로, 이미 앞서 논의하였기에 여기에서는 반복하여 해석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정체성 중 ‘확산형’은 대학생 집단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부(-)의 요인으로 확인된다. 즉, 돈 관리와 개인의 재무 문제에 관심이 없는 ‘확산형’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아직 자신에게 맞는 돈 관리 방법을 모르지만 알아가면서 결정하려고 한다는 ‘유예형’보다 낮다. 이는 돈 관리를 전적으로 부모의 결정에 따르는 ‘폐쇄형’과 마찬가지로 ‘확산형’의 금융정체성을 갖는 이들도 생애 금융이해력과 금융역량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부터 시작하는 금융교육이 필요한 대상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의 영향 요인과는 달리 정(+)의 영향 요인 또한 대학생 집단에서 다수 발견되는데, 이들 요인도 특성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생 특성으로 측정된 금융관련 과목의 수강 경험과 고교 졸업 후 금융교육 경험이 정(+)의 영향 요인이다. 즉, 관련 과목을 수강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고, 대학의 강의는 아닐지라도 고등학교 졸업 후 금융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도 경험 없는 집단에 비해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다. 이는 대학 내·외에서 접하는 금융관련 교육 내용이 기본적인 금융이해력을 향상하는 데 긍정 영향이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19세~24세라는 생애 전환 시기가 금융교육에 있어 결코 늦은 시기가 아님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부모 관련 특성 중 부모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다. 이는 취업자 집단에도 정(+)의 영향 요인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로 금융생활 특성 중 포레 역금융사회화 경험은 취업자나 미취업자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정(+)의 요인이며, 지각된 자기통제력과 금융자산감,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다. 또한 체크카드나 모바일페이를 사용하는 집단, 할부잔액의 부채 인지, 예·적금 및 주식/채권/외화 보유, 미끼 계좌 보유, 그리고 금융관련 앱으로 저축 및 투자 정보를 습득하는 이들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체 집단을 분석한 ‘모델1 set’의 결과와 같은 결과이므로, 앞서 논의한 내용으로 같음한다. 다만, 금융자신감 요인은 전체 집단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요인이며, 대학생 집단에서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③ 취업자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

앞서 논의한 ‘공통 요인’을 제외하고, 취업자 집단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대학생 집단에서 나타난 영향 요인이 취업자 집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취업자 집단에서만 나타나는 요인이다.

먼저, 공통 요인을 제외하고 대학생 집단에서 나타났던 요인이 취업자 집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세 가지이다. 부모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주식/채권/외화 보유, 미끼 계좌 보유가 여기에 해당한다. 부모가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는데, 그 영향력이 대학생 집단에서의 영향력(0.053)보다 상당히 크다(0.139)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또한 주식/채권/외화 보유도 대학생 집단에서의 영향력(0.124)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0.182)을 갖고, 미끼 계좌 보유의 영향력(0.141)도 대학생 집단에서 갖는 영향력(0.060)보다 크게 웃도는 수치를 보인다.

다음으로 취업자 집단에서만 나타난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면, 연령과 졸업한 고등학교의 유형,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기 휴대폰 결제깡/폰테크/소액 대출 경험이 이에 해당한다.

19세~24세의 젊은 연령대이기는 하나, 이 젊은 연령대 내에서도 취업자 집단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다. 이는 연령발달에 따른 인지적 측면과 사회 경험의 축적에 따른 비인지적 측면의 결과로 이해된다.

또한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등으로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한 이들이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후기청소년보다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다는 결과는 단언할 수는 없으나, 개인의 필요성 인식과 사회 경험의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휴대폰 결제강/폰테크/소액 대출 경험에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점수가 낮다는 결과는 앞서 살펴본 성별 금융이해력 수준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와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여성 금융이해력 수준 영향 요인에서도 같은 결과라 도출되었는데, 본 연구의 취업자 집단의 성별 구성이 제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아 표본 구성의 영향이 일정 수준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④ 미취업자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

미취업자 집단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영향 요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도 하지만, 미취업자 집단에서만 나타나는 요인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금융 관리 능력’뿐이다. 즉, 스스로가 돈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지할수록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다는 것인데, 이것이 미취업자 집단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는 것이다.

그 외, 앞서 논의한 ‘공통 요인’ 두 가지(‘폐쇄형’ 금융정체성, 할부 잔액의 부채인지)를 제외한 나머지 영향 요인은 초중고 10대 시기 외부 강사 특강의 금융교육 경험과 지각된 자기통제력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발견된다. 이는 미취업자 집단의 경우, 학교에서 외부 강사 특강으로 금융교육을 접하였던 경험이 금융이해력에 도움이 되며,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금융이해력 수준도 높음을 의미한다.

표 VI-5. 세부 집단별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

변수	전체	세부 집단		
	표준화계수 β (t)	대학생 표준화계수 β (t)	취업자 표준화계수 β (t)	미취업자 표준화계수 β (t)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여성)_남성	-0.039(-1.86)	-0.056(-2.14)*	0.000(0.00)	0.022(0.46)
연령	0.020(0.91)	-0.010(-0.39)	0.147(2.56)*	-0.056(-1.04)
학력	0.018(0.83)			
학제(4년제)_2.3년제		-0.062(-2.29)*		
학력(대졸 이상)_고졸 이하			0.006(0.10)	-0.086(-1.56)
거주지역(서울 외 도시)_서울	0.059(1.89)	0.019(0.44)	0.055(0.82)	0.051(0.84)
거주지역(서울 외 대도시)_그 외 지역	-0.029(-0.92)	0.005(0.13)	-0.046(-0.59)	-0.093(-1.58)
로그 월소득	0.036(1.51)	0.040(1.42)	0.056(0.86)	-0.004(-0.10)
〈초중고 10대 시기 특성〉				
졸업고교유형(일반고)_자율/과학 영재/외국어/예술 체육	0.032(1.77)	0.033(1.43)	-0.013(-0.27)	0.052(1.40)
졸업고교유형(일반고)_마이스터/특성화	-0.040(-1.68)	-0.054(-1.75)	0.032(0.50)	-0.033(-0.71)
졸업고교유형(일반고)_대안/기타	0.003(0.13)	-0.007(-0.18)	0.112(2.70)**	-0.022(-0.52)
주된 성장지역(서울외 대도시)_서울	-0.012(-0.37)	0.023(0.55)	-0.088(-1.22)	0.027(0.44)
주된 성장지역(서울외 대도시)_그 외 지역	0.037(1.15)	0.061(1.45)	-0.057(-0.80)	0.047(0.77)
동아리 활동에서 금융교육 경험(없음) 있음	-0.069(-3.07)**	-0.087(-2.93)**	-0.097(-1.82)	-0.075(-1.47)
외부강사 특강에서 금융교육 경험(없음) 있음	0.065(3.21)**	0.061(2.32)*	-0.029(-0.54)	0.097(2.38)*
부모의 명시적 금융교육	-0.039(-1.68)	-0.057(-2.00)*	0.037(0.53)	0.037(0.71)
학교 외 금융교육 경험(없음) 있음	-0.063(-2.65)**	-0.061(-1.99)*	-0.069(-1.14)	-0.094(-1.82)
10대 시기 저금/예금 보유(없음) 있음	0.048(2.27)*	0.040(1.51)	0.031(0.55)	0.071(1.55)
10대 시기 주식 보유(없음) 있음	0.002(0.09)	0.018(0.66)	-0.037(-0.64)	-0.041(-1.00)
온라인 도박 경험(없음) 있음	-0.050(-2.27)*	-0.106(-3.87)**	0.026(0.43)	0.059(1.34)
휴대폰 결제강/폰테크/소액 대출 경험(없음) 있음	-0.057(-2.66)**	-0.048(-1.65)	-0.168(-2.92)**	-0.001(-0.02)
〈부모 특성〉				
부모와 동거 여부(그 외)_동거	0.036(1.81)	0.034(1.28)	0.070(1.34)	0.039(0.95)
부모 생활상태(그 외)_모두 일함	-0.025(-1.29)	-0.020(-0.77)	-0.066(-1.33)	-0.003(-0.07)
금융업 종사 부모 유무(없음) 있음	-0.042(-2.21)*	-0.014(-0.62)	-0.068(-1.09)	-0.066(-1.36)
부모가 주식,가상화폐투자 여부(아니오)_예	0.060(3.11)**	0.053(2.18)*	0.139(2.75)**	0.024(0.53)
부모 월소득	-0.023(-1.14)	-0.030(-1.21)	-0.079(-1.57)	0.013(0.34)
아버지 학력	0.048(1.94)	0.051(1.56)	0.098(1.80)	-0.011(-0.22)
어머니 학력	0.053(1.92)	0.046(1.26)	0.036(0.61)	0.067(1.26)
〈금융생활실태 특성〉				
부모의 금융사회화	0.060(2.55)*	0.060(1.95)	0.076(1.25)	0.075(1.58)
부모 역금융사회화(없음) 있음	0.033(1.51)	0.003(0.12)	-0.021(-0.36)	0.045(1.03)
도래의 금융사회화	-0.012(-0.61)	0.018(0.70)	-0.098(-1.82)	-0.032(-0.73)

변수	전체	세부 집단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표준화계수 β (t)	표준화계수 β (t)	표준화계수 β (t)	표준화계수 β (t)
도래 역금융사회화(없음)_있음	0.075(3.67)***	0.076(2.75)**	0.092(1.79)	0.039(0.96)
금융정체성(유예형)_확산형	-0.095(-3.95)***	-0.143(-4.52)***	-0.065(-1.32)	0.004(0.08)
금융정체성(유예형)_성취형	0.025(1.19)	0.001(0.04)	0.098(1.78)	0.077(1.75)
금융정체성(유예형)_폐쇄형	-0.114(-4.89)***	-0.064(-2.23)*	-0.204(-3.62)***	-0.157(-3.41)**
금융자신감	0.034(1.19)	0.076(2.12)*	0.017(0.23)	-0.050(-0.87)
주관적 금융관리능력	0.070(2.29)*	0.052(1.31)	0.092(1.13)	0.132(2.34)*
지각된 자기통제력	0.118(4.69)***	0.081(2.49)*	0.098(1.60)	0.156(2.74)**
로그 월 소비지출	-0.053(-2.13)*	-0.085(-2.74)**	0.026(0.43)	-0.034(-0.75)
체크카드 사용여부(아니오)_예	0.080(3.63)***	0.099(3.38)**	0.029(0.44)	0.041(1.29)
모바일페이 사용여부(아니오)_예	0.034(1.59)	0.054(2.03)*	0.026(0.46)	0.010(0.21)
신용카드 사용여부(아니오)_예	0.032(1.66)	0.036(1.48)	0.044(0.85)	0.011(0.29)
할부잔액 부채인지여부(아니오)_예	0.177(8.55)***	0.145(5.65)***	0.128(2.25)*	0.244(5.51)***
휴대폰 소액결제 사용여부(아니오)_예	-0.012(-0.66)	-0.022(-0.90)	-0.023(-0.45)	0.015(0.38)
예금/적금 보유여부(없음)_있음	0.120(5.30)***	0.140(4.63)***	0.047(0.78)	0.046(1.12)
주식/채권/외화 보유여부(없음)_있음	0.120(5.48)***	0.124(4.47)***	0.182(3.20)**	0.093(1.79)
가상화폐/저작권 보유여부(없음)_있음	-0.015(-0.80)	-0.010(-0.39)	-0.085(-1.60)	-0.044(-1.10)
미끼계좌 보유여부(없음)_있음	0.061(3.42)**	0.060(2.68)**	0.141(2.97)*	0.057(1.32)
자축/투자정보 주요 습득경로(그 외)_유튜브 동영상	0.000(-0.02)	-0.020(-0.78)	0.033(0.65)	0.028(0.68)
자축/투자정보 주요 습득경로(그 외)_금융관련 앱	0.056(2.99)**	0.092(3.90)***	0.017(0.29)	-0.023(-0.55)
청년 자산형성 상품 가입여부(비가입)_가입	0.033(1.63)	0.042(1.63)	0.060(1.11)	-0.022(-0.55)
주관적 금융지식	0.048(1.90)	0.046(1.39)	0.030(0.52)	0.013(0.27)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	0.112(5.53)***	0.104(3.86)***	0.098(1.76)	0.193(4.65)***
<대학생 특성>				
전공(그 외)_경영/경제		-0.020(-0.74)		
금융관련 과목 수강 경험(없음)_있음		0.093(3.43)**		
고교졸업 후 금융교육 경험(없음)_있음		0.052(2.25)*		
<취업자 특성>				
로그 급여			0.022(0.40)	
고교졸업 후 금융교육 경험(없음)_있음			0.048(1.03)	
정규직 여부(아니오)_예			0.064(1.17)	
<미취업자 특성>				
미취업기간				-0.017(-0.41)
고교졸업 후 금융교육 경험(없음)_있음				0.059(1.36)
주된 활동(그 외)_구직활동/직업교육/취업준비				0.007(0.19)
N	1,814	1,077	286	451
F	24.78***	15.51***	6.91***	9.54
R ²	0.4216	0.4555	0.5330	0.4687

* 주: 1) 변수의 ()는 준거집단, _되는 더미 항목을 의미함.

2) *** $p < .001$, ** $p < .01$, * $p < .05$

(2) 세부 집단별 주요 요인의 영향력 크기 비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부 집단마다 분석된 영향 요인이 같지 않다.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다거나 영향을 미치는 방향의 측면에서는 같을 수 있으나, 각 요인들의 영향력은 집단별 큰 차이를 보인다. 세 집단에서 보이는 영향 요인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취업자 집단에서 영향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이 대학생 집단과 미취업자 집단은 ‘할부 잔액의 부채 인지’ 요인으로 같지만, 취업자 집단은 ‘폐쇄형’의 금융정체성으로 다르다. 이들 요인을 제외한 각 집단의 상위 요인을 중심으로 영향 요인의 영향력 크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학생 주요 영향 요인의 영향력

가장 영향력이 큰 ‘할부 잔액의 부채 인지’(0.145)에 이어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보이는 요인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확산형’의 금융정체성(-0.143)이다. 취업자 집단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폐쇄형’의 금융정체성은 대학생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력(-0.064)을 보인다. 이어 세 번째로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은 예·적금 보유(0.14)이고, 바로 다음이 주식/채권/외화 보유(0.124)이다. 이들 요인이 정(+)의 영향 요인이나, 다섯 번째로 큰 영향 요인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중·고등학교 시기 온라인도박 경험(-0.10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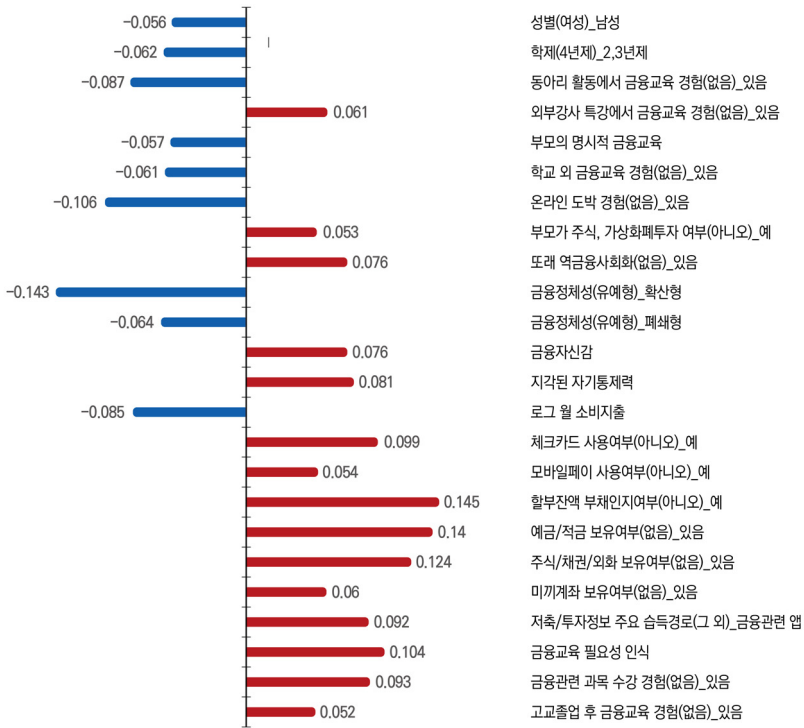


그림 VI-7. 대학생 금융이해력 수준 영향 요인의 영향력 크기 비교

② 취업자 주요 영향 요인의 영향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취업자 집단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폐쇄형’의 금융정체성(-0.204)이다. 취업자 집단의 영향 요인은 모두 상대적으로 영향력의 크기가 다른 집단보다 큰 것이 특징이다.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은 주식/채권/외화 보유(0.182)이고 세 번째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휴대폰 결제강/폰테크/소액 결제 경험(-0.168)이다. 네 번째는 연령(0.147)인데, 연령의 영향력은 대학생 집단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할부 잔액의 부채 인지’보다도 더 크다. 다섯 번째 영향력이 큰 요인은 미끼 계좌 보유(0.14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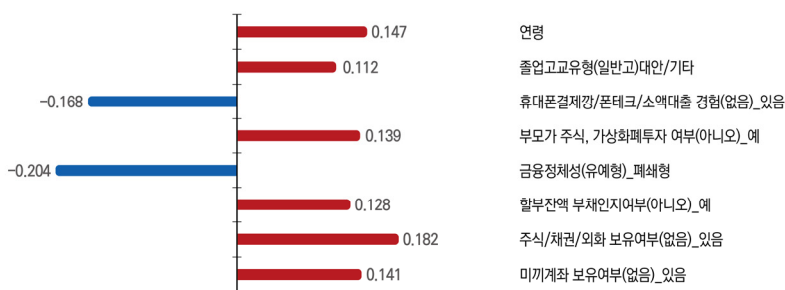


그림 VI-8. 취업자 금융이해력 수준 영향 요인의 영향력 크기 비교

③ 미취업자 주요 영향 요인의 영향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취업자 집단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은 대학생 집단과 같이 '할부 잔액의 부채 인지'(0.244)이다. 그러나 영향력의 크기는 대학생 집단(0.145)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요인은 취업자 집단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폐쇄형'의 금융정체성(-0.157)이고, 취업자 집단의 영향력(-0.204)보다는 작다. 세 번째로 큰 요인은 지각된 자기통제력(0.156)이고, 네 번째는 주관적 금융관리 능력(0.13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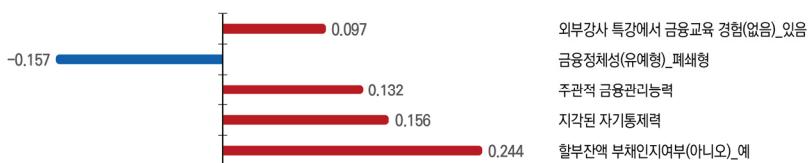


그림 VI-9. 미취업자 금융이해력 수준 영향 요인의 영향력 크기 비교

3. 소결: 주요 결과 및 시사점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본 장에서는 오차항의 이분산성을 보완하는 Robust OLS 모델로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을 세 개의 분석 모델set로 나누어(모델1 set: 금융이해력 총점수 및 구성 3요소, 모델2 set: 성별 집단, 모델3 set: 세부 집단(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분석하였음.
- 3가지 모델set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낮추는 요인과 취약한 집단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단편적인 분석을 통해서는 쉽게 드러나지 않고, 성별이나 현재 상태 등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할 때, 비교적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할 수 있음.
- 모델1 set, 금융이해력 총점수 및 구성 3요소(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점수의 영향 요인 분석 결과, 금융이해력 총점수와 구성의 3요소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주식/채권/외화 보유'가 유일함. 영향 요인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해 보면, '할부잔액의 부채 인지 여부'가 금융이해력과 금융지식 수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며, '지각된 자기통제력'은 금융행위와 금융태도 점수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임.
- 모델2 set,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의 공통 영향 요인 중 '폐쇄형'의 금융정체성만이 부(-)의 영향을 미치고 그 외 공통 요인은 모두 정(+)의 영향 요인. 대체로 남성 집단에서는 경험 요인이, 여성 집단에서는 지식에 기초한 인식 및 태도 요인이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는 경향성이 발견됨.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에 있어서도 여성은 '할부잔액의 부채 인지', 남성은 '주식/채권/외화 보유'로 다르게 나타남.
- 모델3 set, 세부 집단별(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분석 결과, 세 집단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폐쇄형'의 금융정체성(-)과 '할부잔액의 부채 인지'(+) 요인이며, '폐쇄형'의 금융정체성은 취업자 집단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할부잔액의 부채 인지'는 대학생과 미취업자 집단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임.
- 이상과 같은 실증모델 분석의 결과는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금융교육 정책 수립 시, 금융이해력 전반 수준은 물론, 어떠한 측면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하는가에 따라 접근 방식과 내용이 달라야 하며, 교육의 효과성을 고려했을 때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본 장에서는 앞선 제5장에서의 금융이해력 점수 차이 검증을 통해 살펴본 후기청소년의 다양한 측면의 특성들을 포함하여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영향력을 Robust OLS 모델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전체 집단의 금융이해력 및 3개 구성 요소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모델1 set', 전체 집단을 성별을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한 '모델2 set', 세 가지 세부 집단(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으로 나누어 분석한 '모델3 set'이 실증분석 되었다.

이들 실증모델 분석의 결과에는 본 연구의 시작 시점에서 파악하고자 했던 주요 사항, 즉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낮추는 요인은 무엇이고, 이 연령대의 어떠한 특성을 갖는 집단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낮은 금융이해력을 갖는 20대 중에서도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지에 대한 실증 근거를 제공한다. 각 분석에서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를 종합하고, 이에 담긴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증분석 ‘모델1 set’을 통해,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뿐만 아니라 구성의 3요소(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에도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단 하나의 요인이 발견되었다. 그 요인은 바로 ‘주식/채권/외화 보유 여부’이다. 이는 주식이나 채권 또는 외화를 보유하는 후기청소년들이 보유하지 않는 이들에 비해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으며, 금융이해력 수준을 높이는데 핵심이 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3요소(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의 수준을 동시에 높여 금융이해력 전반을 높이고자 할 때, ‘주식/채권/외화 보유 여부’가 핵심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주식/채권/외화 보유 여부’가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 된다는 실증분석의 결과는 우리사회에서 19세~24세 연령대의 후기청소년 또는 20대 초반의 청년의 주식 투자에 대해 갖는 선입견들, 즉 일명 ‘묻지마 투자’나 한 때 주식 열풍에 휩쓸려 하는 투기로만 오인하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데 구체적인 실증 근거를 제공한다.

둘째, 실증모델 분석을 통해 앞선 제2장에서 논의하였던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 두 가지 주요 이론, 즉 금융사회화 이론과 금융정체성 이론이 우리나라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전체 집단과 여성 집단 분석에서 부모의 금융사회화는 금융이해력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생애 발달 측면에서 부모의 금융사회화의 영향은 후기청소년기에 들면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설명되며(Serido, 2022, pp.31-32), 본 장의 실증모델 분석의 결과에서도 그와 다르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가령 부모의 금융사회화의 영향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 틀림 없지만, 그 영향력은 다른 요인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0.06)이다.

이보다 금융사회화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결과는 바로 ‘역사회화’이다. 후기청소년이 부모나 또래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후기청소년이 부모나 또래 친구에게 금융생활의 측면에서 영향을 주는 영향력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언급되거나 실증분석의 결과로서 밝혀진 바가 없다. 본 장의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또래에 대한 역사회화가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에 정(+)의 영향 요인이 되며, 그 영향력 또한 부모의 금융사회화(0.06)보다 높은 수준(0.075)이며, 대학생 집단에서는 이보다 다소 높은 수준(0.076)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또래 친구들에게 금융정보 또는 방법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세대 내 금융이해력을 촉진하는 매개체(mediator) 또는 중계자(agent)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금융정체성의 영향 또한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된 4가지 금융정체성 유형

(확산형, 유예형, 성취형, 폐쇄형) 중 ‘유예형’을 준거로 나머지 3가지 유형을 가변수로 분석하였을 때, 각 분석 모델에서 ‘확산형’과 ‘폐쇄형’의 금융정체성이 후기청소년의 금융 이해력을 낮추는 주요 요인임이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도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이와 같이 돈 관리나 개인의 재정문제에 관심이 없는 ‘확산형’이나 부모의 결정에 따른다는 ‘폐쇄형’의 금융정체성을 갖는 이들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으며, 그것의 영향력이 크다는 결과는 후기청소년의 낮은 금융이해력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 수립에 있어 금융정체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의 실증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확산형’과 ‘폐쇄형’의 정체성을 갖는 이들이 스스로 생애 금융이해력 및 금융역량을 갖추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의 시작점을 다르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 또한 제기한다.

셋째, 초중고 10대 시기의 경험 중 금융교육과 관련된 경험은 경험을 했는지의 여부 그 자체보다 어떠한 내용과 과정의 경험을 했는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본 장의 실증모델 분석 결과에서 동아리 활동을 통한 금융교육의 경험이나 학교 이외의 곳에서 금융교육을 받은 경험이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외부 강사 특강의 경험은 정(+)의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중고 학교를 중심으로 현재 금융감독원이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에 금융교육을 지원·연계하는 ‘1사1교’와 같은 사업을 후기청소년 연령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초중고 10대 시기의 경험과 관련하여 이보다 더 중요한 실증분석의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온라인도박이나 휴대폰 결제깡/폰테크/소액 결제와 같은 부정 경험이다. 중·고등학교 시기 온라인도박 경험은 전체 집단과 남성 집단, 그리고 대학생 집단에서 부(-)의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고, 특히 대학생 집단에서의 영향력(-0.106)은 남성 집단(-0.075)이나 전체 집단(-0.050)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또한 휴대폰 결제깡/폰테크/소액 결제의 경험은 전체 집단과 여성 집단, 그리고 취업자 집단에서 부(-)의 영향 요인이 되는데, 특히 취업자 집단에서의 영향력(-0.168)은 여성 집단(-0.059)이나 전체 집단(-0.057)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낮추는 부(-)의 영향 요인은 초중고 시기의 경험에서부터 형성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고려가 없는 후기청소년을 비롯한 청년 금융이해력 증진 전략은 그다지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현재의 금융생활 특성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있고, 유튜브 콘텐츠가 아닌 금융관련 전문 앱으로 금융정보를 습득하는 일상의 내용이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는 금융지식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금융생활에서 저축과 투자 형태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저축이나 투자의 보유 금액과는 상관없이 금융행위를 하는 이들에 비해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앞선 제4장의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 참여자들이 보고한 경험과 마찬가지로 금융정보를 탐색하고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는 유튜브 콘텐츠가 일차적인 선택 경로가 되지만, 그것은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 그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금융관련 앱을 통한 금융정보의 습득이 금융이해력 수준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다섯째, 각 실증모델 분석에서 도출된 영향 요인의 영향력 크기를 종합해 보면,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몇 가지로 추려진다. 그 중 수렴되는 하나의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할부 잔액의 부채 인지 여부’이다. 이 요인은 전체 집단과 여성집단, 그리고 대학생 및 미취업자 집단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남성 집단에서는 ‘주식/채권/외화 보유 여부’, 취업자 집단에서는 ‘폐쇄형’의 금융정체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다. 앞서 결과 해석 시 간략하게 논의 한 바와 같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할부 결제의 잔액이 부채로 인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금융지식의 측면만이 아니라, 소비지출의 의사결정을 하면서 금융지식과 행위 및 태도의 결합이 인지 여부의 응답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역량이 발휘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이 단순 금융지식과 다른 측면이기에 중요한 것이다.

여섯째,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성별 및 세부 집단의 실증모델 분석에서 몇 가지 정책 개입의 지점과 방법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결과가 발견된다. 그 중 하나는 남성과 여성의 영향 요인의 구성인데, 남성 집단의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은 대체로 ‘경험’ 요인 중심으로 나타나고, 여성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인식 중심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차이는 금융교육 대상의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이 차별적으로 구성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일종의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며, 그러한 접근을 바탕으로 시행되는 금융교육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하나는 본 장의 실증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 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집단의 발견이다. 세부 집단별 분석에서 2·3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이 후기청소년

전체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시작점이 다른 연령대 보다 20대 청년이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고, 그 낮은 20대 중에서도 19세~24세 연령대의 후기청소년이 더 낮다는 점에 있는데,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해보니 금융이해력 수준을 낮추는 부(-)의 영향요인과 함께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금융이해력을 갖는 집단이 발견된 것이다. 이는 가장 취약한 금융이해력 수준을 보이는 2·3년제 대학에 재학하는 남학생들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19세~24세 후기청소년 전체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쉽게 향상된 수치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및 금융역량을 증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수립한다면, 우선 개입이 필요한 지점이자 대상이 2·3년제 대학재학 남학생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본장의 실증모델 분석의 결과가 갖는 함의는 다음 제7장에서 앞선 단계들에서 도출된 사항들과 함께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이자 결과로 요약·논의하고,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향상 또는 증진을 위해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을 체계화하고 구체화하여 제안하는데 실증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제7장 종합논의 및 정책 제언

- 1. 주요 결과의 요약 및 논의
- 2. 주요 실증결과에 기초한 정책
개입의 방향
- 3. 주요 실증결과에 기초한 정책
제언

1. 주요 결과의 요약 및 논의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여기에서는 앞선 제6장의 실증모델 분석을 통해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원인이 되는 영향 요인과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금융이해력을 갖는 집단이 어떠한 특성을 갖는 이들인가에 대한 명확한 실증 근거를 확보하기까지 단계별 추진 내용과 전개의 흐름을 간략하게 요약함.
- 제6장의 실증모델 분석의 결과에 기초한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에 앞서, 앞선 단계들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를 종합하여 요약·논의함.

1) 단계별 연구 추진의 과정

(1) 연구 추진의 흐름

본 연구가 어떠한 과정으로 추진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은 기본적으로 ‘이 연구를 왜 수행했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시작은 OECD가 금융위기를 겪어낸 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 금융이해력의 중요성, 그리고 그와 함께 OECD가 개발·보급한 금융이해력 표준 측정 도구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년 주기로 조사한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의 결과에서 20대가 70대와 같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금융이해력을 갖는다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단순히 20대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본 연구가 수행되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의 2022년과 2024년 결과를 비교했을 때, 20대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에 더하여 2023년 서민금

10) 이 장은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용진흥원에서 수행한 ‘청년금융 실태조사’에서 청년층(19세~34세) 중 19세~24세 연령대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가장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표본은 아니지만,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 측정 척도를 활용하여 초중고 10대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측정한 결과와 2022년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에서 측정된 20대 연령대의 금융이해력 점수를 비교했을 때, 핀테크 기술 발전으로 일찍이 금융생활을 시작한 고등학생의 금융행위 점수보다 20대의 금융행위 점수가 낮다는 점도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실들이 연이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19세~24세 연령대인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이 왜 낮은지에 대한 설명이나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다. 바로 이 지점이 본 연구가 시작되는 지점이며, 실증연구로서 본 연구가 왜 수행되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확보되는 지점이다. OECD가 촉구하는 바에 따라 국가 전략으로서 금융이해력 수준을 높이고, 개인의 높아진 금융이해력이 사회안전망으로 적절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20대 청년,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반드시 끌어올려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의 모색 및 제안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였고,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연구 추진에 필요한 내용과 방법은 시간 흐름 선상에서 앞선 단계에서 도출된 결과가 다음 단계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즉 ‘순차적 통합방법설계(sequential mixed method designs)’의 틀 안에서 총 5단계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구성된 연구의 단계별 내용은 [그림 VII-1]과 같으며, 5단계에 해당하는 본 장을 제외하고, 앞선 1단계~4단계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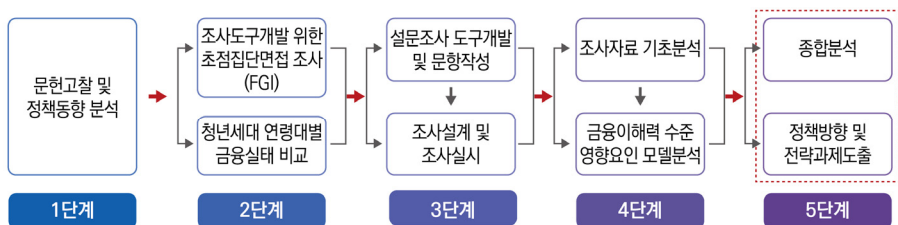


그림 VII-1. 단계별 연구 추진 과정

(2) 단계별 추진 내용 및 주요 결과

① 1단계: 연구 설계 및 기본 이해를 위한 문헌 고찰과 정책자료 검토·분석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어떠한 측면에서 이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는지 그 논리의 근거와 기본 이해를 갖기 위한 문헌 고찰과 정책자료에 대한 검토·분석이 이루어졌다. 기본적으로 금융이해력의 개념 및 생애 전환기로서 후기청소년시기에 금융이해력을 갖추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 이론 중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이론과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난 영향 요인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금융이해력이 정책 측면에서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주목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그간 발표된 정책자료들을 통해 확보하였다.

문헌 고찰과 정책자료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은 비단,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설계하는 시작 단계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설계된 각 단계의 연구 내용을 추진하면서 조각 상태의 정보를 누적하여 집적하고, 유사 정보를 최신 정보로 변경하면서 재분류하는 등 연구의 마무리 단계까지 계속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6월에 출범한 새 정부 국정과제 및 국회 발의 제정 법률안까지 검토하여 연구에 답을 수 있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에 제시하였다.

• 실시 목적	(문헌고찰) 구체적인 연구 내용 및 방법의 구성 (정책자료) 정책동향 파악, 설문조사 문항 개발에 반영 및 정책 제언의 기초자료 확보
• 검토 범위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 및 선행 실증연구 최근 10여 년간 금융이해력 증진 관련 정부 정책 동향 연구 진행 과정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 및 새 정부 국정과제
• 검토 자료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보도 자료 및 정책 계획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관계 법령 및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록 발의 법안 국정운영위원회 발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 주요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OECD/INFE에서 정립한 금융이해력의 개념 및 개념을 적용한 측정 방식을 OECD 표준 측정 가이드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2년 주기로 측정하는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 최근 결과를 통해 파악함. ② 19세~24세 연령대의 생애 전환기 특성을 고려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 주된 이론으로 금융사회화 이론 및 금융정체성 이론 발견 및 고찰 ③ 최근 10여 년간 정부의 청년 대상 금융지원은 세 가지(①채무조정 및 대출 지원, ②목돈마련 및 자산 형성, ③맞춤형 금융교육) 순으로 발전해 왔음.

② 2단계: 조사 도구 개발을 위한 후기청소년 FGI 및 2차 자료 검토

문헌 고찰 및 정책자료 검토·분석된 결과에 더하여 두 번째 단계에서는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 및 영향력 파악에 필요한 조사 도구 마련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앞선 첫 번째 단계에서 고찰하고 검토된 문헌 자료만으로는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금융생활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담아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2차 자료를 통해 후기청소년 금융생활의 개략적 윤곽(outline)을 파악하였고,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통해 19세~24세 후기청소년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금융생활에 대한 생생한 경험 실재를 청취하였다. 19세~24세 연령대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항목을 측정한 2차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고, 가용할 수 있는 원자료 또한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연령대별 금융자산과 신용평가사 DB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카드 사용 및 대출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후기청소년의 금융생활의 규모와 행태에 대한 윤곽을 파악하였다.

또한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통해서는 후기청소년 세대가 공통으로 갖는 몇 가지 특성(주식 열풍과 핀테크 서비스도 비껴간 세대 등)과 문헌 고찰만으로는 파악될 수 없었던 ‘역금융사회화’ 및 중·고등학교 시기의 ‘온라인도박’과 같은 부정 경험의 영향, 마케팅 ‘미끼 제작’에 대한 높은 민감도, 저축과 투자 경험으로 나타나는 변화(금융이해력)와 ‘효능감’은 투자 경험으로, ‘자기통제력’은 지출 관리와 저축으로 향상)와 세대 내 격차(온라인도박과 같은 ‘투기’ vs 미리 필요 역량을 갖춰 놓기 위한 ‘연습’)등이 여과 없이 포착되었다.

• 실시 목적	조사도구 개발 및 문항 작성을 위한 후기청소년 금융생활 특성 및 현황 파악
• 분석 범위	(FGI) 후기청소년 금융생활 및 금융서비스 이용 경험, 금융교육 경험, 금융이해력 필요성 (2차 자료) 청년 연령대별 자산 및 부채, 소비지출, 카드사용 및 대출
• 분석 자료	(FGI) 후기청소년 16명 대상 FGI 녹취 및 전사 자료 (2차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제공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자산 및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2024년 청년금융 실태조사’ 신용평가사 DB 분석 자료
• 주요 발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절대 규모는 작지만, 연평균 540만 원 정도의 금융자산과 271만 원의 부채 보유하고, 19.8%가 대출 경험, 대출 자 중 다중채무자 비율 12.1%, 연체 비율 5% 미만 ② 19세~24세가 공통으로 갖는 세대 특성 있으며, 노동 경험을 통해 돈 관리 필요성 체감, 부모보다는 또래 영향이 다수 발견되는데, 저축 및 투자 경험을 통해 효능감과 함께 자기통제력에 대한 인식 형성, 10대 부정 경험 영향과 세대 내 격차 발견

③ 3단계: 조사 도구 개발 및 설문조사 실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선 단계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여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금융 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조사 도구를 마련하였다. 조사 도구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는데, 하나는 금융이해력 수준 측정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금융생활실태와 응답자 특성 부분이다.

금융이해력 수준은 제2장에서 검토한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의 문항 구성을 준용하고, 구체적인 문항 기술은 2023년에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실태를 조사한 선행 연구(김지경 외, 2023)의 조사표 문항을 사용하였다. 그 외 금융생활실태 부분은 제2장의 선행 연구, 제3장의 정책동향, 그리고 제4장의 2차 자료 및 초점집단면접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7개의 영역(①금융사회화, ②금융정체성 및 주관적 자기 신념, ③소비지출 및 카드 사용, ④저축 및 투자, ⑤대출 경험 및 부채, ⑥정부지원 상품 가입, ⑦주관적 금융지식 수준 및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으로 구성하였고, 응답자 특성은 3개 영역(①사회인구학적 특성, ②10대 시기 경험 특성, ③부모 관련 특성)으로 구성하고 문항을 개발·작성하였다. 개발·작성된 조사 도구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후기청소년이 참여하는 검토를 단계적으로 거치며 수정·검토하는 과정을 반복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조사 도구를 활용한 자료의 수집은 온라인 실태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온라인 조사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서도 여러 단계의 검토 및 수정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의 표본은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이 부재하여 할당표집으로 표본을 구성하였고, 할당의 기준은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통계청, 2024.07.16.)의 청년 연령대 별 수학 상태 및 취업 상태를 활용하였다. 목표 표본수 1,800명을 설정하여 조사하였고, 온라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최종 1,814명의 자료를 분석 자료로 확보하였다.

• 실시 목적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 도구 마련 및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주요 내용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실태조사’ 조사 문항 개발 및 작성 19세~24세 청소년 1,800명 표본 확보를 목표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실시 결과	<p>① 금융이해력(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금융생활실태(①금융사회화②금융정체성 및 주관적 자기 신념, ③소비지출 및 카드 사용, ④저축 및 투자, ⑤대출 경험 및 부채, ⑥정부지원상품 가입, ⑦주관적 금융지식 수준 및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 응답자 특성(①사회인구학적 특성, ②10대 시기 경험 특성, ③부모 관련 특성)으로 조사도구 구성</p> <p>② 목표 표본 1,800명 설정, 조사 결과 총 1,814명 응답 표본 확보(대학생 1,077명, 취업자 286명, 미취업자 451명)</p>

④ 4단계: 설문조사 자료 기초 분석 및 실증모델 분석

네 번째 단계에서는 온라인 조사를 통해 확보된 1,814명의 자료를 분석 자료로 기초 분석 및 응답자 특성 등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를 산출하고 그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두 가지 검정 통계(t-test, GLM-test)로 분석하였다. 또한 차이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영향 요인들의 영향력을 실증모델 분석에서 함께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기초 통계분석으로 산출된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100점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68.71점(금융지식 68.35점, 금융행위 70.76점, 금융태도 66.04점)이며, 세부 집단별(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로 비교해 보았을 때, 미취업자 집단(금융이해력 66.16점, 금융지식 65.21점, 금융행위 67.95점, 금융태도 65.08점)이 전반적으로 평균 점수를 밑도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성별 차이 검증을 거쳐 실시한 실증모델 분석은 다양한 측면에서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발견하기 위하여 크게 3개의 '모델 set'(전체, 성별, 세부 집단별)을 구성하고, 이분산성의 문제를 보완하는 Robust OLS 모델로 분석하였다.

실증모델 분석 결과,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을 높이는 방향 또는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수 발견되었고, 그중 금융이해력과 금융이해력 구성의 3요소(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과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이 무엇인지도 확인되었다. 무엇보다도 후기청소년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금융이해력을 갖는 취약 집단이 2·3년제 대학 재학 남학생이라는 것과 금융이해력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금융정체성이라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보다 상세한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에서 별도로 요약하였다.

• 분석 목적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의 영향 요인 및 영향력 파악
• 분석 범위	응답자 특성 및 금융 생활 특성 세부 집단(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비교 분석 응답자 특성에 따른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 검증 금융이해력 수준 영향 요인 및 영향력 크기 비교(전체, 성별, 세부집단별 모델 분석)
• 분석 자료	설문조사 참여 1,814명의 응답 자료
• 주요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산출된 금융이해력 수준은 전체 평균 68.71점, 미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보임. ❷ 응답자 특성 및 금융생활 특성에 따라 금융이해력 점수의 차이가 상당함. ❸ 실증모델 분석을 통해 금융이해력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수 발견되었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 가장 취약한 집단 및 금융이해력을 낮추는 주된 요인 발견함.

2) 실증분석 주요 결과

(1)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특성별 차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측정된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100점 환산 기준 68.7점이다. 이를 금융이해력을 측정한 유관 조사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점수 수치가 다소 높다. 물론, 측정하는 조사 내용이 같을지라도 조사 시점과 표집 방법을 비롯한 조사 방법 등이 달라 수치 비교에 따른 차이 등을 의미 있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 경향성에 정도는 비교해 볼 수 있다.

금융지식 점수는 2022년과 2024년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의 20대 평균 점수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점수가 확실히 낮다. 금융행위 점수는 다소 높지만, 2023년에 측정한 고등학생의 점수보다는 다소 낮은 반면, 금융태도의 점수는 높아 현재보다는 미래의 저축을 고등학생보다는 더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Ⅶ-1.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점수: 기존 유관 조사 결과와 비교

(단위: 점)

구분	금융이해력	구성 3요소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22 국민 금융이해력조사 20대 연령층 점수	65.8	74.9	66.2	52.4
'24 국민 금융이해력조사 20대 연령층 점수	62.6	73.3	59.5	53.7
'23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실태 고등학생 점수	67.2	74.4	71.6	44.4
본 연구 19세~24세 후기청소년 점수	68.7	68.3	70.7	66.0

* 출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2023.03.30.). 「2022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p.14.
금융감독원, 한국은행(2025.04.29.). 「2024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pp.6~9.
김지경 외(2023).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 p.127.

* 주: 100점 환산 점수, 소수 첫째 자리까지 제시.

본 연구에서 측정된 금융이해력 점수를 세 가지 세부 집단(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기청소년 전체 평균 점수에 비해 대학생과 취업자는 웃돌고, 미취업자는 전반적으로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산출된 금융이해력 점수를 금융이해력 구성의 3요소(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측면에서 각각 비교해 보아도

미취업자의 점수가 가장 낮다. 따라서 후기청소년 중 미취업자가 상대적으로 금융이해력 전반의 점수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전체 평균으로부터 점수 차이(3.1점)가 가장 큰 것은 대학생(69.5점)에게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금융지식이다. 이는 미취업 상태에 있는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금융지식부터 채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Ⅶ-2. 세부 집단별 금융이해력 점수 비교

(단위: 점)

구분	금융이해력	구성 3요소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전체	68.7	68.3	70.7	66.0
대학생	69.4	69.5	71.5	66.0
취업자	69.8	68.6	72.2	67.0
미취업자	66.1	65.2	67.9	65.0

* 주: 100점 환산 점수, 소수 첫째 자리까지 제시.

한편, 응답자 특성 및 금융생활 특성별 금융이해력 점수 차이 검증에서 다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응답자 특성에 따라서는 측정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10대 시기 특성, 그리고 부모 관련 특성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로는 ①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②서울 지역 거주자가 서울 외 대도시나 그 외 지역 거주자보다, ③(대학생) 금융 관련 과목의 수강 경험이 있는 경우, ④(미취업자) 진학 또는 취업 준비자의 금융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초중고 10대 시기 특성으로는 ①자율고 졸업자, ②금융정보를 탐색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금융이해력이 높고, 온라인도박이나 휴대폰 결제깡 등의 부정 경험이 있는 경우는 낮다. 부모 관련 특성에 따라서는 ①부모가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경우, 월평균 소득수준이 800만원~1,000만 원 구간일 때, 그리고 부의 학력 수준이 높을 때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금융생활 특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중 하나는 ①부모나 또래에 의한 금융사회화에 더하여 부모나 또래를 대상으로 후기청소년이 금융사회화의 주체가 되는 ‘역사회화’가 발견되었다. 즉, 부모나 또래 친구에게 금융에 대해 명시적으로 배운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암묵적으로 배우거나

어떠한 것도 배운 경험이 없는 이들에 비해 높다. 또한 부모나 또래 친구에게 금융에 대해 알려준 경험이 있는 후기청소년이 상대적으로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②금융정체성 유형(성취형(14.58점/20점)→유예형(13.80점/20점)→폐쇄형(11.47점/20점)→확산형(10.92점/20점))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 차이가 뚜렷하게 관찰되고, 주관적 자기 신념(금융자신감, 주관적 금융관리 능력, 지각된 행동 통제력) 수준이 높을수록 금융이해력 수준도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③소비지출 금액이 많을수록 금융이해력 수준은 낮고, 카드 사용 및 할부거래에 따른 잔액이 부채 인지의 여부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른 금융이해력 차이가 큰 것으로 발견되었다. ④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는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는데, 특히 대학생과 취업자 집단에서 주식(대학생(15.10점/20점), 취업자(15.13점/20점), 가상화폐(대학생(15.11점/20점), 취업자(15.02점/20점), 외화(대학생(15.07점/20점))에 투자하는 이들의 점수가 상위 수준이다. 그 외,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정부 지원 자산형성 상품에 가입한 이들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다는 것 또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차이가 다른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영향 요인이 되는지, 실증모델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2)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의 주요 영향 요인

제6장의 실증모델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의 영향 요인과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의 영향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실증모델 분석에서는 부(-)의 영향 요인보다 더 많은 수의 정(+)의 요인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빠르게 향상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정(+)의 요인에 대한 대응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부(-)의 요인에 대한 대응이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각 실증모델에서 발견된 정(+)의 영향 요인을 모아 제시한 <표 VIII-3>을 살펴보면, 분석 대상 집단에 상관없이 어느 집단에서든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정(+)의 요인은 딱 하나, '할부 잔액의 부채 인지 여부'이다. 이는 앞서 제6장의 실증모델 분석 결과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할부 잔액이 부채임을 알고 있는지, 그 인지 여부가 금융이해력 수준을 높이는 데 핵심 요인이라는 의미이다.

표 VII-3. 각 실증모델에서 분석된 정(+)의 영향 요인 종합

영향 요인	전체	성별 집단		세부 집단		
		남성	여성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령					○	
거주지역(서울 외 대도시)_서울			○			
〈초중고 10대 시기 특성〉						
졸업고교유형(일반고)_대안/기타					○	
외부강사 특강에서 금융교육 경험(없음)_있음	○		○	○		○
10대 시기 적금/예금 보유(없음)_있음	○					
〈부모 특성〉						
부모가 주식,가상화폐투자 여부(아니오)_예	○	○		○	○	
아버지 학력			○			
〈금융생활실태 특성〉						
부모의 금융사회화	○		○			
도래 역금융사회화(없음)_있음	○		○	○		
금융자신감				○		
주관적 금융관리능력	○		○			○
지각된 자기통제력	○	○	○			○
체크카드 사용여부(아니오)_예	○	○	○	○		
모바일페이 사용여부(아니오)_예				○		
신용카드 사용여부(아니오)_예		○				
할부 잔액 부채 인지 여부(아니오)_예	○	○	○	○	○	○
예금/적금 보유여부(없음)_있음	○	○	○	○		
주식/채권/외화 보유여부(없음)_있음	○	○	○	○	○	
미끼계좌 보유여부(없음)_있음	○	○	○	○	○	
저축/투자정보 주요 습득경로(그 외)_금융관련 앱	○			○		
청년 자산형성 상품 가입여부(비가입)_가입		○				
주관적 금융지식			○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	○	○	○	○		○
(대학생) 금융관련 과목 수강 경험(없음)_있음				○		
고교졸업 후 금융교육 경험(없음)_있음				○		

또 다른 측면, 즉 영향 요인의 영향력 측면에서도 ‘할부 잔액의 부채 인지’ 여부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다. <표 VII-4>에 제시된 각 실증모델에서의 주요 영향 요인의 영향력 상위 5순위를 살펴보면, ‘할부 잔액의 부채 인지’ 여부는 전체 집단과 여성 집단, 그리고 대학생과 미취업자 집단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으로 1순위에 위치한다. 이는 앞서 제6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단순히 금융지식의 측정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그 지식의 내용을 실제의 생활 속에 적용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가 금융이해력 수준을 높이는데 핵심이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VII-4. 주요 영향 요인의 영향력 크기: 상위 5순위

순위	전체	성별		세부 집단		
		남성	여성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1	할부 잔액 부채 인지 (0.177)	주식/채권/외화 보유 (0.170)	할부 잔액의 부채 인지 (0.204)	할부 잔액의 부채 인지(0.145)	금융정체성_폐쇄형 (-0.204)	할부 잔액의 부채 인지(0.244)
2	예·적금 보유(0.120)	예·적금 보유(0.151)	금융정체성_폐쇄형 (-0.138)	금융정체성_확산형 (-0.143)	주식/채권/외화 보유(0.182)	금융정체성_폐쇄형 (-0.157)
	주식/채권/외화 보유(0.120)					
3	지각된 자기통제력 (0.118)	지각된 자기통제력 (0.134)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 (0.122)	예·적금 보유 (0.140)	휴대폰 결제강/폰테크/소액결제 (-0.168)	지각된 자기통제력 (0.156)
4	금융정체성_폐쇄형 (-0.114)	할부 잔액의 부채 인지 (0.13)	주관적 금융 관리능력 (0.108)	주식/채권/외화 보유(0.124)	연령 (0.147)	주관적 금융 관리능력 (0.132)
5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 (0.112)	금융정체성_확산형 (-0.112)	거주지역_서울 (0.100)	온라인 도박 경험(-0.106)	미끼 계좌 보유 (0.141)	-

* 주: 계수 값 0.1 이상 5순위까지 제시

그 외, ‘주식/채권/외화 보유 여부’나 마케팅 ‘미끼 계좌의 보유 여부’와 같은 요인도 미취업자 집단을 제외한 다수의 집단에서 공통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다. 제5장의 차이 검증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식/채권/외화 보유자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대학생과 취업자 집단에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금융이해력 점수를 보였고, 실증모델 분석의 결과에서도 전체 집단과 취업자 집단에서는 2순위로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 집단에서도 4순위의 영향력을 갖는다. 이는 앞서 제5장의 소결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후기청소년의 주식 투자가 주식 열풍에 휩쓸려 하는 일명 ‘묻지마 투기’ 행위로만 오인한다거나 그러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한편, 경험 지식의 측면에서 ‘주식/채권/외화 보유 여부’가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제4장의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 포착된 금융상품 마케팅에 의한 ‘미끼 계좌’ 보유가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쉽게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요인의 영향력이 <표 VIII-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취업자 집단에서 5순위로 위치할 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이다. 이는 계좌 개설을 유도하고 신규 가입자 모집을 위한 미끼 상품의 혜택에 대한 민감도가 후기청소년 중에서도 취업자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각 실증모델에서 발견된 부(-)의 영향 요인을 모아 제시한 <표 VIII-5>를 살펴보면, 여기에서도 분석 대상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공통으로 발견되는 요인이 딱 하나 발견되는데, 그것은 바로 ‘폐쇄형’ 금융정체성이다. 앞선 제5장과 제6장에서 금융정체성의 유형 4가지(확산형, 유예형, 성취형, 폐쇄형)가 무엇이고, 각각의 금융이해력 점수 수준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기초 분석의 결과와 실증모델의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설명된 바와 같이, ‘폐쇄형’ 금융정체성은 자신에게 맞는 돈 관리 방법 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른다는 생각을 갖는 유형이다. 돈 관리 방법과 개인 재무 문제에 관심이 없는 ‘확산형’의 유형도 남성 집단(5순위)과 대학생 집단(2순위)에서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요인이지만, ‘폐쇄형’은 전체 집단(4순위)과 여성 집단(2순위), 미취업자 집단(2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략에 있어 금융정체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고, 어떠한 유형의 금융정체성을 갖느냐에 따라 금융교육의 시작점이 달라야 함을 시사한다.

이론적 측면에서 금융정체성은 금융사회화와 더불어 제2장에서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 주된 이론으로서 고찰된 바 있다. 이론의 증명 측면에서 실증모델 분석의 결과를 본다면, 부모의 명시적 교육이나 생활을 통한 암묵적 금융사회화는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에 여전히 정(+)의 영향 요인이 되지만, 그 영향력(0.060)은 크지 않다. 이는 생애 발달 관점의 금융사회화 이론의 설명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우리나라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 데 금융사회화 이론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실증모델 분석의 결과에 기초한다면, 금융사회화 이론보다는 앞서 논의한 금융정체성 이론이 더 강한 설명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의 영향 요인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대학생 집단에서만 나타난 사회인구학적 특성 2가지, 즉 성별과 학제 요인이다. 앞서 제6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3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이해력을 갖는다는 결과인데, 이는 이들이 낮은 금융이해력을 갖는 후기청소년 중에서도 더 낮은 금융이해력을 갖는 취약 집단임을 의미한다. 더불어 이들에게 중·고등학교 시기 ‘온라인도박’ 경험이 있다면, 금융이해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조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Ⅶ-5. 각 실증모델에서 분석된 부(-)의 영향 요인 종합

영향 요인	전체	성별 집단		세부 집단		
		남성	여성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세부 집단(대학생)_미취업자			○			
성별(여성)_남성				○		
학제(4년제)_2,3년제				○		
〈초·중·고 10대 시기 특성〉						
동아리 활동에서 금융교육 경험(없음)_있음	○	○		○		
학교 외 금융교육 경험(없음)_있음	○		○	○		
부모의 명시적 금융교육				○		
온라인도박 경험(없음)_있음	○	○		○		
휴대폰 결제강/폰테크/소액 대출 경험(없음)_있음	○		○		○	
〈부모 특성〉						
금융업 종사 부모 유무(없음)_있음	○					
〈금융생활실태 특성〉						
금융정체성(유예형)_확산형	○	○	○			
금융정체성(유예형)_폐쇄형	○	○	○	○	○	○
로그 월 소비지출				○		

그렇다면, 후기청소년의 전반적으로 낮은 금융이해력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취약한 2·3년제 대학에 재학하는 남학생들부터 적극적인 금융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이 같은 결과는 현시점에도 온라인도박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회복적 조치뿐만 아니라 예방적 단계에서 금융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 다른 대학생 집단에서만 부(-)의 영향 요인으로 나타난 월소비 지출의 경우, <표 VII-4>의 전체 집단 기준 3순위의 영향력을 갖는 ‘지각된 자기통제력’과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제6장의 실증모델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대학생 집단의 ‘지각된 자기통제력’의 영향력(0.081)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상위 5순위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제5장의 차이 검증에서 월평균 지출 금액이 많을수록 금융이해력 점수가 낮고, 특히 월평균 2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집단의 금융이해력이 가장 낮다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대학생 집단의 경우 ‘지각된 자기통제력’ 수준이 향상된다면 소비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기에 금융행위 측면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후기청소년의 세부 대상별로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전략과 개입의 지점이 달라야 빠르게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본 연구의 실증분석으로 얻은 주요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제시하면 [그림 VII-2]와 같다.

실증분석	주요 결과
기초 분석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세~24세 청소년의 현재 상태를 '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준용, 세 개의 집단(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으로 비례 할당하여 총 1,814명의 응답 표본 수집 각 군별별 응답 내용의 빈도 및 비율, 평균 및 표준편차 값을 산출하고,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의 금융 이해력 측정 및 점수 산정 방식에 따라 금융이해력 점수 산출 응답자 특성 및 금융 생활 특성별 산출된 금융이해력 점수 차이를 검증함.
	기초통계 및 차이 검증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8.71점(금융지식 68.35점, 행위 70.76점, 금융태도 66.04점) ② 금융지식 측정 항목 중 '이자 개념의 이해(78.67점)' 항목 점수가 가장 높고, '복리 개념의 이해(33.24점)'가 가장 낮으며, 금융행위 항목에서는 '평소 재무상황 점검(91.73점)'이 가장 높고, '적극적인 저축 활동(57.17점)'이 가장 낮음. ③ 성별에 따른 금융이해력 점수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세부 집단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한데, 취업자(69.80점)-대학생(69.49점)-미취업자(66.16점) 순으로 점수가 높음. ④ 응답자 특성별 금융이해력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미취업자의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수가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아지는 등 세부 집단의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 다수 발견 ⑤ 초중고 10대 시기의 경험 특성과 부모 특성에 따라 금융이해력 점수 차이가 있고, 현재 금융생활 경험이나 의식 및 태도에 따라서도 금융이해력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함.
실증모델 분석	분석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이해력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초중고 10대 경험 특성, 부모 관련 특성, 현재의 금융생활 특성을 설명변수로 하는 선형회귀모델로 분석 단, 선형회귀분석 적용 시 갖춰야 하는 기본 가정 중, 오차항이 동분산이 아닌 이분산(heteroscedasticity)으로 확인되어 이를 보정할 수 있는 'Robust OLS' 모델을 분석모델로 선정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은 취약 집단 발견을 위해 다각적 접근, 실증모델을 크게 세 가지 SET(①금융이해력 및 구성 3요소, ②성별 금융이해력, ③세부 집단별 금융이해력)을 구성하여 분석
	모델1 SET: 금융이해력 및 구성 3요소 영향 요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금융이해력 총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금융이해력 구성 3요소의 영향 요인은 제각기 달라, 동일한 요인으로 금융이해력 수준과 구성 3요소를 설명할 수 없음. ②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은 초중고 10대 시기 경험, 부모 특성, 현재의 금융생활 특성 모두가 복합적으로 작용 하나,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은 '할부잔액 부채인식'으로 단순 정보성 금융지식이 아닌, 실생활에 금융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이 금융이해력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 ③ 10대 시기 온라인 도박이나 휴대용 결제장과 같은 부정 경험은 후기청소년이 금융이해력을 낮추는 요인 ④ 부모의 금융사회화의 영향은 영향력이 크지는 않으나 20대 초반에도 여전히 통계적 유의미성이 있음. ⑤ 금융정체성(폐쇄형) 및 자기 신념이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임. ⑥ 현재 금융저축생활을 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해력을 가지며, 금융교육의 필요성 인식도 높음.
	모델2 SET: 성별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여성은 '할부잔액 부채인식', 남성은 '주식,채권,외화' 보유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 결과적으로 여성은 금융지식과 인식 요인이, 남성은 금융행위 요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임. ② 성별 각기 다른 요인이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 동일 요인으로 남성과 여성의 금융이해력 설명 불가로,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설명이나 금융 교육 시 성별 집단의 주요 영향 요인 고려가 필요함. ③ 부모의 금융사회화와 역사사회화는 여성에게만 발견되나, 금융앱사용과 청년자산형성 지원 상품에 따른 영향은 남성에게서만 발견됨.
	모델3 SET: 세부집단별 금융이해력 영향 요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3년제 대학재학 남성이 더 낮은 금융이해력을 갖는 취약 집단으로 발견됨. ② 대학생의 10대 시기 온라인 도박 경험, 취업자의 휴대용 결제장 경험은 금융이해력을 낮추는 요인 ③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가 금융이해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④ 부모사회화의 영향은 없으나 부모의 주식 등 투자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⑤ 대학생과 미취업자의 경우 '할부잔액 부채인지'의 정의 영향력이 가장 크나, 취업자의 경우 폐쇄형의 금융 정체성의 부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⑥ 세 집단의 영향 요인은 동일하지 않아 성별과 더불어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접근은 현재 상태를 중심으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그림 VII-2. 실증분석 주요 결과 요약

2. 주요 실증결과에 기초한 정책 개입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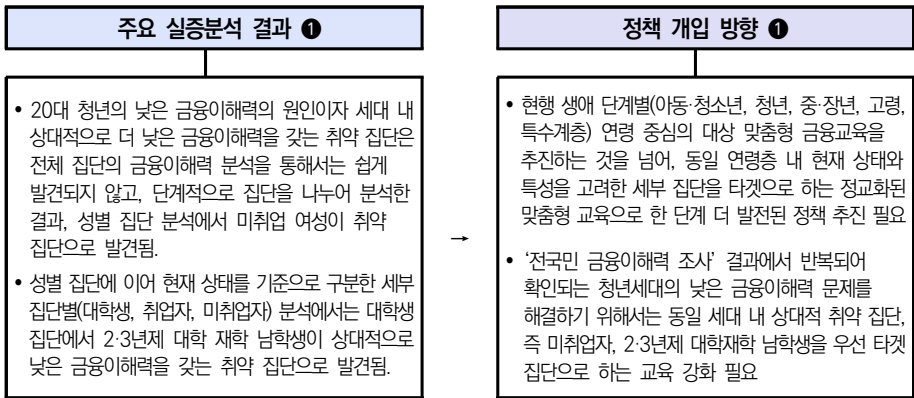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여기에서는 앞서 요약 논의된 실증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개입의 지점이자 방향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도출함.

- ① 취약 집단 우선 맞춤형 금융이해력 증진
- ② '금융정체성' 탐색에서 시작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
- ③ 금융이해력 수준을 낮추는 10대 청소년기 부정 경험 영향의 완화
- ④ 세대 간 및 세대 내 격차 완화를 위한 금융교육정책 수립 기반의 강화

1) 취약 집단 우선 맞춤형 금융이해력 증진

앞서 요약 논의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기에서는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입의 지점이자 방향을 네 가지로 압축하여 제시하였다. 그 첫 번째는 금융교육 대상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데 있어 현행과 같은 연령층 접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동일 세대 또는 연령층 내에서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집단을 발굴하고, 그 취약 집단의 금융이해력을 우선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지원 정책 추진이다.



20대 청년층의 금융이해력이 다른 성인 연령층에 비해 낮고, 그중에서도 20대 초반인, 19세~24세 후기청소년 연령대가 더 낮다는 지점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해 후기청소년 중에서도 미취업자와 2·3년제 대학재학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금융이해력을 갖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제3장의 정책 동향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현행 금융교육 정책은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대상자를 구분(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 특수계층)하고, 대상자별로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이 연계하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 청년층 대상의 금융교육은 대학생의 경우 대학 내 ‘실용금융’ 과목의 개설 지원(금융감독원, 2025.06.04.)을 한다거나,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성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지원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추진되는 것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어떠한 특성을 갖는 이들에게 무엇부터 제공해야 전반적인 금융이해력이 향상될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증자료가 이제까지 부족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지원 금융정책에서 금융교육 정책은 2021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금융교육협의회를 통해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한 지 몇 해 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전반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가장 낮은 금융이해력 수준을 보이는 취약 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실증 기반으로 제안한다.

2) ‘금융정체성’ 탐색에서 시작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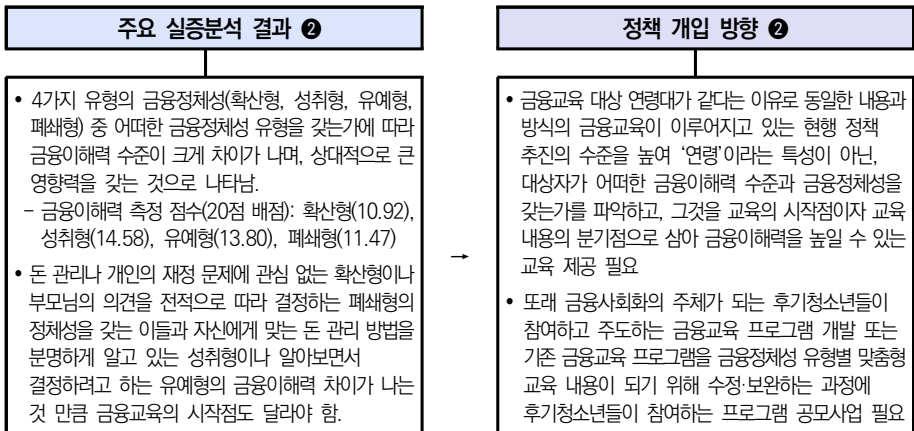
두 번째 정책 개입의 방향은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선과 관련된 사항이다. 앞서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서 논의한 바와 같이,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금융정체성’ 이론이다. 연령 중심으로 접근하는 현행 금융교육과 금융교육 콘텐츠, 그리고 전달하는 방식은 대체로 그 기준이 연령발달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기초 통계부터 단계적으로 분석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의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바와 같이, 연령발달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금융정체성’이라는 점이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되었다. 즉, 돈 관리나 개인의 재정문제에 관심이 없는 ‘확산형’과 부모님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는 ‘폐쇄형’의 금융정체성을 갖는 후기청소년에게는 금융교육의 시작점이 나에게 맞는 돈 관리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성취형’이나 알아가면서 결정하려는 ‘유예형’과 같을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 대상 금융교육의 시작은 금융정체성을 탐색하고, 그에 따라 금융정체성 유형별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금융이해력 향상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다른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금융교육 방법과 관련된 사항이다. 현행과 같이 금융감독원이 주관기관으로서 금융교육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하는 방식을 넘어 다른 효과적인 교육 형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후기청소년들이 부모의 금융사회화나 또래의 영향을 받는 것을 넘어 부모와 또래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사회화’의 주체가 되고, 그것이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제4장의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또래 친구들의 영향으로 적극적인 금융 생활을 경험하고, 제5장과 제6장의 실증분석을 통해 또래 친구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들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금융교육 강사를 통한 교육 방식 이외, 당사자들이 또래 집단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후기청소년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청년 당사자들의 정책 참여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 자리를 할당한다거나, 주요 정책의제를 다루는 일에 참여하는 것에만 있지 않으며, 또한 그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 효능감 높은 청년 당사자의 정책 참여는 그들의 일상과 세대의 관심이 모이는 곳에서 참여의 기회가 주어질 때, 그에 따른 정책 참여의 효능감이 발현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이 참여하여 개발하는 금융이해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또는 기존 프로그램 사업들의 개선을 실증자료에 기초하여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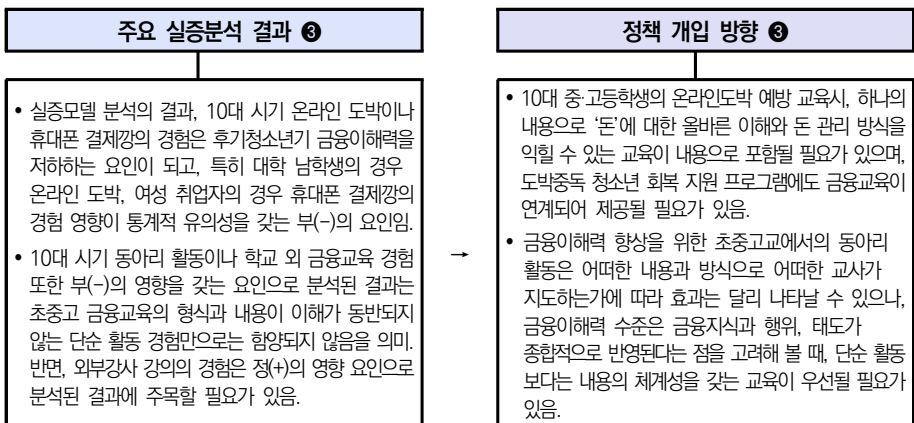
3) 금융이해력 수준을 낮추는 10대 청소년기 부정 경험 영향의 완화

세 번째 방향은 후기청소년의 낮은 금융이해력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비단, 현재 시점에서 발생하여 드러나는 특성만이 아니라는 점과 관련된 사항이다. 즉, 오늘의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나는 10대 청소년 시기의 경험까지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중·고등학교 시기에 ‘온라인도박’이나 ‘휴대폰 결제깡/폰테크/소액결제’와 같은 부정 경험은 현시점의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이는 국가정책으로서의 금융교육 정책이 금융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부 정책의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수립되기보다, 교육정책 대상자의 시간 연속선상의 삶의 과정을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쉽게 금융교육과 청소년의 온라인도박 또는 휴대폰 결제깡/폰테크/소액결제가 무슨 관련성이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으나, 온라인도박 등의 경험은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저하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은 실증 근거로 분명하게 확인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0대 청소년 온라인도박 예방 및 회복 지원 프로그램에 금융교육이 보다 강화되어 연계될 수 있는 방향의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러한 정책 연계를 제안한다.

한편, 초중고 10대 시기의 금융교육은 내용과 교육 목적이 분명한 교육활동으로 이루어질 때만 금융이해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또한 확인되었기에,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사업의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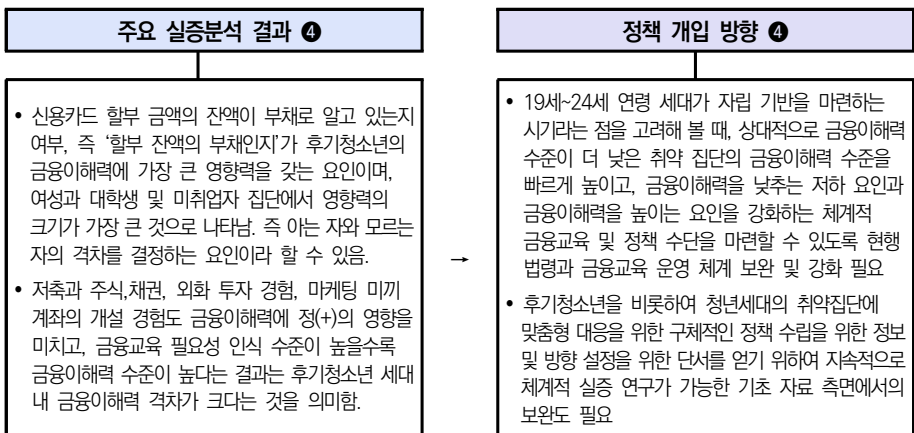


4) 세대 간 및 세대 내 격차 완화를 위한 금융교육 정책 기반의 강화

네 번째 방향은 후기청소년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지만, 그보다도 후기청소년 세대 내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점과 관련된 사항이다. 본 연구의 연구 주제이자 문제가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이기는 하였으나,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반복적으로 확인된 것은 바로 ‘격차’이다. 즉 연령 세대 간 금융이해력 격차에서 시작된 연구는 후기청소년 세대 내 격차를 확인하면서 마무리되는 것이다.

금융정책 중 금융교육 정책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된 지 불과 몇 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본격화나 발전된 상태가 아닌,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OECD와 같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비롯하여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서 금융이해력이 재차 강조될 수밖에 없는 급속한 경제·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한다면, 근본적으로 금융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단박에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는 없겠으나, 우선 필요한 실증 근거는 확보된 상태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정책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 낮추는 요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영향을 완화하는 전략을 우선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영향력이 큰 핵심 요인에 우선 대응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 여기에 추가적인 실증 근거가 필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근거에 기반한 정책 입안의 선택과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초 자료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보완이 근거 기반 금융교육 정책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3. 주요 실증결과에 기초한 정책 제언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앞서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한 정책 개입 방향에 따라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해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네 가지 정책 추진 방향 및 전략, 그리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8개의 정책 추진 과제와 각 추진 과제의 실행할 세부 추진 과제 총 16개를 발굴하여 제안함.
- 본 연구에서 설정한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한 정책 목표는 ‘금융이해력 취약 집단 및 저하 요인에 밀착 대응하는 금융교육 추진으로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향상 및 금융역량 강화’이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네 가지(①금융이해력 취약 집단 집중 지원, ②대상자 특성에 밀착된 금융교육 수단 및 도구 개발·개선, ③금융이해력 저하의 10대 시기 부정 경험 영향 완화 및 긍정 경험 강화, ④20대 초반, 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 기반 강화)를 제안함.
- 설정된 정책 목표와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될 정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정책 방향 각각에 대응하는 네 가지 추진 전략(①미취업자 및 전문대학 재학 대학생 금융교육 강화, ②후기청소년 금융정체성 특성에서 출발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 ③청소년 온라인 도박 예방·사후 지원 연계 및 찾아가는 금융교육 강화, ④수요자 측면을 고려한 금융소비자 보호 수단의 제도적 기반 강화)을 이어 설정하고, 각 전략하에서 실행되어야 할 사항을 구조화하여 정책과제로 제안함.

1) 정책 목표 및 정책 추진 방향의 설정

(1) 정책 목표의 설정

정책 목표

- 금융이해력 취약 집단 및 저하 요인에 밀착 대응하는 금융교육 추진으로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향상 및 금융역량 강화

앞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정책 개입의 방향에 기초하여 여기에서는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네 가지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각 추진 방향에 대응하는 네 가지 추진 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8개의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정책 목표는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의 빠른 향상을 위해 금융이해력 수준을 낮추는 요인과 세대 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금융이해력 수준을 보이는 취약 집단에 우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금융이해력 취약 집단 및 저하 요인에 밀착 대응하는 금융교육 추진으로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향상 및 금융역량 강화**”이다.

(2) 정책 추진의 방향

설정된 정책 목표를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의 정책 추진 방향(①금융이해력 취약 집단의 집중 지원, ②대상자 특성에 밀착된 금융교육 수단 및 도구 개발·개선, ③금융이해력 저하의 10대 시기 부정경험 영향의 완화 및 긍정경험 강화, ④20대 초반, 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 기반 강화)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정책 추진의 방향은 금융이해력 취약 집단의 집중 지원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초 분석을 통해 산출된 금융이해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미취업자 집단이고, 실증모델 분석의 영향 요인을 통해 확인한 취약 집단은 2·3년제 대학재학 남학생이다.

두 번째 정책 추진의 방향은 대상자 특성에 밀착된 금융교육 수단 및 도구 개발·개선이다. 앞서 실증모델 분석의 주요 결과 요약 및 결과에 기초한 정책 개입의 방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금융정체성 유형과 역사회화의 주체로서의 후기청소년의 특성 등 대상자 특성에 부합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금융교육 수단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단의 개발 또는 기존 수단의 개선이 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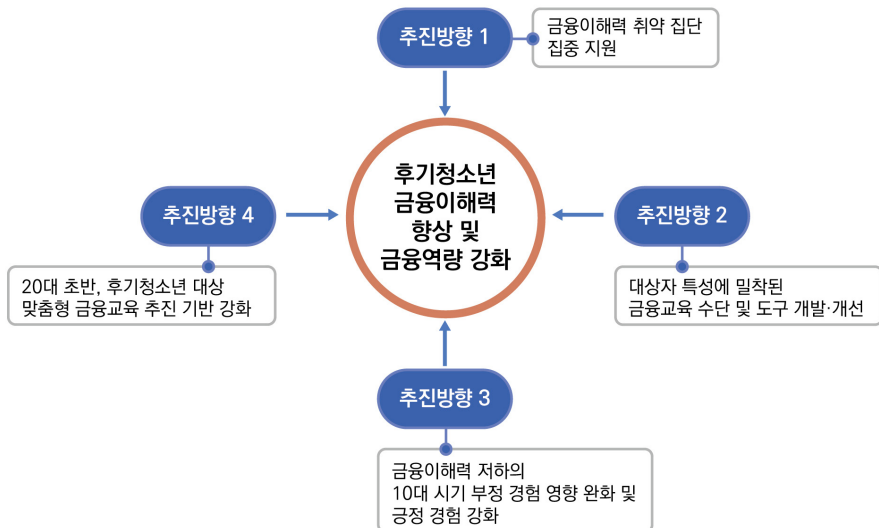


그림 VII-3. 정책 추진의 4가지 방향

세 번째 정책 추진의 방향은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10대 시기 부정 경험의 영향 완화 및 긍정 경험의 강화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고등학교 시기 온라인도박이나 휴대폰 결제강/폰테크/소액결제 경험과 같은 부정 경험의 완화와 더불어 외부 강사의 금융교육의 경험, 저축 경험 등의 긍정 경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추진이 이에 해당한다.

네 번째 정책 추진의 방향은 20대 초반, 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 기반 강화로 설정하였다. 앞서 논의 한 바와 같이, 연령 세대 간 격차는 물론 후기청소년 세대 내 상당한 격차가 발견되었다. 금융교육 정책 추진의 법률적 기반도 시행된 지 몇 해 되지 않았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수립하기에는 아직 실증 근거도 부족하다. 이에 추진 체계의 기능 및 역할 또한 강화가 필요하다.

2) 정책 추진 방향에 따른 추진 전략 및 정책과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네 가지 정책 추진 방향에 이어, 각 추진 방향에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목표 달성을 추진하도록 4개의 추진 전략(① 미취업자 및 전문대학 재학 대학생 금융교육 강화, ②금융정체성 특성에서 출발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 ③청소년 온라인 도박 예방·사후 지원 연계 및 찾아가는 금융교육 강화, ④수요자 측면을 고려한 금융소비자 보호 수단의 제도적 기반 강화)을 설정하였다.

또한 각 추진 전략하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과제를 2개씩, 총 8개를 [그림 VIII-4]와 같이 발굴하여 제안하였다. 각 추진 과제에는 구체적으로 이해할 세부 추진 과제를 2개씩 구성하였다. 이들 세부 과제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개발·작성된 초안에 대해 일차적으로 전문가 검토를 거쳤고, 이후 소관 부처 및 국회와 함께 정책화 시기 및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림 Ⅶ-4.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 정책 추진의 기본 체계(안)

3) 전략별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

(1) 추진 전략 1: 금융이해력 취약 집단의 집중 지원

① 추진 과제 1. 미취업 후기청소년 금융교육 강화

추진 과제 1 미취업 후기청소년 금융교육 강화	
■ 주요 제안 내용	■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1-1. ‘청년도전지원사업’ 금융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내 금융교육이 운영되고 있어 이를 미취업자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내실화 • 과제 1-2. 지자체 청년센터, 청년미래센터 금융교육 운영 : 지자체 청년센터 및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미취업 청년을 포함한 금융교육을 기본 운영 프로그램으로 운영 제안 	
■ 추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 국정과제 82. 생애주기별 금융자산·소득 형성 • 국정과제 100. 시민교육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 방향(25.09.22)」, p. 12 •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 지침(25.01)」 •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금융교육 관련 조항 	■ 과제 추진 유형
■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개정 ()
■ 예산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실행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사업 도입 (○) • 추진 체계 정비 ()

• 과제 1-1. 주요 제안 내용

앞선 제5장의 금융이해력 점수 산출 및 세부 집단(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간 비교에서 미취업자 집단의 금융이해력 및 구성 3요소(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점수 모두 전체 후기청소년 평균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미취업자 집단이 후기청소년 전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 집단임을 의미한다. 제6장의 실증모델 분석에서는 여성 미취업자의 금융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현행 금융교육 정책하에서는 미취업 청년만을 별도로 금융 교육을 제공하는 장(場)이나 그러한 기회가 쉽게 발견되지는 않는다. 다만,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에서 구직 단념 등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공모 사업인 ‘청년도전지원사업’에 하나의 구성 프로그램으로 금융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표 VII-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년도전지원사업’은 5주 이상의 단기, 15주 이상의 중기, 25주 이상의 장기 프로그램을 참여자가 선택할 수 있고, 각 프로그램에 5가지의 표준 프로그램이 구성되는데, 그중 사례관리 부문의 생활관리 프로그램의 하나로 금융교육이 포함된다(고용노동부, 2025. 01., pp. 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현 가능성을 살펴, 이미 미취업자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금융교육을 확대·보완함으로써 일회성이 아닌, 단계적 교육으로 내실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표 Ⅶ-6. 미취업 청년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 목적	•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하여 구직 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운영 방식	• 지자체 공모 후 사업 운영기관 선정을 통한 청년 지원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5주 이상)– 중기(15주 이상)–장기(25주 이상) 선택 참여 프로그램 참여 자원과 참여 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수당 회당 50만 원 (단기 1회, 중기 3회, 장기 5회) – 중기 및 단기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등 성과 연계 인센티브 제공 					
표준 프로그램	밀착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기초상담	생활관리 (건강, 금융, 주거) 서비스연계	자기이해	자기탐색	구직기초 구직기술	
	수시상담		동기부여 대인관계 이해	직업탐색 진로계획		

* 자료: 고용노동부 (2025.01).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 지침」 pp.1~4 사업 개요 내용 발췌 및 재구성.

- 과제 1-2. 주요 제안 내용

대학생이나 취업자와는 달리 소속된 곳이 없는 미취업 후기청소년이 비교적 자유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지역의 ‘청년센터’이다. 지역의 청년센터에서 금융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자치법규, 즉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총 29개 지역으로 그리 많지 않다.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서초구 하나이고, 경기도는 안산시 하나뿐이다. 광역도와 기초지자체에서 지원 규정을 동시에 갖는 지역은 울산, 전북, 충남 정도이고, 이들 지역도 모든 기초 지자체가 관련 규정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 발표된 ‘2024년 청년센터 운영 실태 및 종사자 직무 현황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목할 사항이 발견된다. 그것은 바로 청년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 분야와 해당 사업이 전체 청년센터 사업의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이

고, 여기에 금융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단순히 금융교육이 지자체 청년센터의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총 9개의 사업 중 사업이 수행된 개수 측면에서는 금융교육이 8번째에 위치하지만, 경제적 자립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금융 교육 사업이 전체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주거 안정 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표 Ⅶ-7.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 금융교육 지원 규정 명시 현황

광역시	해당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 규정 사항
강원	태백시	제14조(청년정책 사업) 4.-다. 청년의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 및 지원
경기	안산시	제20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① 청년 금융생활 지원 교육과 상담 등
경남	밀양시	제16조(청년의 생활안정) ③ 교육과 상담을 통한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의령군	제13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4.- 마. 교육과 상담을 통한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통영시	제16조(청년의 생활안정) ③ 교육과 상담을 통한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함안군	제18조(청년의 생활안정) ③ 교육과 상담을 통한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경북	성주군	제18조(재정적 지원) 7. 청년 경제금융교육 지원 사업
	예천군	제20조(청년의 부채경감 등) ② 청년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의성군	제26조(재정지원) 7. 청년 경제금융교육 지원 사업
대구	달서구	제19조(청년의 생활안정) ④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 및 금융생활 위한 교육과 상담
	달성군	제15조(청년정책 사업 등) 6. 청년의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지원
부산	광역시	제17조(청년의 생활안정 지원) ② 청년 자산형성 및 신용 회복을 위한 금융 교육과 상담
서울	서초구	제17조(지원사업) 5. 청년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지원
세종	광역시	제24조(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등) ② 청년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울산	광역시	제21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② 청년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동구	제16조(청년의 생활안정) ③ 교육과 상담을 통한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북구	제16조(청년의 생활안정) ③ 교육과 상담을 통한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울주군	제19조(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② 교육과 상담을 통한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전남	중구	제10조(청년의 생활안정) ② 교육과 상담을 통한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완도군	제14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4.-사. 청년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화순군	제20조(청년의 부채경감 등) ② 청년의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전북	광영도	제25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청년 경제금융교육 지원
	남원시	제23조(재정지원) 6. 청년 경제금융교육 지원 사업
	무주군	제16조(재정지원) 7. 청년 경제금융교육 지원사업
	완주군	제24조(재정지원) 7. 청년 경제금융교육 지원사업
충남	광역시	제2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청년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예산군	제13조(청년의 생활안정 및 채무여건 개선 등) ③ 청년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등의 방안 마련
	천안시	제26조(청년의 부채경감) ① 청년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의 방안을 마련. 채무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 지원
	청주시	제21조(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금융생활 지원) ② 청년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의 방안을 마련. 학자금 대출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 지원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https://www.law.go.kr>, 2025.09.17. 검색 및 출력 후 내용 구성.

다시 말해, <표 VII-8>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 청년센터에서 운영되는 금융관련 사업의 평균 개수(1.5개)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이 사업이 청년센터 전체 사업의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주거 안정 및 주거 향상 프로그램’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표 VII-8. 청년센터 분야별 사업 수행 개수 및 사업 중요도에 미치는 분야별 영향력

순위	수행 사업		사업 중요도가 전체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력	
	사업 분야	개수	사업 내용	영향력
1	문화	4.59	주거 안정 및 주거 향상 프로그램	0.755
2	일자리·창업	3.68	금융교육, 경제 자립 프로그램	0.722
3	교육	2.87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프로그램, 상담	0.662
4	기타	2.50	문화활동, 생활지원 프로그램	0.566
5	참여·권리(정책 참여)	1.98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0.558
6	복지	1.72	청년정책 참여 및 거버넌스	0.535
7	정책상담·연계	1.67	공간대관 및 장비 대여	0.506
8	금융	1.50	정책 지원 및 종합 상담	0.497
9	주거	1.21	관계 형성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0.433

* 자료: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2024.12). 「2024년 청년센터 운영 실태 및 종사자 직무 현황조사 보고서」, p.87, p.124에서 내용 발췌 및 재구성.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금융교육 실시의 근거 규정이 「조례」로 마련되어 있는 지역부터 미취업자 맞춤형 금융교육의 실시를 제안한다. 또한 현재 4개 지역(인천, 울산, 전북, 충북)에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기관인 ‘청년미래센터’에서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므로(보건복지부, 2024.04.16.), 일상 회복 차원에서의 금융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자체 청년센터와 더불어 ‘청년미래센터’에서의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이에 대한 지원을 제안한다.

② 추진 과제 2. 전문대학 재학생 금융교육 강화

추진 과제 2 전문대학 재학생 금융교육 강화	
■ 주요 제안 내용	■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2-1. 찾아가는 대학 금융교육 실시 : 금융감독원의 '1사1교' 사업과 같이 초·중고 학생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은 10대 청소년 금융교육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전문대학 재학생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실시 • 과제 2-2. 대학 금융강의 개설 2·3년제 대학 우선 지원 : 현행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대학 금융교육강좌 개설 사업에 2·3년제 대학 적극 포함, 대학지원사업의 운영 확대·개선 	
■ 추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 국정과제 82. 생애주기별 금융자산·소득 형성 • 국정과제 100. 시민교육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 방향」(25.09.22), p.24 	■ 과제 추진 유형
■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개정 ()
■ 예산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실행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사업 도입 () • 추진 체계 정비 ()

• 과제 2-1. 주요 제안 내용

앞선 제6장의 실증모델 분석을 통해 낮은 금융이해력을 갖는 후기청소년 중에서도 더 낮은 금융이해력을 갖는 취약 집단으로 2·3년제 대학재학 남학생이 발견되었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직업교육을 이수하는 전문대학 재학생들에게 정해진 교육과정 이외 금융감독원에서 지원하는 '실용금융'과 같이 학기 단위로 신설하여 운영하는 강의 개설은 기본 여건 측면에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금융교육의 방식을 2·3년제 대학에 확대 적용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1일 특강' 형태의 일회성 금융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표 VII-9>에 제시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실시하기는 하나, 이들 특강은 금융교육 캠페인의 하나로 실시되는 행사로 금융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의 금융이해력을 향상하고자 실시하는 목적의 교육은 아니다. 한편, 드물기는 하나 최근 2·3년제 대학 중 하나인 유한대학과 KB금융공익재단이 대학이 경제·금융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KB금융공익재단이 금융지식을 중심으로 개발된 학습콘텐츠를 대학에 제공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e 대학저널, 2025.08.28.).

제5장 및 제6장의 실증분석에서 초중고 시기 ‘외부 강사’의 금융교육을 경험한 이들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는 결과를 상기해 볼 때, 2·3년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스스로 돈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생활 속에서 개인 재무설계 및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강의가 제공된다면, 그것이 비록 1일 특강일지라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2·3년제 대학 재학생들이 낮은 금융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동기(motivation)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VII-9. 최근 실시 대학생 대상 금융교육

구분		일시	추진 주체	주요 내용
1일 강의	‘청년금융아카데미’	’23.09.27	서민금융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대학생 300명 대상 • 경제·금융 전문가 유튜브 ‘슈카’ 등 전문가 강의 및 재무 고민 일문일답
	‘청년, 금융을 나답게 토크콘서트’	’24.10.31	금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100명 대상 • 경제·금융 전문가 유튜브 ‘슈카’와 함께 청년에게 필요한 금융 습관과 금융교육 중요성 논의
	‘청년 금융특강’	’25.09.22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졸업예정자, 취업준비생 등 •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개설된 특강 신청 • 대면 특강, 교육영상, 교재 중 희망 방식으로 지원
학기 강의	대학 ‘실용금융’ 강좌	’16~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용금융’ 강좌 개설 대학에 금융교육교수, 교재 등 제공 • ’25년 1학기 기준, 전국 72개 대학 87개 강좌 지원
정보 제공	금융교육 콘텐츠 발송	’24.03~	금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증(카드) 발급 대학 신입생 대상 신청 원로 알림과 함께 신용관리 및 카드 이용에 관한 교육 영상 제공

* 자료: 서민금융진흥원(2023.09.27.), ‘청년금융아카데미’ 개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2024.10.30.), ‘청년, 금융을 나답게’ 토크콘서트 개최 보도자료, 금융감독원(2025.09.22.), ‘2025년 청년 금융특강’ 실시 보도자료, 금융감독원(2025.06.04.), 2025년 2학기 대학 ‘실용금융’ 강좌 개설지원 신청 보도자료, 금융위원회(2024.03.04.),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시작 보도자료.

• 과제 2-2. 주요 제안 내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에서는 대학이 학기 단위의 ‘실용금융’ 강좌를 개설할 경우, 교육 강사, 학생용 교재 및 교수 보조 자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2·3년제 대학에서 15주의 금융교육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표 VII-10>에 제시된 금융감독원의 「파릇파릇 자산관리」 교재 내용을 압축하여 다회 연속강의로 구성하여 운영해 볼 수 있다. 「파릇파릇 자산관리」 교재는 취업준비생의 자산관리 역량의 향상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실시하는 ‘2025년 청년 금융특강’의 교재이다(금융감독원, 2025.09.22.).

현행 15주 강의로 운영되는 ‘실용금융’은 4년제 대학 중심으로 운영하고, 2·3년제 대학 재학생 대상으로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 연속 강의 형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대학 강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간 일정 비율을 2·3년제 대학생 지원으로 할당하는 등 사업 운영 전반에 2·3년제 대학생이 고려되고, 사업 대상 대학의 범위도 2·3년제 대학을 적극적으로 포괄하는 방식으로 확대·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표 Ⅶ-10. 「파릇파릇 자산관리」 교재 내용 구성

목차	내용 구성
step1. 재무 상태 진단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 쉬운 재무진단] 활용한 나의 재무상태 진단
step2. 통장 나누어 관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통장, 비상금 통장의 관리 [계좌정보 통합 관리서비스] 활용하기
step3. 현명하게 지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유자금 확보를 위한 가계부 앱 등 실천계획 제시
step4. 알차게 목돈 모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잣돈 모으기
step5. 아무지게 목돈 굴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투자상품 투자 시 유의 사항, 펀드다모아 활용
step6. 위험에 대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에 대비하면서도 보험료 줄이는 법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활용
step7. 계획성 있게 빌려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계산기를 통한 사전 이자·상환금 검토하기
step8. 신용을 관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평가제도 변경(등급제→점수제). 신용관리방법 무료 신용조회
step9. 보이스피싱 등에 넘어가지 않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 메신저피싱 사례 및 피해예방 행동 요령
step10. 청년을 노리는 불법행위 조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 대상 직업대출, 취업빙자사기, 고수의 아르바이트 등 금융사기 예방 •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소비자 유의 사항
step11. 사회초년기 자금관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자금 마련하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필수 가입상품 소개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계산,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 공제 많이 받기)
부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금융교육센터]와 [FINE] 활용 • 금융용어, 현금흐름표와 자산현황표

* 자료: 금융감독원(2025.09.22.). ‘2025년 청년 금융특강’ 실시 보도자료, p.3 [붙임] 자료.

(2) 추진 전략 2: 금융정체성 파악부터 시작되는 금융교육프로그램 개발·개선

① 추진 과제 3. 금융정체성 반영 프로그램 개발 및 모듈 다양화

추진 과제 3 금융정체성 반영 프로그램 개발 및 모듈 다양화	
■ 주요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3-1. 교육 대상자 특성 및 금융이해력 수준별 재구조화 : 기존 청년대상 금융교육 내용은 연령 발달을 전제로 구성된 것으로 금융이해력 수준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고려한 수준별 교육 내용 프로그램 구성 • 과제 3-2. 금융정체성을 고려한 교육 도구(toolkit) 개발 : 금융교육의 시작점을 금융정체성과 개인 환경 여건을 진단·활용할 수 있는 교육 도구 개발 	■ 추진 방향
■ 추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 국정과제 82. 생애주기별 금융자산·소득 형성 • 국정과제 100. 시민교육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 방향(25.09.22)」, p.24 	■ 과제 추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개정 ()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신규 사업 도입 () • 추진 체계 정비 ()
■ 소관 부처	• 금융위원회
■ 예산 증감	• 예산 필요
■ 실행 체계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과제 3-1. 주요 제안 내용

앞선 제5장과 제6장의 실증분석을 통해 후기청소년의 ‘금융정체성’에 따라 금융이해력 수준에 차이가 있고, 특히 돈 관리나 개인 재정 문제에 관심이 없는 ‘확산형’과 부모님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른다는 ‘폐쇄형’의 경우 금융이해력 수준을 낮추는 주요 영향 요인으로 밝혀졌다.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 실증 연구가 많지 않았기에 ‘금융정체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없다.

금융정체성을 고려한 후기청소년대상 금융교육의 핵심은 ‘스스로’ 돈 관리를 하고, 생애 재무설계 및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에 방점이 있어야 한다. 반면, 자신에게 맞는 돈 관리 방식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간 탐색하고 누적된 금융지식과 경험도 많은 ‘성취형’의 경우는 기존의 금융교육의 내용에 흥미를 갖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과정에 있는 ‘유예형’은 조금 더 많은 정보의 제공을 원할 수 있다. 금융이해력을 갖추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금융에 대한 용어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실제 이해를

돕는 교육과정과 스스로 탐색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과제 2-2.’에서 제시한 「파릇파릇 자산관리」 교재나 ‘실용금융’ 강좌의 내용 구성을 비롯하여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교육 콘텐츠 등을 살펴보면, 교육 대상자 또는 참여자의 ‘금융정체성’을 고려하고, 수준별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일 구성의 내용에서 교육 대상자 또는 참여자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제공 추진을 제안한다.

표 VII-11. 청년 대상 금융교육 교재 내용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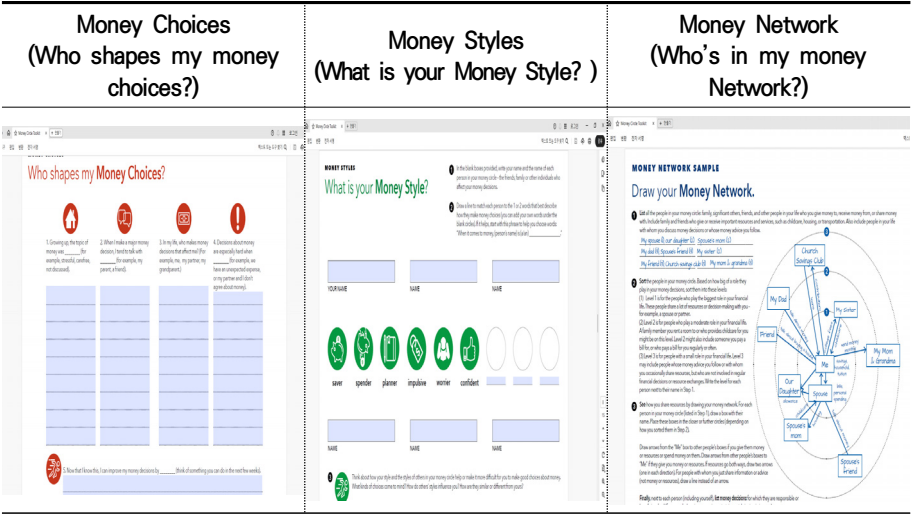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교재 (*한 학기 강의)		파릇파릇 자산관리 교재 (*하루 2시간 강의)	
1.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8. 리스트관리와 보험	1. 재무상태 진단하기	8. 신용을 관리하기
2. 금융상품, 금융시장과 회사	9. 노후와 연금	2. 통장 나누어 관리하기	9. 보이스피싱 등에 넘어가지 않기
3. 저축의 이해	10. 재무설계의 기초	3. 현명하게 지출하기	10. 청년을 노리는 불법행위 조심하기
4. 금융투자의 이해	11. 금융소비자보호	4. 알차게 목돈 모으기	11. 사회초년기 자금관리하기
5.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 유의사항	12. 신기술과 금융의 변화	5. 아무지개 목돈 굴리기	11. [부록] e-금융교육센터 활용, 금융 용어, 현금흐름표와 자산 현황표
6. 신용관리	13. [부록] 금융관련 기초 이론과 주요 이슈	6. 위험에 대비하기	
7. 부채관리		7. 계획성 있게 빌려 쓰기	

* 자료: 금융감독원(2024.02.29.).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교재 개정 발간 보도자료.
금융감독원(2024.05.15.). 청년층 등 성인 금융역량 강화 위해 대학 실용금융 강좌 온라인(K-MOOC) 개설 보도자료.
금융감독원(2025.09.22.). ‘2025년 청년 금융특강’ 실시 보도자료.

- 과제 3-2. 주요 제안 내용
- 앞의 ‘과제 3-1.’의 연장선상에서 ‘금융정체성’을 고려한 교육 도구(toolkit) 개발 및 보급을 제안한다. 미국의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자료들을 각 내용 단위(module)로 제공하고 있다.
- 자료 중 금융교육 도입이나 초기 단계의 코칭(coaching) 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것이 바로 ‘Money Motivation’ 도구 중 하나인 ‘Money Cir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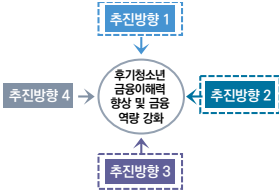
Toolkit'이다. 이 도구에서는 어떻게 가족과 또래가 돈 관리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스스로 주변 상황을 객관화하여 진단해 볼 수 있다. 스스로 돈 관리 및 생애 재무설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확산형'이나 '폐쇄형'의 금융정체성을 갖는 후기청소년의 상태와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 할 수 있다. 아직 금융교육 정책이 활성화되고 발전된 단계에 있지는 않으나, 이미 앞서간 선진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 '금융정체성'과 같은 주요 요인을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실증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수준별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교육 도구의 개발·보급도 필요한 상황이다.

표 Ⅶ-12.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Money Motivation' Tools: Money Circle Toolkit



* 자료: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홈페이지 'Money motivation' tools <https://www.consumerfinance.gov/consumer-tools/educator-tools>에서 2025년 9월 24일 검색 및 발췌.

② 추진 과제 4. 후기청소년 참여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개선

추진 과제 4 후기청소년 참여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개선	
■ 주요 제안 내용	■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4-1. 후기청소년 참여 기존 콘텐츠 개선·보완 : 'e-금융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금융교육 공급자 측면이 아닌, 수요자 측면에서 검토 및 재분류, 보완 사항 검토 후 필요시 보완 제작 • 과제 4-2. 후기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공모 추진 : 공모사업 방식으로 후기청소년 당사자들이 금융교육 콘텐츠를 기획·개발 지원 	
■ 추진 근거	■ 과제 추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 국정과제 82. 생애주기별 금융자산·소득 형성 • 국정과제 100. 시민교육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 방향」(25.09.22), p.24 	
■ 소관 부처	• 법령 제·개정 ()
•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예산 증감	• 신규 사업 도입 (○)
• 예산 필요	• 추진 체계 정비 ()
■ 실행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국무조정실 → 청년재단 → 청년센터 	

• 과제 4-1. 주요 제안 내용

앞서 '추진 과제 3.'의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도구와 관련된 사항에 이어 여기에서는 금융이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의 개발 및 개선을 제안한다. 현재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를 통해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국내 금융교육기관에서 제작한 다양한 콘텐츠를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다. 검색되는 콘텐츠들은 모두 금융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심사하여 인증된 콘텐츠로 안내되어 있다.

앞선 제4장의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는 금융정보의 탐색이 주로 초기에는 '개인 유튜브 콘텐츠'이고, 이해도가 향상된 다음 단계에서 경제뉴스와 '금융관련 앱'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제5장과 제6장의 실증분석에서는 금융이해력에 '금융관련 앱' 사용만이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신력 있는 금융교육기관의 금융교육 콘텐츠들은 후기청소년들의 일상에서 정보 탐색의 대상이 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e-금융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중 '청년'과 관련되어 검색되는 동영상은 89건이고, 웹툰만화 7건, 교재 2건 등 적지 않은 콘텐츠가 이미 개발되어 있다. 내용 분류는 총 6개 항목(①가계재무관리, ②자산관리, ③신용관리, ④위험관리, ⑤금융활용,

⑥생애재무설계)으로 구분되어 있어, 다소 콘텐츠를 이용하는 측보다는 자료를 공급하는 측 중심의 분류체계로 보인다(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2025.09.23. 검색). 이에 이미 개발된 금융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당사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지 등의 의견을 반영한 콘텐츠 보완 및 개발을 제안한다.

• 과제 4-2. 주요 제안 내용

앞의 ‘과제 4-1.’의 기존 금융교육 콘텐츠 검토 작업에 수요자 측면에서의 검토에 이어 교육대상자인 후기청소년이 참여하는 콘텐츠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 개발 작업의 일부에 후기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가 아닌, 청년정책 주무 부처(국무조정실) 또는 금융교육 주무 부처(금융위원회)가 주재하는 청년 당사자 공모 사업을 통한 콘텐츠 개발 추진을 제안한다.

일부 은행이나 창업센터에서 대학생 단체 또는 청년 단체를 운영하며 금융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사례¹¹⁾가 일부 있기는 하나, 그것이 금융교육과 어느 정도 연계되어 활용되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한편, 지자체에서 청년자율예산 사업으로 청년 당사자들이 발굴한 금융교육 콘텐츠 및 그 내용을 반영한 사업이 추진된 사례¹²⁾도 있기는 하나, 1일 행사 사업에 그친다(헤드라인제주, 2025.08.29.).

본 연구의 제5장 및 제6장의 실증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후기청소년은 금융생활에 있어 또래 친구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역사회화’의 주체로서 또래에게 영향을 주기도 한다. 역사회화의 주체가 되는 이들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평균을 크게 웃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을 금융교육에 있어 하나의 중요 행위자(agent)로 적극 활용하고, 후기청소년 세대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제공하는 기회의 장(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공모 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공모 시, 사업을 통해 발굴된 새로운 콘텐츠는 기존 콘텐츠에 적용되는 ‘금융교육 콘텐츠 인증(finance sense)’ 과정을 거쳐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를 통해 공개 활용하는 계획 또한 필요하다.

11) 농협은행 대학생 봉사단 N돌핀, NH곡서포터즈,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 혁신 서포터즈, 전북은행 대학생 서포터즈 브라보코리아, 한국은행 대학생 서포터즈(YES), 하나은행 대학생 서포터즈 울콘 등.

12) 제주특별자치도 제3기 청년주권회의에서 발굴 및 의결된 청년자율예산 사업 ‘머니업! 청년금융클래스’(헤드라인제주, 2025.08.29.).

(3) 추진 전략 3: 금융이해력 저하의 10대 시기 부정 경험 영향 완화 및 긍정 경험 강화

① 추진 과제 5.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사후 지원과 금융교육 연계

추진 과제 5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사후 지원과 금융교육 연계	
■ 주요 제안 내용	■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5-1. 도박 예방 교육 내용에 금융교육 반영(강화)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산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개발·운영 및 보급하고 있는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금융교육 내용 포함되도록 연계 • 과제 5-2. 도박 중독 회복지원에 금융교육 내용 연계 반영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도박중독자 치유·재활 프로그램에 금융교육 내용 포함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도박문제 청소년 치유캠프 프로그램의 금융교육 강화 	
■ 추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제18조의2 •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 3-1-8-1 	■ 과제 추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개정 () • 기존 사업 보완 확대 (○) • 신규 사업 도입 () • 추진 체계 정비 ()
■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성평등가족부 	
■ 예산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해당 	
■ 실행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치료재활센터(디딤센터) 	

• 과제 5-1. 주요 제안 내용

앞선 제4장의 초점집단면접조사는 물론, 제5장 및 제6장의 실증분석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 중 하나는 중·고등학교 시기 ‘온라인도박’이나 ‘휴대폰 결제강/폰테크/소액결제’와 같은 부정 경험이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낮추는 영향 요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온라인도박’은 앞서 주요 실증결과의 종합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학생 집단에서 상위 5번째의 영향력을 갖는다.

후기청소년의 낮은 금융이해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10대 청소년 시기 온라인도박에 의한 영향이 우선 차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시점의 초·중고생 대상 도박 예방 교육에 금융교육이 반영되고 연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의 결과는 10대 청소년 대상 도박 예방교육과 금융교육이 왜 연계되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과 당위성의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표 VII-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산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개발·운영되고 보급되는 도박 예방 교육의 내용에는 금융교육이 포함 또는 연계되어 있지 않다. ‘돈’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돈 문제’로부터 10대 청소년이

쉽게 도박에 빠져든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도박 예방 교육과 금융교육의 연계는 불가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박 예방 교육에 금융교육 내용의 편성 및 구성을 제안한다.

표 VII-13. ‘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 교육 프로그램

구분	구성 내용
중학생	• 도박의 이해, 청소년 불법 도박과 도박 중독 문제, 도박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고등학생	• 청소년 도박 문제 및 문제의 심각성 이해, 불법 도박 예방법
학교밖청소년	• 학교밖청소년 도박 문제 및 문제의 심각성 이해, 불법 도박 예방 및 도움 요청 방법
대학생	• 도박 및 도박 중독 이해, 올바른 도박 중독 예방과 치료
학부모	•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 문제 특성 및 위험성, 문제 징후 및 예방법

* 자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https://www.kcgp.or.kr>에서 2025년 9월 23일 검색 및 일부 발췌 구성.

• 과제 5-2. 주요 제안 내용

앞의 ‘과제 5-1.’의 도박 예방 교육과의 연계에 이어, 도박 중독 청소년의 치유 및 일상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에도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표 VII-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운영하는 치유·재활 상담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을 보면, 3단계 성장 과정에 ‘재정법률 강좌’가 있기는 하나,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금융교육은 ‘채무조정’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도박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회복 프로그램에서는 ‘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도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표 VII-14. ‘도박문제예방치유원’ 도박 중독 치유·재활 상담 프로그램

구분	과정 및 내용		
	Step 01. 기초과정	Step 02. 심화과정	Step 03. 성장과정
대상자 (도박문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화 면담 • 심리교육 • 인지행동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발 방지 • 관계 증진 및 삶의 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법률 강좌 • 회복자 자조모임 • 문화예술치유 등
	재정 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박채무의 특성 • 채무조정방법 안내 •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안내 •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처방안 		법률 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도박 • 도박 관련 민·형사적 문제 • 이혼, 상속 • 불법채권추심 관련 법적 문제

* 자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https://www.kcgp.or.kr>에서 2025년 9월 23일 검색 및 출력 후 내용 구성.

그러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표 VII-15>와 같이, 온라인도박 중독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간 2회(5월, 10월, 각 2주간) 운영되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의 기숙형 치유 캠프의 프로그램에는 금융·경제교육이 프로그램에 편성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23.11.02.). 여기에서는 주로 금융에 대한 올바른 개념 인식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욱이 이 프로그램에는 금융이해력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인 ‘자기통제력’을 기르는 프로그램도 함께 구성되어 있어 금융교육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내용 구성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실효성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전달되는가는 파악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박 중독 또는 도박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에 금융교육 포함 및 연계 운영을 제안한다. 아울러 이미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의 치유 캠프의 금융교육도 ‘자기통제력’ 구성 내용과 연계하여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표 VII-15.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도박문제 기숙형 치유캠프 프로그램 구성

구분	목표 및 내용
1. 금융경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심어줌으로써,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자연스러운 경제 금융 활동과 올바른 재무관리를 통해 삶에 대한 만족감 향상
2. 종합치유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인 회합의 경험을 통해 자기 긍정성 향상에 기여 • 내적 갈등, 승화되고 조화된 표현으로 도출
3. 정서조절 및 스트레스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탄력성 향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적동기와 조절 능력 향상
4. 자기통제력 강화 (이하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통제력 향상을 통해 실패를 딛는 힘, 자기 조절 능력을 학습
* 자료: 여성가족부(2023.11.02.).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일상 회복 돕는다’ 보도자료. p.4 일부 발췌.	

② 추진 과제 6. '1사1교' 사업 대상 범위 확대 및 추진 강화

추진 과제 6 '1사1교' 사업 대상 범위 확대 및 추진 강화	
■ 주요 제안 내용	■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6-1. 청소년 및 청년 지원 기관, 시설까지 대상 범위 확대 : 현행 초·중고 학교 중심의 '1사1교' 금융교육 사업의 대상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청소년 시설 및 기관, 청년지원센터 및 기관 등으로 확대 • 과제 6-2. 찾아가는 금융교육 내용의 표준 가이드 마련 : 수요층의 욕구를 반영한다 할지라도 핵심적인 내용은 기본으로 구성하여 교육내용에 담을 수 있게 구성 요소 기준 가이드 마련 	
■ 추진 근거	■ 과제 추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 •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 1-2-1-3 	
■ 소관 부처	• 금융위원회, 성평등가족부, 금융감독원
■ 예산 증감	• 예산 증액 필요
■ 실행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성평등가족부 → 지자체 → 청소년활동, 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개정 () • 기존 사업 보완 확대 (○) • 신규 사업 도입 (○) • 추진 체계 정비 ()

• 과제 6-1. 주요 제안 내용

앞서 '추진 과제 5.'의 10대 청소년 시기 '온라인도박' 경험의 영향과는 달리, 초·중고 시기 '외부 강사 특강의 금융교육 경험'은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감독원이 신청학교와 전국의 금융회사 본·지점을 연결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1사1교' 사업은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지원의 대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표 Ⅷ-16. '1사1교' 금융교육 사업 개요

구분	내용
목적 및 대상	• 초·중고 학생들의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금융 생활 습관 및 태도 형성
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금융회사 본·지점과 학교가 결연을 맺어 금융교육 실시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결연 신청 → 학교와 금융회사의 결연참여 신청 결과 등을 토대로 학교와 금융회사 연결 → 결과 신청 누리집에서 확인
교육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금융교육 표준교재와 강의안 참조하여 진행 •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재, 강의안 사용하여 진행 • 교육방법 및 주제는 학교와 금융회사가 협의하여 다양한 방식과 주제로 교육 진행

* 자료: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https://www.fss.or.kr/edu>에서 2025년 9월 23일 검색 및 출력 후 내용 구성.

문제는 신청 단위가 ‘학교’이다 보니, 금융교육의 기회가 학교의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시설이나 지역의 청소년 또는 청년 지원 기관들은 신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단위 중심의 ‘1사1교’ 연계를 넘어 지역의 금융기관 지점과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시설, 각 지역의 대학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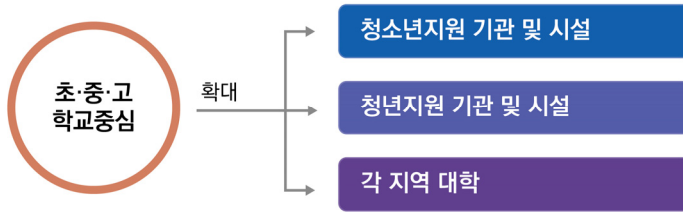


그림 Ⅷ-5. ‘1사1교’ 금융교육 사업 대상 범위 확대(안)

• 과제 6-2. 주요 제안 내용

앞서 <표 Ⅷ-16>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학교로 금융교육 강사가 찾아가 교육하는 ‘1사1교’ 사업의 경우, 교육의 내용에 있어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 교재나 강의안을 참조하거나 아예 연계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교재나 강의안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교육 방법과 주제도 신청한 학교와 금융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면 어떠한 방식과 내용도 모두 허용되는 구조이다. 이는 교육의 수요측의 요구와 제공자 측의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된다는 점에서는 큰 장점이 있고, 연계자와 제공자의 편의는 고려될 수 있으나 어떠한 방식이 가장 큰 교육의 효과가 있는가는 후 순위의 고려 사항이 되는 한계가 있다.

교육의 제공자가 누구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하든 기본적으로 초중고 시기에 형성되어야 하는 인식과 기초 지식의 범주는 분명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예컨대 돈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 인식과 같은 기본적인 인식과 태도 형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금융정체성’과 금융이해력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교육의 내용이 구성될 때, 수준별 교육 내용에 핵심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범주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 내용 측면에서 핵심적으로 담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표준 가이드 마련을 제안한다.

(4) 추진 전략 4: 20대 초반, 후기청소년 청년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 기반 강화

① 추진 과제 7. 후기청소년 금융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및 실증분석 강화

추진 과제 7 후기청소년 금융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및 실증분석 강화	
■ 주요 제안 내용	■ 추진 방향
<p>•과제 7-1. ‘금융교육협의회’ 규정 법률 일부 개정 : 정부부처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교육협의회’를 금융교육 수요자 측 등 민간위원 포함 ‘금융교육정책위원회’로 확대하는 법률 일부 개정</p> <p>•과제 7-2.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확대 실시 및 실증분석 강화 : 조사 표본수 확대로 연령대 및 세부 집단별 금융이해력 파악 가능한 기초자료 생산 및 근거기반 금융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분석 강화</p>	
■ 추진 근거	■ 과제 추진 유형
<p>•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p> <p>•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p>	<p>• 법령 제·개정 (○)</p> <p>• 기존 사업 보완 확대 ()</p> <p>• 신규 사업 도입 ()</p> <p>• 추진 체계 정비 ()</p>
■ 소관 부처	
• 금융위원회	
■ 예산 증감	
• 예산 증액 필요 (과제 7-2.)	
■ 실행 체계	
<p>• 금융위원회 → 금융교육협의회 → 한국은행·금융감독원</p> <p>• 금융위원회 → 각 부처</p>	

• 과제 7-1. 주요 제안 내용

앞서 제안한 추진 과제들이 원활하게 정책으로 수립되어 이행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추진 기반의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제3장에서 검토하고 설명된 바와 같이, 금융교육 정책의 수립과 추진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금융교육 규정과 더불어 제31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교육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실증 근거에 기반하여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20대 초반 연령대를 포함하여 대상자 정책을 추진하는 2개의 주무 부처(국무조정실, 성평등가족부)의 ‘금융교육협의회’에 위원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19세~34세 청년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무조정실과 9세~24세 청소년정책의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금융교육협의회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금융교육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행정기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총 8개 부처를 명시하고 있는데, 앞의 2개 부처 중 성평등가족부는 이미 포함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을 주관하는 국무조정실이 금융교육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행

정기관에 추가하고, 이를 통해 청년정책 안에서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증진 정책이 적극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는 기반 강화를 제안한다.

표 VII-17. ‘금융교육협의회’ 규정 현행 법령

현행 법률	현행 시행령
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금융교육과 관련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28조(금융교육협의회) ① 법 제3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 2. 공정거래위원회 3. 기획재정부 4. 교육부 5. 행정안전부 6. 보건복지부 7. 고용노동부 8. 여성가족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에서 2025.09.23. 검색 및 인출).

한편, 청년정책 주무 부처인 국무조정실을 ‘금융교육협의회’ 참여 행정기관으로 추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융교육협의회의 구성 범위와 성격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교육협의회는 정책 수립의 당사자이자 금융교육 정책을 공급하는 정부 공무원 위원만으로 구성된 심의·의결 기구이다.

금융교육 정책은 교육 대상자이자 참여자인 금융소비자, 금융 관련 교육자 및 연구자 등 정책 수요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사안에 따라 그들의 의견을 들어 정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이 정책 효과성을 고려할 때 필요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공무원 위원만으로 구성된 ‘금융교육협의회’가 아닌, (가칭) ‘금융교육정책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공무원 위원들(당연직 위원) 이외 민간위원들(위촉직 위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성 범위의 확대를 제안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금융교육 정책 수립과정의 민주성, 전문성, 투명성 등의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포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금융교육협의회 규정 조항의 개정 내용을 제안하면 <표 VII-18>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같은 법 제31조제5항의 개정 사항뿐만 아니라, 제2항의 협의회 심의·의결 사항에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수요자 지원 기관 및 유관 단체와의 연계협력을 별도로 명시하였으나, 추후 제2항제1호 사항에

포괄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표 VII-1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현행	개정 제안
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①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융교육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금융소비자 교육과 관련한 평가, 제도개선 및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3. 그 밖에 의장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금융교육과 관련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부원장 <신 설> <신 설> <신 설>	제31조(금융교육정책위원회) ①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융교육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금융소비자 교육과 관련한 평가, 제도개선 및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4. 교육 수요자 지원 기관 및 유관 단체와의 연계협력 5. 그 밖에 위원장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⑤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무조정실 ,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금융교육과 관련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부원장 3. 금융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제5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雇)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정책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제 7-2. 주요 제안 내용

앞서 ‘과제 7-1.’을 통한 법적 추진 기반의 강화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자료의 확보이다. 현행 2년 주기의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가 18세~79세를 대상으로 전국의 2,400가구를 표본으로 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대략적인 전 연령대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살필 수 있는 것 이상의 사항을 분석하기에는 표본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가령 본 연구에서와 같이,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은 취약 집단이 어느 연령대에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파악하고자 한다면 각 연령대의 대표성이 최소한으로라도 확보될 수 있는 표본 수가 필요한데, 현행과 2,400가구의 표본으로는 부족한 것이다. 그마저도 원자료(raw data)는 국가 통계로 관리되는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에서 적정하게 제공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별 또는 정책 대상자별 금융이해력 및 실태를 별도의 조사할 것이 아닌, 기존 국가 통계로 조사 실시 및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개선을 통해 금융교육 정책의 기초 자료 생산의 강화를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표본의 확대와 응답 대상자 연령 범위의 확대, 그리고 조사 내용 측면에서 금융이해력 측정뿐만 아니라, 금융이해력의 영향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추가·보완하는 방식의 강화이다. 또한 기초 자료에 대한 활발한 실증분석을 통해 근거 기반의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 정책, 즉 어떠한 이유와 근거로 해당 정책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정부도 정책 수요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수립 강화를 제안한다.



그림 VII-6.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확대 개선(안)

② 추진 과제 8. 금융회사의 청년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 촉진 수단 강화

추진 과제 8 금융회사의 청년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 촉진 수단 강화	
■ 주요 제안 내용	■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8-1. 금융회사 청년 보호 활동 실태 평가 시, 가점 부여 : 금융이해력을 갖는 청년층 금융소비자 보호를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제도 활용, 추가 가점 부여 제안 • 과제 8-2. 금융감독원 '지원'의 청년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강화 : 서울지역과 그 외 지역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를 고려, 지역 청년의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한 금융감독원 지원의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강화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근거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제30조제1항, 제32조제2항 ■ 소관 부처 : 금융위원회 ■ 예산 증감 : 비해당 ■ 실행 체계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추진 유형 • 법령 제·개정 ()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신규 사업 도입 () • 추진 체계 정비 (○)

• 과제 8-1. 주요 제안 내용

금융교육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심의·의결 기구의 확대·강화와 실증 근거 기반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이외, 일상에서 중요한 또 다른 중요한 한 축이 되는 것은 금융생활의 현장에서 후기청소년들이 접하는 금융회사이다. 연구의 시작점이자 출발 점을 상기하자면, 2024년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 결과에 나타난 20대 초반의 후기청소년을 포함한 20대의 금융이해력(62.6점)은 60대(64.7점)보다도 낮고, 70대(59.3점)와 함께 전체 평균(65.7점)보다 낮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19세~24세 후기청소년은 20대보다 더 취약하고, 그중 미취업자나 2·3년제 대학재학 남학생들은 더 취약한 상태에 있다.

실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은 금융이해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청년층 금융소비자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의 제도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대출 청약철회권 등 고령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의 노력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금융감독원, 2024.12.16., pp. 8-9).

그러나 금융이해력 수준에 있어 고령층보다 낮다고 볼 수 없는 후기청소년 포함 20대

청년층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더 주의를 기울이거나 노력할 수 있는 촉진 항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표 VII-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실태를 매년 평가하는 항목은 계량 부문과 비계량 부문을 합쳐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을 포함한 청년층 금융소비자의 취약한 금융이해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가점 제도 운영을 제안한다. 가령, 금융회사에서 ‘7’ 항목의 임직원 에 대한 소비자 보호 교육에 20대 청년 특성을 이해하는 교육을 한다거나 ‘8’ 항목의 일환으로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또는 금융 피해 방지 관련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촉진 수단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였을 때, 추가 가점을 주는 것이다. 이는 기존 항목의 구성이나 배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청년 금융소비자 보호를 현장에서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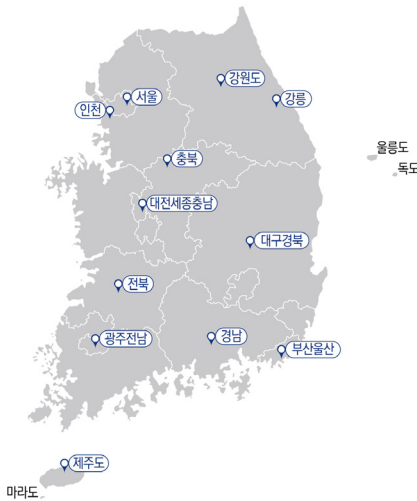
표 VII-19.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평가 항목

구분	주요 기능 및 역할
계량평가 부문 (2개 항목, 비중 30%)	<div> <div>①</div> <div>민원 처리 노력 및 소송 사항 (28.0%)</div> </div> <div> <div>②</div> <div>일반·전자금융 사고, 휴면 자산 환급 (2.0%)</div> </div>
비계량평가 부문 (6개 항목, 비중 70%)	<div> <div>③</div> <div>내부통제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11.7%)</div> </div> <div> <div>④</div> <div>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11.7%)</div> </div> <div> <div>⑤</div> <div>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11.7%)</div> </div> <div> <div>⑥</div> <div>상품 판매 후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 관리 (11.7%)</div> </div> <div> <div>⑦</div> <div>성과보상 체계 및 임직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교육 운영 (11.7%)</div> </div> <div> <div>⑧</div> <div>기타 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 방지 관련 사항 (11.5%)</div> </div>

* 자료: 금융감독원(2024.12.16.), ‘24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도자료, p.2 내용 발췌 및 재구성.

• 과제 8-2. 주요 제안 내용

앞선 제3장의 금융교육 지원의 추진 체계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현행 후기청소년을 포함하는 청년층 대상 금융교육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을 비롯한 4개~5개의 기관이 협업하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 주관기관인 금융감독원에는 현재 권역별 총 10개의 지원을 두고 있다. [그림 VIII-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들 지원은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생활권으로 묶고, 광역도 지역 또한 생활권으로 나누어 하나씩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부산과 울산은 하나로 묶어 하나의 지원이 관할하고, 강원도는 강릉시를 중심으로 한 영동 지역과, 그 외 지역을 묶은 영서 지역으로 나누어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 부산울산지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대구경북지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광주전남지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대전세종충남지원: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 인천지원: 인천광역시
- 경남지원: 경상남도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전북지원: 전라북도
- 강원지원: 강원도(강릉지원 관할지역 제외)
- 충북지원: 충청북도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속초시, 정선군, 평창군, 양양군, 고성군

* 출처: 금융감독원 지원 소개. <https://www.fss.or.kr>에서 2025년 9월 19일 검색 및 발췌.

그림 VII-7. 금융감독원 지방 지원 및 관할 지역

금융교육과 관련하여 이들 지원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현황 파악은 할 수 없으나, <표 VII-20>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된 바에 따르면 이들 지원의 기능 및 역할의 하나가 지역의 금융역량을 강화하는 것이고, 그것의 일환으로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 이들 지원의 금융교육 역할에 주목하는 이유는 앞선 제5장과 제6장의 실증분석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후기청소년의 거주지역을 3개(서울, 서울 외 대도시,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 금융이해력 수준을 비교하였을 때, 서울 거주자들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도 하고, 그것이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 여성 집단의 경우 서울 거주지의 영향력이 상위 5번째로 높은 영향력을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서울 이외 지역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높이는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원의 중심에 청년층 금융교육을 주관하는 금융감독원 본부 뿐만 아니라, 지역의 ‘금융감독원 지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금융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에 금융감독원 지원에서 청년층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이 보다 강화되어 운영될

수 있는 관리·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 이외 지역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청년 금융교육을 주관하는 금융감독원의 10개 지원의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강화를 제안한다.

표 VII-20. 금융감독원 지방 지원의 주요 기능 및 역할

구분	주요 기능 및 역할
관할지역 민원 대응 및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 사항 조사 및 처리 • 금융회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불만 사항 상담 • 민원 처리와 연계 민원 동향 점검, 예방 대책 수립, 제도·관행 개선
지역 금융거래 질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소재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 검사 실시
지역 금융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 취약계층 및 성인 대상 금융교육

* 자료: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에서 2025년 9월 19일 검색 및 발췌 후 내용 구성.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 추진 과제들은 실증 근거를 토대로 실현 가능성을 살펴 추진 근거가 명확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제안된 과제 중 일부는 이행을 위한 준비 과정에 다소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사항도 있으나, 대체로 검토를 거쳐 1~2년 이내에 정책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과제를 앞서 제시한 정책 추진의 방향과 전략별에 따라 <표 VII-21>과 같이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표 VII-21. 정책 추진 방향 및 전략별 추진 과제 요약

추진 과제	과제 추진 유형	근거 법령/규정	추진 기간*	소관 및 관계 부처
	①법령/규정 제·개정 ②기존 사업 보완·확대 ③신규 사업 도입 ④추진 체계 정비	①있음 ②개정 필요 ③제정 필요 ④없음	①단기 ②중기 ③장기	중앙부처
① 금융이해력 취약 집단 집중 지원 → [전략①] 미취업자 및 전문대학 재학생 금융교육 강화				
[과제1] 미취업 후기청소년 금융교육 강화				
1-1. '청년도전지원사업' 금융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②	①	①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1-2. 지자체 청년센터, 청년미래센터 금융교육 운영	③	①	①	국무조정실 지자체 보건복지부
[과제2] 전문대학 재학생 금융교육 강화				
2-1. 찾아가는 대학 금융교육 실시	②	①	①	금융위원회 (금감원)
2-2. 대학 금융강의 개설 2·3년제 대학 우선 지원	②	④	①	금융위원회 (금감원)
② 대상자 특성에 밀착된 금융교육 수단 및 도구 개발·개선 → [전략②] 금융정체성 파악부터 시작되는 금융교육프로그램 개발·개선				
[과제3] 금융정체성 반영 프로그램 개발 및 모듈 다양화				
3-1. 교육 대상자 특성 및 금융이해력 수준별 재구조화	②	①	①	금융위원회 (금감원)
3-2. 금융정체성을 고려한 교육 도구(toolkit) 개발	②	①	①, ②	금융위원회 (금감원)
[과제4] 후기청소년 참여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개선				
4-1. 후기청소년 참여 기존 콘텐츠 개선·보완	②	④	①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감원)
4-2. 후기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공모 추진	②, ③	④	①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감원)
③ 금융이해력 저하의 10대 시기 부정 경험 영향 완화 및 긍정 경험 강화 → [전략③] 청소년 온라인 도박 예방·사후 지원 연계 및 찾아가는 금융교육 강화				
[과제5] 청소년 도박 예방·사후 지원과 금융교육 연계				
5-1. 도박 예방 교육 내용에 금융교육 반영 (강화)	②	①	①	사행산업통합위 (금감원)
5-2. 도박 중독 회복지원에 금융교육 내용 연계 반영	②	①	①	사행산업통합위 (금감원)

추진 과제	과제 추진 유형	근거 법령/규정	추진 기간*	소관 및 관계 부처
	①법령/규정 제·개정	①있음	①단기	중앙부처
	②기존 사업 보완·확대	②개정 필요	②중기	
	③신규 사업 도입	③제정 필요	③장기	
	④추진 체계 정비	④없음		

[과제6] 1사1교 사업 대상 범위 확대 및 추진 강화

6-1. 청소년 및 청년 지원 기관 및 시설까지 대상 범위 확대 실시	②	①	①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6-2. 찾아가는 금융교육 내용의 표준 가이드 마련	②, ③	④	①, ③	금융위원회

[4] 20대 초반, 후기청소년 청년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 기반 강화
→ [전략4] 수요자 측면을 고려한 금융소비자 보호 수단의 제도적 기반 강화

[과제7] 후기청소년 금융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및 실증분석 강화

7-1. '금융교육협의회' 규정 법률 일부 개정	①	①	①, ②	금융위원회
7-2.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확대 실시 및 실증분석 강화	①	①	①, ②	금융위원회

[과제8] 금융회사의 청년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 촉진 수단의 강화

8-1. 금융회사 청년 보호 활동 실태평가 시,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 시) 가점 부여	③	①	①	금융위원회 (금감원)
8-2. 금융감독원 '지원'의 청년층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강화	②	①	①	금융위원회 (금감원)

* 주: 단기(1~2년 이내), 중기(3~5년 내), 장기(5년 이상)



참고문헌

참고문헌

[논문과 저서]

- 김아름, 양혜경 (2016). 사회초년생의 금융이해력과 재무스트레스가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Financial Planning Review*, 9(4), 79-105.
- 김지경, 서정아, 송현주 (2023).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실태(연구보고23-기본0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희정, 김홍배 (2021). 금융이해력 결정요인에 기초한 성인 금융교육의 방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8), 743-755.
- 이윤희 (2015).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금융 이해력 비교 분석. *경제교육연구*, 22(3), 91-122.
- 이윤희 (2018). 우리나라 성인의 연령대별 금융이해력. *경제교육연구*, 25(3), 61-85.
- 주소현 (2023). *금융이해력*. 서울: 학이시습.
- 최현자, 조혜진 (2011). 금융교육과 금융거래경험이 대학생의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 연구*, 22(4), 55-75.
- 한지형 (2013). *사회초년생의 금융사회화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석사학위논문.
- 한진수, 장경호 (2022). 우리나라 대학생의 금융 이해력 결정 요인 분석. *시민교육연구*, 54(2), 69-88.
- Annabi, A., González R. M. J., & Müller, F. (2018). What determines financial knowledg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inancial Education*, 44(2), 344-366.
- Antia E. D., & Nocile M. E. (2022). *Financial literacy among children, The Routledge handbook of financial literacy. Edited by Gianni Nicolini and Brenda J. Cude*. New York: Routledge.
- Bosch, L. A., Serido, J., Card, N. A., Shim, S., & Barber, B. (2016). Predictors

- of financial identity development in emerging adulthood. *Emerging Adulthood*, 4(6), 417-426.
- Breithbach, E., & Walstad, W. B. (2016).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behavior among young adults in the united states*. In E. Wuttke, J. Seifried, & S. Schumann (Eds.), *Economic competence and financial literacy of young adults: Status and challenges* (pp. 81-98). Verlag Barbara Budrich.
- Caniglia, J., & Michali, Y. (2018). A financial literacy course for postsecondary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practice brief). *Journal of Postsecondary Education and Disability*, 31(1), 295-300.
- Cude, B. J. (2022). 1. *Defining Financial Literacy*. *The Routledge Handbook of Financial Literacy edited by Gianni Nicolini and Brenda J. Cude*. New York: Routledge.
- Curran, M. A., Parrott, E., Ahn, S. Y., Serido, J., & Shim, S. (2018). Young adults' life outcomes and well-being: Perceived financial socialization from parents, the romantic partner, and young adults' own financial behavior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39, 445-456.
- Damian, L. E., Negru-Subtirica, O., Domocus, I. M., & Friedlmeier, M. (2019). Healthy financial behaviors and financial satisfaction in emerging adulthood: A parental socialization perspective. *Emerging Adulthood*, 8(6), 548-554.
- Gibby, A. L., Pettit, L., Hill, E. J., Yorgason, J., & Holmes, E. K. (2020). Implicit and explicit childhood financial socialization: Protective factors for marital financial disagreement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42, 225-236.
- Grohmann, A., Kouwenberg, R. & Menkhoff, L. (2015). *Childhood roots of financial literacy* (DIW Berlin Discussion Papers, No. 1507).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 Henager, R., & Cude, B. J. (2016). Financial literacy and long and short-term financial behavior in different age groups.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7(1), 3-19.
- Jorgensen, B. L., & Savla, J. (2010). Financial literacy of young adults: The

- importance of parental socialization. *Family Relations*, 59, 465—478.
- Kadoya, Y., & Khan, M. S. R. (2020). What determines financial literacy in Japan?. *Journal of Pension Economics & Finance*, 19(3), 353-371.
- Karakurum-Ozdemir, K., Kokkizil, M., & Uysal, G. (2019). Financial literacy in developing countr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43, 325-353.
- Lee, J. C., & Mortimer, J. T. (2009). Family socialization, economic self-efficacy, and the attainment of financial independence in early adulthood. *Longitudinal and Life Course Studies*, 7(1), 45-62.
- Moschis, G. P. (1985). The role of family communication in consumer socializ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1(4), 898-913.
- Peng, T M., Bartholomae, S., Fox, J., & Cravener, G. (2007). The impact of personal finance education delivered in high school and college cours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8, 265-284.
- Robb, C. A., & Woodyard, A. S. (2011). Financial Knowledge and Best Practice Behavior.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2(1), 60-70.
- Serido, J. (2022). 3. *Financial Literacy among Young Adults*. *The Routledge Handbook of Financial Literacy edited by Gianni Nicolini and Brenda J. Cude*. New York: Routledge.
- Serido, J., LeBaron, A. B., Li, L., Parrott, E., & Shim, S. (2020). The Lengthening Transition to Adulthood: Financial Parenting and Recentering during the College-to-Career Transi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41(9), 1626-1648.
- Serido, J., Shim, S., & Tang, C. (2013). A framework for promoting financial capability among young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7(4), 287-297.
- Shim, S., Barber, B. L., Card, N. A., Xiao, J. J., & Serido, J. (2010). Financial socialization of first-year college students: The role of parents, work and educ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 1457-1470.
- Shim, S., Xiao, J. J., Barber, B. L., & Lyons, A. C. (2009). Pathways to life success

- s: A conceptual model of financial well-being for young adul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0, 708-723.
- Sirsch, U., Zupancic, M., Poredos, M., Levec, K., & Friedlmeier, M. (2019). Does parental financial socialization for emerging adults matter? The case of austrian and slovene first-year university students. *Emerging Adulthood*, 8(6), 509-520.
- Tashakkori, A. & Teddie, C.저, 염시창 역 (2001). *통합연구방법론*(Mixed Methodology). 서울: 학지사.
- White, H. (1980). A heteroskedasticity-consistent covariance matrix estimator and a direct test for heteroskedasticity. *Econometrica*, 48(4), 817-838.
- Xiao, J. J., Chattejee, S., & Kim, J. (2014). Factors associated with financial independence of young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8(4), 394-403.

[국내자료]

- 고용노동부 (2025.01).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 관계부처 합동 (2025.04).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II. 주거, III. 교육, IV. 생활복지 문화.
- 관계부처 합동 (2025.09.22.).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 방향.
- 국무조정실 (2021.08.26.). 청년특별대책 87개과제 발표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 (2024.03.05.).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일곱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개최 보도자료.
- 국회정무위원회 (2025.08),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 보고」.
- 금융감독원 (2024.02.29.).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교재 개정 발간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2024.05.15.). 금융감독원, 청년층 등 성인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 실용 금융 강좌 온라인(K-MOOC) 개설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2024.12.16.). '24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2025.04.08.).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2025.06.04.). 2025년 2학기 대학 '실용금융' 강좌 개설지원 신청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2025.09.22.). '2025년 청년 금융특강' 실시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25.04.29.). 「2024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결과 보도자료.

금융교육협의회 (2020.04). 금융교육 개선 기본 방향 추진 현황.

금융위원회 (2013.06.26.). 청년·대학생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17.11.06.). 청년·대학생 금융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방향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18.05.23.). 청년병사의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0.03.26.).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공급규모 4.1조원으로 확대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1.11.22.). 청년 채무부담 경감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2.02.08.).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시작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2.12.22.). 생애주기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금융교육 추진 방안」, 2022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의결안건 자료.

금융위원회 (2023.12.22.). 2030청년 금융교육 중점 추진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4.03.04.).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시작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4.05.22.). 청년도약계좌 점검 운영회의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4.06.26.). '청년 금융을 나답게'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4.07.23.).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 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개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4.10.30.). '청년 금융을 나답게' 토크 콘서트 개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4.10.30.). 저소득 청년사업자(창업 1년 이내)도 햇살론유스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시행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5.06.09.).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이자 부담 경감 및 공급채널 확대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5.09).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보건복지부 (2024.04.16.). '7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서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25). 2025년 자활사업안내(II)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서동용 (2021.10). 「국가장학금 도입 10년 평가와 전환」, 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서민금융진흥원 (2023.09.27.). '청년금융아카데미' 개최 보도자료.
서민금융진흥원 (2023.12). 「청년금융 실태조사 보고서」.
서민금융진흥원 (2024.12), 「청년금융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23.06).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여성가족부 (2023.11.02.).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일상 회복 돕는다' 보도자료.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 (2024.12). 「2024년 청년센터 운영 실태 및 종사자 직무
현황조사 보고서」.
통계청 (2024.07.16.).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2024.03.07.). 「2023 OECD/INFE」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보도
자료.

[해외자료]

OECD (2023). OECD/INFE 2023 International Survey of Adult Financial Literacy.

[언론기사]

남도일보 (2018.07.03.). 광주시, 일하는 청년의 저축 지원한다.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0833>에서 2025년 5월 14일 검색 및
인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06.09.). 소득공제 40%,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했
습니다. <https://www.korea.kr>에서 2025년 5월 13일 검색 및 인출.
아시아경제 (2024.10.17.). [단독]복리 계산·분산투자 못하는 한국인[필수! 금융교육]②.
<https://v.daum.net/v/20241017061208996>에서 2025년 4월 3일 검색 및 인출.
전남일보 (2024.04.08.). 전남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1167명 만기 지급. <https://www.jnilbo.com>에서 2025년 5월 14일 검색 및 인출.
헤드라인제주 (2025.08.29.). 제주청년이 기획한 '머니업! 청년금융클래스' 내달 6일 개
최.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6436>
서 10월 10일 인출.
e대학저널 (2025.08.28.). 유한대, KB금융공익재단과 대학생 금융교육 강화 협약. <https://dhnews.co.kr/news/view/1065602784754312>에서 10월 10일 인출.

[법령]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청년 기본 조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참고 사이트]

강원특별자치도. <https://state.gwd.go.kr>에서 2025년 5월 14일 검색 및 인출.
경기도 사업안내. <https://account.ggwf.or.kr>에서 2025년 5월 14일 검색 및 인출.
경상남도 청년정보플랫폼. <https://youth.gyeongnam.go.kr>에서 2025년 5월 14일 인출.
경상북도경제진흥원. <https://happyplatform.gepa.kr>에서 2025년 5월 14일 검색 및 인출.
고용24. <https://m.work24.go.kr>에서 2025년 5월 13일 검색 및 인출.
교육통계 홈페이지.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5년 6월 24일 검색 및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5년 10월 2일 검색 및 인출.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www.kosis.kr>에서 2025년 4월 16일, 7월 10일 검색 및 인출.
국방부. <https://www.mnd.go.kr>에서 2025년 5월 20일 검색 및 인출.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에서 2025년 5월 13일 검색 및 인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에서 2025년 9월 22일 검색 및 인출.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https://www.fss.or.kr/edu>에서 2025년 9월 23일 검색 및 출력 후 내용 구성.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에서 2025년 9월 19일 검색 및 인출.
다음백과. <https://100.daum.net>에서 2025년 10월 08일 검색 및 인출.
대구광역시. <https://youthdream.daegu.go.kr>에서 2025년 5월 14일 검색 및 인출.
대전청년포털. <https://www.daejeonyouthportal.kr>에서 2025년 5월 14일 검색 및 인출.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Money motivation' tools. <https://www.consumerfinanc>

e.gov/consumer-tools/educator-tools에서 2025년 9월 24일 검색 및 인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에서 2025년 6월 24일 검색 및 인출.
북지로. <https://www.bokjiro.go.kr>에서 2025년 5월 13일 검색 및 인출.
부산청년플랫폼. <https://young.busan.go.kr>에서 2025년 5월 14일 검색 및 인출.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에서 2025년 5월 13일 검색 및 인출.
서울특별시 청년몽땅 정보통. <https://youth.seoul.go.kr>에서 2025년 5월 14일 검색
및 인출.
세종청년센터. <https://4242.or.kr>에서 2025년 5월 14일 검색 및 인출.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포털. <https://open.assembly.go.kr>에서 2025년 10월 2일 검색
및 인출.
인천청년포털. <https://youth.incheon.go.kr>에서 2025년 5월 14일 검색 및 인출.
전북청년허브센터. <https://double.jb2030.or.kr>에서 2025년 5월 14일 검색 및 인출.
(☞)NICE평가정보. https://www.niceinfo.co.kr/creditrating/cb_score_1_1.nice
에서 2025년 9월 30일 검색 및 인출.
청년자산센터. <https://youthassetcenter.kr>에서 2025년 5월 13일 검색 및 인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https://www.kcgp.or.kr>에서 2025년 9월 23일 검색 인출.
OECD/INFE. <https://www.oecd.org/en/networks/infe.html>에서 2025년 9월 29
일 검색 및 인출.

○ — 부 록

- 1. 초점집단면접조사(FGI)
개방형 질문지
- 2.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표
- 3. 실증모델 분석변수의
기초통계량

부록

1. 초점집단면접조사(FGI) 개방형 질문지
2.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표
3. 실증모델 분석변수의 기초통계량

1. 초점집단면접조사(FGI) 개방형 질문지

□ FGI 면접조사 질문

1. (저축과 투자 경험) 현재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있나요?

1-1. 처음 저축을 하게 된 것은 언제인가요?

1-2. 어떤 일을 계기로 저축을 하게 되었나요?

1-3. 처음 저축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1-4. 처음 투자를 하게 된 것은 언제인가요?

1-5. 어떤 것에 투자하고 있나요?

1-6. 어떤 일을 계기로 투자를 하게 되었나요?

1-7. 저축과 투자를 하면서 찾아본 정보는 무엇인가요?

1-8. 어떤 정보가 저축과 투자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1-9.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얻는 효능감(*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믿는 자기 신념) 같은 것이
있나요?(또는 생기나요?)

1-10. 주변 또래 친구들도 저축과 투자를 많이들 하고 있나요?

1-11. 요사이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어떤 저축과 투자에 관심이 많은가요?

2. (금융교육 경험) 초·중·고 학창 시절에 금융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1-1. 언제 어떠한 형태와 내용의 금융교육을 받았나요?

1-2. 그때의 교육 경험이 현재의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1-3. 학교 교육을 통해 갖게 된 신념, 가치관 같은 것이 있나요?

1-4. 부모님께서도 알려주시거나 지도해주신 것이 있나요?

1-5. 부모님의 지도가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1-6. 부모님의 지도를 통해 갖게 된 신념, 가치관 같은 것이 있나요?

3. (부채 및 금융피해 경험) 대출 등 부채 경험이나 그것을 상환한 경험이 있나요?

1-1. 언제 어떠한 형태와 내용의 부채를 갖게 되었나요?

1-2. 그 부채를 어떠한 방식으로 상환했나요?

1-3. 부채를 가질 때, 내용과 상환 조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나요?

- 1-4. 주변 또래 친구나, 20대 초반 청년들이 어느 정도 부채를 갖고 있나요?
- 1-5. 불법 사금융이나 사기 등의 금융 피해 경험도 있나요?
- 1-6. 20대 초반 청년들이 금융 피해에 취약하다고 생각하나요? 어떠한 측면에서 취약가요?

4. (지식과 신념 및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 저축과 투자, 대출 결정 등에 객관적 정보나 지식, 주관적 이해나 경험, 또는 돈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 같은 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어떠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1-1. 객관적 정보나 지식은 어떠한 측면에서 중요할까요?
- 1-2. 주관적 경험은 어떠한 측면에서 중요할까요?
- 1-3. 돈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 등은 어떠한 측면에서 중요할까요?
- 1-4. 저축과 투자, 대출 결정 시, 어떠한 정보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나요?
- 1-5. 객관적 정보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5. (20대 낮은 금융이해력) ‘2022년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금융이해력 총점수가 30대 · 40대 · 50대 보다도 낮고, 특히 20대 중에서도 19세~24세 연령대가 낮다는 결과가 있는데, 당사자로서 왜 20대 초반 청년들의 금융이해력이 낮다고 생각하나요?

- 1-1. 낮은 금융이해력을 높이려고 한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6. (금융이해력과 웰빙) 고등학교 졸업한 후 자립해서 삶을 살아가는 데, 금융에 대한 이해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1-1. 고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체감되나요? 어떠한 측면에서 더 다르게 체감되나요?
- 1-2. 금융이해력이 갖추어졌을 때,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까요?

2.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표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후기청소년(19세~24세)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19세~24세)을 위한 사회환경 개선 및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가정책을 개발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 조사는 19세~24세에 해당하는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의 실증 자료 확보를 위해 실시됩니다.

응답한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연구 이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기에 조사 참여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응답 결과는 통계분석을 거쳐 향후 20대 초반의 후기청소년 대상 금융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참여자분의 경험과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 본 조사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음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기관	(주)에스티아이	담당자	장혜수 연구원	연락처	02-785-9247, sweep21@goodsti.com
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문세진 연구원	연락처	044-415-2168, sejinmoon@nypi.re.kr

A ▶ 응답 대상자 판별: 대상자 Filtering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응답값	비고
A1 [생년월일]	귀하의 태어난 연월일을 선택해 주세요.	____ 년 ____ 월 ____ 일 (연령: 00세) (2000.7.2.~2006.7.1. → 응답 대상자) → 비해당자 응답 종료	* 변수: 연령 산출 (기준일 2025.7.1.)
A2 [고교 학력]	귀하의 <u>고등학교 학력</u> 상태를 다음 중 선택해 주세요.	1. 고등학교 진학하지 않았거나 중퇴 → 응답 종료 2.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 → 응답 종료 3. 고등학교 졸업 B → B1 4. 검정고시로 고교 졸업 학력 취득 B → B1	

B ▶ 응답자 세부 집단 분류: 세부 집단 및 성별 할당 표본수 Checking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응답값	비고
세 부 집 단	B1 [대졸 구분]	귀하의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1. 대학 진학하지 않았거나 중퇴 → B2 2. 2년3년제 대학 재학 중(휴학생 포함) → B3 3. 4년제 대학 재학 중(휴학생 포함) → B3 4. 대학 졸업 → B2 5. 대학원 재학 → B2 6. 대학원 졸업 → B2
분 류	B2 [취업 여부 구분]	[B1.에서 2. & 3. 응답자 제외] 귀하는 현재 취업한 상태인가요? (※ 자영업,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도 '취업한 상태'입니다. "1. 예" 로 응답해 주세요.)	1. 예 2. 아니오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응답값	비고
B3 [성별]	귀하의 성별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1. 남성 → B3-1 2. 여성 → C1	
B3-1 [군복무여부]	(남성만) 군복무(대체복무 포함)를 완료하였나요? (※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아니오'에 응답)	1. 예 → B2-2 2. 아니오 → C1	
B3-2 [군복무기간]	(남성만) 총 몇 개월 근무하였나요?	1. 18개월 2. 20개월 3. 21개월 4. 기타(써 주세요: ____ 개월)	
B3-3 [장병적금가입여부]	(남성만) 군복무 기간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였나요?	1. 예 → B2-4 2. 아니오 → C1	
B3-4 [저축기간 및금액]	(남성만) '장병내일준비적금'으로 한 달에 얼마씩 몇 개월 동안 저축하였나요?	한 달에 ____ 만원 씩 ____ 개월	
B3-5 [만기유지]	(남성만)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만기까지 가입을 유지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 받았나요?	1. 예 2. 아니오(중도 해지) → B2-7	
B3-6 [만기금액]	(남성만)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후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받은 금액은 총 얼마였나요?	총 ____ 만원	
B3-7 [사용용도]	(남성만) 만기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였나요? 사용한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 ____, 2순위 ____, 3순위 ____	1. 학비 2. 취업 준비 3. 창업 자금 4. 주거 보증금 5. 일상 생활비 6. 여행 등 취미생활 7. 가족 지원 8. 예적금 저축 9. 주식, 코인 등 투자 10. 자동차 구매 11. 기타(써 주세요: _____)	

C

응답자 특성: 인적정보 외 사회인구학적 특성, 10대 시기 경험 특성, 부모 특성

C. 응답자 특성: 1. 인적정보 외 사회인구학적 특성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응답값	비고																		
C1 [거주지역]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1. 서울 2. 광역시, 특별시, 대도시 특례 《해당 지역》 ·광역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특별시: 수원, 고양, 용인, 화성, 창원 ·대도시 특례: 성남, 부천, 안산, 안양, 평택, 남양주, 시흥, 파주, 김포, 청주, 전주, 천안, 포항, 김해 3. 그 외 지역	*변수 범주: 1.= 서울 2.= 서울 이외 대도시 3. 그 외 지역 cf) 특별시 (인구 100만 이상 『지방자치법』 지정), 대도시 특례(인구 50만 이상)																		
C2 [금융자격증 보유여부]	귀하는 취득한 금융관련자격증이 있나요? (※ 금융관련 자격증 예: 자산관리사(은행FP), 신용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재무설계사(AFPK), 종합자산관리사(IFP), 보험판매관리사, 재경관리사, CFP, CFA, FRM 등)	1. 있다 2. 없다																			
C3 [월평균소득]	귀하의 최근 3개월 동안 다음 각 항목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인가요? 다음 중 소득이 있는 항목만 세금을 제외한 세후 소득 금액을 각각 써주세요. (※ 장학금 등 학기당 일시불로 받는 경우, 4개월로 나눈 평균 금액을 써 주시고, 1년 금액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12개월로 나눈 평균 금액을 써 주세요.)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세후 월평균 소득 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td> <td>_____만원</td> </tr> <tr> <td>2) 내 사업(일) 소득</td> <td>_____만원</td> </tr> <tr> <td>3) 아르바이트 소득</td> <td>_____만원</td> </tr> <tr> <td>4) 부모님이 주신 용돈 또는 생활비</td> <td>_____만원</td> </tr> <tr> <td>5) 금융소득(이자, 배당, 매매차익 등)</td> <td>_____만원</td> </tr> <tr> <td>6) 장학금</td> <td>_____만원</td> </tr> <tr> <td>7) 기타(써 주세요: _____)</td> <td>_____만원</td> </tr> <tr> <td>합계</td> <td>_____만원 (자동 산출)</td> </tr> </tbody> </table>	항목	세후 월평균 소득 금액	1)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_____만원	2) 내 사업(일) 소득	_____만원	3) 아르바이트 소득	_____만원	4) 부모님이 주신 용돈 또는 생활비	_____만원	5) 금융소득(이자, 배당, 매매차익 등)	_____만원	6) 장학금	_____만원	7) 기타(써 주세요: _____)	_____만원	합계	_____만원 (자동 산출)	
항목	세후 월평균 소득 금액																				
1)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_____만원																				
2) 내 사업(일) 소득	_____만원																				
3) 아르바이트 소득	_____만원																				
4) 부모님이 주신 용돈 또는 생활비	_____만원																				
5) 금융소득(이자, 배당, 매매차익 등)	_____만원																				
6) 장학금	_____만원																				
7) 기타(써 주세요: _____)	_____만원																				
합계	_____만원 (자동 산출)																				


C

응답자 특성: 인적정보 외 사회·인구학적 특성, 10대 시기 경험 특성, 부모 특성

C. 응답자 특성: 2. 10대 시기 경험 특성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응답값	비고								
C4 [졸업고교유형]	귀하가 졸업한 <u>고등학교</u>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1. 일반고 2. 자율고(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3. 과학고·영재학교 4. 외국어고·국제고 5. 예술고·체육고 6. 마이스터고 7. 특성학교 8. 대안학교(각종 학교) 9. 기타(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고, 해외고교, 검정고시 등)									
C5 [성장지역]	귀하가 <u>초·중·고등학교 시기</u> 주로 살았던 지역은 어디인가요? (※ 가장 오래 살았던 곳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1. 서울 2. 광역시, 특례시, 대도시 특례 <div>《해당 지역》 ·광역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특례시: 수원, 고양, 용인, 화성, 창원 ·대도시 특례: 성남, 부천, 안산, 안양, 평택, 남양주, 시흥, 파주, 김포, 청주, 전주, 천안, 포항, 김해</div> 3. 그 외 지역	*변수 범주: 1.= 서울 2.= 서울 이외 대도시 3. 그 외 지역 cf)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 「지방자치법」 지정), 대도시 특례(인구 50만 이상)								
C6 [초·중·고 학교금융교육 경험]	귀하는 <u>초·중·고등학교 시기</u> <u>학교에서 금융교육</u> 을 받았던 경험이 있나요? 다음 각 교육방식의 경험 유무를 응답해 주세요. (※ 금융교육: 소비 습관, 용돈(수입) 관리, 저축 및 투자, 은행의 역할, 이자 및 금리, 신용, 재무계획 수립 등)	<table><tr><th>금융교육 방식</th><th>경험 유무</th></tr><tr><td>1) 교과목 수업에서 배움</td><td>1. 있다 2. 없다</td></tr><tr><td>2) 교과목 이외 동아리 등 활동에서 배움</td><td>1. 있다 2. 없다</td></tr><tr><td>3) 외부 강사 특강에서 배움</td><td>1. 있다 2. 없다</td></tr></table>	금융교육 방식	경험 유무	1) 교과목 수업에서 배움	1. 있다 2. 없다	2) 교과목 이외 동아리 등 활동에서 배움	1. 있다 2. 없다	3) 외부 강사 특강에서 배움	1. 있다 2. 없다	
금융교육 방식	경험 유무										
1) 교과목 수업에서 배움	1. 있다 2. 없다										
2) 교과목 이외 동아리 등 활동에서 배움	1. 있다 2. 없다										
3) 외부 강사 특강에서 배움	1. 있다 2. 없다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응답값	비고										
C7 [초중고 부모 명시적 교육]	귀하는 초·중·고등학교 시기 부모로부터 돈 관리에 대해 어느 정도 배웠다고 생각하나요?	1. 전혀 배우지 않음 2. 거의 배우지 않음 3. 조금 배움 4. 매우 많이 배움											
C8 [초중고 학교외 금융교육 경험]	귀하는 초·중·고등학교 시기 학교 이외의 곳에서 주최하는 금융교육이나 금융캠프 등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나요? (※ 은행, 증권사, 경제신문사, 지역센터에서 주최하는 금융교육 강좌 또는 캠프)	1. 있다 2. 없다											
C9 [금융투자경험]	귀하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스스로 가입하여 다음 각 항목의 금융상품을 보유한 적 있나요? (※ 뮤직카우 음원 저작권: 음악 저작권을 증권과 같이 구매를 하고, 그에 따른 저작권료 수익을 얻는 상품)	<table><tr><th>금융상품</th><th>스스로 가입·보유</th></tr><tr><td>1) 정기 적금 또는 예금 계좌</td><td>1. 있다 2. 없다</td></tr><tr><td>2) 주식 계좌</td><td>1. 있다 2. 없다</td></tr><tr><td>3) 가상화폐(비트 코인 등)</td><td>1. 있다 2. 없다</td></tr><tr><td>4) 저작권(뮤직카우 음원 등)</td><td>1. 있다 2. 없다</td></tr></table>	금융상품	스스로 가입·보유	1) 정기 적금 또는 예금 계좌	1. 있다 2. 없다	2) 주식 계좌	1. 있다 2. 없다	3) 가상화폐(비트 코인 등)	1. 있다 2. 없다	4) 저작권(뮤직카우 음원 등)	1. 있다 2. 없다	
금융상품	스스로 가입·보유												
1) 정기 적금 또는 예금 계좌	1. 있다 2. 없다												
2) 주식 계좌	1. 있다 2. 없다												
3) 가상화폐(비트 코인 등)	1. 있다 2. 없다												
4) 저작권(뮤직카우 음원 등)	1. 있다 2. 없다												
C10 [체크카드사용 시기]	귀하가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다음 중 언제 인가요?	1. 초등학교 저학년(1학년~3학년) 시기 2. 초등학교 고학년(1학년~3학년) 시기 3. 중학교 1학년 4. 중학교 2학년 5. 중학교 3학년 6. 고등학교 1학년 7. 고등학교 2학년 8. 고등학교 3학년 9. 고등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되어서											
C11 [청소년카드 사용경험]	귀하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청소년 전용 금융카드를 사용했었나요? (※ 청소년 전용 금융카드: 카카오뱅크 미니, 토스 유스카드, 케이뱅크 하이틴 등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선불충전방식 카드) (※ 주의: 학생증과 연계된 체크카드와는 다른 카드임.)	1. 예 2. 아니요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응답값	비고
C12 [초중고 금융교육경험]	귀하는 <u>중고등학교</u> 시기에 스스로 경제 뉴스나 금융 정보를 찾아보는 활동을 한 적이 있나요?	1. 예 2. 아니오	
C13 [부정경험: 온라인도박]	귀하는 <u>중고등학교</u> 시기에 사행성 게임이나 온라인 도박을 했던 경험이 있나요? (※ 온라인 도박: 바카라, 룰렛, 사다리, 스포츠토토, 로하이, 달팽이 등)	1. 있다 2. 없다	
C14 [부정경험: 휴대폰결제강]	귀하는 <u>중고등학교</u> 시기에 일명 <u>휴대폰 결제강</u> 을 했던 경험이 있나요? (※ 휴대폰 소액결제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아이템을 사서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결제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떼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음)	1. 있다 2. 없다	
C15 [부정경험: 폰테크]	귀하는 <u>중고등학교</u> 시기에 폰테크를 했던 경험이 있나요? (※ 휴대폰 개통 후 기기를 업체에 다시 주고, 업체로부터 휴대폰 가격 금액의 일부를 받음)	1. 있다 2. 없다	
C16 [부정경험: 소액대출]	귀하는 <u>중고등학교</u> 시기에 SNS등 온라인에서 <u>소액 대출</u> 을 했던 적이 있나요?	1. 있다 2. 없다	

C. 응답자 특성: 3. 부모 특성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응답값				비고														
C17 [부모동거여부]		귀하는 현재 <u>부모님과 함께</u> 살고 있나요?	1. 예 2. 아니오 3. 생존해 계신 부모님 없음 → 																		
C18 [부모경활상태]		현재 귀하의 부모님께서서는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다음 중 귀하 부모님의 경제활동 상태를 선택해 주세요.	1. 부모 모두 일 하신다 2. 아버지만 일 하신다 3. 어머니만 일 하신다 4. 부모 모두 일하지 않는다																		
C19 [부모금융종사]		귀하 부모님 중 금융업(은행, 증권사, 투자회사, 보험사, 금융기관 등)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나요?	1. 있다 2. 없다																		
C20 [부모금융투자]		귀하 부모님은 <u>주식 투자</u> 또는 <u>암호가상화폐</u> 투자를 하시나요?	1. 예 2. 아니오 3. 모름																		
부 모 S E S	C21 [부모 소득]	귀하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1. 300만원 이하 2. 300만원~600만원 미만 3. 600만원~800만원 미만 4. 800만원~1,000만원 미만 5. 1,000만원 이상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준 중위소득' 참조 (https://www.mohw.go.kr , 2025.6.24. 검색)														
	C22 [부모 학력]	귀하 부모님의 최종 학력을 각각 응답해 주세요.	<table><tr><th>구분</th><th>초등 졸업</th><th>중학 졸업</th><th>고교 졸업</th><th>대학 졸업</th><th>대학원 졸업</th></tr><tr><td>1) 아버지</td><td></td><td></td><td></td><td></td><td></td></tr><tr><td>2) 어머니</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구분	초등 졸업	중학 졸업		고교 졸업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1) 아버지						2) 어머니				
구분	초등 졸업	중학 졸업	고교 졸업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1) 아버지																					
2) 어머니																					

D

세부 집단별 현재 상태 특성

D. 세부 집단별 현재상태 특성: 1. 대학 재학생 특성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응답값	비고
D1 [학년 및 재학상태]	귀하의 <u>학년</u> 또는 <u>재학 상태</u> 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4. 4학년 5. 대학 졸업 유예 또는 수료생 6. 대학원 과정생	
D2 [전공]	<p>[대학 재학생] 대학에서 귀하의 전공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p> <p>[대학원 재학생] 졸업한 대학에서 귀하의 전공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했나요?</p> <p>(※ 복수학위의 경우, 주된 전공으로 응답해 주세요.)</p>	1. 인문계열 2. 사회계열 중 경제경영 전공 3. 사회계열(경제경영 이외 전공) 4. 교육계열 5. 공학계열 6. 자연계열 7. 의약학계열 8. 예체능계열 9.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통계 대학과정계열 대부분 류 기준 준용, 사회계열만 경 제경영 연구자가 재분리 제 시 (https://kess.kedi.re.kr/index)
D3 [재학 중 수강 경험]	귀하는 대학 재학 중 ' <u>금융</u> ' 관련 과목을 수강한 적 있나요?	1. 예 → E 2. 아니오 → D3-1	
D3-1 [졸업 후 수강 경험]	'금융' 관련 과목 수강은 아니지만, <u>고교 졸업 후 금융교육</u> 을 받은 적이 있나요?	1. 있다 2. 없다	

[Web 프로그래밍] 응답 완료 후 E로 이동

D. 세부 집단별 현재상태 특성: 2. 취업자 특성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응답값	비고
D4 [취업자 근로형태]	귀하의 <u>현재 근로 형태</u> 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임금근로자 1. 단기 계약직(1개월 미만) 2. 단기 계약직(1개월 이상~1년 미만) 3. 기간제 계약직(1년 이상~2년 이하) 4. 무기계약직(계약기간 정해지지 않음) 5. 정규직 ◆비임금근로자 6. 고용된 사람이 없는 자영업자 7. 고용된 사람이 있는 자영업자 8. 가족의 일을 돕는 무급가족종사자	
D5 [취업자 근속기간]	귀하가 <u>현재 일하는 곳에서 일한 기간</u> 은 얼마나 되나요?	총 ____ 개월	
D6 [취업자 금융업 경험]	귀하는 현재 일자리를 포함하여 금융업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나요? (※ 금융업: 은행, 투자(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신용평가사, 거래 소 등)	1. 예 2. 아니오	
D7 [취업자 직종]	귀하가 <u>현재 하는 일</u> 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1. 관리직 6. 농림어업 숙련직 2. 전문직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 3. 사무직 8.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직 4. 서비스직 9. 단순 노무직 5. 판매직	
D8 [취업자 월급여]	귀하가 <u>현재 일자리에서 받는 월급(또는 수입)</u> 은 얼마인가요? (※ 세금 제외하기 전 월급 총액으로 답해주세요.)	세전 월 ____ 만원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응답값	비고
D9 [취업자 재직금융교육]	귀하는 이제까지 일하는 곳에서 '금융'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 금융교육: 소비 습관, 용돈(수입) 관리, 저축 및 투자, 은행의 역할, 이자 및 금리, 신용, 재무계획 수립 등)	1. 예 → E 2. 아니오 → D9-1	
D9-1 [취업자 고교졸업후 금융교육]	일하는 곳에서는 아니지만, <u>고교 졸업 후</u> 금융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 요? (※ 금융교육: 소비 습관, 용돈(수입) 관리, 저축 및 투자, 은행의 역할, 이자 및 금리, 신용, 재무계획 수립 등)	1. 있다 2. 없다	

D. 세부 집단별 현재상태 특성: 3. 미취업자 특성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응답값	비고
D10 [미취업자 취업 경험]	귀하는 현재 미취업 상태 이전에 <u>취업하여 일했던</u> 경험이 있나요? (※ 주당 15시간 이상 일했던 아르바이트 경험은 '1.있다' 로 응답)	1. 있다 2. 없다	
D11 [미취업자 미취업 기간]	현재까지 귀하의 <u>미취업</u>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1. 3개월 미만 2. 3개월~6개월 미만 3. 6개월~1년 미만 4. 1년~2년 미만 5. 2년 이상	
D12 [미취업자 주된 활동]	귀하는 미취업 기간 중 주로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다음 중 가장 주된 활동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 구직활동(입사 지원)을 함 2. 직업교육(훈련)을 받음 3. 취업 준비를 위해 학원 또는 도서관 등에 다님 4. 진학 준비를 위해 학원 또는 도서관 등에 다님 5. 집 등에서 그냥 시간을 보냄 6. 여행, 독서 등 여가 시간을 보냄 7. 육아·가사 활동을 함 8. 기타 (써 주세요:)	
D13 [미취업자 고교 졸업후 금융교육]	귀하는 <u>고교 졸업 후 금융교육</u> 을 받은 적이 있나요? (※ 금융교육: 소비 습관, 용돈(수입) 관리, 저축 및 투자, 은행의 역할, 이자 및 금리, 신용, 재무계획 수립 등)	1. 있다 2. 없다	

E

금융생활실태: 금융사회화, 금융생활경험, 금융태도 및 인식

E. 금융생활실태: 1. 금융사회화 (부모, 또래 친구)			
문항 번호	항 내용	응답값	비고
E1 [부모 금융 사회화]	일상에서 귀하의 부모님이 귀하에게 개인 재정 관리에 대해 가르쳐 주신적이 있나요? 다음 중 본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1. 부모님이 명시적으로 돈 관리나 저축투자 방법 등 개인 재정에 대해 가르쳐 준 적 있다. 2. 부모님이 명시적으로 가르쳐주시는 않았으나, 암묵적으로 부모님의 생활을 보며 배운 적 있다. 3.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부모님으로부터 개인 재정 관리에 대해 배운 적 없다.	
E2 [부모 역금융사회화]	일상에서 귀하가 부모님에게 돈 관리, 저축 또는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 더 유리한 대출 상품에 대해 알려주거나 가입 및 투자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있나요?	1. 있다 2. 없다	
E3 [또래 금융 사회화]	일상에서 귀하의 또래 친구(동료)들이 귀하에게 개인 재정 관리에 대해 정보를 알려주거나 설명해 준 적이 있나요?	1. 또래 친구(동료)가 명시적으로 돈 관리나 저축투자 방법 등 개인 재정에 대해 가르쳐 준 적 있다. 2. 또래 친구(동료)가 명시적으로 가르쳐주시는 않았으나, 암묵적으로 친구(동료)의 생활을 보며 배운적 있다. 3.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친구(동료)로부터 개인 재정 관리에 대해 배운 적 없다.	
E4 [또래 역금융사회화]	일상에서 귀하가 또래 친구(동료)에게 돈 관리, 저축 또는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 더 유리한 대출 상품에 대해 알려주거나 가입 및 투자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있나요?	1. 있다 2. 없다	

E. 금융생활실태: 2. 금융정체성 (Financial Identity) 및 주관적 자기 신념 (금융자신감, 주관적 금융관리 능력, 지각된 행동통제력)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응답값	비고
E5 [금융정체성]	다음에 기술된 '돈 관리 태도'에 관한 각 문장을 읽고,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을 <u>하나</u> 만 선택해 주세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는 돈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개인 재정문제에 큰 관심이 없다. 2. 나는 재정 목표, 소비 습관 등에 대해 고민해 보았고, 나에게 맞는 돈 관리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3. 나는 아직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돈 관리 방식인지 잘 모르겠고, 어떤 방식이 나에게 맞을지 알아보면서 결정하려고 한다. 4. 나는 나에게 맞는 돈 관리 방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기에 부모님의견을 전적으로 따라 결정하려고 한다. 	
E6 [금융자신감]	귀하는 스스로 재정 관리 할 수 있다는 <u>자신감</u> 이 어느 정도 있나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혀 자신 없다 2. 자신 없는 편이다 3. 자신 있는 편이다 4. 매우 자신 있다 	
E7 [주관적 금융관리능력]	귀하는 스스로가 얼마나 돈 관리를 잘 한다고 생각하나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혀 못한다 2. 못하는 편이다 3. 잘하는 편이다 4. 매우 잘한다. 	
E8 [지각된 행동통제력]	귀하는 돈 관리할 때, 계획을 지키는 것이 어느 정도로 쉽거나 어렵나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우 어렵다 2. 어려운 편이다 3. 쉬운 편이다 4. 매우 쉽다 	

E. 금융생활실태: 3. 금융생활실태 (E3-1. 소비지출 및 카드 사용)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응답값	비고
E9 [월평균 소비지출]	귀하의 최근 3개월 동안 한 달 평균 생활비는 얼마나 되나요?	한 달 평균 _____ 만원	
E10 [체크카드 사용]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나요?	1. 예 2. 아니오	
E11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모바일 결제 수단인 '페이(PAY)'를 사용하고 있나요?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	1. 예 2. 아니오	
E12 [신용카드 사용]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나요?	1. 예 → E12-1 2. 아니오 → E12-3	
E12-1 [카드 결제 연체 경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결제를 연체한 적이 있나요?	1. 예 2. 아니오	
E12-2 [할부 거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할부 거래를 이용하나요?	1. 예 2. 아니오	
E12-3 [할부 거래]	신용카드 할부 거래로 일부 결제 후 남은 금액이 '부채(빚)'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1. 예 2. 아니오	
E13 [휴대폰 소액결제 사용]	귀하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사용한 적이 있나요?	1. 예 2. 아니오	
E13-1 [결제 잔액 및 연체 경험]	휴대폰 소액결제를 사용하면서 휴대폰 사용료 납부를 연체한 적이 있나요?	1. 예 2. 아니오	

E. 금융생활실태: 3. 금융생활실태 (E3-2. 저축 및 투자)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응답값	비고						
E14 [보통예금]	귀하는 현재 입출금이 자유로운 <u>보통예금</u> 계좌를 사용하고 있나요?	1. 있다 2. 없다							
E15 [예·적금]	현재 귀하가 저축하고 있는 예금 및 적금이 있나요?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보유 여부</th></tr> </thead> <tbody> <tr> <td>1) 예금</td><td>1. 있다 2. 없다</td></tr> <tr> <td>2) 적금</td><td>1. 있다 2. 없다</td></tr> </tbody> </table>	구분	보유 여부	1) 예금	1. 있다 2. 없다	2) 적금	1. 있다 2. 없다	
구분	보유 여부								
1) 예금	1. 있다 2. 없다								
2) 적금	1. 있다 2. 없다								
E15-1 [예·적금 저축 금액]	저축하고 있는 예금 및 적금의 금액은 각각 얼마나 되나요?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금액</th></tr> </thead> <tbody> <tr> <td>1) 예금</td><td>_____ 만원</td></tr> <tr> <td>2) 적금</td><td>_____ 만원</td></tr> </tbody> </table>	구분	금액	1) 예금	_____ 만원	2) 적금	_____ 만원	
구분	금액								
1) 예금	_____ 만원								
2) 적금	_____ 만원								
E16 [저축성보험]	현재 귀하가 납입하고 있는 저축성 보험이 있나요? (※ 저축성 보험 연금 저축 등 저축과 보장 기능을 함께 갖는 보험 상품)	1. 있다 2. 없다							
E16-1 [저축성 보험 금액]	납입한 저축성 보험의 총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총 _____ 만원							
E17 [주식·채권]	현재 귀하가 투자하는 국내외 주식이나 채권이 있나요?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보유 여부</th></tr> </thead> <tbody> <tr> <td>1) 주식</td><td>2. 있다 2. 없다</td></tr> <tr> <td>2) 채권</td><td>2. 있다 2. 없다</td></tr> </tbody> </table>	구분	보유 여부	1) 주식	2. 있다 2. 없다	2) 채권	2. 있다 2. 없다	
구분	보유 여부								
1) 주식	2. 있다 2. 없다								
2) 채권	2. 있다 2. 없다								
E17-1 [주식·채권 투자 금액]	투자한 주식 및 채권의 금액은 각각 얼마나 되나요? 응답일 기준 평가금액을 써 주세요.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금액</th></tr> </thead> <tbody> <tr> <td>1) 주식</td><td>_____ 만원</td></tr> <tr> <td>2) 채권</td><td>_____ 만원</td></tr> </tbody> </table>	구분	금액	1) 주식	_____ 만원	2) 채권	_____ 만원	
구분	금액								
1) 주식	_____ 만원								
2) 채권	_____ 만원								
E18 [주식·채권]	현재 귀하가 투자하는 외화(달러, 엔화, 유로화 등)가 있나요?	1. 있다 → E18-1 2. 없다 → E19							
E18-1 [기축통화 금액]	보유하고 있는 외화(달러, 엔화, 유로화 등)를 원화로 환전한다면 총 얼마나 되나요? 응답일 기준 평가금액을 써 주세요.	총 _____ 만원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응답값	비고
E19 [암호·가상 화폐]	현재 귀하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 및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가 있나요?	1. 있다 → E19-1 2. 없다 → E20	
E19-1 [암호·가상 화폐 금액]	보유하고 있는 암호 및 가상화폐는 총 얼마나 되나요? 응답일 기준 평가금액을 써 주세요.	총 _____ 만원	
E20 [저작권 투자]	귀하는 ‘뮤직카우 음원’과 같은 저작권 투자를 하고 있나요? (※ 음악 저작권을 수익증권과 같이 뮤직카우에서 구매하고, 그에 대한 저작권료를 얻는 투자)	1. 예 → E20-1 2. 아니오 → E21	
E20-1 [저작권 투자 금액]	보유하고 있는 음원 저작권 금액은 총 얼마나 되나요? 응답일 기준 평가금액을 써 주세요.	총 _____ 만원	
E21 [마케팅미끼 계좌 개설]	귀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 중 “계좌 개설 시 5천원 또는 1만원 지급”과 같은 혜택 내용 때문에 개설한 계좌가 있나요?	1. 있다 → E21-1 2. 없다 → E22	
E21-1 [마케팅미끼 계좌 개설 수]	개설한 계좌는 총 몇 개나 됩니까?	총 ____ 개	
E22 [저축 및 투자 정보 습득]	귀하는 저축과 투자에 필요한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얻고 있나요? 다음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순서대로 세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____, 2순위 ____, 3순위 ____	1. 유튜브 동영상(경제/투자 유튜브 등 영상) 2. SNS 콘텐츠(인스타그램, 틱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 3. 블로그, 온라인커뮤니티(네이버카페, 디시, Reddit 등) 4. 금융 관련 앱(토스,뱅크샐러드, 증권사 앱 등) 5. 포털 뉴스, 검색(네이버 구글 등) 6. 금융기관 웹사이트나 직원과의 상담(은행, 증권사 등) 7. 정부 공공기관 자료(금융감독원, 청년금융지원 등) 8. 학교나 외부 교육기관의 금융교육 프로그램 9. 가족, 지인, 선배의 조언 9. 기타(써 주세요.: _____)	

E. 금융생활실태: 3. 금융생활실태 (E3-3. 대출 경험 및 부채)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응답값	비고
E23 [부채 유무]	귀하는 현재 대출하였거나 빌려 쓴 부채가 있나요?	1. 있다 → E23-1 2. 없다 → E24	
E23-1 [부채 사유]	부채를 지게 된 주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다음 중 주된 사유 순으로 세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__, 2순위 __, 3순위 __	1. 등록금 등 학업 관련 비용 2.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 3. 주거 마련에 필요한 비용 4. 내 생활비 조달 5. 내가 빌린 기존 부채의 상환 6. 주식 및 암호가상화폐 투자 7. 창업 또는 사업 투자 자금 조달 8. 사고, 질병 등에 따른 병원비 조달 9. 부모님 등 가족의 필요 자금 조달 10. 기타 (써 주세요:)	
E23-2 [부채 유형]	대출하였거나 돈을 빌려준 곳은 어디인가요? 다음 중 해당하는 곳 모두 선택해 주세요.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1. 장학재단 2. 은행 3. 저축은행 4. 상호금융(신협, 새마을금고, 단위 농수산물협) 5. 캐피탈, 카드사(카드론, 현금서비스) 6. 보험사 7. 청년대상 정부 대출(햇살론유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8. 정책서민금융(미소금융, 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새희망 흙씨) 9. 가족, 친척 10. 친구, 지인 11. 대부업체 12. 기타 (써 주세요:)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응답값	비고
E23-3 [부채 금액]	대출하였거나 빌려 쓴 돈은 총 얼마나 되나요?	총 _____ 만원	
E23-4 [상환 잔액 금액]	앞으로 갚아야 하는 남은 부채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총 _____ 만원	
E24 [대출 및 부채관리 정보]	귀하는 대출 및 부채관리 관련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고 있나요? 다음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순서대로 세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____, 2순위 ____, 3순위 ____	1. 유튜브 동영상(경제/투자 유튜버 등 영상) 2. SNS 콘텐츠(인스타그램, 틱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 3. 블로그, 온라인커뮤니티(네이버 카페, 디시, Reddit 등) 4. 금융 관련 앱(토스,뱅크샐러드, 증권사 앱 등) 5. 포털 뉴스 검색(네이버 구글 등) 6. 금융기관 웹사이트나 직원과의 상담(은행, 증권사 등) 7. 정부공공기관 자료(금융감독원, 청년금융지원 등) 8. 학교나 외부 교육기관의 금융교육 프로그램 9. 가족, 지인, 선배의 조언 10. 기타(써 주세요.: _____)	

E. 금융생활실태: 3. 금융생활실태 (E3-4. 정부지원 청년자산형성지원 상품 가입)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응답값	비고
E25 [정부자산형 성 상품 가입]	<p>귀하는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것이 있나요? 다음 중 가입한 것 모두 선택해 주세요.</p> <p>_____ , _____ , _____</p> <p>(※ 가입한 것이 없으면 10.)</p>	1. 청년희망적금 2. 청년도약계좌 3. 청년내일저축계좌 4. 청년희망키움통장 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6. 청년내일채움공제 7.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8. 청년형 ISA 9. 거주지역 지자체 청년지원 통장 10. 가입한 것 없음	
E. 금융생활실태: 3. 금융생활실태 (E3-5. 주관적 금융지식 수준 및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응답값	비고
E26 [주관적 금융지식 수준]	<p>귀하의 금융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금융지식 수준은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p>	1. 매우 낮다 2. 낮은 편이다 3. 평균 수준이다 4. 높은 편이다 5. 매우 높다	
E27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	<p>현재 및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 귀하에게 금융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p>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3. 필요한 편이다 4. 매우 필요하다	

F

금융이해력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 퀴즈 형식의 질문입니다.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응답해 주세요.

F. 금융이해력: 1. 금융지식(7개 문항 총 7점)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응답값	비고
F1 [인플레이션 과 구매력]	올해 백만원을 내고 상품A를 10개 샀고, 내년에도 백만원으로 상품A를 사려고 합니다. 내년 물가상승률이 5%일 때, 백만원을 내고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어떻게 되나요?	1. 10개 보다 많다 2. 10개로 동일하다 3. 10개 보다 적다 4. 모르겠다	* 3정답 1점, 그 외 0
F2 [이자 개념의 이해]	어느 날 친구에게 1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다음날 10만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경우 친구가 돈을 빌려간 대가로 지불한 돈(이자)은 얼마인가요?	1. 0원 2. 10만원 3. 20만원 4. 모르겠다	* 1정답 1점, 그 외 0)
F3 [단리계산]	1년에 5%의 이자를 주는 계좌에 백만원을 저축하고 1년 동안 추가로 입금하거나 인출하지 않았다면, 1년 뒤 이자가 지급되었을 때 계좌에는 얼마나 들어 있을까요?	1. 100만원 2. 100만원 보다 많다 3. 100만원 보다 적다 4. 모르겠다	* 2정답 1점, 그 외 0)
F4 [복리개념]	1년에 2%를 주는 계좌에 백만원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5년 동안 둔다면, 5년 후에 계좌에는 얼마의 돈이 들어 있을까요?	1. 110만원 초과 2. 110만원 3. 110만원 미만 4. 모르겠다	* 2정답 1점, 그 외 0)
F5 [위험과 수익간 관계]	다음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해 주세요.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큰돈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다”	1. 참 2. 거짓 3. 모르겠다	* 1정답 1점, 그 외 0)
F6 [인플레이션 의미]	다음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해 주세요.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생활비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참 2. 거짓 3. 모르겠다	* 1정답 1점, 그 외 0)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응답값	비고
F7 [분산투자 개념]	다음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해 주세요. “돈을 여러 곳에 투자하면 돈을 전부 잃어버릴 가능성이 낮아 진다”	1. 참 2. 거짓 3. 모르겠다	* 1정답 1점, 그 외 0)

※ 앞서 응답한 질문과 유사한 내용이 있더라도 해당하는 것에 응답해 주세요.

F. 금융이해력: 2. 금융행위(8개 문항 총 9점)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응답값	비고
F8 [예산관리 노력]	귀하는 용돈 또는 월급을 받거나 돈이 생기면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을 세우거나 지출 상황을 확인하나요?	1. 예 2. 아니오	* 예 1점
F9 [적극적인 저축활동]	귀하는 현금을 모은다거나 은행 예적금 계좌에 저축하거나 주식채권 또는 암호화폐가상자산 등에 투자하고 있나요?	1. 예 2. 아니오	* 예 1점
F10 [신중한 구매]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상품(물건)을 사기 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비교한 후 구매하나요?	1.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2.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이다 3. 그렇게 하는 편이다 4. 반드시 그렇게 한다	* 3. 과 4. 1점 1. 과 2. 0점
F11 [청구 대금 적기 지급]	귀하는 납부 일자가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에 잊지 않고 돈을 낼 수 있도록 기록해 두거나 표시해 두나요?	1.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2.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이다 3. 그렇게 하는 편이다 4. 반드시 그렇게 한다	
F12 [평소 재무 상황 점검]	귀하는 일상생활 하면서 나에게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하나요?	1.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2.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이다 3. 그렇게 하는 편이다 4. 반드시 그렇게 한다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응답값	비고																
F13 [장기 재무 목표 설정]	귀하는 하고 싶거나 가지고 싶은 것에 필요한 예산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나요?	1.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2.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이다 3. 그렇게 하는 편이다 4. 반드시 그렇게 한다	* 1.과 2. 1점 그 외 0점																
F14 [정보에 입각 금융상품선택]	귀하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어떠한 정보를 주로 이용하나요? 다음 각 사항의 이용 여부에 응답해 주세요.	<table><tr><th>구분</th><th>이용 여부</th></tr><tr><td>1) 전문가 금융상품비교</td><td>1. 이용함 2. 이용안함</td></tr><tr><td>2) 금융기관, 금융회사 상담</td><td>1. 이용함 2. 이용안함</td></tr><tr><td>3) 금융상품 광고, 브로셔</td><td>1. 이용함 2. 이용안함</td></tr><tr><td>4) 일반 금융상품 비교정보</td><td>1. 이용함 2. 이용안함</td></tr><tr><td>5) 유튜브 정보</td><td>1. 이용함 2. 이용안함</td></tr><tr><td>6) SNS 추천 정보</td><td>1. 이용함 2. 이용안함</td></tr><tr><td>7) 친구나 가족의 정보</td><td>1. 이용함 2. 이용안함</td></tr></table>	구분	이용 여부	1) 전문가 금융상품비교	1. 이용함 2. 이용안함	2) 금융기관, 금융회사 상담	1. 이용함 2. 이용안함	3) 금융상품 광고, 브로셔	1. 이용함 2. 이용안함	4) 일반 금융상품 비교정보	1. 이용함 2. 이용안함	5) 유튜브 정보	1. 이용함 2. 이용안함	6) SNS 추천 정보	1. 이용함 2. 이용안함	7) 친구나 가족의 정보	1. 이용함 2. 이용안함	* 1)이나 2) 이용 2점 3)이나 4) 이용 1점 그 외 0점
구분	이용 여부																		
1) 전문가 금융상품비교	1. 이용함 2. 이용안함																		
2) 금융기관, 금융회사 상담	1. 이용함 2. 이용안함																		
3) 금융상품 광고, 브로셔	1. 이용함 2. 이용안함																		
4) 일반 금융상품 비교정보	1. 이용함 2. 이용안함																		
5) 유튜브 정보	1. 이용함 2. 이용안함																		
6) SNS 추천 정보	1. 이용함 2. 이용안함																		
7) 친구나 가족의 정보	1. 이용함 2. 이용안함																		
F15 [적자 경험 유무]	귀하는 생활비나 쓸 돈이 부족했던 경험이 있나요?	1. 있다 → F15-1 2. 없다 → F16																	
F15-1 [적자 해소 방법]	귀하는 생활비나 쓸 돈이 부족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돈을 조달하였나요?	1. 저축(투자) 계좌 해지 2. 지출을 줄이거나 계획된 지출을 나중에 미룸 3. 갖고 있는 것을 팔아버림(리세일, 중고거래 등) 4. 일을 해서 마련 5. 가족으로부터 빌림 6. 친구로부터 빌림 7.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8. 대출 이용	* F15=2 또는 F15-1의 1..~4. 1점, 그 외 0점																

F. 금융이해력: 3. 금융태도(3개 문항 총 4점)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응답값	비고
F16 [저축보다 소비 선호]	귀하는 다음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나요? “나는 돈을 저축하는 것보다 지금 돈을 쓰는 것이 더 좋다”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2. 별로 동의하지 않음 3. 대체로 동의함 4. 매우 동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당 배점 1.33333 * 매우 동의=1점, 대체로 동의=2점, 별로 동의 안함=3점, 전혀 동의 안함=4점
F17 [미래보다 현재 선호]	귀하는 다음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나요? “나는 오늘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일단 하고,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2. 별로 동의하지 않음 3. 대체로 동의함 4. 매우 동의함	
F18 [돈은 쓰기 위해 존재]	귀하는 다음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나요? “돈은 쓰기 위해 있는 것이다”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2. 별로 동의하지 않음 3. 대체로 동의함 4. 매우 동의함	

3. 실증모델 분석변수의 기초통계량

부록 표 1. 분석 변수의 기초통계량: 금융이해력과 구성 3요소

구분	변수	관측치	구성비	금융이해력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회 인구 학적 특성	세부집단(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대학생	1,077	59.4	13.90	3.27	4.87	1.80	6.39	1.89	2.64	0.63
	취업자	286	15.8	13.96	3.15	4.80	1.89	6.45	1.88	2.70	0.63
	미취업자	451	24.9	13.23	3.40	4.56	1.92	6.07	1.89	2.60	0.60
	성별(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남성	685	37.8	13.63	3.41	4.74	1.91	6.26	1.95	2.63	0.65
	여성	1129	62.2	13.81	3.23	4.81	1.81	6.35	1.86	2.65	0.60
	연령(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19~21세	865	47.7	13.57	3.35	4.69	1.89	6.25	1.90	2.62	0.65
	22~24세	949	52.3	13.90	3.25	4.86	1.81	6.38	1.88	2.66	0.59
	학력(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고졸 이하	247	13.6	12.64	3.53	4.33	1.99	5.79	2.10	2.52	0.65
	대학 재학	1005	55.4	13.90	3.26	4.88	1.79	6.38	1.90	2.64	0.63
	대졸 이상	562	31.0	13.94	3.16	4.80	1.86	6.44	1.75	2.70	0.59
	거주지역(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서울	390	21.5	14.23	3.22	4.93	1.86	6.55	1.87	2.75	0.60
	서울 이외 대도시	979	54.0	13.72	3.27	4.79	1.78	6.31	1.90	2.61	0.61
	그 외 지역	445	24.5	13.38	3.39	4.63	1.97	6.13	1.88	2.61	0.64
	월소득(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초·중 고 10대 시기 특성	졸업 고교 유형(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일반고	1,339	73.8	13.88	3.20	4.86	1.796	6.35	1.859	2.66	0.62
	자율/과학·영재/외국어·국제/예술·체육	116	6.4	14.72	2.97	5.10	1.465	6.95	1.734	2.67	0.58
	마이스터/특성화	285	15.7	12.74	3.48	4.27	2.07	5.95	2.00	2.52	0.64
	대안학교/기타	74	4.1	13.64	3.93	4.82	2.12	6.14	2.06	2.68	0.64

구분	변수	관측치	구성비	금융이해력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주된 성장지역(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서울	343	18.9	14.16	3.30	4.89	1.89	6.55	1.91	2.72	0.62
	서울 이외 대도시	986	54.4	13.70	3.25	4.78	1.78	6.31	1.89	2.61	0.61
	그 외 지역	485	26.7	13.53	3.37	4.72	1.96	6.17	1.88	2.64	0.63
	[금융 교육 경험]										
	동아리 활동(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있음	481	26.5	13.46	3.34	4.40	1.92	6.46	1.91	2.59	0.62
	없음	1333	73.5	13.85	3.28	4.92	1.80	6.26	1.88	2.66	0.62
	외부강사 특강(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있음	743	41.0	14.03	3.12	4.81	1.77	6.59	1.80	2.63	0.61
	없음	1071	59.0	13.54	3.40	4.76	1.90	6.13	1.93	2.65	0.62
	부모의 명시적 금융교육(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학교외 금융교육(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있음	291	16.0	13.08	3.48	4.05	2.04	6.40	1.95	2.62	0.65
	없음	1523	84.0	13.87	3.25	4.92	1.78	6.30	1.88	2.65	0.61
	[중·고교시기 저축 및 투자경험]										
	적금 또는 예금(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있음	1,191	65.7	14.15	3.08	4.92	1.73	6.56	1.83	2.67	0.61
	없음	623	34.3	12.96	3.55	4.53	2.03	5.85	1.92	2.59	0.64
	주식(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있음	494	27.2	14.41	3.11	4.88	1.75	6.87	1.77	2.66	0.64
	없음	1,320	72.8	13.49	3.33	4.75	1.88	6.11	1.90	2.63	0.61
	[중·고교시기 부정경험]										
	온라인 도박(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있음	150	8.3	12.36	3.19	3.87	1.99	5.98	1.94	2.51	0.65
	없음	1,664	91.7	13.87	3.28	4.87	1.81	6.35	1.89	2.65	0.62
	휴대폰 결제강/폰테크/소액대출(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있음	245	13.5	13.10	3.34	4.31	1.95	6.25	2.01	2.54	0.65
	없음	1,569	86.5	13.84	3.28	4.86	1.82	6.33	1.88	2.66	0.61

구분	변수	관측치	구성비	금융이해력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모 관련 특성	부모와 동거 여부(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동거함	1,455	80.2	13.81	3.24	4.82	1.81	6.34	1.88	2.65	0.62
	동거 안함(비동거/생존부모없음)	359	19.8	13.47	3.51	4.64	2.00	6.21	1.96	2.62	0.62
	부모 생활 여부(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모두 일함	1,075	59.3	13.81	3.25	4.80	1.82	6.37	1.86	2.63	0.62
	그 외	739	40.7	13.65	3.36	4.76	1.90	6.24	1.93	2.65	0.63
	금융업 종사 부모 유무(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있음	115	6.3	13.22	3.33	4.07	1.94	6.57	1.86	2.59	0.65
	없음	1,699	93.7	13.89	3.22	4.89	1.78	6.34	1.87	2.65	0.61
	부모가 주식, 가상화폐 투자 여부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예	638	35.2	14.66	2.87	5.22	1.54	6.74	1.76	2.70	0.61
	그 외(안함/모름)	1,176	64.8	13.24	3.41	4.55	1.96	6.09	1.92	2.61	0.62
	부모 월소득(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아버지 학력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초등학교 졸업	18	1.0	12.83	2.47	4.28	1.64	5.94	1.59	2.61	0.62
	중학교 졸업	43	2.4	12.80	3.77	4.33	1.97	5.86	2.12	2.61	0.76
	고등학교 졸업	658	36.3	13.58	3.24	4.77	1.79	6.19	1.91	2.62	0.63
	대학교 졸업	870	48.0	14.14	3.15	4.93	1.79	6.52	1.78	2.69	0.60
	대학원 졸업	132	7.3	14.18	3.32	5.00	1.81	6.60	1.95	2.58	0.60
	해당 없음	93	5.1	11.24	3.69	3.56	2.30	5.19	2.13	2.48	0.66
	어머니 학력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초등학교 졸업	19	1.0	11.39	3.24	3.74	2.02	5.11	2.45	2.54	0.59
	중학교 졸업	39	2.1	11.96	3.72	3.92	2.06	5.49	1.94	2.55	0.64
	고등학교 졸업	752	41.5	13.64	3.16	4.76	1.79	6.24	1.85	2.63	0.62
	대학교 졸업	844	46.5	14.22	3.12	5.00	1.75	6.55	1.82	2.67	0.61
	대학원 졸업	89	4.9	13.74	3.71	4.81	2.02	6.35	2.06	2.58	0.61
	해당 없음	71	3.9	10.81	3.85	3.18	2.24	5.11	2.11	2.51	0.69
금융 생활 실태	[금융사회화]										
	부모 금융사회화(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명시적	555	30.6	14.09	3.22	4.73	1.80	6.70	1.83	2.66	0.62
	암묵적	844	46.5	14.07	3.02	4.95	1.73	6.44	1.75	2.68	0.58
	없음	415	22.9	12.61	3.67	4.51	2.09	5.56	2.05	2.54	0.68

구분	변수	관측치	구성비	금융이해력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모 역금융사회화(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있음	622	34.3	14.59	3.04	4.91	1.70	6.97	1.71	2.71	0.63
	없음	1,192	65.7	13.30	3.34	4.71	1.92	5.98	1.90	2.60	0.61
	또래 금융사회화(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명시적	307	16.9	14.28	3.08	4.79	1.72	6.82	1.80	2.68	0.65
	암묵적	478	26.4	13.61	3.33	4.64	1.98	6.36	1.83	2.61	0.59
	없음	1,029	56.7	13.64	3.33	4.85	1.82	6.15	1.92	2.64	0.63
	또래 역금융사회화(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있음	468	25.8	14.80	2.99	5.03	1.69	7.05	1.73	2.73	0.63
	없음	1,346	74.2	13.37	3.32	4.70	1.89	6.06	1.88	2.61	0.61
	금융정체성(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확산형	125	6.9	10.92	3.26	3.50	2.21	5.11	2.10	2.31	0.72
	성취형	752	41.5	14.58	3.00	4.91	1.70	6.88	1.61	2.79	0.60
	유예형	793	43.7	13.80	2.96	5.10	1.64	6.12	1.85	2.58	0.57
	폐쇄형	144	7.9	11.47	4.11	3.51	2.34	5.48	2.29	2.47	0.70
	[주관적 자기 신념]										
	금융자신감(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주관적 금융관리능력(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자각된 자기통제력(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월평균 소비지출(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체크카드 사용여부(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예	1,696	93.5	13.87	3.20	4.86	1.78	6.36	1.87	2.64	0.61
	아니오	118	6.5	11.94	4.02	3.64	2.33	5.67	2.15	2.63	0.71
	모바일 페이 사용여부(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예	1,577	86.9	13.93	3.18	4.89	1.77	6.41	1.88	2.63	0.60
	아니오	237	13.1	12.47	3.75	4.08	2.21	5.70	1.90	2.69	0.75
	신용카드 사용 여부(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예	444	24.5	13.91	3.21	4.75	1.80	6.52	1.91	2.64	0.64
	아니오	1,370	75.5	13.69	3.33	4.79	1.87	6.25	1.88	2.64	0.61

구분	변수	관측치	구성비	금융이해력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할부잔액 부채 인지여부(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예	1,238	68.2	14.45	2.88	5.15	1.57	6.63	1.77	2.68	0.59
	아니오	576	31.8	12.21	3.60	4.01	2.14	5.64	1.96	2.57	0.67
	휴대폰 소액결제(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예	528	29.1	13.48	3.20	4.70	1.80	6.22	1.90	2.56	0.58
	아니오	1,286	70.9	13.85	3.33	4.82	1.87	6.36	1.89	2.68	0.63
	[저축 및 투자]										
	예금/적금 유무(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있음	1,710	94.3	13.97	3.14	4.89	1.77	6.42	1.85	2.66	0.61
	없음	104	5.7	9.98	3.49	2.95	2.10	4.66	1.90	2.37	0.75
	주식/채권/외화 유무(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있음	767	42.3	14.86	2.86	5.17	1.56	6.95	1.72	2.74	0.60
	없음	1,047	57.7	12.93	3.35	4.50	1.99	5.86	1.88	2.57	0.63
	가상화폐/저작권 유무(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있음	273	15.0	14.18	3.23	4.79	1.82	6.70	1.85	2.69	0.62
	없음	1,541	85.0	13.67	3.30	4.78	1.85	6.25	1.89	2.63	0.62
	미끼계좌 유무(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있음	458	25.2	14.86	2.58	5.30	1.35	6.87	1.68	2.68	0.59
	없음	1,356	74.8	13.37	3.43	4.61	1.96	6.13	1.93	2.63	0.63
	저축/투자 정보 주요 습득 경로(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유튜브 동영상	613	33.8	13.54	3.22	4.72	1.85	6.19	1.91	2.64	0.64
	금융관련 앱	338	18.6	14.47	2.98	5.05	1.65	6.74	1.74	2.68	0.57
	그 외	863	47.6	13.60	3.44	4.72	1.91	6.24	1.92	2.63	0.63
	청년 자산형성 상품 가입 여부(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가입	1,125	62.0	13.67	3.27	4.87	1.81	6.16	1.88	2.64	0.61
	비가입	689	38.0	13.86	3.34	4.64	1.91	6.57	1.88	2.65	0.63
	[주관적 금융지식 및 금융교육 필요성]										
	주관적 금융지식(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금융교육 필요성(전체)	1,814	100.0	13.74	3.30	4.78	1.85	6.32	1.89	2.64	0.62

〈성별〉

구분	변수	전체				남성				여성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편차
사회 인구 학적 특성	세부집단(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대학생	1,077	59.4	13.90	3.27	496	72.4	13.86	3.37	581	51.5	13.93	3.18
	취업자	286	15.8	13.96	3.15	77	11.2	13.15	3.41	209	18.5	14.26	3.01
	미취업자	451	24.9	13.23	3.40	112	16.4	12.95	3.46	339	30.0	13.33	3.38
	연령(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19~21세	865	47.7	13.57	3.35	371	54.2	13.66	3.46	494	43.8	13.50	3.26
	22~24세	949	52.3	13.90	3.25	314	45.8	13.60	3.34	635	56.2	14.05	3.19
	학력(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고졸 이하	247	13.6	12.64	3.53	112	16.4	12.86	3.31	135	12.0	12.46	3.69
	대학 재학	1005	55.4	13.90	3.26	467	68.2	13.88	3.40	538	47.7	13.92	3.14
	대졸 이상	562	31.0	13.94	3.16	106	15.5	13.37	3.41	456	40.4	14.07	3.09
	거주지역(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서울	390	21.5	14.23	3.22	139	20.3	14.08	3.33	251	22.2	14.31	3.15
	서울 이외 대도시	979	54.0	13.72	3.27	366	53.4	13.46	3.45	613	54.3	13.87	3.15
	그 외 지역	445	24.5	13.38	3.39	180	26.3	13.63	3.37	265	23.5	13.20	3.40
	월소득(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초·중·고 10대 시기 특성	출업·고교 유형(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일반고	1,339	73.8	13.88	3.20	495	72.3	13.76	3.43	844	74.8	13.95	3.06
	자율/과학·영재/외국어·국제/예술·체육	116	6.4	14.72	2.97	54	7.9	14.41	3.00	62	5.5	14.98	2.93
	마이스터/특성화	285	15.7	12.74	3.48	111	16.2	12.88	3.18	174	15.4	12.66	3.67
	대안학교/기타	74	4.1	13.64	3.93	25	3.6	12.84	4.26	49	4.3	14.05	3.73
	주된 성장지역(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서울	343	18.9	14.16	3.30	132	19.3	14.06	3.37	211	18.7	14.21	3.26
	서울 이외 대도시	986	54.4	13.70	3.25	366	53.4	13.47	3.46	620	54.9	13.84	3.11
	그 외 지역	485	26.7	13.53	3.37	187	27.3	13.64	3.32	298	26.4	13.45	3.41
	[금융·교육 경험]												
	동아리 활동(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있음	481	26.5	13.46	3.34	231	33.7	13.17	3.34	250	22.1	13.72	3.33
	없음	1333	73.5	13.85	3.28	454	66.3	13.87	3.42	879	77.9	13.83	3.20

구분	변수	전체				남성				여성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편차
	외부강사 특강(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있음	743	41.0	14.03	3.12	332	48.5	13.75	3.25	411	36.4	14.26	2.99
	없음	1071	59.0	13.54	3.40	353	51.5	13.53	3.55	718	63.6	13.55	3.33
	부모의 명시적 금융교육(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학교외 금융교육(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있음	291	16.0	13.08	3.48	143	20.9	13.04	3.48	148	13.1	13.11	3.49
	없음	1523	84.0	13.87	3.25	542	79.1	13.79	3.37	981	86.9	13.91	3.18
	[중 고교시기 저축 및 투자경험]												
	적금 또는 예금(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있음	1,191	65.7	14.15	3.08	453	66.1	13.99	3.28	738	65.4	14.25	2.95
	없음	623	34.3	12.96	3.55	232	33.9	12.94	3.54	391	34.6	12.98	3.56
	주식(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있음	494	27.2	14.41	3.11	267	39.0	14.03	3.39	227	20.1	14.86	2.69
	없음	1,320	72.8	13.49	3.33	418	61.0	13.38	3.40	902	79.9	13.54	3.30
	[중 고교시기 부정경험]												
	온라인 도박(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있음	150	8.3	12.36	3.19	96	14.0	12.22	3.12	54	4.8	12.61	3.32
	없음	1,664	91.7	13.87	3.28	589	86.0	13.86	3.40	1,075	95.2	13.87	3.21
	휴대폰 결제강/폰테크/소액대출(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있음	245	13.5	13.10	3.34	111	16.2	12.78	3.63	134	11.9	13.36	3.07
	없음	1,569	86.5	13.84	3.28	574	83.8	13.80	3.34	995	88.1	13.87	3.25
부모 관련 특성	부모와 동거 여부(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동거함	1,455	80.2	13.81	3.24	560	81.8	13.71	3.35	895	79.3	13.87	3.17
	동거 안함(비동거/생존부모없음)	359	19.8	13.47	3.51	125	18.2	13.31	3.63	234	20.7	13.56	3.44
	부모 경찰 여부(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모두 일함	1,075	59.3	13.81	3.25	398	58.1	13.62	3.43	677	60.0	13.92	3.14
	그 외	739	40.7	13.65	3.36	287	41.9	13.65	3.38	452	40.0	13.65	3.36
	금융업 종사 부모 유무(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있음	115	6.3	13.22	3.33	60	8.8	12.92	3.29	55	4.9	13.55	3.36
	없음	1,699	93.7	13.89	3.22	625	91.2	13.70	3.41	1,074	95.1	13.82	3.22

구분	변수	전체				남성				여성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편차
	부모가 주식, 가상화폐 투자 여부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예	638	35.2	14.66	2.87	245	35.8	14.73	2.92	393	34.8	14.62	2.84
	그 외(안함/모름)	1,176	64.8	13.24	3.41	440	64.2	13.02	3.51	736	65.2	13.37	3.34
	부모 월소득(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아버지 학력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초등학교 졸업	18	1.0	12.83	2.47	7	1.0	12.05	1.92	11	1.0	13.33	2.74
	중학교 졸업	43	2.4	12.80	3.77	12	1.8	12.28	4.22	31	2.7	13.00	3.63
	고등학교 졸업	658	36.3	13.58	3.24	225	32.8	13.51	3.33	433	38.4	13.61	3.19
	대학교 졸업	870	48.0	14.14	3.15	342	49.9	13.99	3.36	528	46.8	14.23	3.00
	대학원 졸업	132	7.3	14.18	3.32	58	8.5	13.80	3.36	74	6.6	14.47	3.28
	해당 없음	93	5.1	11.24	3.69	41	6.0	11.73	3.52	52	4.6	10.85	3.81
	어머니 학력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초등학교 졸업	19	1.0	11.39	3.24	9	1.3	10.89	3.30	10	0.9	11.83	3.30
	중학교 졸업	39	2.1	11.96	3.72	12	1.8	12.33	3.28	27	2.4	11.79	3.95
	고등학교 졸업	752	41.5	13.64	3.16	245	35.8	13.44	3.18	507	44.9	13.73	3.15
	대학교 졸업	844	46.5	14.22	3.12	355	51.8	14.09	3.38	489	43.3	14.31	2.92
	대학원 졸업	89	4.9	13.74	3.71	38	5.5	13.56	3.54	51	4.5	13.88	3.85
	해당 없음	71	3.9	10.81	3.85	26	3.8	10.85	3.94	45	4.0	10.79	3.85
금융 생활 실태	[금융사회화]												
	부모 금융사회화(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명시적	555	30.6	14.09	3.22	247	36.1	13.85	3.41	308	27.3	14.28	3.04
	암묵적	844	46.5	14.07	3.02	272	39.7	14.03	3.25	572	50.7	14.09	2.91
	없음	415	22.9	12.61	3.67	166	24.2	12.66	3.49	249	22.1	12.58	3.80
	부모 역금융사회화(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있음	622	34.3	14.59	3.04	273	39.9	14.36	3.32	349	30.9	14.78	2.80
	없음	1,192	65.7	13.30	3.34	412	60.1	13.15	3.38	780	69.1	13.38	3.32
	또래 금융사회화(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명시적	307	16.9	14.28	3.08	143	20.9	14.10	3.20	164	14.5	14.44	2.98
	암묵적	478	26.4	13.61	3.33	195	28.5	13.26	3.61	283	25.1	13.85	3.09
	없음	1,029	56.7	13.64	3.33	347	50.7	13.65	3.35	682	60.4	13.64	3.32

구분	변수	전체				남성				여성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편차
	도래 여금용사회화(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있음	468	25.8	14.80	2.99	199	29.1	14.59	3.27	269	23.8	14.96	2.76
	없음	1,346	74.2	13.37	3.32	486	70.9	13.24	3.39	860	76.2	13.45	3.28
	금융정체성(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확산형	125	6.9	10.92	3.26	59	8.6	10.99	3.20	66	5.8	10.86	3.33
	성취형	752	41.5	14.58	3.00	317	46.3	14.40	3.25	435	38.5	14.71	2.79
	유예형	793	43.7	13.80	2.96	247	36.1	13.69	2.96	546	48.4	13.86	2.97
	폐쇄형	144	7.9	11.47	4.11	62	9.1	11.99	4.19	82	7.3	11.07	4.03
[주관적 자기 신념]													
	금융자신감(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주관적 금융관리능력(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지각된 자기통제력(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월평균 소비지출(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체크카드 사용여부(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예	1,696	93.5	13.87	3.20	637	93.0	13.78	3.33	1,059	93.8	13.92	3.13
	아니오	118	6.5	11.94	4.02	48	7.0	11.63	3.85	70	6.2	12.14	4.15
	모바일 페이 사용여부(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예	1,577	86.9	13.93	3.18	570	83.2	13.81	3.36	1,007	89.2	14.00	3.07
	아니오	237	13.1	12.47	3.75	115	16.8	12.75	3.49	122	10.8	12.20	3.98
	신용카드 사용 여부(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예	444	24.5	13.91	3.21	181	26.4	13.81	3.30	263	23.3	13.98	3.14
	아니오	1,370	75.5	13.69	3.33	504	73.6	13.57	3.45	866	76.7	13.76	3.25
	할부잔액 부채 인지여부(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예	1,238	68.2	14.45	2.88	454	66.3	14.31	3.07	784	69.4	14.54	2.77
	아니오	576	31.8	12.21	3.60	231	33.7	12.30	3.64	345	30.6	12.15	3.58
	휴대폰 소액결제(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예	528	29.1	13.48	3.20	197	28.8	13.37	3.17	331	29.3	13.54	3.23
	아니오	1,286	70.9	13.85	3.33	488	71.2	13.74	3.50	798	70.7	13.92	3.22

구분	변수	전체				남성				여성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편차
	[저축 및 투자]												
	예금/적금 유무(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있음	1,710	94.3	13.97	3.14	638	93.1	13.89	3.22	1,072	95.0	14.02	3.10
	없음	104	5.7	9.98	3.49	47	6.9	10.13	3.97	57	5.0	9.86	3.08
	주식/채권/외화 유무(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있음	767	42.3	14.86	2.86	352	51.4	14.71	3.07	415	36.8	14.99	2.67
	없음	1,047	57.7	12.93	3.35	333	48.6	12.50	3.38	714	63.2	13.12	3.33
	가상화폐/저작권 유무(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있음	273	15.0	14.18	3.23	157	22.9	14.35	3.33	116	10.3	13.94	3.10
	없음	1,541	85.0	13.67	3.30	528	77.1	13.42	3.40	1,013	89.7	13.79	3.24
	미끼계좌 유무(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있음	458	25.2	14.86	2.58	221	32.3	14.94	2.60	237	21.0	14.77	2.57
	없음	1,356	74.8	13.37	3.43	464	67.7	13.01	3.57	892	79.0	13.55	3.34
	저축/투자 정보 주요 습득 경로(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유투브 동영상	613	33.8	13.54	3.22	288	42.0	13.46	3.30	325	28.8	13.62	3.15
	금융관련 앱	338	18.6	14.47	2.98	103	15.0	14.77	2.65	235	20.8	14.34	3.11
	그 외	863	47.6	13.60	3.44	294	42.9	13.40	3.67	569	50.4	13.70	3.31
	청년 자산형성 상품 가입 여부(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가입	1,125	62.0	13.67	3.27	424	61.9	13.72	3.29	701	62.1	13.64	3.26
	비가입	689	38.0	13.86	3.34	261	38.1	13.50	3.59	428	37.9	14.08	3.16
필요성	[주관적 금융지식 및 금융교육 필요성]												
	주관적 금융지식(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금융교육 필요성(전체)	1,814	100.0	13.74	3.30	685	100.0	13.63	3.41	1,129	100.0	13.81	3.23
	장병내일적금 만기금액(전체)					685	100.0	13.63	3.41				
	장병내일적금 사용용도(전체)					685	100.0	13.63	3.41				
	학비/취업준비					68	9.9	13.37	4.02				
	저축					55	8.0	15.42	2.27				
	그 외					562	82.0	13.49	3.37				

〈세부집단〉

구분	변수	전체				대학생				취업자				비취업자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 편차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 편차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 편차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 편차
사회 인구 학적 특성	성별(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남성	685	37.8	13.63	3.41	496	46.1	13.86	3.37	77	26.9	13.15	3.41	112	24.8	12.95	3.46
	여성	1,129	62.2	13.81	3.23	581	53.9	13.93	3.18	209	73.1	14.26	3.01	339	75.2	13.33	3.38
	연령(전체)	1,814	100.0	13.74	3.3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19~21세	865	47.7	13.57	3.35			13.76	3.30	64	22.4	13.01	3.25	140	31.0	12.90	3.51
	22~24세	949	52.3	13.90	3.25			14.11	3.22	222	77.6	14.23	3.08	311	69.0	13.38	3.35
	학력(전체)	1,814	100.0	13.74	3.30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고졸 이하	247	13.6	12.64	3.53					11	26.9	13.13	3.17	170	37.7	12.42	3.66
	대학 재학	1,005	55.4	13.90	3.26												
	대졸 이상	562	31.0	13.94	3.16					209	73.1	14.26	3.10	281	62.3	13.72	3.14
	학제					1,077	100.0	13.90	3.27								
	2,3년제					371	34.4	13.03	3.38								
	4년제					706	65.6	14.35	3.12								
	거주지역(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서울	390	21.5	14.23	3.22	244	22.7	14.37	3.08	79	27.6	14.11	3.19	67	14.9	13.84	3.70
	서울 이외 대도시	979	54.0	13.72	3.27	601	55.8	13.76	3.30	134	46.9	14.20	2.89	244	54.1	13.35	3.34
	그 외 지역	445	24.5	13.38	3.39	232	21.5	13.77	3.35	73	25.5	13.34	3.51	140	31.0	12.74	3.31
초·중·고 10대 시기 특성	월소득(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총임 고교 유형(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일반고	1,339	73.8	13.88	3.20	816	75.8	14.04	3.11	192	67.1	13.91	3.17	331	73.4	13.45	3.41
	자율/과학 영재/외국어·국제/예술·체육	116	6.4	14.72	2.97	90	8.4	14.75	3.01	15	5.2	14.56	3.33	11	2.4	14.67	2.26
	마이스터/특성화	285	15.7	12.74	3.48	135	12.5	12.67	3.60	67	23.4	13.59	3.13	83	18.4	12.18	3.47
	대안학교/기타	74	4.1	13.64	3.93	36	3.3	13.19	4.77	12	4.2	15.97	2.02	26	5.8	13.19	2.89
	주된 성장지역(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서울	343	18.9	14.16	3.30	219	20.3	14.35	3.16	59	20.6	13.67	3.48	65	14.4	13.95	3.58
	서울 이외 대도시	986	54.4	13.70	3.25	601	55.8	13.73	3.30	144	50.3	14.23	2.82	241	53.4	13.31	3.34
	그 외 지역	485	26.7	13.53	3.37	257	23.9	13.90	3.28	83	29.0	13.69	3.45	145	32.2	12.78	3.39

구분	변수	전체				대학생				취업자				비취업자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 편차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 편차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 편차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 편차
	[금융 교육 경험]																
	동아리 활동(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있음	481	26.5	13.46	3.34	304	28.2	13.60	3.38	87	30.4	13.30	3.14	90	20.0	13.13	3.42
	없음	1333	73.5	13.85	3.28	773	71.8	14.02	3.22	199	69.6	14.25	3.13	361	80.0	13.26	3.40
	외부강사 특강(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있음	743	41.0	14.03	3.12	484	44.9	14.09	3.13	114	39.9	13.85	3.02	145	32.2	13.97	3.18
	없음	1071	59.0	13.54	3.40	593	55.1	13.74	3.38	172	60.1	14.03	3.25	306	67.8	12.88	3.45
	부모의 명시적 금융교육(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학교외 금융교육(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있음	291	16.0	13.08	3.48	185	17.2	13.44	3.47	55	19.2	12.58	3.32	51	11.3	12.27	3.55
	없음	1523	84.0	13.87	3.25	892	82.8	13.99	3.22	231	80.8	14.29	3.03	400	88.7	13.35	3.37
	[중·고교시기 저축 및 투자경험]																
	적금 또는 예금(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있음	1,191	65.7	14.15	3.08	736	68.3	14.23	3.08	196	68.5	14.16	3.03	259	57.4	13.90	3.11
	없음	623	34.3	12.96	3.55	341	31.7	13.17	3.55	90	31.5	13.51	3.38	192	42.6	12.34	3.57
	주식(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있음	494	27.2	14.41	3.11	315	29.2	14.51	3.22	88	30.8	14.23	2.95	91	20.2	14.25	2.90
	없음	1,320	72.8	13.49	3.33	762	70.8	13.64	3.26	198	69.2	13.84	3.24	360	79.8	12.98	3.48
	[중·고교시기 부정경험]																
	온라인 도박(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있음	150	8.3	12.36	3.19	95	8.8	12.29	3.32	31	10.8	12.20	3.30	24	5.31	12.86	2.51
	없음	1,664	91.7	13.87	3.28	982	91.2	14.05	3.23	255	89.2	14.17	3.07	427	94.7	13.25	3.45
	휴대폰 결제감/폰테크/소액대출(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있음	245	13.5	13.10	3.34	146	13.6	13.16	3.49	48	16.8	12.64	3.37	51	11.3	13.35	2.90
	없음	1,569	86.5	13.84	3.28	931	86.4	14.01	3.22	238	83.2	14.23	3.05	400	88.7	13.22	3.46
부모 관련 특성	부모와 동거 여부(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동거함	1,455	80.2	13.81	3.24	877	81.4	13.95	3.20	187	65.4	14.05	3.19	391	86.7	13.38	3.32
	동거 안함(비동거/생존부모없음)	359	19.8	13.47	3.51	200	18.6	13.69	3.56	99	34.6	13.79	3.08	60	13.3	12.25	3.77
	부모 생활 여부(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모두 일함	1,075	59.3	13.81	3.25	659	61.2	13.97	3.21	157	54.9	13.86	3.24	259	57.4	13.34	3.33
	그 외	739	40.7	13.65	3.36	418	38.8	13.78	3.36	129	45.1	14.07	3.05	192	42.6	13.09	3.50

구분	변수	전체				대학생				취업자				비취업자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 편차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 편차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 편차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 편차
	금융업 종사 부모 유무(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있음	115	6.3	13.22	3.33	75	7.0	13.44	3.22	21	7.3	12.95	2.81	19	4.2	12.67	4.25
	없음	1,699	93.7	13.89	3.22	1,002	93.0	13.93	3.27	265	92.7	14.04	3.17	432	95.8	13.26	3.36
	부모가 주식, 가상화폐 투자 여부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예	638	35.2	14.66	2.87	391	36.3	14.81	2.88	104	36.4	14.78	2.56	143	31.7	14.17	3.01
	그 외(안함/모름)	1,176	64.8	13.24	3.41	686	63.7	13.38	3.37	182	63.6	13.49	3.37	308	68.3	12.80	3.49
	부모 월소득(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아버지 학력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초등학교 졸업	18	1.0	12.83	2.47	8	0.7	12.75	2.02	4	1.4	12.50	1.50	6	1.3	13.17	3.67
	중학교 졸업	43	2.4	12.80	3.77	24	2.2	13.79	2.93	9	3.1	12.33	4.44	10	2.2	10.83	4.44
	고등학교 졸업	658	36.3	13.58	3.24	352	32.7	13.75	3.21	115	40.2	13.92	3.07	191	42.4	13.05	3.35
	대학교 졸업	870	48.0	14.14	3.15	564	52.4	14.19	3.18	121	42.3	14.45	3.01	185	41.0	13.76	3.12
	대학원 졸업	132	7.3	14.18	3.32	84	7.8	14.29	3.34	21	7.3	14.03	2.97	27	6.0	13.93	3.62
	해당 없음	93	5.1	11.24	3.69	45	4.2	10.91	3.64	16	5.6	11.73	3.57	32	7.1	11.45	3.90
	어머니 학력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초등학교 졸업	19	1.0	11.39	3.24	10	0.9	12.53	2.65	4	1.4	10.17	5.08	5	1.1	10.07	2.28
	중학교 졸업	39	2.1	11.96	3.72	18	1.7	14.02	3.15	3	1.0	12.67	2.31	18	4.0	9.78	3.29
	고등학교 졸업	752	41.5	13.64	3.16	412	38.3	13.77	3.11	137	47.9	13.91	3.08	203	45.0	13.18	3.29
	대학교 졸업	844	46.5	14.22	3.12	547	50.8	14.22	3.18	113	39.5	14.42	3.02	184	40.8	14.09	2.99
	대학원 졸업	89	4.9	13.74	3.71	57	5.3	14.06	3.87	16	5.6	13.79	2.34	16	3.5	12.54	4.15
	해당 없음	71	3.9	10.81	3.85	33	3.1	10.26	3.61	13	4.5	12.10	4.29	25	5.5	10.85	3.93
금융 생활 실태	[금융사회화]																
	부모 금융사회화(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명시적	555	30.6	14.09	3.22	355	33.0	14.11	3.23	93	32.5	14.49	2.88	107	23.7	13.67	3.40
	암묵적	844	46.5	14.07	3.02	508	47.2	14.19	3.00	128	44.8	14.04	3.05	208	46.1	13.80	3.06
	없음	415	22.9	12.61	3.67	214	19.9	12.86	3.72	65	22.7	13.03	3.54	136	30.2	12.02	3.61
	부모 역금융사회화(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있음	622	34.3	14.59	3.04	393	36.5	14.61	3.05	103	36.0	14.59	2.97	126	27.9	14.56	3.09
	없음	1,192	65.7	13.30	3.34	684	63.5	13.49	3.33	183	64.0	13.61	3.20	325	72.1	12.72	3.38

구분	변수	전체				대학생				취업자				비취업자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 편차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 편차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 편차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 편차
	또래 금융사회화(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명시적	307	16.9	14.28	3.08	191	17.7	14.56	2.99	52	18.2	14.13	2.92	64	14.2	13.58	3.41
	암묵적	478	26.4	13.61	3.33	301	27.9	13.58	3.39	83	29.0	13.65	3.30	94	20.8	13.65	3.18
	없음	1,029	56.7	13.64	3.33	585	54.3	13.85	3.27	151	52.8	14.07	3.16	293	65.0	13.02	3.46
	또래 역금융사회화(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있음	468	25.8	14.80	2.99	298	27.7	14.87	3.04	86	30.1	14.59	3.02	84	18.6	14.78	2.81
	없음	1,346	74.2	13.37	3.32	779	72.3	13.53	3.28	200	69.9	13.69	3.18	367	81.4	12.88	3.43
	금융정체성(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확산형	125	6.9	10.92	3.26	70	6.5	10.76	3.41	22	7.7	11.09	2.43	33	7.3	11.15	3.49
	성취형	752	41.5	14.58	3.00	452	42.0	14.61	3.07	120	42.0	14.82	2.78	180	39.9	14.36	2.94
	유예형	793	43.7	13.80	2.96	479	44.5	13.99	2.85	117	40.9	14.25	2.82	197	43.7	13.09	3.22
	폐쇄형	144	7.9	11.47	4.11	76	7.1	11.99	4.29	27	9.4	11.22	3.87	41	9.1	10.66	3.86
	[주관적 자기 신념]																
	금융자신감(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주관적 금융관리능력(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지각된 자기통제력(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월평균 소비지출(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체크카드 사용여부(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예	1,696	93.5	13.87	3.20	1,004	93.2	14.06	3.15	261	91.3	14.08	3.06	431	95.6	13.30	3.36
	아니오	118	6.5	11.94	4.02	73	6.8	11.68	4.05	25	8.7	12.72	3.86	20	4.4	11.88	4.17
	모바일페이 사용여부(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예	1,577	86.9	13.93	3.18	929	86.3	14.14	3.13	253	88.5	14.08	3.07	395	87.6	13.35	3.31
	아니오	237	13.1	12.47	3.75	148	13.7	12.37	3.72	33	11.5	13.05	3.68	56	12.4	12.38	3.91
	신용카드 사용 여부(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예	444	24.5	13.91	3.21	252	23.4	13.85	3.27	105	36.7	14.51	2.82	87	19.3	13.36	3.36
	아니오	1,370	75.5	13.69	3.33	825	76.6	13.91	3.27	181	63.3	13.64	3.30	364	80.7	13.20	3.42
	할부잔액 부채 인지도부(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예	1,238	68.2	14.45	2.88	727	67.5	14.60	2.88	204	71.3	14.40	2.86	307	68.1	14.15	2.90
	아니오	576	31.8	12.21	3.60	350	32.5	12.44	3.55	82	28.7	12.87	3.58	144	31.9	11.28	3.59

구분	변수	전체				대학생				취업자				비취업자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 편차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 편차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 편차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 편차
	휴대폰 소액결제(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예	528	29.1	13.48	3.20	316	29.3	13.80	3.15	73	25.5	13.46	3.05	139	30.8	12.75	3.32
	아니오	1,286	70.9	13.85	3.33	761	70.7	13.94	3.32	213	74.5	14.13	3.18	312	69.2	13.45	3.42
	[저축 및 투자]																
	예금/적금 유무(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있음	1,710	94.3	13.97	3.14	1,012	94.0	14.14	3.11	277	96.9	14.12	3.00	421	93.3	13.46	3.28
	없음	104	5.7	9.98	3.49	65	6.0	10.07	3.40	9	3.1	9.07	4.07	30	6.7	10.06	3.60
	주식/채권/외화 유무(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있음	767	42.3	14.86	2.86	484	44.9	14.97	2.87	126	44.1	14.90	2.79	157	34.8	14.48	2.88
	없음	1,047	57.7	12.93	3.35	593	55.1	13.02	3.32	160	55.9	13.21	3.23	294	65.2	12.57	3.48
	가상화폐/저작권 유무(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있음	273	15.0	14.18	3.23	166	15.4	14.57	3.21	44	15.4	13.69	3.35	63	14.0	13.48	3.08
	없음	1,541	85.0	13.67	3.30	911	84.6	13.77	3.27	242	84.6	14.01	3.12	388	86.0	13.19	3.45
	미끼계좌 유무(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있음	458	25.2	14.86	2.58	286	26.6	15.07	2.46	68	23.8	14.75	2.65	104	23.1	14.32	2.81
	없음	1,356	74.8	13.37	3.43	791	73.4	13.47	3.42	218	76.2	13.71	3.26	347	76.9	12.91	3.50
	저축/투자 정보 주요 습득 경로(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유튜브 동영상	613	33.8	13.54	3.22	375	34.8	13.54	3.24	97	33.9	14.35	2.68	141	31.3	13.01	3.38
	금융관련 앱	338	18.6	14.47	2.98	208	19.3	14.96	2.73	45	15.7	14.55	3.16	85	18.8	13.22	3.13
	그 외	863	47.6	13.60	3.44	494	45.9	13.73	3.41	144	50.3	13.51	3.39	225	49.9	13.38	3.52
	청년 자산형성 상품 가입 여부(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가입	1,125	62.0	13.67	3.27	701	65.1	13.93	3.16	107	37.4	13.76	3.25	317	70.3	13.08	3.45
	비가입	689	38.0	13.86	3.34	376	34.9	13.85	3.47	179	62.6	14.08	3.10	134	29.7	13.59	3.27
	[주관적 금융지식 및 금융교육 필요성]																
	주관적 금융지식(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금융교육 필요성(전체)	1,814	100.0	13.74	3.30	1,077	100.0	13.90	3.27	286	100.0	13.96	3.15	451	100.0	13.23	3.40
대학생 특성	전공(전체)					1,077	100.0	13.90	3.27								
	경영, 경제					118	11.0	14.36	3.29								
	그 외					959	89.0	13.84	3.27								

구분	변수	전체				대학생				취업자				비취업자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 편차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 편차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 편차	관측치	구성비	평균	표준 편차
	금융관련 과목 수강 경험(전체)					1,077	100.0	13.90	3.27								
	있음					259	24.0	14.87	2.90								
	없음					818	76.0	13.59	3.32								
	고교 졸업 후 금융교육 경험(전체)					1,077	100.0	13.90	3.27								
	있음					81	7.5	14.79	2.84								
	없음					996	92.5	13.83	3.29								
취업자 특성	월 급여(전체)									286	100.0	13.96	3.15				
	고교 졸업 후 금융교육 경험(전체)									286	100.0	13.96	3.15				
	있음									41	14.3	14.53	3.18				
	없음									245	85.7	13.86	3.15				
	정규직 여부(전체)									286	100.0	13.96	3.15				
	정규직 그 외									164 122	57.3 42.7	14.33 13.46	2.84 3.48				
미취업자 특성	미취업 기간(전체)													451	100.0	13.23	3.40
	고교 졸업 후 금융교육 경험(전체)													451	100.0	13.23	3.40
	있음													74	16.4	14.55	2.71
	없음													377	83.6	12.98	3.47
	주된 활동(전체)													451	100.0	13.23	3.40
	구직/직업교육/취업준비 그 외													218 233	48.3 51.3	13.44 13.04	3.46 3.35

20대 초반, 후기청소년은 왜 금융이해력이 낮은가?: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 방안 연구

본 연구는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왜 낮은지,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 가장 낮은 수준의 금융이해력을 보이는가를 체계적 실증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증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간 흐름에 따라 앞선 단계에서 도출된 결과가 다음 단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즉 ‘순차적 통합방법설계 (sequential mixed method design)’의 틀 안에서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구성하고, 후기청소년 1,814명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과 금융생활의 실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양적 설문 자료로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각 영향 요인의 영향력 크기를 Robust OLS 모델을 사용하여 전체 집단과 성별, 상태별(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폐쇄형(foreclosed)과 확산형(diffused) 금융정체성은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며, 중·고등학교 시기 온라인도박 경험 또한 금융이해력 수준을 낮추는 요인이다. 가장 취약한 금융이해력을 갖는 집단은 2·3년제 대학재학 남학생과 미취업자로 이들에 대한 금융교육의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영향력을 기준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은 ‘할부잔액의 부채 인지’인데, 이는 단순 정보성 금융지식이 아닌, 실생활에 금융지식을 적용하

는 능력이 금융이해력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의 금융이해력 향상 및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금융이해력 취약 집단 및 저하 요인에 밀착 대응하는 금융교육 추진으로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향상 및 금융역량 강화”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네 가지 추진 방향 및 전략, 그리고 8가지 추진 과제 및 16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정책 방안으로 발굴하여 제안하였다.

핵심어: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금융정체성, 금융 교육, 정책 방안

ABSTRACT**Why Do Late Adolescents in Their Early 20s Have Low Financial Literacy?: A Study on Measures to Enhance Financial Literacy Among Late Adolesc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ystematically identify, through empirical analysis, why the financial literacy levels of late adolescents aged 19 to 24 are low and what factors cause them to exhibit the lowest levels of financial literacy. Based on these findings, it aims to propose measures to enhance the financial literacy of late adolescents.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structured its content and methodology within the framework of a sequential mixed method design, where results derived in earlier stages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subsequent stages. Data on the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practices of 1,814 late adolescents were collected. Using the collected quantitative survey data, we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financial literacy levels of late adolescents and the magnitude of each factor's influence using a Robust OLS model. This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entire population and separately by gender and status (college students, employed

individuals, unemployed individuals).

Analysis reveals that foreclosed and diffused financial identities are key factors lowering late adolescents' financial literacy levels, and online gambling experiences during middle and high school also contribute to lower financial literacy levels. The groups with the weakest financial literacy are male students enrolled in two- or three-year colleges and the unemployed, requiring focused financial education support for them. The factor with the greatest influence is 'knowing whether an installment balance constitutes debt or not.' This indicates that financial literacy levels are determined not by mere informational financial knowledge, but by the ability to apply financial knowledge to real-life situ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established the specific policy objective for enhancing and promoting late adolescents' financial literacy as "improving late adolescents' financial literacy and strengthening their financial capabilities through financial education that closely addresses vulnerable groups and factors contributing to low financial literacy." Furthermore, we identified and proposed policy measures comprising four key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achieving policy objectives, along with eight implementation tasks and 16 detailed implementation tasks.

Key terms: Late adolescence, Financial literacy, Financial identity, Financial education, Policy

202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연구보고25-기본01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다체계 연계 지원방안 연구: 진로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성은·김희진·조혜영·김현수
연구보고25-기본02	20대 초반, 후기청소년은 왜 금융이해력이 낮은가?: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 방안 연구 / 김지경·송현주·송원일
연구보고25-기본03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심으로 / 강경균·오해섭·최홍일·성은모
연구보고25-기본04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 / 김형주·장근영
연구보고25-기본05	아동·청소년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연구 / 성윤숙·문호영·손병덕
연구보고25-기본06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여정·정은주
연구보고25-기본07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연보라·전현정·김나영
연구보고25-기본08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 / 김승경·백혜정
연구보고25-일반01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성렬·유설희
연구보고25-일반01-01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
연구보고25-일반02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I : 총괄보고서 / 김기현·김윤희·이용해
연구보고25-일반02-01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I : 심층분석보고서 / 김기현·김윤희·권경만·오병돈·유현수
연구보고25-일반03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 양계민·서정아·권오영·변수정·장윤선
연구보고25-일반06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황진구·최인재·한지형
연구보고25-일반06-01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최인재·노연경·정송
연구보고25-일반07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신동훈·이지연·이정민·장한소리
연구보고25-일반07-01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연구보고25-일반07-02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6-01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II
(자체번호 연구보고25-일반04) / 최용환·임지연·좌동훈·박윤수·이동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7-01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자체번호 연구보고25-일반05) 연구 II :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실태 /
배상률·김영지·모상현·김남희·조제성·김다은·홍서아

수 시 과 제

- 연구보고25-수시01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현황 및 체계화 방안 연구 / 좌동훈·남화성
연구보고25-수시02 이주배경청소년 역량강화방안연구: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양계민·권오영·안지현
연구보고25-수시03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
권오영·남화성
연구보고25-수시04 청소년의 방과후활동수요 및 방과후아카데미 발전 방안 연구 / 장근영

연구개발적립금 과제

- 연구보고25-연적금0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백혜정·김경준
연구보고25-연적금02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분석 연구 / 김기현·유민상·신동훈·한지형
연구보고25-연적금03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수립 연구 /
최용환·임지연·좌동훈
연구보고25-연적금04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배상률·김영지·모상현

수 탁 과 제

< 일 반 >

- 연구보고25-수탁01 2024 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창호·임지영
연구보고25-수탁02 2025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지원 가이드라인 (2종) / 최정원
연구보고25-수탁03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프로그램 (초등학생용 2종) / 최정원
연구보고25-수탁04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4-01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5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5-01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6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7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심층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성윤숙
연구보고25-수탁08	2025년 제2기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운영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5-수탁09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사업 성과관리 진단 / 임지연·김혁진·문지혜
연구보고25-수탁10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성윤숙·문호영
연구보고25-수탁11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황진구·김영자·모상현·김경준·이용해·허효주·안지현·진인범·박지영
연구보고25-수탁12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서고운
연구보고25-수탁13	2026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유준오·송현주·허효주
연구보고25-수탁14	역량기반 인증수련활동 효과 유의성 평가도구 개선 연구 / 송원일·김정숙·최수정
연구보고25-수탁15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 연구 / 하형석·김기현·유민상·신동훈·성재민·박미선·박병영·변금진·배정화·권향원·김문정·진인범
연구보고25-수탁16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문호영
연구보고25-수탁17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1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초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2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초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3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중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4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중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8	202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혁진·황여정·김성은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5-학폭01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업 주요 현안 및 정책 분석 / 안병훈·모상현·김용남·박선영·김영인
연구보고25-학폭02	2024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결과보고서 / 모상현·백승훈·박재욱
연구보고25-학폭03	2024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모상현·백승훈·김영인
연구보고25-학폭04-01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3~4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4-02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5~6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4-03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4-04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5	2024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모상현·박재욱·전원지
연구보고25-학폭06	2024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효과성 분석 / 모상현·이경상·김현수·전원지·문은솔
연구보고25-학폭07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모상현·김경년·김경애·김봉섭·김소아·김승혜·박주형·차성현
연구보고25-학폭08	학교폭력예방 학생 언어습관 자기 진단도구 개발 연구 / 박창균·조재운·이정우·최태경
연구보고25-학폭09	2025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안내서 / 모상현·백승훈·김영인·최지윤
연구보고25-학폭10	2025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운영 매뉴얼 / 모상현·최지윤·박재욱·문은솔

〈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

연구보고25-대안01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방안 : 보통교부금 개선 가능성 검토 / 남수경
연구보고25-대안02	지속가능한 대안교육을 위한 재정지원방안 연구 / 함승수·이시효·박현정·김희정
연구보고25-대안03	2025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패널조사 / 하형석·최인재·전현정·이지숙·신원규

〈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연구보고25-위센터01	위(Wee) 뉴스레터 / 김영지·김소연·주예찬
연구보고25-위센터02	제14회 위(Wee) 희망대상 우수사례집 / 김영지·김승경·정춘헌·김영인·주예찬
연구보고25-위센터03	문제행동별 개인상담 개입 지도서(중·고등) / 김영지·김승경·김영인
연구보고25-위센터04	2025 위(Wee) 클래스 및 센터 운영 가이드 / 김영지·양하나·정춘헌
연구보고25-위센터05	2025년도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 김영지·김승경·서고운·전현정·이정민·최홍일·양하나·이수민·김소연·정춘헌· 김주영·문세진·김다인·김영인·주예찬·이유진

〈 학업중단예방지원센터 〉

연구보고25-학중0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꿈지락 활동집 / 김성은·이진아
연구보고25-학중02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백혜정·황여정·유성렬·전예빈·정유경
연구보고25-학중03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기초분석보고서 / 김희진·백혜정·황여정·전예빈

자 료 집

〈 세 미 나 〉

- 세미나25-01 2025년 17개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1차 협의회 (25.3.27.)
세미나25-02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발대식(1차 세미나) (25.6.13.)
세미나25-03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중간보고회 (25.8.12.)

〈 위 크 솟 〉

- 워크숍25-01 202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자료집
(25.7.31.-25.8.7.)
워크숍25-02 가정형 위(Wee)센터 워크숍 (25.8.11.)

〈 포 럼 〉

- 포럼25-01 고립 은둔 청소년 삶 실태 및 정책과제 (25.3.26.)
포럼25-02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25.4.29.)
포럼25-03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책과제 (25.4.29.)
포럼25-04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_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25.7.28.)
포럼25-05 인구감소시대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방안 모색 (25.8.26.)
포럼25-06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청소년시설 추진방향 모색 (25.11.11.)
포럼25-07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보호 정책과제 개발 (25.11.19.)
포럼25-08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는 청소년 AI시대의 책임과 권리 (25.11.27.)
포럼25-09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성과 및 향후과제 (25.12.4.)

〈 콜 로 키 움 〉

- 콜로키움25-01 선주민과 이민자간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 (25.4.17.)
콜로키움25-02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25.5.13.)
콜로키움25-03 청소년 유해약물 정책 관련 해외사례 (25.8.26.)

〈 기 타 자 료 집 〉

- 자료25-01 2024 대안교육기관 교육 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자료25-02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제2판
자료25-03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3판
자료25-04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가이드북
자료25-05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1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5-06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2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5-07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3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5-08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가이드북
자료25-09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1차 설명회
자료25-10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2차 설명회
자료25-11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5-12	2025년 제12회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자료25-13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3차 설명회
자료25-14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가이드라인
자료25-15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자료25-16	청소년 부모·한부모 지원 매뉴얼 (2판)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1호(통권 11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2호(통권 11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3호(통권 11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4호(통권 119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154호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와 지역자원 연계: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155호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의 정책방향
156호	OECD 국가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157호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158호	청년 온라인 커뮤니티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NYPI Bluenote 통계 〉

86호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 : 사이버도박
87호	청소년 근로 실태 및 권리 보장 현황
88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24년) 데이터 구축 및 주요 조사 결과
89호	청소년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지원방안
90호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요 지표 결과

연구보고25-기본02

**20대 초반, 후기청소년은 왜 금융이해력이 낮은가?
: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 방안 연구**

인 쇄 2025년 12월 22일

발 행 2025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백 일 현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다원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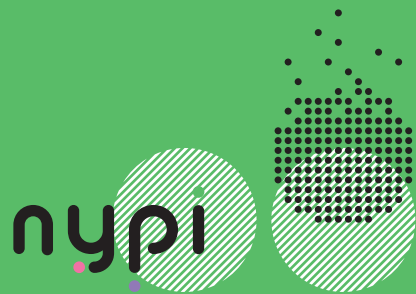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446-3

연구보고25-기본02

20대 초반, 후기청소년은 왜 금융이해력이 낮은가?: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 방안 연구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
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446-3